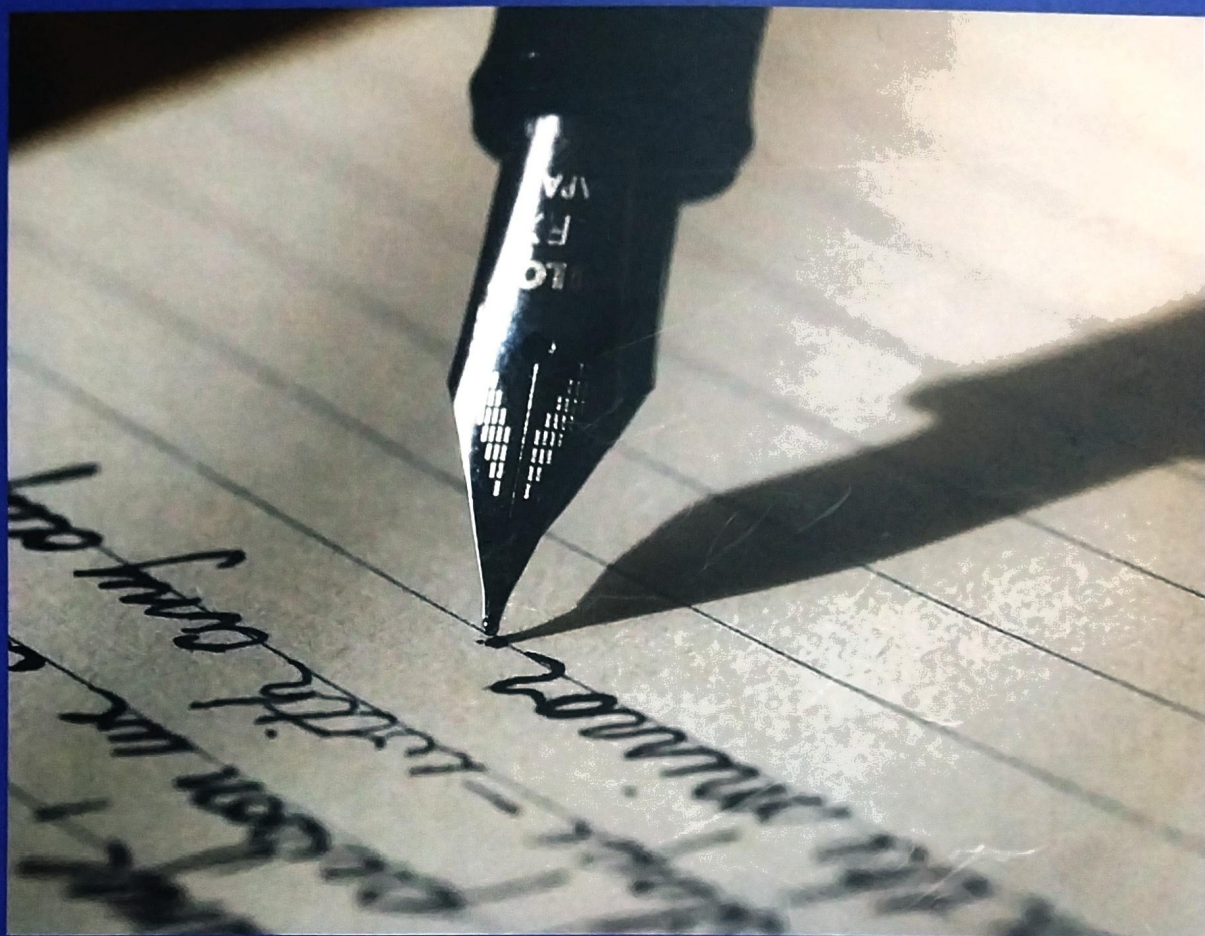




쓰다, 도전하다, 공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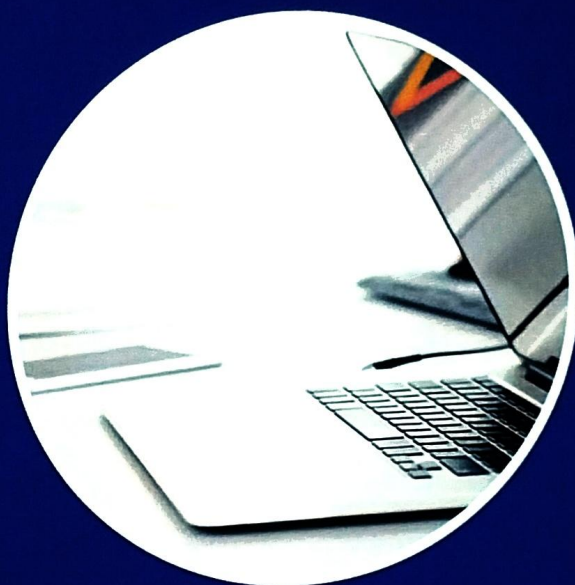
라이팅챌린지 3주 프로젝트 vol.2

LOG OF

2023/05/08-

2023/05/26





라이팅 챌린지-3주 프로젝트

2023.05.08-2023.05.26



2023/05/17

wednesday, am 7:56 | 30원음
김양선

#8일차 키워드 : 이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작은 경쟁이나 유혹, 시험과 마주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하기도, 지기도 하고, 소소하게 혹은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요. 지금만 하더라도 더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일어나서 수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13



0



2023/05/17

wednesday, am 8:54 | 16원음
김시현(러시아학과)

#8일차 #이기다

중학교 시절 나는 야구선수 한명에게 흔히 말하는 입덕을 하여 자연스레 팀 자체까지 좋아하게 되었다. 매경기를 tv로 챙겨보고 야구경기장에도 종종 응원을 하러 갔던 기억이 있다. 9회라는 긴 이닝동안 경기를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응원이 부르는 재미에 직관가는 맛이 있었다. 그런데... 자고로 어떠한 스포츠를 보다보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길 바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내가 야구를 볼 때마다 내 팀이 이긴적이 거의 손에 꼽는다.

항상 지거나 무승부였다.

승요와 패요, 승리요정과 패배요정이라 불리는데 난 항상 패요여서 슬펐다. 결국 내가 좋아하던 선수마저 은퇴하고 경기마저 이긴 적이 거의 없으니 난 점점 야구 관람과 멀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관심이 많이 떨어졌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겠지?

한번 스포츠에 빠졌다가 나와도 다시 새 스포츠에 입덕하게 된다. 어쩔 수 없나보다. 난 최근 축구에 빠져버렸다. 3-4시간 동안 하는 야구와 달리 90분 안에 끝나는 일종의 단판승부라 더 짜릿하다. 사실 이팀은 올해 성적 저조로 감독과 팬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팬들이 감독을 이겼다. 감독은 결국 사퇴해버렸다. 그래도 절치부심하여 요즘엔 경기를 볼 때마다 이기고 있어서 행복하다.

앞으로도 승요가 되고싶다!

스포츠의 매력은 무궁무진 하다. 경기를 뛰고있진 않지만 마치 내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있는 기분이 들고, 승부욕이 없다가도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승요였던 적이 많으신가요?



12



8

서원준 (중국학과)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농구볼 때 봐야겠어용 이기는장
주재형(청각학과) 스포츠를 즐겨보진 않지만 월드컵이나 올림픽때만큼은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바라고 그 열정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되면 왜

스포츠가 이렇게 인기있는지 체감하게 돼요! 좋은 글 감사해요!

김상민 생명과학과 스포츠에서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것만큼 짜릿한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기기만을 바라면서 응원하게 되어 ㅎㅎ **심지범 (경영학과)** 짜릿한 경험때문에 이기는거에 집착하는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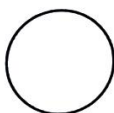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야구를 좋아해요!! 소심하게 말하자면 기아를 좋아합니다 ㅎㅎ 항상 티비에사만 보던 경기를 이도 덕분에 같이 직관하게 됐어요! 그때 봤던 경기장의 느낌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네요 ㅎㅎ 사실 경기를 직관한다는 것에 이미 기분이 좋아서 팀의 승패와 상관없이 경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2:1로 기아 팀이 이겼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ㅎㅎ 심지어 경기 중 홈런도 봤구요!(비록 상대팀이었지만..) 시현님의 글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그 때가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야구는 잘 모르지만 축구는 월드컵 때마다 봐왔어서 친근하네요! 제가 보면 항상 지는거 같아요...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경기만 보지만 참 스포츠는 매력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응원 영상들을 보면 한 번쯤은 저도 현장에서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야구보다 월드컵이나 피겨는 무조건 챙겨보는 편이었어서 너무 공감이 돼요 ㅎㅎ이기는 팀이면 너무 재미있죠



2023/05/17

wednesday, am 9:24 | 15월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8일차 #이기다

난 누군가를 이기고 싶었다.
공부든 운동이든 내 자신이든
그리고 나는 이길 때 희열을 느낀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부질 없음을 느꼈다.
사회는 경쟁을 부추겼고 적자생존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에 반기를 든 사람은
경쟁이 아닌
또다른 유형으로 수익을, 부를, 인기를
그리고 마음을 얻었다.

공유하는 삶, 함께하는 삶,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

경쟁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환경에서 더 좋은
가치가 만들어짐을
보았고 앞으로는 더 넓게 확산될 것이라
믿는다.

유튜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다양하시지만
그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웃음을, 깨달음을,
지혜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확산되고 지식을 전수한 사람은 부도
함께 얻는다.

이전처럼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무기로 남을
이겨먹고
위에 올라서는 사회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성숙해졌다.

경쟁이 불가피한 지대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동체를 위해,
환경을 위해, 인류를 위해 발전하는
비즈니스가
또는 사람이 현재보다 더욱 가치있고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이기는 것엔 희열이, 기쁨이 순간 오지만
그 뒤엔 불안감이, 두려움이, 슬픔이 따른다.

누군가를 이긴다는건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분열시킨다.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기도 한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보다 서로를 감싸주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다른 영역으로 내 자신을 이기는 것만큼
짜릿하고
성취감이 큰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누군가를 이긴다는게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 12 💬 9

김시현(러시아학과) 경쟁사회라는게 날이 갈수록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두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모든 사람이 수능을 잘보길
바랍시다라는 말을 처음 봤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기대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을 텐데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적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니 경쟁은 불가피해도 모든 사람을
응원한다는 마음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구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현영(법학과) 저도 누군가를 이기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함께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이겼을 때, 더 행복하더라고요!!! 공감
가는 글이었습니다.

김상민 생명과학과 최현영(법학과)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ㅎㅎㅎ 같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선의의 경쟁은 어느정도
필요하겠지만 집착에 의한 지나친 경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상민님의 글처럼

공동체로서 이길 수 있다면 그땐 사회가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보단 함께할 때 생기는 아이디어가
더 다양하고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현실에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추어져 있어
정작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서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가 오길
기다리기 보단 현실의 눈을 뜨고 제가 찾으려구요.
상민님 덕분에 좋은 다짐을 하게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상민 생명과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
말씀처럼 현재도 존재하기에 저도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점차 더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그런 사회가 되겠지만 조금 더 빠른 시일로 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공감해주고 같이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글의 마지막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항상 이기면서 살고 싶지만 결국 제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게 되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사실 너무 경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너무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같이 살아나갈 동료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05/17

wednesday, am 9:52 | 17일음

서원준 (중국학과)

#8일차 #이기다

난 항상 승부욕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무엇이든 무엇할 때 이길려고 하는 욕심과
더불어 지면 안될 것 같은 부담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길려고 하는 승부욕 덕분에 아직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영어공부도 틈틈히 하고 있으며, 누군가 나의 희망진로가 같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경쟁력을 갖춰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 이기려는 마음 가짐 덕분에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은 것 같다. 이기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의 중요성이 자연스레 길러져서인지 이기려는 마음 또한 중요하다 생각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기고, 이기고자 지금 어떤 노력하시나요?~?

😊 14 💬 8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는 나태해짐을 이기기 위해 방대한 계획 말고 작은 일들 위주로 계획을 짜보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제가 싸우는 대상은 항상 제 자신이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김상민 생명과학과 이긴다는 말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네요. 점점 성장하기 위해 이기려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는 원준님과 반대로 승부욕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정도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가끔은 이런 마인드가 독이 되더라고요. 욕심이 없으니까 공부도 엄청 열심히 안 하고 나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버리기 위해 욕심을 가지고자 모든 일에 집중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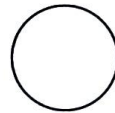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기려는 마음을 가진 원준님의 글을 읽으며 제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승부욕이 없어서 안되면 다시 도전해 이기고자 하는 것보단 다른 일을 찾거든요. 물론 너무 하나에만 집중에서 승부욕을 불태우면 시선이 좁아지기 마련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행동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원준님도 너무 모든 걸 이길려고 하는 것 보단 가끔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여유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덕분에 좋은 배움 얻어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승부욕 있다는건 열심히 하고자 하는게 명확하고 의지가 있다는게 느껴져서 부러워요! 저는 승부욕이 약한 편이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데 가끔은 너무 승부욕이 없는게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은 수업을 열심히 듣기 위해 잠을 이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끊임없이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끈기가 부럽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는 생각보다 승부욕이 없는 편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욕심은 많은데 끝까지 해내는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023/05/17

wednesday, am 11:42 | 17월음
최현영(법학과)

#8일차 #이기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달려라 하니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내 슬픔을 들키는 것이 싫었다. 속상한 일이 생겨도, 슬픈 순간이 와도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방에 들어와서 혼자 울고는 했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어릴 때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끔은 저도 된다고..

다행히 오진으로 판명 나서 잘 지내고 있지만 내가 21살 때, 아빠가 희귀병이 생겼고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청천병력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믿겨지지 않았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싶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거짓이 아님을 너무 분명히 말해 주고 있었다.
슈퍼맨 ♂ 같던 아빠가, 아빠는 안 아파~!!!
내 걱정은 마려~ 하시던 아빠의 하얀
거짓말에 바보처럼 믿고 살아왔다.
아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묵묵히 버티고
있어서 몰랐다. 아빠가 없는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그 한 달의 시간은 어느 것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때도 난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까지
무너지면 아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책상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엄마와 언니들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참다 참다 울음이 터졌다. 울고
또 울었다. 그때, 알았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해 주고 싶다. 저도 된다고. 슬플
때는 슬퍼하라고. 나를 돌봐주라고.

😊 13 💬 6

주재형(청각학과) 어떤 상황에서는 저도 괜찮아요.
인생이라는게 항상 승리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실패에 상처받지 않는 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언제나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너무
지친다면 한 번은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을 발판 삼아 노력하면 더 나은 자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시다

서원준 (중국학과) 이러한 경험이 약이 될
것이에요 화이팅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슬플 때는 슬퍼하라는
현영님의 말이 저에게 너무 와닿네요. 저는
가족에게 제 감정을 최대한 들어내지 않으려고
힘들 때도 꾹 참아내며 버텨요. 울기보단 자면서
그 맘을 좀 덜어내죠. 근데 이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초라해지고 힘든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힘들 때마다
혼자서 울곤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슬픈
내 모습을 인정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처음만
어려웠을 뿐 그 이후론 오히려 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현영님 덕분에 제 슬픔의

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슬플 때 참으면 병이 되니
가끔은 울고 싶을 때 우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진이었다니 다행이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습니다ㅠ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슬플때 울고 감정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참는 것이 답은
아니더라고요, 잘 정리해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23/05/17

wednesday, am 11:54 | 16views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8일차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승부보다 명예로우며 대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의 자신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처럼 사소한 것도 좋다. 자신은 누구보다
강한 적이자 동료이며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어렵게 버티기도 한다. 우리는 체력 시험을
보고 작년의 나와 비교하곤 한다.

나는 안고 갈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승부를 건다.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열심히 달렸고, 어느새 선두에서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손해도 질투도 없다. 마치
과거의 내가 메달을 수여하는 것과 같다.
목표가 없는 이가 있다면 자신과 싸우라고
말하고 싶다.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상대가 될
테다.

😊 13 💬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상대가 나 자신이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을 존중하는 충민님의 글에서 경험이
느껴지네요. 어제보다 나은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신유정 (심리학과) 내 자신은 가장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면서 이기기 쉬운 존재가 될 수
있기도 하죠. 공감이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가장 공감되는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어떤 경쟁이든 가장
어려운 것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놓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를 극복하고 공부하러 가는 건 절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기에 이겼을 때의 그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했다는 그
뿌듯함.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저도
모르게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충민님도 저도 그럴 날이 꼭 올 거라
믿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나 자신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경쟁 상대라는 것에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나 자신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여,, 어쩌면 "나" 이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하고 그만큼 좌절도 많이하게 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3/05/17

wednesday, pm 12:41 | 22원음
심지범 (경영학과)

#8일차 #이기다 #승리 #victory #우승
이기는것, 승리하는것, 우승하는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다 하니깐 강원도 화천군에있는 제
27보병사단인 이기자 부대가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해체됐지만..

항산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부대로
알려져있는데요!

그런거 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를 하여 힘을 기르는 방법, 독서를 하면서
지식과 상식을 쌓는 방법, 공부부를 하여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의 이기는 게임을 위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첫번째 인거 같습니다!

이기다 하니깐 생각나는것이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재미있게 지금도 시청하고
있는 tvn 드라마 "미생"이 생각나네요 항상
지기만 했던 장그래, 여러 경험들을 하고 나서
비로소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었던.

나는 돌덩이 아무리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하현우의 돌덩이의 노래 가사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Hit me harder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갈잡은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켜봐

절대 꿈쩍 않고 나는 버터넬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야

난 말야

뚝뚝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 마
틀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야
난 말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 번 크게 한 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 11 💬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하도록...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하현우의 돌덩이를 들으면 파워풀한 느낌이 들어 무엇과 싸워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노래를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쉽진 않겠지만 인생에서 이기는 게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이기자 부대 오랜만이네요 ㅋㅋ 화이팅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가 많이 지칠 때마다 들었던 노래가 하현우의 돌덩이였는데! 지범님 덕분에 유튜브로 찾아서 들어보고 싶네요 ㅎㅎ

나와의 싸움은 힘들고 고난이 늘 따르지만
돌덩이라는 노래 처럼 단단한 나를 까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 곳곳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하죠! 지범님도
저도 돌덩이처럼 단단한 삶을 통해 성공의 순간을
만끽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미생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드라마였죠 ㅎㅎ 이태원 클라쓰 두세번씩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재미있었습니다! 돌덩이도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엄청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혁 이기자 부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됐군요? 좋은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2023/05/17

wednesday, pm 2:01 | 20원음

조인영 심리학과

#8일차 #이기다

저는 거의 매일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갑니다.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매번
자신과의 싸우는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무겁게, 더 많은 횟수, 더 많은
세트를 하며 지난날의 나를 이길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거나
마무리 되기 때문이지요.

그 외의 다른 싸움으로는 토익이 있습니다.
영어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공부하기
위해 시험을 정기적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는 날도 있지만, 꾸준히 점수를 오르는
것 보면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승복감을 느끼죠.

여러분들은 과거의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 자신과잉 싸움을 통해 더 나은 스스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 11 💬 8

김상민 생명과학과 스스로를 매일 이기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응원이 느껴지네요. 아자아자!!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는 조금 왜소하고
마른 몸 때문에 음식과 싸웠습니다. 한때 살이 찌고
싶어서 무작정 많이 먹기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운동을 해야겠더라구요. 인영님처럼
저도 운동을 해서 더 나은 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주재형(정각학과) 영어를 십년 넘게 공부했는데
토익에 무너지는 저 자신에게 진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때 끈기가 정말 중요함을
느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정말 멋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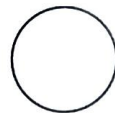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스스로와 싸워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영님의 글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꾸준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함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살을 빼거나 찌우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처럼요. 그래서인지
인영님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가끔씩 그 꾸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인영님의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실히
임하자고 다짐하게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꾸준함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건데 2가지나 꾸준히 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글을 읽고 저도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꾸준함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ㅠㅠ 진짜 운동이랑 영어하시는거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2023/05/17

wednesday, pm 2:26 | 16원음
신유정 (심리학과)

#8일차#라이팅챌린지

'이기다'와 '합리화' 나는 매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거나 합리화하거나 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항상 이기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진다. 그러다가 한번씩 꼭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수강신청이나 대외활동이나
조별과제에서 자아실현의 욕구와 함께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조금은
편한 것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지고 신청을 한다. 평소에는 무기력과 여러
문제 때문에 쉽게 지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지만 이상하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만큼은 편하고 싶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힘든 길을 선택한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물들을 보면
힘이 나야 하는데 더 피곤해진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겨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나 깨달음이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말고도 매일 세운
목표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자존감이
탄탄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 책상 위 탁상 달력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날에 칭찬 도장이 찍혀져 있다.
도장이나 스티커 같은 표시로 '이겼다' 라는
승리의 표시를 해둔다면 좀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번 챌린지도 끝까지
완주하여 마지막 날 승리의 표시를 하고 싶다.

😊 11

💬 8

김상민 생명과학과 스스로의 여권에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도장 찍는 성취감은 자신감과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자기방어기제로 이정도면 됐어, 나만 안하는 거 아니잖아? 등의 말을 종종 하는 저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번 라이팅 챌린지에서는 끈기를 끝까지 해보려고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원준 (중국학과) 저희 함께 완주해요 화이팅!
김한나(경영학과) 달력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날 칭찬 도장을 찍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같아요! 저도 챌린지 완주를 하고 싶어서 다이어리에 하루하루 체크하고 있어요;) 같이 끝까지 잘 완주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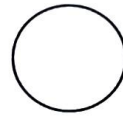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칭찬도장이 쌓여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글쓴이님의 챌린지 완주를 응원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내 자신과의 싸움 후 결과물들은 잠시 바라보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 보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얼마남지 않은 챌린지 끝까지 같이 힘냅시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정님의 글처럼 이기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배우는 것은 있기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말하자면 저는 실패를 통해서도 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린 실패를 결과적으로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이를 극복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전 실패를 통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단순히 좌절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나의 승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힘들 듯 실패는 절대로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정님도 저도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축하해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합리화 하면서 저는 잘 안하게 되더라고요ㅠㅠ



2023/05/17

wednesday, pm 2:53 | 17월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8일차 #이기다

고등학생인 나는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공부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일이 너무 많아 스스로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다. 친구들과도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고등학교 내내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혼자서 수업을 듣는 건 큰 문제가 없었다.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잠자코 듣기만 해도 괜찮았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팀플을 진행할 때는 혼자인 게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 마냥 느껴졌다. 모두가 깔깔 웃어대며 급식실로 향할 때 난 구석에 있는 먼지와도 같았다.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 혼자 밥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나였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 틈에 투명인간처럼 끼어서 마치 친구인냥 자연스럽게 같이 앉아 먹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밥을 우걱우걱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팀플을 할 땐 더 최악이었다. 아무도 나와 같이 앉지 않았다. 난 반에서 늘 시든 깍두기였다. 선생님은 항상 마지막까지 팀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 어쭙잖게 쳐다보셨고 나는 팀의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 들어가는 존재였다. 비록 시든 깍두기였어도 제 역할은 하고 싶어 이것저것 얘기해보지만 늘 무시당했다. 그리고 반 애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속닥거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순 없지만 한 단어만큼은 뚜렷하게 들렸다. 내 이름. 키득거리리는 그들 앞에서 난 다시 먼지가 되었다. 이런 나에게 하루는 의미없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일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내 모습이 참 초라해보였다. 발걸음도 너무 무거웠다.

힘들어서라기 보단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큰 걸까? 발을 질질 끌며 점점 문에 가까워지는 내 뒤로 누군가 등을 쳤다. 친구였다. 중학생 때 정말 친했던 친구. 고등학교에 올라온 이후로 떨어지면서 연락도 뜸해졌길래 날 잊은 줄 알았다. 그 친구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오랜만이라고. 난 대답할 수 없었다. 오래된 친구의 직감일까?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나를 붙잡고 노래방으로 달려갔다. 마음은 가기 싫었지만 몸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다. 노래방에 들어서자 친구가 내 손에 마이크를 쥐어줬다. 맘껏 소리를 지르라고. 난 울면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다. 한참을 지르니 마음이 좀 안정되었다. 친구는 날 조용히 토닥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 날 우린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침대에 누워 하루를 생각해본다. 내 친구가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 누워있지 못했겠지. 아주 짧았지만 그 친구의 손길이 내 발길을 돌렸다. 눈물을 닦으며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린다. '네가 강한 아이란 걸 난 알아. 하지만 넌 혼자 아니야. 내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힘들었던 순간에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날 위한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 💬 9

김상민 생명과학과 나를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것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함께 이겨내주는 상대가 있다면 그 짐이 많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작성자분의 이야기가 다만 먼 이야기같지만은 않아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이겨낸 작성자분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이겠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뭐든지 이야기를 나눌친구가 있다는 건 인생이 성공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내용이 저의 학창시절과 비슷해서 많이 와닿네요... 힘들었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누구라도 있으면 심적으로 정말 위로가 많이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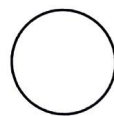
김한나(경영학과) 생명의 은인인 친구네요:) 힘든 고등학생 생활을 하루 하루 끝까지 이겨내신 하영님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강하게 이겨내 봅시다 응원할게요

서원준 (중국학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는 감정이 느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고 알아주는 친구라니 좋은 분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것은 행운인 것 같아요. 하영님이 얼마나 친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것 같은 글이었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힘들때 옆에 있어주던 친구가 성공한 인생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7

wednesday, pm 4:10 | 17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이기다

걸었다. 걷고, 걷고. 또 걸었다.
파묻히는 발목이 앞 길을 붙잡아도. 씬없이 내리는 순백의 눈이 뺨을 적셔도. 차가운 공기가 자신의 숨을 베어내도. 계속 걸었다. 뒤에 두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이겨내자,
이겨내자,

이겨내서,
이 미치도록 힘겨운 삶을 살아...

삶을 사는 건 고통스럽다.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면 좋을텐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 아직 해가 떠오르고, 달이 지며, 이 심장이 맥동하는 한. 이겨내야 한다. 힘겹겠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겨운 일만 있겠지. 그럼에도 시간이 이 세계를 스치는 동안,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나는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이어지겠다는 의지, 그것만이. 내가 설산에 두고 온 것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다.

최근에 읽었던 글이 있는데, 주인공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물건 때문에 가족을 잃고, 인생을 잃어버리지만. 누군가와 약속 때문에 쓰디쓴 시간을 살아가는 캐릭터였는데,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의 삶의 방식이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티어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앞으로의 시련들을 이겨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기다, 라는 주제어를 보고 그 인물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 8 💬 6

주재형(청각학과) 끈기와 열정이 짧은 글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 주인공이네요. 내가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책 속 주인공이 어떤 상황이든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단단한 인물 같네요:) 힘든 상황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이겨내는 주인공처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주인공의 심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어떤 글이었는지 궁금해지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은 그 끝에 약간의 빛을 봤을지도 궁금하구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삶을 쉽게 살아가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삶이 어렵기에 그만큼 매력이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죠. 예진님의 글 중 심장이 뛰는 소리에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아직까지도 신나게 뛰고 있는 심장에게 멈추라고 말하기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 예진님도 저도 이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승리의 깃발을 꽂아보자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힘든 일을 겪었을 때의 대처했던 법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시련도 이겨냈을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7

wednesday, pm 4:51 | 12월음
이유빈(사회학과)

#8일차 #이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기다'는 '게임이나 경기에서 이기다.'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다'의 의미 말고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요즘 사회는 모두를 이긴 1등만을 봐주는 사회가 되었다. 꼭 1등 만이 좋은 것은 아닌데 말이다. 실패를 하면 '너는 고작 저것 밖에 안되냐' 혹은 '너가 노력을 안하니깐 실패하는거다'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다. 그런데 도전한 것에 대해 실패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걸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 또는 주변에

대해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 속에는 자신만 아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실패를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이런 자세는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행동이다.

실패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해 관대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실패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뎌 성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실패한다고 해도 주눅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는 그 실패들이 쌓여 누구보다 멋진 성공을 이룰거니까.

😊 7 💬 5

주재형(청각학과) 2등을 하면 2등이나 했구나라고 칭찬해주기보다는 1문제만 더 맞혔으면 1등이었을텐데 아깝구나 라고 개인적인 아쉬움을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토로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인 듯 합니다. 1등을 가장 큰 가치로 느끼니 말이에요. 실패에 관대해져야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어과)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됩니다 ㅎㅎ 화이팅이에요!

이유림(경영학과) 운동선수들도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글에 나와있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겠죠 사실 은메달도 정말 대단한 결과임에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즐기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가 조금은 변화하길 바랍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 혹시 그거 아세요? 1등, 2등, 3등 중에 가장 행복한 건 3등이라는 거요. 1등은 왕좌를 지켜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편히 살지 못하고 2등은 간발의 차이로 1등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분해하지만 3등은 자신이 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한대요. 그래서 저는 3등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3등은 1등의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실패작을 오히려 좋은 경험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유빈님의 글처럼 실패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죠. 즉, 실패가 없다면 성공을 승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빈님도 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자구요! 드디어 성공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05/17

wednesday, pm 5:31 | 15월음

주재형(청각학과)

#8일차 #이기다 #치킨게임 #상호확증파괴

여러분은 치킨게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먹는 치킨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려야겠네요!

치킨게임(chicken game)은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실제 게임이라고 해요. 젊은이들이 양쪽에서 마주보고 자동차를 가속시켜요. 마치 같은 선로에서 충돌할 것 같아요. 양 쪽 다 핸들을 꺾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아니까 누구는 핸들을 꺾어야죠. 둘 다 꺾거나요.

이때 둘 중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게임이에요.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로, 꺾지 않은 사람은 용기있는 자로 여겨지죠. 바로 여기서 겁쟁이라는 단어가 chicken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치킨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치킨게임은 현대 사회에서도 아주 잘 찾아볼 수 있어요. 기업과 기업간의 가격경쟁이 그 예시죠. 둘 다 물건의 가격을 내리면 결국은 자본이 많은 기업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경쟁은 결국 시작부터 끝이 보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본력이 강한 기업에게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아요.

앞선 두 예시에서 개인, 기업을 들어보았어요.
이제 이 다음은 무엇일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국가 간 치킨게임입니다.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치킨 게임은 미국과 소련연방 간의 무기, 특히 핵무기 경쟁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일본의 패망 이후, 양국은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경쟁에 치열한 때였어요. 결국 197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핵무기 감축 협상에 의해 점차적으로

감축되었죠.

치킨게임의 다른 말은 소모전이에요. 깔끔하게 승리하기란 불가능하고, 어느정도 출혈을 감수해야만 하죠. 후에 이득을 독점할 수 있을지라 할지라도요.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서도 기관총의 강력함 때문에 오랜 소모전이 이어졌고, 스포츠에서도 의미없는 체력소모전만 하면 재미가 없듯이 이런 형태의 경쟁은 피해야 해요.

우리 모두 건강한 경쟁을 하자는 마음에서 써본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 💬 6

김한나(경영학과) 수업 시간에 종종 들었던 게임이라 반가운 글이네요! 너무나 위험한 게임인데 즐긴 사람들이 정말 강심장이 아닌지.. ㅎㅎ패권경쟁이 치킨게임의 대표적인 예시인지 몰랐는데 새롭게 알고갑니다:) 건강한 경쟁은 좋은 거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정보네요 잘 보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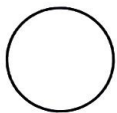
박진옥(사회학과) 치킨게임이라는걸 처음 알았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다는게 놀랍네요..!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뭔가 게임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용기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는 사람은 더 대단하구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치킨게임 이름만 종종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처음 알게되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기업이나 국가 간의 과도한 경쟁은 서로 이득될 게 없다고 느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치킨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처음 알게 됐어요 덕분에 새로운 지식 얻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승리하기 위해선 출혈도 감수해야한다는 재형님의 글에 공감이 되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 출혈을 실패로 보고 대충 막으려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많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즉, 실패를 받아들이길 잘 알아야 승리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오히려 단단한 승리로 가는 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해줘야 해요. 그러니 재형님과 저도 실패는 긍정적인 것으로 박아들일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덕분에 오랜만에 치킨게임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2023/05/17

wednesday, pm 5:39 | 15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8일차 #이기다

요즘 나는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 살기 위해서하고 있다. 4학년이 되니 온몸 구석구석이 안 아픈 곳이 없다. 운동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 꾸준히 하고 있지만 어째 운동할 때가 더 아픈 거 같다.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은 처음인지라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씩 따라 하고 있는데 초보티가 날까 걱정을 하고 있다. 사실 이 걱정도 헬스장 가기 전에 잠깐씩 하는 거지 막상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와 힘들어 죽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운동기구를 드는 순간마다 내 한계와 싸우는 기분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한계와 싸워서 이겼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매일 내가 이기진 않는다. 운동 가기 싫어서 집에서 뒹굴거리게 되는 게으름과 싸워서 진 적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한계와 싸우기 전 게으름과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2일차 축제에는 연예인이 온다던데, 과연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



13



9

라헤민(사회학과) 나 자신의 한계와 싸워서 이긴다는게 인상깊고 공감아 됐어요. 우리 모두 파이팅!!

김한나(경영학과) 운동을 하면서 한계와 싸워서 이기는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세요! 어떤 목적이든 운동하는건 좋은거 같아요! 마음 먹기까지가 어려워서 ㅎㅎ 오늘도 한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우리 모두 목적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노력해요 화이팅!

주재형(청각학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벽이 아닌가 싶네요. 뭐든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갑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박진욱(사회학과) 꾸준히 운동하는게 정말 어려운건데 화이팅입니다! 저도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될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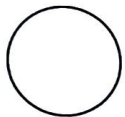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운동을 가기까지는 힘들지만 오히려 운동을 하고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표현하더라구요 저도 운동을 해야하는데 그 첫발걸음을 떼기가 참 쉽지 않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전 정말 체력부족인데도 운동을 시작할 엄두가 안나던데 ...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글쓴이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운동을 해야하는데 매일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항상 숨쉬기만 반복하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매일 이기진 못해도 운동을 꾸준히 가려고 하는 사빈님을 보며 저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요. 전 다짐만 할 뿐 행동으로 나서진 않지만 다빈님은 이미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덕분에 저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마음을 다시 잡아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운동 작심삼일이
되버리더라고요ㅠㅠ 꾸준히 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2023/05/17
wednesday, pm 7:33 | 12월음
박진옥(사회학과)

#8일차 #이기다

나는 자주 아팠다. 어렸을 때부터 또래에 비해
작기도 했고
몸도 튼튼하지 않았다. 특히면 아팠고
학교에서도 유명했다.
아파서 잘 못나오는 애, 결석 제일 많은 친구,
매번 조퇴하는 친구가 나를 설명하는 모든
말이다.

남들과 달라서 아플 때가 많았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오래된 간호사분들이 아니고서는
혈관을 찾지 못해 몇번이고 주사 바늘을
찌르고 쏘시고 또 찌르고를 반복하고
여러명의 간호사분들과 교수님까지도 오셨던
적이 있을 정도로 라인 잡기가 어려웠다.

혈관이 너무 얇아서 진짜 위험하다.
조심해야한다.
위벽은 얇아지다 못해 잘못하면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라, 남들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수치들, 잘못하면
중학생인데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장도
약해서 자궁도 약하다.
소화 기관이 약하니 조심해야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한다.
죽을병까지는 아니었지만 매번, 꾸준하게
아팠고 남들과 달라서

아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의료진들이
걱정하는 말과 걱정의
그 시선들이 감사했지만 스트레스였다.

우려했던 일들도 있었다. 혈관이 터지기도
했고, 종양이 생겨 수술도
받았다. 그 흔한 생리조차 진통제를 하루에도
10알 가까이 먹어야
겨우 넘어갈 수 있었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 괜찮아졌다. 매일 병원에
가고 한달 병원비로 100만원이 우습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도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비해서 나아졌다.

그렇게 아팠는데 이틀에 한번 수액을 맞던
애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게, 나아진 내가 이김을 증명하는
것 같다.

아픔은 내가 이겨낸 가장 큰 일이다. 내가
이겼다.



7



4

주재형(청각학과) 너무 속상한 일이네요.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진옥님이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다 커서 아픈 것도 서럽고 힘든데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하루들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자신의 아픔을 딛고 꿋꿋이
버텨준 진옥님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을텐데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진옥님을 보며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옥님도 저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기에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그
아픔을 한 번 더 이겨내봐요! 그 끝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아픔을 잘 이겨준 진옥님께 글로서 박수를 대신해 드리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아이고 TTT 앞으로 행운 가득하고 좀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게요!



2023/05/17
wednesday, pm 8:48 | 12월음
박지원(사회학과)

#8일차 #이기다

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대상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눌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자신과의 싸움보다 자신과 잘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언어의 온도> 중에서

경쟁도 싫고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 조용히 사이좋게..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조금 슬픈 거 같다.

😊 9 💬 5

이유림(경영학과) 사실 평범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도 평범이라는 수준도 다 다르니까요

주재형(청각학과) 언어의 온도를 읽은 사람으로서 어? 하게 되네요. 과도한 경쟁이 필요없는 사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원님 글처럼 평범한 삶이 가장 어렵죠. 이상하게 단어적으로만 보았을 땐 쉬워 보이는 데 왜 실천으로 옮겨지면 그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아직 그 해답은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이기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무언가를 이김으로써 성취를 얻고 또 다른 일에 대한 동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삶이 더 어렵겠죠? 하지만 삶은 굴곡이 있어야 배울 점이 더 많은 것 같기에 전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 같네요 ㅎㅎ 덕분에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데 제일 어렵다는게 너무 공감가면서도 많이 와닿네요..ㅠ **서원준 (중국학과)** 공감이 갑니다 .. 그래도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 해요 화이팅입니다아양



2023/05/17
wednesday, pm 9:12 | 13월음
김용후(법학과)

#8일차

#이기다

'이기다'는 것은 시합이나 내기 등에서 재주를 겨루어 우위를 차지함을 말한다. 관련하여 세계를 뒤바꾸어 놓은 한 대결에서의 승리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역사적 대결은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렸던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국이다(이른바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딥마인드사가 내놓은 알파고는 인공 신경망과 강화학습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바둑 모델이다. 기계 학습 기반의 이 컴퓨팅 모델은 놀라운 바둑 실력을 보여줬다. 수많은 기존의 대국 기록을 분석, 학습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과의 대국을 통하여 약점 보완과 개선 작업을 거듭해 갔다. 총 5번의 대국에서 알파고는 이세돌을 상대로 4경기의 승리를 획득하자 많은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바둑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 경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팅 모델이 인간 체스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지만, 체스보다 복잡한 경기 특성 탓에 바둑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넘어야 할 하나의 산 같은 종목으로 여겨졌다.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고, 상대의 대응을 예측하며,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의 능력은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 프로 기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이자 이정표로 기록되게 된다. 알파고라는 모델이 보여준 기술적 발전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큰 잠재력과 복잡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갖는 많은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과학 연구, 문제 해결, 창작 활동, 의사 결정, 데이터 분석 등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 언어통역, 언어처리, 의학,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혁신과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의 감소, 잘못된 정보와 편견의 확산, 해킹 가능성, 잘못된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 윤리적 문제, 기술 대기업의 권력 집중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긴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규범 및 가치관에 대한 논의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만이 기술이 비로소 사회 발전을 위해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자 주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화된 규범의 토대 위에 진정한 인공지능과 인간 지능 모두의 승리가 가능함을 우리는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 8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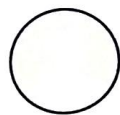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용후님의 글 덕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의 그 충격이 다시 떠올랐네요. 저는 그때 기술의 발전에 놀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마치 어렸을 때 보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과학에 지배된 저희가 인공지능을 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후님의 글처럼 지배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아직 인간이 해야 할 것들이 남은 것이죠. 저는 인간은 또 다시 승리할 것이라 믿어요! 덕분에 인공지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 등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항상 장단점이 공존하니까요 인공지능 분야가 많이 발전했으나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심비우스 에세이 주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용후님의 글을 보니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감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오 저도 바둑 좋아하는데 오랜만이네요



2023/05/17

wednesday, pm 9:59 | 10월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7일차 #걸다

‘목숨을 걸다’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 정도로 어떤 사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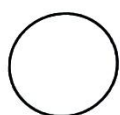
사랑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한 사람이
현재 내게로 와줬고, 이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든 구할 것이다. 이 사람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나의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목숨은 생명 그 자체이자 개인의 가치
자체이기에, 함부로 걸 수 없는 것이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어제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는지 업로드 안 되어있어서, 오늘
올립니다ㅜㅜ

😊 6 💬 2

주재형(청각학과) 어제 업로드가 안되셨다니
속상하셨겠는데요.. 목숨을 건다는 것이 그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말을 곱씹어봤어요. 사랑을
증명할 때 목숨을 거는 것 만큼 확실하고, 임팩트
있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 읽었어요 !!



2023/05/17

wednesday, pm 9:59 | 10월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8일차 #이기다

상대평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쟁
사회에서 승부를 가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승리를 통해 얻는 것이 있고, 패배를
통해 얻는 것이 있다.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나도 모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간은 왜 경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인간 사회에서 경쟁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걸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 9 💬 5

이유림(경영학과) 경쟁이 있기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경쟁은 사람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의 경쟁은 성장하게 만드니까요

주재형(청각학과) 기술과 문화의 발전, 발달은
경쟁심리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 같아요. 예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 예시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경쟁이 있어 사회가
운영되지만, 균형있는 경쟁도 하나의 빛일 것
같네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사회에 경쟁이
없었다라면 아마 지금까지의 발전은 이를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경쟁 없는 사회에선 잘난
사람도 없기에 평화로울 순 있지만 그만큼 나서는
사람도 없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래서
사회에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변질되어선 안되는 것 같아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집착이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 발전은 커녕 인간으로서
퇴보하게되는 길이니까요. 보민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의 대답은 이런데요 ㅎㅎ 나중에는
보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적절한 경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05/17

wednesday, pm 10:10 | 16월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8일차 #이기다

나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몸을 맡겼다.

때로는 넘어져도
안간힘을 다해 일으켜 세웠다.

슬프게도 아픔이라는 바람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난 기필코 바람을 이겨내리

겨우내 이겨내서
나의 일상을
나의 가족을
나의 삶을
나의 반려를
나의 하늘을
나의 전부를

안간힘을 다해
일으켜 세우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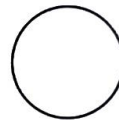
😊 10 💬 4

이유림(경영학과) 무언가 결연한 다짐이 느껴지는
시네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일상, 가족, 삶..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네요. 바람에 지지
않고 이겨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 고마워요!

서원준 (중국학과) 다짐과 긍정의 힘이 넘치네요
화이팅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마치 오뎅이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예진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시인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일으켜 세우려는 그
마음을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도 바람이 혹은 태풍이 부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덕분에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시 잘 읽었습니다!



2023/05/17

wednesday, pm 10:24 | 14읽음
김노연(사회학과)

#8일차 #이기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 정확히는 감정적으로
지는 것을 더 편안해 했다. 남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 상대가 범한 오류를
지적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남들에겐 허용하되 스스로 행하는
것은 꺼끄러워했다. 그렇다, 나는 그러한
성향을 타고 난 사람이다. 남의 감정에 쉬이
이입했고, 그만큼 연민과 슬픔의 눈물도 많이
흘렸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란
단어는 이로울 리에 몸 기 자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한다는 뜻이다. 몇 번이고
생각해보았지만, 내가 감정에 대한 것만큼은
지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온전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닌 타고난 성향에 따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여리고
국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토론 역시
그러한 이유로 꺼리고 무서워했다.
그러면서도 오만했고, 남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어 정작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남에게
스스로를 돌볼 것을 요구하는 바보였다.
스스로의 욕망과 결핍을 타인의 성장과
행복을 통해 채우려고 했었다.
대학교에 입학해 2개월 반 남짓한 시간만에
많은 것이 변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으면서 전보다 더 멀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동시에 아직 같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한다.
나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이고, 내가 만족할
정도의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것은
까마득하다는 생각을.

😊 9 💬 5

주재형(청각학과) 저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이길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도
겸손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신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노연님의 대학생활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경험을 꼭 쌓아가면 꼭
행운이 올겁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노연님의 글을 읽으며 느낀
건 지는 것을 좋아하기 보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노연님의 그 여린 마음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마지막 문단의 글을 읽으며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더 나아가려는
모습에서 좀 더 자신을 위한 성장을 하려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네요! 노연님과 저의 앞 날
모두 화창하길 응원할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이기지 못해서 분해할 때 엄마가
지는게 이기는거라 말씀해주신 게 생각나는
글입니다 꼭 이기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주는 것 그리고 그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노연님께는 가장 큰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3/05/17

wednesday, pm 10:41 | 14월음
고다인(법학)

#8일차#이기다

5월5일 어린이날 아파트에서 어린이
노래자랑이 열렸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파트에서 플리마켓과 어린이 노래자랑을
준비한 것이다. 어린이 노래자랑이라니
귀여운 꼬마들이 많이 참여할거같아 응원겸
구경을 갔었다. 상금이 엄청나거나 규모가 큰
노래자랑도 아니라 꼬마들이 가볍게
동요정도 부르고 갈거라고 예상했는데 깜짝
놀라게한 팀이 등장했다. 첫번째
참가팀인데도 긴장한 기색은 전혀 없고
심지어 웃도 귀엽게 맞춰입은 팀이었다.
화음까지 쌓아 노래를 부르는게 한두번
노래자랑을 나와본게 아닌거처럼 보였고
관객들과 아이컨택까지하는 여유로움을 가져
난 놀랄수밖에 없었다. 그 후 다른 참가자들도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최연소 참가자인 5살
여자아이도 수줍은듯 노래를 마무리하며
노래자랑이 끝났다.

참가자들도 어리고 승패를 인정못하고
울거나 떼를 쓰면 어떻게하나 했는데 다행히
#이기고 지는게아니라 모두가 선물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그래서인지 참가자들도
서로 경쟁하거나 의식하기보다는 박수도
서로 쳐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순위없는 노래자랑이라니 참가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거같다.



😊 10 💬 5

주재형(청각학과) 어린이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너무 훈훈하네요. 아장아장 선물을 받아가는 5살 여자아이의 걸음걸이가 상상이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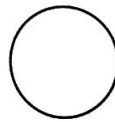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경험이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는 대회였네요 ㅎㅎ 저도 어렸을 적엔 경쟁보단 화합을 중요시하는 대회가 정말 많았는데 왜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대회는 사라질까요? 저는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어른으로 성장해갈수록 오히려 협동에 대한 가치를 더 깨달아야하는데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깐요. 그래서인지 대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친구들과 힘을 합쳐 대회를 풀어나가는 그때 그 시절이 그리네요. 덕분에 좋은 추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아이들을 위한 행사답네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사여서 다행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 모두가 같이 즐거웠을 경험 같습니다. 승패의 연연과 상관 없이 하는 대회라니!



2023/05/17

wednesday, pm 11:02 | 18읽음
배성준(경영학과)

#8일차 #이기다

아침 8시 28분 룸메 소리에 잠에서 깬어요. 잠을 조금더 잘까 아니면 바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까 고민하던중, 그래도 과제하고 축제 보러가야지! 해서 일어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침과제를 마치고 조리실로 달려가서 샐러드와 밥을 아침으로 먹었어요. 오늘따라 닭가슴살 사이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완두콩과 치커리가 꿀보기 싫어요. 먹고싶지 않았지만 건강한 걸 알기에 맛도 느끼지 않고 코와 입으로 야채를 마구 넣었어요. 그렇게 야채와의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런! 벌써 수업을 갈 시간이에요! 너무 가기 싫어도 늦지 않게 강의실로 달려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눈이 저도 모르게 감겼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수업과의 내기에서 이겼어요.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아침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잠이 시비를 걸듯이 저를 침대로 내몰았어요.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그대로 눈이 감겨버리고 잠에 들어버렸어요. 잠과의 두번째 싸움에서 그만 졌어요...

저녁 6시! 프로그램을 들으러 다시 학교건물로 가요. 축제와 공연의 설렘이 저를 계속 간지럽혔어요. 프로그램 수업 도중에 음악소리가 쿵쿵 들려와 잠깐잠깐 밖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도 수업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다보니 꼭 빠져들어서 축제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친구와 만나 저녁을 맛있게 먹고 공연을 보러

가요. 얼마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데... 과제가 있더라요..? 헐레벌레 기숙사로 들어와서 과제를 하였고 그렇게 이 글을 쓰면서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비록 사소하지만 그렇게 오늘도 승리의 하루였어요!

😊 9 💬 6

서원준 (중국학과) 오 다 이겨서 다행인데요?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많은 것에 대해 이겼네요!

승리의 하루 축하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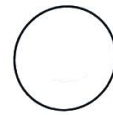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죠! 복학 이후의 첫 축제라서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고, 왜 이제야 즐기게 되었을까 생각도 되고.. 이렇게 승리죠!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성준님의 글을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으면서 보게 되었네요 ㅎㅎ 오늘 하루를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고 알차게 사신 것 같아요! 특히 승리의 하루를 보냈다는 것에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내일 하루도 오늘처럼 승리의 하루를 보내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다양한 승리를 경험한 하루였네요 소소하지만 뿌듯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오늘하루도 바쁘게 사셨군요!! ㅎㅎ 즐거운 하루셨을 것 같아요



2023/05/17

wednesday, pm 11:17 | 16원을 강민지 (사회학과)

#8일차 #이기다

「바다야 -이거 해서 언니가 이기면 오늘은 산책 안 가는 거다?」 언니는 날씨가 안 좋거나 본인이 산책을 나가기 힘들 때, 혹은 나랑 놀아주기 힘들 때나 나의 도움(주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때)이 필요할 때 등등 우리끼리 하는 모종의 게임을 만들어서 승패로 일을 결정짓곤 한다. 지금처럼!

근데 이 게임의 승패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저도 난리를 치면 언니는 10번에 7번은 내 뜻대로 해준다. 뭐, 착한 걸로 따지면 이 세상 최고일듯하다.

그런데 요즘 통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간식도 안 주고, 산책도 안아서 시켜준다. 내 다리는 멀쩡한데도 말이다;;;;; 그래도 내가 덜 힘드니, 용서는 해줄 것이다.

곤히 자고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화들짝 깬다. 어마 무시하게 아팠지만 언니가 자니까 조용히 방에서 나와 배란다 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끄끄거렸다. 정신이 혼미한데도 까만 하늘에 자리한 별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니가 별을 보면 소원을 빌곤 했는데...나도 빌어야지...우리 언니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원을 다 빌기 전에 언니가 뛰어나왔다.

「많이 아파???? 어떡하면 좋니....바다야.....」 나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 바보 언니.

다음날 오후,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

언니는 집에 오자마자 내 발을 닦아줬다.

「바다야 언니랑 게임하자. 대신 언니가 이기면 언니 소원 들어줘야 한다??」

벌게진 눈을 하고 다짜고짜 말을 꺼낸 우리

언니.

결과는 언니의 승리였다. 그래 무슨 소원을 비나 들어보자. 「내 소원은 바다, 너랑 천년만년 같이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다시 건강....」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우는 바보 언니. 어이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도 눈물이 났다.

새벽, 나는 다시 시작된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다. 이번에도 언니가 꺾까 무서워 배란다에 갔다. 어제보다 더 아팠다. 까만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며 어제 빌다만 소원을 마저 완성시켰다.

「게임 결과, 언니가 이겼지만 이번엔 정말로 나에게 양보해 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저 너머에 가도 언니는 씩씩하게 잘 살아야해. 나 때문에 언니가 슬퍼한다면, 괴로워한다면 차라리 언니의 기억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게 낫 것 같아. 다만 나의 사랑이 언니에게 닿아서 언니가 힘들 때마다 왠지 모르게 힘이 나게 해줄게. 언니...우리 바보 언니....나의 모든 걸 바쳐 사랑했어. 나의 사랑, 나의 우주.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언니를 기다릴게.」

나의 소원이 언니에게 닿길,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 바다 = 강아지

이겼지만 저주는 것도 사랑 표현 중 하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겼어도 그 후의 결과가 안 좋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땐 마음 아프지만 겸허히 받아들일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4

주재형(청각학과) 하늘로 떠나간 바다의 이야기가 너무 슬프네요.. 민지님의 필력이 더해지니 한층 이야기의 깊이감이 느껴지기도 하구요. 저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두 가지의 의미를 엮을 수 있어 정았네여 고생 많으셨습니당 잘 읽고 가용

이유림(경영학과) 강아지의 시점에서 바라본 반려인 언니는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 같네요

마음이 먹먹해지는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넘나 슬퍼요..



2023/05/17

wednesday, pm 11:46 | 14읽음

김유진

#8일차

이기려면 경쟁을 해야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쟁심이 적었다. 그런데 고등학생때 처음으로 경쟁심이 적은 나의 특징이 단점으로 느껴졌다.

고등학교라는 사회 자체가 경쟁에 의한 사회이고, 전교생 300명을 1등부터 300등까지 줄세워서 내신을 매기고, 상위권 30명 정도만 야자반을 꾸려서 집중케어를 해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급나누기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물론 나도 그러했다. 교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뱉어봤자 입시에 영향이 가는 내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난 이런구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반발심도 심하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러할뿐 겉으로는 무조건 좋은척 공감하는척을 했었다. 그런 구조속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 경쟁주의, 결과주의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에서 육성하려면 어른들부터 바뀌어야한다.

아이들이 언제나 이겨야하는 사회 말고 남을 밟고 길을 나아가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9 💬 5

주재형(청각학과) 급성장을 겪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되네요. 노력이 결과로써 보상받던 시기가 있었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가 무겁지만 열심히 해나가야겠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고등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심화반이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불만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만을 위한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는데 그 수업에서 나온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학교라는 집단도 결국 성과가 중요하기에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이 사회가 밍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별로 그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편인데 사회적인 구조를 생각하셨군요.. 저의 학교도 그런 심화반이 있어서 그런가 공감이 됩니다.. 어찌 되었던 뭔가 이득을 준 건 맞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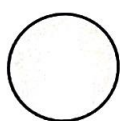
심지범(경영학과) 경쟁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글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정말 공감하지만 쉽지 않죠 ππππ 현실인데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겠어요!

순간 나의 모든 노력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느낌이든다. 그래서 나의 도전들은 이기는 것이 확실한 것들에만 도달한다. 확실하지 않은 도전에서 패배했을 때 얻을 좌절감이 무섭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확실한 도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만 준다는 것이다. 이 길만을 걸어야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두려움이 너무 크다. 대학에 와서 진로 고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취업은 무조건 대기업 이런 생각이 있었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특강 특히 취업 창업 강연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사고가 열리고 있다. 내 앞에 놓여진 길들의 어둠을 걷어내다보니 다양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창업 강연에서 해주신 말씀 중 기억에 남는 말씀이 '완벽히 준비하고 창업하는 것은 상위 1%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마치 글쓰기와 비슷한 것 같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써내려가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더해져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 9 💬 6



2023/05/17

wednesday, pm 11:54 | 17일음
이민재 (경제학과)

#8일차

역사는 이긴 자들에 의해 쓰여진다. 이 말은 오랜 고민에도 반박할 수 없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은 이긴 자들의 것이다. 이긴자들은 살아남아 그들의 문화를 퍼트렸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우리는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였다. 패배한자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나는 지는 것을 싫어한다. 지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다양한 길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물론 정말 완벽하게 계획한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씩 변화를 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ㅎ

주재형(청각학과) 첫 문장에서부터 느껴지네요. 역사는 항상 승자의 것이었다는 것. 승리하면 혁명이고, 패배하면 반란이라는 말에서 역사가 승자의 것임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완벽을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좌절감이 너무 무서운건 저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ㅠㅠ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글 잘 보고 가요 !!!

신유정 (심리학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글이에요. 계속해서 시야를 넓히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줄이면 완벽함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것 같아요.



2023/05/17

wednesday, pm 11:57 | 15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8일차 #이기다

나 자신을 이겨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나자신을 처음으로 이겨본 적이 대학
입시 준비 인 것 같다.

원래는 예체능을 준비 하고 있었던 나는,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과 말과 관심에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진심으로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혼자만의 성적 관리와 생기부 관리, 면접 준비
등 나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도 힘들었다.
표현이 극단적 이긴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같았다. 결국엔 한림대
라는곳에 오게 되었고, 춤바람 활동,
과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등등 굉장히
알차고 재밌는, 누구보다 제대로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항상, 나 자신을 이기면 굉장히 큰 무언가의
'결과로서의 보상'이 따라오는 것 같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



10



6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대학입시는 정말 인내와

계속적인 검토였어요.. 너무 지루한 과정이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잘 버텨낸것 같네요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힘든 상황에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든든하죠 학교에서의 생활이
행복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과 경험들
쌓길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사는게 이기는 거죠. 사는게
우리 모두 삶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대학 입시를 이기셨다니! 진정한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네요!

심지범 (경영학과) 많은 사람에게 응원을 보내는
문장이 힘이 나게 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정말 공감합니다 ...! 잘 읽고
갑니당



2023/05/17

wednesday, pm 11:58 | 15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이기다

나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잘 보지 않는다.
사냥하는 장면이 항상 나오는데 동물이
잡히면 잡혀서 불쌍하고, 못 잡으면 굶어야
하니 여러모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다.

꼭 누구 하나가 이겨야 하는 구도가 싫다.
모순적이지만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것도
싫다. 결국 가장 영리한 싸움은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저서
그런가 요즘은 이것도 지치는 것 같다. '잘
지는 방법'이 지금 나에게는 더 필요하다.



11



6

이유림(경영학과) 잘 지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확
꽃히는 글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많이 생각하지만
잘 지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알고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늘 좋은 내용만 있으면 좋겠는데 생사가 걸린 문제라서 조금 보기 잔인할 때도 있더라구요

주재형(청각학과) 지치지 않게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잘 지는 법도 필요한 방법 인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도 한편으론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겨야지만 꼭 행복한건 아니니까요:)

서원준 (중국학과) 색다른 방법이네요
실천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니당 좋은 글 잘 읽었어요!



2023/05/18

thursday, am 12:16 | 29읽음
김양선

#8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축제와 수업, 프로젝트로 이번주는 유난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와중에 글을 쓰고 지금도 학우들의 글에 공감의 댓글을 다는 우리 챌린저들. 수고했습니다. 이기다, 지다와 같은 경쟁적 단어에 대해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었는지요?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기는 삶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번갈아 걸어가는 삶이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기를 바랍니다.

😊 15 💬 0



2023/05/18

thursday, am 7:54 | 38읽음
김양선

#9일차 키워드 : 반하다

사람이나 물건에 마음이 홀리다 혹은 마음이 쏠리다. '반하다'의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슨 물건에게 홀리듯이 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의 상태,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대상을 향해 했던 노력이나 결과를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 11 💬 0



2023/05/18

thursday, am 8:47 | 20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9일차 #반하다

처음으로 학교 다니면서 반했던 친구들이 여러 있다. 운동 잘하는 과 동기부터 정말 열심히 과제에 집중했던 동기, 활발하고 웃음 많았던 공기 등 이렇게 이야기하니 다시 19학번 신입생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만큼 정말 반하기에 딱 적당한 나이기도 했고, 즐기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던 학년이기도 했다.

다들 각 자기의 개성과 매력이 독특하게 있어 반하기 쉽기도 했다. 그 매력들에 이끌려 지금의 나로 색다른 매력을 만들게 해준 발판이 되기도 한 것 같다.

난 요즘 등산에 반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상에 다 오르는 그 성취감부터 올라가기까지의 신나는 노래와 함께 지방 태우기, 다양한 야생동물들 등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유명한 산들은 거의 다 찍고 이제 서울, 제주 한라산까지 가보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떤 반함이 젤 기억에 남나요 ~~

😊 13 💬 10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서점에 갔을 때 멋진 표지를 가진 책들을 보면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랜시리 사고 싶어진다니까요. 하지만 지갑 사정을 고려하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슬픈

일이지만 더욱 돈을 아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상민(생명과학과) 반함은 나와 다른 매력으로
생긴다는게 원준님 글로 깨닫게 되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등산 좋아하시는 군요!!
저도 등산 좋아해요 근데 춘천의 산을 다
찍으셨다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은지(철학) 등산! 동네 산 정상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도전하고 싶어지네요~ ^^

박혜윤(사회학과) 움직임이 많지 않은 편이라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한라산 등반 응원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고등학생 때 여자는
남자든 운동이든 특히 노래를 잘하는 애들을 볼
때면 맛있다는 생각과 함께 반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찌나 그게 맛있어보이던지,
저도 운동이나 노래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컸어요 ㅎㅎ 원준님의 글을 읽다보니 그때의
나이엔 참 순수하게 좋아하고 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깊은
생각도 들었어요. 덕분에 그때의 그 설렘을 다시
떠올렸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정말 건강한
반함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어릴때 이후로 등산 가본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우와 춘천에 있는 산들을 거의
다 올라가봤다니 체력이 대단하세요! 제주 한라산
저도 가보고 싶는데 엄청 예뻐거 같아요:) 건강에도
좋은 취미 활동이네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등산에 반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운동부족인 저는 상상도
못할 반함이네요ㅜㅜ



2023/05/18

thursday, am 8:58 | 23월음

주재형(청각학과)

#9일차 #반하다

눈꽃 바람

눈이 내리는 밤 풍경을 바라보며
빨간 스웨터를 입고, 그렇게 다가왔어
하얀 눈송이 하나 둘 내리고
추운 나무들은 하얀 옷을 입고

꽃송이가 시린 바람을 실어와도
붉으런 마음은 크게 박동하기를 원하네
너의 표정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땅의 하얀 발자국이 다가와

청아한 미소로 가득한 눈빛에
우리 두 손은 따뜻해지기 시작해
풀어지지 않을 실타래라도 괜찮아
네가 왔던 길로 다시 걸어가고

어쩌면 이게 사랑일까
마음은 설레고 미소가 지어진단
하얀 세상을 품은 듯한 순간

시간이 흘러 노을이 저도
눈이 멈추고 하늘이 어두워져도
끝 없는 사랑은 제 멈출 줄 모르네
바람을 타고 사라져가는 눈송이

이야기를 저 멀리 전해줄래



시는 처음써보는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가
시를 쓰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축제인데 모두 안전하게
잘 즐기시다 끝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 16 💬 8

김상민 생명과학과 그 이야기 저 멀리 전달되길
바랄게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 진짜 사랑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재형님도 오늘 축제 잘
즐기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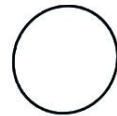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멋진 시 잘 읽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재형님이 쓰신 시는 계절이
분명 겨울임에도 봄처럼 따뜻한 기분이 드는 건
아무래도 설렘 때문이겠죠? 특히 저는 바람을 타고
사라져가는 눈송이 녹아 봄날의 씨앗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랑은 거센 추위로 견딜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 추위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ㅎㅎ 덕분에 마음이
따뜻하고 설레이는 시를 읽어보네요. 시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시도 너무 멋지고
사진도 멋있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찬 공기 속에서 따뜻함에
느껴지는 듯한 시였습니다 새하얀 눈발이 넓게
펼쳐진 사진이 참 멋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시 내용과 사진이랑 이야기가
자연스레 그려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시가 정말 멋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8

thursday, am 9:26 | 17월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9일차 #반하다

‘반하다’라는 단어를 접할 때 바로 생각난
것은
순간, 단기간의 라는 표현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반할 때는
0.1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혹 간다.

매력적인 사람을 볼 때도
매력적인 물건을 볼 때도
무언가에 이끌리 듯 마음이 사로잡혀진다.

난 그들을 보며 부러웠고 질투했었다.
반할 수 있는 매력을 찾고 싶었고 갈망했었다.

긴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여태 살아오면서 그 부분은 타고남이라는
영역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나와 다르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

나다음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에서
‘반하다’는 순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속이 비어있다면 순간에 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래 가지 않고 순간 찰나의 빛처럼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물건에 혹해서 샀을 때
대체로 그 순간 좋았지 계속 좋지 않았다.
오히려 고민 끝에 산 물건이 오래 쓰였고
계속 관심이 갔다.

‘반하다’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스며드는’이라는 단어에 빠졌다.

스며들면 물 속에 빠진 것처럼
편안하게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

나와 다른 영역에서 벗어나
마주한 삶은 이전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반하다’라는 단어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또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 14 💬 10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반하면 저는 조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상민님이 스며드는
단어에 빠지셨다는 것을 읽고 나니깐 어쩌면,
한순간에 반하는 것 보다는 천천히 스며들어
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상대를
이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에
반하면, 내가 상상한 그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고,
실망하게 되니까요

서원준 (중국학과) 천천히 스며드는 게에
공감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찰나의 순간이라는 말을 듣고
역시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감각기관은 역시
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력한 첫 순간의
잔상이 서서히 스며드는게 반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상민님의 글을 읽으면서
반하다가 순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무언가에 반할 때 오랜 기간
끝에 그런 것보단 짧디 짧은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상민님이 제시하신
스며들다라는 단어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스며든다는 건 속도는 느리지만 느린 만큼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주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덕분에 상민님의 시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상민 생명과학과 하영님 제 글에 스며드는
시간으로 다가갔다니 기쁘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반하다’ 라는
단어에 설렘을 느껴요!

김상민 생명과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같은 감정 느껴요

이유림(경영학과) 상민님 글을 읽으니 첫눈에
반하는 사람보다는 스며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반하다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스며든다는 단어도
매력적이죠:) 반하다와 반대로 서서히 빠져들어
버리는 거 같아요 저는 반하다가 제 의지와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반하다라는건 계속
보고싶어지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3/05/18

thursday, am 10:37 | 17읽음

김용후(법학과)

#9일차

#반하다

‘반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마음이 홀린
것처럼 쏠리게 됨을 말한다.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모두를 ‘반하게
만드는’ 기술 발전 영역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소 산업’이다. 수소는 우주에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물질로, 수소가 미래
산업 핵심 동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을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라는
점에서다. 세계 각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갖고 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이 바로 수소 기술이 될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수소 자체는 색이 없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성 정도에 색을 부여하여 구분하고 있다. 회색 수소는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수소를 얻는 방식으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블루 수소는 회색 수소와 동일하게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나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어진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현격히 적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생산 비용이다. 미국은 장기적인 생산단가 목표를 수소 1kg당 1달러 선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생산 비용은 회색 수소의 경우 1kg당 3,000~5,000원, 그린 수소의 경우 1kg당 최대 10,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높은 생산 단가와 더불어 설비의 부족, 기술적 과제 등으로 그린 수소로의 전환은 아직 더딘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블루 수소를 거쳐 그린 수소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 분해 방식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린 수소 경제로의 전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만, 미래 요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제조사들은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선박, 항공기, 열차, 상용차 등 수소 교통 분야에서 수소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 생산의 기반이 되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적 공감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더 활발한 기술 연구와 투자가 절실히 보인다.

😊 10 💬 9

박혜윤(사회학과) 수소 산업에 대해 잘 몰랐는데 자세히 알아갑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수소 기술과 관련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트렌드, 패러다임, 테마주 같은 것들도 시대의 흐름이죠. 어떤 것에 혹하면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산업을 촉진시킵니다 용후님이 말씀해주신 수소산업의 글도 잘 읽어보았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수소차량은 들어봤지만 수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용후님 글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네요. 시대는 발전하는 것에 반해 자연환경은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전 반하게 되었네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언젠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그 날이 얼른 와서 친환경적인 시대에 살고픈 마음이 있네요. 덕분에 정말 좋은 정보와 환경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정보가 가득하네요 잘 봤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반하다’의 키워드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다니! 신선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슈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적은 없어서 유용한 글이었습니다 항상 용후님 글은 유용하고 생각해볼 것이 많은 글이라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친환경 연료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수소네요:) 핵심 동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반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아직 생산 비용과 설비 부족,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한다면 그린수소는 정말 새로운 혁신들을 가져올 거 같아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반하다와 환경 관련

국가산업을 역으시다니 정말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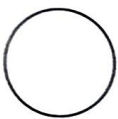
관점 같습니다! 덕분에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글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반하다에 수소라니 !!

신선하네요 ㅎㅎㅎ

탄소중립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된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투자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3/05/18

thursday, am 10:50 | 16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9일차 #반하다

이 세상에는 참 반할 것 같은 존재가 많은 것 같다. TV를 틀어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넘쳐나고 주위를 둘러보면 생물, 무생물 할 거 없이 그 자체만으로 매력이 흐른다. 내가 그들을 '반할 것 같은 존재' 라고 인식하면서 바라봐서인지도 모른다. 아무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반할 것 같은 존재다. 예를 들어, 길바닥에 나뒹구는 종이는 쓰레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입에 있는 껌을 뱉을 수 있는 반가운 존재다. 배달 음식을 시키고 받는 비닐봉투는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봉투가 되고, 스마트 기기 때문에 쓰지 않는 연필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키우는 재료가 된다.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앞서 언급한 것들을 그저 쓰레기로 밖에 못 본다.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쓰임을 고민하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말이 될 것이다.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력 자체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받쳐 줄 것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10



8

박혜윤(사회학과) 길바닥에 나뒹구는 종이조차
누군가에게는 반할 것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인상깊어요. 세상에는 반할 존재가 많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반할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도 나를 반하게 만든 순간
가치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 공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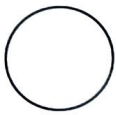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빈님 글처럼 긍정적인
시선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밝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건
사람의 내면을 갉아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빈님의 글을 보니 저도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더 많이 해야겠어요! 덕분에 좋은 다짐을
하게 됐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박성휘(콘텐츠IT) 긍정적,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반하다'의 차이가 참 큰 것 같네요. 단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됐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좀 더 멋진 시각을 사빈님이
가지고 공유해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사빈님이
말하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05/18
thursday, am 11:30 | 19원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9일차 #반하다

나는 주로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에게 반하는 순간이 많다.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반한다. 나혼자 산다라는 예능에 나오는 기안84조차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림에 열중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만큼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내가 반한다는 건 사랑에 빠진다고 보단 본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우리 가족에게 매 순간 반하고 있다. 특히 오빠에게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 오빠는 나보다 철이 늦게 들었기에 내 눈에는 늘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그때마다 나중에 도대체 뭘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심하다는 것 보단 좋아하는 분야가 없어 그러는 걸까하는 걱정 앞선 맘이 더 컸다. 하지만 이런 내 걱정은 쓸 데 없는 것이었다. 오빠는 항상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오빠는 가족에게 당당히 걸어와 자신의 계획과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 말했다. 그런 오빠의 자신감은 학습에 열정을 불태웠고 요즘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처음보는 오빠의 모습이 많이 낯설기도 했지만 반할만큼 정말 멋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 스스로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오빠를 보며 내가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다. 몸만 컸지 마냥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나의 편협된 시선이 오빠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 오빠는 이미 성장하고 있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나도 요새 분주해졌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도 내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오빠가 나한테 반하도록 만들고 싶다.

😊 13 💬 9

김노연(사회학과) 자신이 하고픈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죠... 그 모습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자신의 것을 찾을 하영님을 응원합니다!!

김상민 생명과학과 저도 한 가지에 열중하고 몰입하는 분들 보면 멋있다고 느껴요!! 응원합니다 하영님 :)

서원준 (중국학과) 한가지 몰입하는 열정! 또한 중요하죠 화이팅입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사랑하는 모든 대상에게 반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가족이라는 대상에게 새로운면모와 이미 알고 있던 면에 새로이 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본인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한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 언니에게 반할 때가 가끔 있는데 공감이 가는 글이었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사랑이라는 감정의 반하다가 아니라 다른 느낌의 반하다에 대해 쓴 글이네요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본업을 할 때 가장 멋있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본 받고 싶은 대상이 오빠여서 하영님 오빠분도 뿌듯하실거 같아요! 각자 본인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고 열정을 쏟아 붓는 일은 멋진거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본받고 싶은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2023/05/18

thursday, pm 12:52 | 20원음
강민지 (사회학과)

#9일차 #반하다

윤재의 가족은 출판사와 서점을 운영했다. 그렇다 보니 윤재도 어렸을 적부터 책과 가까이 지내면서 책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책과 함께 자란 윤재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매우 만족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윤재를 부르셨다. 새벽 한시 였지만 얼른 침을 챙겨 회사로 갔다. 어머니의 사무실엔 이미 아버지, 형, 동생이 다 모여있었다.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만큼 무척 조심히 진행해야 하기에 이 시간에 너희를 불러 모은 거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모두가 침을 꿀꺽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금 대대로 정부에서 금서라 일컫는 책을 세상에 내보일 계획이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삼 형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어졌다.

「어머니.....뒷감당은 어찌하려고요...걱정돼요...」 막내가 말했다. 「우리는 책을 사랑하고, 책이 주는 영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건 금서여도 사람들이 다 읽게끔 세상에 내보내야 해. 뒷감당은 걱정없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저도 함께할게요.」 윤재는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 않은듯 말했다. 그야 책과 양심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니까.

회의 이후로 윤재의 가족들은 금서를 출판하고, 내보내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였다. 작업은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모두가 힘들어 하면서도 뿌듯한 심정으로 임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처음엔 조용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날 무렵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정부는 뒤늦게 출판을 막고 명백한 금서라며 엄포를 놓았다. 또한 윤재의 가족들을 체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광경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전국적으로 금서 반대 운동을 펼치며, 윤재의 가족들을 풀어달라 요구했다. 한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석 달, 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후, 윤재의 가족과 회사 그리고 금서가 유명세를 치르면서 윤재는 가족을 대표해 여러 인터뷰에 임했다. 아래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네, 저는 책을 사랑합니다. 처음엔 현실과는 다른 다채로운 세계를 보여줘서 반했고, 그다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심어줘서 반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접한 후 나에게 미친 영향에 다시금 반했습니다. 이렇게 반해서 사랑까지, 떨어지기 싫어 출판 쪽으로 업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선 어떤 뜻에 반할지라도 해야만 한다. 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전부를 위해선 용기는 기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저는 '반하다'를 보며 누구에게 반하다 혹은 어떤 것에 반대하다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 12 💬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민지님의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금서가 어떤 내용이기에 그만큼 가치있게 여기는 걸까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네요. 그리고 민지님은 책을 굉장히 소중히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소설 속의 윤재가 왠지 민지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반하다는 그저 사람이나 동물에게 홀리다와 같은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덕분에 반대하다라는 의미의 반하다도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항상 반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어요. 반적인 의미의 반하다를 설명해주셨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통제되던 한 시절이 떠오르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어떤 뜻에 반할지라도 해야만 한다는 문장이 인상 깊네요! 윤재라는 주인공이 책을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하는지 잘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약간 금서라고 말하니깐 다양한 책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의 역사도 생각나고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잘 읽었습니다



2023/05/18

thursday, pm 1:51 | 14읽음

최현영(법학과)

#9일차 #반하다

"반하다"

다른 것을 떠올리려고 노력해 봐도 이 단어는 딱 한 사람만 떠오른다.

나에게 사랑이 뭔지 이별이 뭔지 알려준 사람.
내 첫사랑.

누군가에게 첫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 가슴 아픈 짝사랑
등등,, 나도 처음 좋아하는 마음이 든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포기하고 짝사랑의
고수로 살아왔기에 처음 좋아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쓰고 내 이름을 번갈아 쓰며 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을 적었던 풋풋한 기억도

있지만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다.
22살까지 알바라고는 1달이 전부였던 내가,
대학생 알바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쉽지 않은 내
마음을 한 번에 뚫은 단 한 사람. 사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서 왜 아직도 놔 주지 못하냐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하지만 내게는 너무
소중한 기억이다. 잊고 싶지 않지만 다시
떠올리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게 만든 사람. 강아지처럼 내게 쫓으러
달려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떠들던
그가. 화나는 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
번호부터 누르던 그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전히 나는 그곳을 맴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내게도 다시 그런 사람이 올까?

그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

"반하다" 내게는 아직 아픈 단어,,



12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아픈 기억을 하나씩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첫사랑은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현영님 꼭 예쁜 사랑하길
바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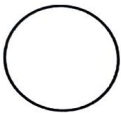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아직까지 첫사랑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현영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느낌은 왠지 알
것만 같아요. 따뜻하면서도 아픈 그래서 더
생각나는 게 첫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그 사람을
잊기까지 현영님에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소중한 인연이 올
거예요. 우연에 더 가까운 첫사랑은 깊은 사랑의
인연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반하다가 현영님에게
다시 좋은 의미로 다가오길 응원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짧았지만 강렬한 기억이었나 보네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을 보면! 현영님 글을 읽으니 첫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주고 기억에 남는 게 첫사랑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만드는글이네요. 설렘보다 아픈 기억이 더 큰 단어일 수도 있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참 소중한 기억이 가득한 시기였던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2023/05/18

thursday, pm 2:55 | 13월음
신유정 (심리학과)

#9일차#라이팅챌린지 #반하다

나는 무언가에 반하면 그 대상이 반하는 순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박히는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잊어지지도 않고 열정이 금방 식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10년 넘게마음 속에 있는 대상도 있는데, 이것을 '하트'라고 표현하고 싶다. 반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하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에너지 포션이 되어 힘이 나게 해주고기쁘게 만들어 준다. 그렇지만 반하는 것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은 많은 열정을 쏟는 일이기 때문에 일방적이라면 쉽게 지친다. 좋은 사람에게 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는 내 자신의 장점이나 좋아하는 물건에게 열정을 쏟아가꾼다면 다른 이들이 내가 가진 '하트'에 반해서 나에게도 따뜻한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 같다.



9



6

이유림(경영학과) 하트라고 표현한게 재밌는 글이에요 슈가슈가룬이라는 만화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정님의 글을 읽다보니 왠지 모르게 짝사랑이 생각나네요. 사랑은 설렘의 기분을 통해 하루를 핑크빛으로 물들지만 일방적인 사랑은 지침의 연속이라는 유정님의 표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사랑도, 짝사랑도, 첫사랑도 없지만 유정님의 글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반한다는 건 그 대상에게 에너지를 쏟는 일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쉽게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님의 글에 공감 많이 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다빈(경영학과) 반한다는 것은 마냥 단어처럼
긍정적인 상황을 주는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만큼의 감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πππ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서로 함께 맘을 주고 받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은것을 기대하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재밌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3/05/18
thursday, pm 3:31 | 17월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9일차

사찰의 연못에 핀 연꽃들을 바라보던 랑은
자신에게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알아챘다.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자 화사한 여인이
치마폭을 쥐고 서있었다. 깜짝 놀란 그는
균형을 잃고 연못으로 고꾸라졌다. 겨우
마당을 거딜던 어린 시절, 강에 빠져
허우적대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이 그대로
굳었다. 손을 뻗었지만 하염없이 수면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흐릿해진 시야로 무언가
들어왔고, 점점 가까워지더니 자신을 연꽃
사이로 끌어올렸다. 명확히 상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꽃 사이에 핀 새하얀
수선화 같은 여성이었다. 그제야 아까 그
여인이 물에 뛰어들어 자신을 구했음을
깨달았다.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얼타고 있자 여인이 물 밖으로 성큼성큼
걸으며 구시렁거렸다.
[혼자 놀라서 넘어지거나 하고, 그럴 거면
사내대장부처럼 칼은 왜 차고 다녀요?]
랑은 허리춤의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녀 몰래 얼굴을
붉혔다. 부끄러운 감정이라기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을 계기로 두 남녀는 연못에서 우연히
자주 만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 마루에

앉아있던 랑의 곁으로 형제인 호가
걸터앉았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일의 전투에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상하게 월의 얼굴이 계속해서
생각나 번잡합니다.]
[반하기라도 했나 보구나. 네 나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존재에게 깊이 빠지는 것이지. 나무꾼이
선녀에게 한눈에 반하여 옷을 훔쳤다는
동화를 들려준 적이 없느냐?]
랑은 또 다시 불이 붙어짐을 느꼈다. 칼집에서
살며시 칼날을 뽑아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다.
비장함 속에서 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녹아
있었다. 그는 다시 칼을 집어넣고 호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다.

이튿날의 전투는 실로 처참했고, 이윽고
랑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신라의
대 군세가 물밀듯 들어와 사비성을 부수고
양민들을 살육했다. 호가 시간을 끌었고 랑과
그의 군대가 서둘러 백성들을 성 밖으로
인도했다. 대열의 마지막에서 성문을
나서는데 월이 아픈 부모를 데리고 걷는 것을
보았다. 신라의 병사가 화살을 쏘며 따라왔고
랑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낭자, 걸음을 서두르게! 뒤는 내가 말을 테니
걱정하지 말도록 하게. 내가 칼을 찬 이유는
지금에 위해서였다오.]
랑의 군마가 주인의 운명을 알아채기라도 한
것처럼 구슬프게 울었다.

그들이 만났던 사찰의 모든 연꽃이 저물었고,
수선화가 진 자리에는 푸른 잡초가
무성해졌다. 까마귀는 유독 한 남자의 시신을
쫓지 않고 맴돌기만 하였다.

😊 9 💬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충민님의 글을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물입이 되서

그 상황들이 상상이 가고 결말에 눈물이 날 듯한 슬픔이 느껴지네요... 충민님은 지어서 쓰신 글이겠지만 왠지 그 시절에 이런 아련한 사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무사들은 무뚝뚝한 존재로 낭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전에 그 사랑을 떠올리며 죽으니까요. 결말이 예상은 갔으나 오히려 들어맞으니 너 아픈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음 생엔 꼭 이뤄질 수 있는 사랑을 꿈꾸길 바라게 되네요 ㅎㅎ 덕분에 긴 글임에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감명깊게 보았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가슴아픈 이야기네요 저는 반했다는 것을 흘린것이라 생각했는데 랑의 형제인 호는 한 존재에게 깊이 빠졌다고 말하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용맹을 지킨 랑은 하늘으로 올라가 천국으로 갔을 것 같네요. 처음의 랑의 모습을 상상하니 그 끝이 더욱 처연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글 잘 보고 갑니다 ...!



2023/05/18
 thursday, pm 4:38 | 13읽음
 박지원(사회학과)

#9일차 #반하다

너의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띄었는지,
 힐긋힐긋 스치듯 마주치는 눈동자가 눈에
 띄었는지.
 짧은 대화가 오가면 너무 아쉽고 너와 함께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우연히 너를
 마주쳤으면 좋겠고.. 마음이 몽글몽글해.

너를 알기 전까지는 몰랐어, 길가에 핀 꽃이
 환하고 어느덧 봄이 지나있고 하늘은 정말
 푸르더라.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든 날 너를 만났고,

너는 나의 여름이야.
 아

.
 .
 .
 너에게 반했구나

😊 9 💬 5

이유림(경영학과) 너는 나의 여름이야 라는 문장이 확 꽃히는 글이에요 누군가의 계절이 된다는 건 정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온 세상의 초목이 둘의 관계를 응원할 것 같은 시네요. 낭만적인 시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상대방에게 반하기까지의 그 분위기가 설레서 저도 모르게 이입하게 되면서 읽었네요. 누군가에게 반하는 그 순간은 평소와는 다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자꾸만 생각나고 온 세상이 밝아보이는 그 효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피어나면 그렇더라구요! 지원님 덕분에 그런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시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남은 잔상이 계속 상상가는데 반함 아닐까 싶어지는 멋진 시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사소하게 예뻐 보이는게 반하다는 것 같아요

2023/05/18
 thursday, pm 4:42 | 18읽음
 김노연(사회학과)

#9일차 #반하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나는 금사빠였다. 금세 사랑에 빠지곤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빨리 빠진 사랑은 금방 식고 날아가 버리기 마련이다. 짝사랑 기간이 아주 짧으면

1주일에 그쳤던 나는 딱 한 번, 1년 동안 짝사랑하고 고백한 뒤 또 1년 동안 못 잊었던 애가 있었다. 그 애한테 반하게 된 계기는, 그가 사진을 잘 찍는대거나 피아노를 치는 데에 능숙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어쩌면 정말 중1다운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 가장 나다운 이유일 수도 있겠다. 한 사람에게 반하면 정말 그 사람의 외모가 자동으로 보정되고, 후광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던데 나는 그것을 그 애를 좋아하는 과정 속에서 몸소 체험하게 됐다. 정말로 그랬으니까. 그 애가 공을 차며 노는 것을 벤치에서 앉아서 멍하니 보고 있자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가 느려지며 흐릿하게 보였으니까. 뇌가 사랑에 빠지면 일정 부분 착각을 일으킨다는 건 정말인가 보다.

사실 '반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나는 막상 반하는 순간은 드라마틱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심장이 터질 듯했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대거나 하는 변화는 없었다. 아마 서서히 스며드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반하는 방법 아닐까. 한 사람의 세계를 어느 정도 엿보고 나서야 그 사람에게 반하게 되는 것 같다. 첫 만남부터 운명적으로 반한다는 걸 나는 믿지 않는다.

혹시 첫 만남에 운명을 느낀 사람이 정말로 존재할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싶다. 과학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까?

😊 12 💬 8

이유림(경영학과) 이 글을 읽고 관련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글 잘읽고 갑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제 경험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이유?가 첫인상이 앞으로의 상대방 관계에 영향이나 결과에 영향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인데 여기서 저자 알랜드 보통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희망이 자기 인식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 -비겁함, 심약함, 게으름, 부정직, 타협성, 끔찍한 어리석음 같은 것-을 상대에게서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해요. 운명이라는 건 운명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라고 했어요.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낭만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정신차리고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노연님 글처럼 반하는 순간은 드라마틱 하지 않은 느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오히려 노연님처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주변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던지 유난히 반짝 빛난다던지 하는 경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근데 노연님의 글을 읽다보니 믿지 않는 저조차도 경험해보고 싶게 만드네요 ㅎㅎ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겠죠? 덕분에 설렌 꿈을 꾸게 됐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 후광이랑 외모보정이 된다는 느낌 정말 궁금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저도 궁금해요 ㅎㅎ!



2023/05/18

thursday, pm 5:32 | 18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9일차 #반하다 #설렘 #인연

이번 해시태그는 반하다 인데요!

반한다라는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의 이상형에 반하는걸 반하다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물, 자연,글,문장등등의

다양하게 보이는 시각으로 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렌다는건 참 어떤 미묘한 감정인거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편해지고

소중해지지 않고 이 사람이 떠나갈지 않을것

같고, 평생 내곁에 있을꺼 같은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하시잖아요?

저는 반하다 이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의 힘이 진짜 대단한게 제 일화를 이야기

하자면 전 이성친구와 세네번 만남이었는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평일에 일을

마치고 만나는거였는데 이야기를 더 주고

받고 싶었고 그랬는데 집에 새벽 5시에

들어간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땐 좋은 추억으로 남길라고 하는데요! 무튼

반하는것 사랑하는것 좋아하는것은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회색빛 세상이

분홍색으로 바뀔수 있는 그런 감정인거

같아요! 다들 CC를 하면 이별 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대학생활 4년의 시간들과 추억들이 너무

허무하게 흘러가지는 않을까요? 좋은추억과

좋지 않은 추억들도 있지만 항상 좋은 추억만

가질순 없잖아요?

이 글을 읽으신 학우 분께서 CC를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한 번 과감히 도전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축제

마지막 날이네요! 이하이 로꼬 가 오는데요!

저는 이하이만 보고 있답니다!!

무튼 비도오고 우중충 한데 마지막 축제 잘

보내시길 바라요!

박혜윤(사회학과) 최근에 SNS에서 사랑은

비효율적인 일도 하게 된다는 글을 봤어요.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성을 만나는 일이

어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텐데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어요!

아침, 그리고 혹시 어제 씨엘씨 노래방

이용하셨나요? 낮익은 이름이 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범(경영학과) 박혜윤(사회학과) 알ㅋㅋㅋ

부끄럽네요! 맞아요! 노래 불렀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멧때리기 대회에 참여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옷이 젖었어요..ㅏ 이하이

로꼬의 공연도 기대되네요! 지범님도 마지막까지

공연 잘 즐기세요!

김경희(국어국문학과) 지범님 글은 항상 읽고나면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결같이 본인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게 장점이신것같아요~ 늘

잘감상하고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정말

시간가는줄 모르죠 웃으며 읽게되는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반하다=사랑이라는 내용이

인상깊습니다ㅎㅎ 행복한 축제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범님 글처럼 사랑은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 과의 사랑에선 내가

싫었던 것도 좋아지게 되고 부모와의 사랑에선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매력적이면서도 사람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지범님도 이하이

보러가셨군요!! 너무 노래 잘 부르시더라구요

ㅎㅎㅎ 즐거운 축제 되세요

서원준 (중국학과) 이하이 저도 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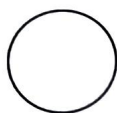
공감합니다 ㅎㅎ



12



9



2023/05/18
thursday, pm 5:33 | 15원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9일차 #반하다

내가 어쩌다가 너에게 내 마음이 쏠렸을까.
너는 어쩌다가 나에게 네 마음을 쏟았을까.
우리는 어쩌다가 서서히 물들어졌을까.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서,
어느새 서로에 대해 그 누구보다 관심있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너의 긍정적인 모습과 밝은 모습이
좋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에 멋져보였다.
너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에도 피하지 않고
감싸주며,
나라는 사람 자체 그대로의 모습을
쓰다듬어주었다.

나도 너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감싸주며,
너에게 내가 더 의지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 10 💬 8

심지범(경영학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당! 글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서로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게 되는 시네요. 좋은 시 잘 감상했어요!

이다빈(경영학과)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이에서 어느순간 삶에 녹여져 있는 걸 발견했을
땐, 기분이 정말 오묘한 것 같아요. 반함으로써
변하는 사이, 좋은 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어쩌다가 ~했을까 라는 문장의
반복이 반했다라는 느낌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멋진 반함이 시에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랑은 마치 눈 먼 사람과도
같아서 그 사람의 단점조차 장점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랑이 위험한
걸수도 있지만 보민님의 글에서는 그것보단 설렘을
느끼게 하는 순수한 사랑이 보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보민님도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어쩌다 보니 반하게
되었다는 것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반함도 있죠

서원준 (중국학과) 사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잘 보고 갑니당



2023/05/18
thursday, pm 7:02 | 13원음
이유빈(사회학과)

#9일차 #반하다

우리는 멋진 작품, 멋진 사람, 멋진 무언가에
반한다. 무언가에 대해 반하게 되면 우리가
반하게 된 무언가는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롤모델이나 우리를 계발 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반할 수 없는걸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수줍어 하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너 정말 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어딜봐서?"라는 말을 하게 되고 칭찬을
받아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칭찬을
받아드리면서 자신에게 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가 자신의
삶의 능률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자신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도 받아드릴줄
아는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이 되어 보는거
어떨까? 자신에게 반해 나르시시즘에
빠져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일
것 같다.

😊 8 💬 7

주재형(청각학과) 고백을 받으면 왜? 라고 반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죠. 당황스러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왜 내가 좋은데? 라고 그 궁금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법도 좋아보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칭찬을 받으면 괜시리 어색하게 반응하고 그걸 부정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유빈님 글을 통해 아 자신에게 반하게 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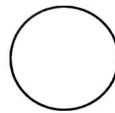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나르시시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제 자신한테 반한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고 뭔가 부끄러웠는데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반하다라는 건 늘 상대방을 통해 느낀 내 감정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빈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반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네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함을 느끼고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덕분에 반하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여
서원준 (중국학과) 제 자신을 돌보고 칭찬해여겠어요! 잘 보고 갑니당



2023/05/18
thursday, pm 7:04 | 14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반하다

1.
“좋아.”

네? 지금 이 바보 같은 고백을 받아준 건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라니.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희대의 망고백이라 불릴 만한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마치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받아본 것처럼. 하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멍청하게 반문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대신에, 지금 시간 있지? 오늘 하루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게 조건이야.”

사실, 너무 많아서 문제지. 물론 없을 리가 없었지만. 하지만 상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터라 반쯤 얼이 빠졌다. 혹시 나 좀... 생긴 건가? 오늘따라 피부가 맑아 보이긴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자신은 처음 본 사람이 사랑에 빠질만한 외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뭐랄까, 운이 좋았나 봐! 천만분의 일의 확률로 상대가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오늘 잭팟처럼 터졌나 보다. 깊게 생각하진 않았다. 기회가 다가왔을 때 붙잡아야지. 갈잡은 자신감에 히죽, 웃었던가. 상대방은 그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뭐해? 빨리 안 오고.”

내밀어진 것은 작은 손. 진, 진도가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속도에 두근거릴 참도 없이, 손을 붙잡혔다. 그리고 느껴진 건 강한 이끌림. 끌려가고 있었던 소리다.

2.
“처음이 아닌 거야?”

“그래.”

“이번이 몇 번째야?”

“글쎄. ...안 세어봤어.”

침묵이 흘렀다. 수도 없이. 나는 수도 없이 그 사람에게. 상념이 깊어지기도 전에, 말소리가 들렸다.

“너는...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한결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걸까.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늘 마지막일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넌 계속 그대로더라.”

나는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을 고백했을까? 그리고, 몇 번을 이별했을까.

“그러니까 내일도, 먼저 찾아갈게. 내가 먼저 찾아갈 테니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 줘.”

“나는 기억하지 못할 텐데.”
아니, 넌 기억할 거야. 지금 이 추억들은 남아있을 거야. 네 안에, 언제까지고... 나는 마치 주문과도 같은 속삭임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 8 💬 3

이유림(경영학과)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생각나는 글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매일 하루하루 추억을 쌓아도 사라지는 느낌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을까 싶어서.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넘나 슬플 것 같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잘 보고 갑니당



2023/05/18

thursday, pm 9:47 | 16월음

김시현(러시아학과)

#9일차 #반하다

반하다 라는 주제를 받는 순간 사실 무슨 내용으로 글을 써야할 지 머리 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연애도 해본 적이 없어서 더욱 막막했다. 그냥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다보니 문득 한 영화가 떠올랐다. 바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다.

이 영화를 본 학우분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사실 저 영화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가 맡은 앤디라는 역할에 반했다.

앤디는 사회초년생인데, 대부분의 입사 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최고의 패션 매거진 회사에 면접을 보러간다. 원하던 직종은 아니었다. 패션에 대한 지식, 센스 모두 떨어졌기에 탈락 위기를 맞지만 악마라 불리는 편집장 미란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 덕에 간신히 미란다가의 비서로 채용된다.

다음 날부터 펼쳐진 미란다가의 무한 호출로 점점 개인생활이 없어지고, 회사 일에 얽매이지만 일은 자꾸 꼬여가고 미란다는 점점 앤디에게 실망한다.

앤디는 결국 자신부터 바뀌어나가기로 결심하고 한 수석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패션계 종사자 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프로다운 일처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에 결국 앤디를 바라보는 미란다가의 시선도 바뀌고 결국 실력을 인정받게된다.

나는 사회초년생이지만 결국 직장상사에게 인정을 받게되는 과정에서의 앤디의 노력에 반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환상을 심어주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 정말 현실적이라 이 영화에 반했다.

우리는 사회초년생이고, 앞으로 취업하고 싶은 꿈의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그 직장에서 우리는 너무 멋있고,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싶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겪을 회사는 많이 다를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겠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같이 힘냈으면 좋겠다.

첫 사회생활의 혼란스러움을 위로해주는 영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성인되기 전, 성인이 되고 난 후 봤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영화더라고요 이전에는 그저 앤디라는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 봤는데 지금은 미란다라는 인물에도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참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어렵듯이 스토리가 기억나네요. 주인공의 노력에, 그 열정에 반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았더랬죠. 저도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아마 미래에는 저의 모습이 앤디가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 같아여

서원준 (중국학과) 이 영화 잘 봤는데 한번 더 봐야겠어요



2023/05/18
thursday, pm 10:21 | 11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9일차 #반하다

모든 일에 신중한 나였다.

무언가를 살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런 내가 너에게 반하는데

걸린 시간 단 3초

네가 문을 들고 들어온 순간 1초
너와 내가 눈이 마주친 순간 2초
서로 싱긋 웃어 보였던 순간 3초

난 감히 예상해 본다.

이 3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3초일 것이다.

이 3초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순간일 것이다.

너에게 이 3초를 강요하지는 않을 터이나
나에게 이 3초를 안겨다 주어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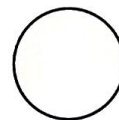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시 속의 '너'도 '나'에게 3초 이상의 소중한 순간을 선사해 줄 거라고 기대해요! 3초 이내의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눈 깜짝할 새 그 말 그대로라고 생각하네요. 좋은 시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반하는 순간은 정말 짧지만 강렬하죠 그 시간이 3초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3초라는 짧은 순간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니 정말 반함이라는 감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드라마 한장면 같은 글이네요:) 풋풋한 느낌이 느껴져요! 너에게 3초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3초를 안겨줬다는 표현이 좋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당



2023/05/18
thursday, pm 11:37 | 12읽음
배성준(경영학과)

#9일차 #반하다

나는 반한다.

푸른 솔잎을 주렁주렁 달고

태양을 온몸으로 삼키며

기지개를 피는 너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는 반한다.
장대비가 쇠아쇠아 내리치는데도
꺼이지 않고 올곧게
줄기와 잎사귀를 펴내는 너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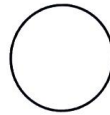
나는 반한다.
천둥같은 울음을 토해내는
파도가 밀려올때쯤이면
수줍게 얼굴을 숨기고
땅속으로 달려가는 너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는 반한다.
고급스럽지 않고 꾸밈없더라도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자신만의 원모습으로
기운을 뿜어내는 너의 모든 모습.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행을 갔었을 때 내가 반한 대상들을 글에
담고 싶어서 시로 써봤어요.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건 그것의 꾸며진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닌 가려지지 않은 원모습,
성격, 마음에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 6 💬 3

이유림(경영학과) 표현이 좋아서 풍경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원모습 성격에 반하셨다니!!
모든 부분을 좋아하기는 어렵지만,, 꾸미지 않은
모습도 좋아하는게 진짜 반하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시 잘 보고 가용



2023/05/18

thursday, pm 11:41 | 11월음
박진옥(사회학과)

#9일차 #반하다

당신, 우리 처음 만난 날 아직 기억해요?
답지도 그렇다고 चु지도 않은 날씨였어요.
그렇죠?
나는 5월에, 당신은 11월에 태어났고
우리는 7월에 여름 어느날에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머리 안감은 모습도,
통통 부은 모습도,
침흘리며 자는 모습도 보여줬네요.
안아주라는 말과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표현과 표정
하나하나까지
눈을 감아도 선명해요.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선명하고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알게해준 사랑들이
곶가에,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난 당신에게 반했어요.

당신도 나에게 반했을까요?

😊 5 💬 2

이유림(경영학과) 계절이 잘 느껴지는 글이라 더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궁금증 유발 되네요 ㅎㅎ 잘
읽고 갑니당



2023/05/18
thursday, pm 11:43 | 15원음
고다인(법학)

#9일차#반하다

나는 평소에 새로운 음료를 마시는걸 좋아한다. 카페 브랜드를 가리지않고 시즌메뉴가 나오면 길가다가 들러서 한 잔씩 사먹는 편이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아쉽게도 커피가 들어간 음료는 마시지 않지만 그래도 신상메뉴는 쉬지않고 나오니 상관없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스타벅스 자몽허니블랙티인데 몇 년 전에 처음 마셔보고 자몽과 꿀이 잘 어우러져 적당히 새콤한게 딱 좋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반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갈때마다 보통 자몽허니블랙티를 시키고는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출시된 이후 8년동안 누적 7000만잔이 넘는 음료라고 한다. 원래는 시즌메뉴로 출시되었지만 전국 매장에서 조기 품절까지 되는 인기를 누리고서 상시 판매 메뉴로 바뀌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자몽허니블랙티의 꿀조합은 티 많이, 클래식 시럽없이 라고 생각한다. 자몽시럽이 충분히 달콤하기 때문에 단 맛을 줄이면 딱 알맞다. 자몽맛도 너무 세지않아서 평소 자몽을 안좋아하는 학우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만한 음료라 추천하고싶다.

여러분은 무슨 음료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 9 💬 8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저도 한동안 스타벅스에 가서 자몽허니블랙티만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요즘에 패션 탱고 티 레모네이드 피지오를 많이 마셔요 시큼한 맛과 탄산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자몽허니블랙티 너무 좋아해요! 단맛을 살짝 덜어낸 레시피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습니다 요즘은 카페 음료에 당이 과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먹지 않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음료예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시원하면서 청량감 있는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토 하나에 반하면 그것만 먹는데 이상하게 밀크티가 좋더라구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자허블은 사랑입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초코칩 아이스티를 제일 좋아해요. 초코초코한 맛은 어느 음료도 못따라온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는 패션티 좋아해요!! 시큼하게 정말 여름에 찰떡인 것 같아요 자허블도 진짜 맛있죠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스타벅스를 가면 자허블

많이 마셨던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상시로
판매되고 있어서 더 좋은거 같아요 ㅎㅎ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돌고 돌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는거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저도 항상 오더로 자허블
시키는 것 같아요!!



2023/05/18

thursday, pm 11:50 | 15월음

조인영 심리학과

#9일차 #반하다

you are my everything.

넌 내 전부라는 건

너 밖에 없고

너가 아니면 안되는

대체불가능한 것.

누군가에게 이렇게 반해버린다는 건

어쩌면 그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가 너무 좋아서 소중해서 고마워서

좋은 것 다 해주고 싶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일거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너에게 모든 걸 다해주고 싶다.



주재형(청각학과) 첫 가사를 보니 you are my
destiny라는 가사도 같이 떠올려지네요.!

반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노래가 생각나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당



2023/05/18

thursday, pm 11:56 | 10월음

김유진

#9일차

저는 반하다라는 주제를 사랑과 연결시켜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랑은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고 경계가
애매한 매혹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몰래
다가와서, 나 자신의 허를 찌르고 나 자신의
세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들
합니다. 세상의 색깔은 더 다채로워지고,
웃음은 달콤한 멜로디처럼 메아리치고, 가장
간단한 제스처도 심오한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에 빠지는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두 영혼 사이의 연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품에서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에 빠지는 것이 도전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를 가진 이에게 나의 가장 취약한 곳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신뢰를 요구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릴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반하는 것은 의미있고
아름다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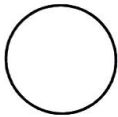


3

이유림(경영학과)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더 나아가 살아있고 싶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사랑이란 많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주변조차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반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용기와 사랑! 듬뿍 얻고 갑니당



2023/05/18

thursday, pm 11:56 | 10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9일차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반한 기억을 떠올려보면 인물들이 떠오른다. 나는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스티브 잡스다. 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던 중 특이한 책이 눈에 띄었다. 책 표지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있었다. 책을 펼쳐보니 그는 스티브 잡스였다. 처음 보는 스타일의 책표지에 나는 그 책을 즉시 읽기 시작했다. 보통은 지루하기 마련인 자서전이 술술 읽혔다. 그의 인생 스토리에 매료되어 본 적도 없는 인물에 반해버렸다. 자서전에 그려진 그의 모습은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마치 만화에 나오는 인물같았다. 책상에만 앉아 인생을 살아왔던 평범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성인이 되고나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난 뒤 나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알게되었고 그 회사가 전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창업자는 스티브 잡스였다. 그 후 애플의

제품들은 다르게 보였다. 그것들은 단순한 IT 기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제품에는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마치 영웅을 따르는 부하들처럼 말이다. 애플의 소비자들은 그에게 반해 그의 가치를 서포트 하는 것이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진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에게 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그를 따를 것이다.



6



3

이유림(경영학과) 제품이라는 것은 가끔 제품 그 자체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점이 느껴졌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스티브잡스의 지도력, 발표력, 리더십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게 하죠. 저도 스티브 잡스를 존경해서 책을 몇권 사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애플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공개할 때 영상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 상당하고 저도 반한 상태인거 같네요



2023/05/18

thursday, pm 11:58 | 13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반하다 #

무엇인가에 처음 반하는 느낌은 너무 좋다. 나는 지금 아샷추에 반해 있다. 커피 맛을 싫어하던 내가 뽕다방 아샷추를 먹고 처음 커피 맛을 괜찮다고 느꼈다. 지금은 아바라도 맛있게 느껴진다.

뭔가에 빠진다는 건 꽤나 신기한 일이다. 반한 것 주변까지 호의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게

신기하다. 무언가에 반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봐야겠다.



7



6

이유림(경영학과) 아이스바닐라라떼 맛있죠!!

아샷추도 맛있는데 설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ㅠ

김시현(러시아학과) 반한 대상의 주변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호의적으로 변해간다는게 공감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풍당 빠지는 경험을 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다방집에
간지도 오래 되었네요. 초코칩 아이스티를
먹어보러 한 번 가봐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뽕다방 아바라 정말 맛있죠

저도 커피를 마시게 된게 아바라인데 뽕다방이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ㅎㅎ 반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아바라 맛있다고 하니 담에
마셔봐야겠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커피에 반하셨네요 ㅎㅎ 저도
아샷추 좋아합니다당



2023/05/19

friday, am 12:19 | 33원음

김양선

#9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반하다'의
뜻때문인지 첫사랑의 추억, 어떤 대상에 대한
몰입의 경험부터 시나 짧은 소설같은
창작물이 다른 날보다 많았네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접했을 때의 순간적인 환희나
떨림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하는', 그리고 '반했던'
순간의 감정과 기억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
에너지로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6



0



2023/05/19

friday, am 7:57 | 33원음

김양선

#10일차 키워드 : 그리다

최근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나요? 나의
미래를 그려보면? '그리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말하지만 이렇게 함축적으로
무언가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그리다'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지요. 그리기와 관련된 경험,
내가 그리는 세상이나 미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등등을 떠올리며 이번 주
마지막 글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1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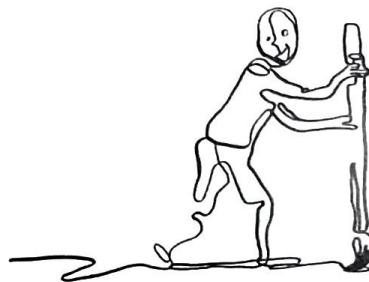
2023/05/19

friday, am 8:31 | 20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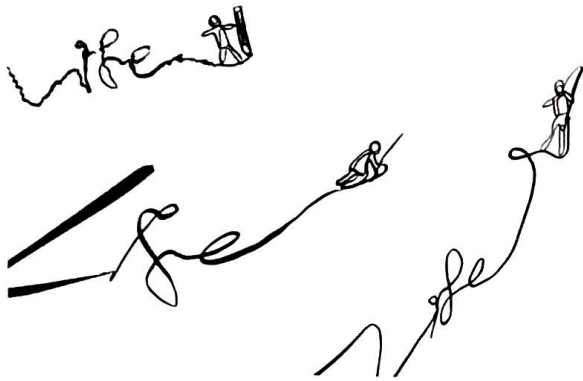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10일차 #인생은 #그림을 #그린다

'인생을 그린다'는 것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서-, 나아가는 것



모두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다, 혹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게 우리가 완성해야 할 그림의 밑바탕이 돼요. 어떤 사람은 검정색 펜으로 밑바탕을 그린 후에 색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형형색색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만의 그리는 방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모두 다른데, 삶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똑같을 리 없죠. 모두 자기만의 머릿 속 그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나갈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는 어떤가요. 그림을 그리려는데 종이의 가장자리에 도착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야 했던 경험, 한 번 짚은 있으실 거예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죠. 작은 용지, 큰 용지, 어떤 사람은 용지 없이 자유롭게 주변 사물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림은 선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것 인생에서의 선택이라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이 그림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선택)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나, 인내, 운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자본처럼 외적인 환경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지기도 해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갈 때, 선부른 판단과 무계획은 난잡한 그림을 만들 수도 있으니, 무모한 도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곳이 없는, 그렇다고 돌이킬 수 없는 암흑에 나를 떨어뜨릴지도 모르죠. 도전에 대한 가치 자체는 옳다고 생각되어야 마땅하나, 자신의 선택으로 빠르고 거칠게 나아갈지언정,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줄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 11 ... 12

김한나(경영학과) 자신만의 그리는 방식으로 모두 다르게 인생을 그림 그려보는 글이네요:) 마지막에 자신에 선택으로 나아가되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인상 깊네요! 재형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심지범(경영학과) 자신의 인생에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각자마다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모두 다르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직접 그리신 그림인가요? 정말 멋있네요!! 정성이 가득 담긴 글을 읽고 좋은 기운을 받아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김소은(미디어스쿨) 직접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소은 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벼운 스케치를 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에는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양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재형님 글처럼 지금 이순간에도 전 펜으로 제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뒤를 돌기 전까지는 어떤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 그림이 멋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재형님 덕분에 제 인생의 그림에 설레기도 하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재형님도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길 응원합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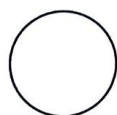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책임질 수 있는 도전을 하며 인생을 그려나가고 싶어지네요 멋진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바탕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밑바탕을 그려보라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색칠을 하기도 하고 가꿈은 스티커도 붙이고 해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모두 다르다, 삶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똑같을리 없다는 말이 멋지네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그려나갈텐데 모두의 삶이 멋진 그림으로 그려지길 바랍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설령 꿈꿨던 목표를 정확히 그대로 실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그리고 되새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떤 종착역을 초월하여 항해의 여정 그 자체가 삶의 의미를 만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9

friday, am 8:45 | 20월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10일차 #그리다



작년 8월 쯤 그림을 그렸다.

마음이 답답하고 몸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과
힘든 몸이 만난 나는 화랑에 찾아가
물감을 통해 흰 도화지에 수를 놓았다.

내가 생각한 처음 그림과 다르게
흘러가는 전개에 놀랐고
완성된 그림에 내 마음이 투영되어 놀랐다.

그림에 감정을 담는다.

그린다는 행위가 치유며, 글대신 모양과
형태로
스토리를 담는다.

그 스토리가 좋아서
스토리를 느끼고 싶어서
전시를 가는 나도 만나나 보다.

그림을 그리고 그린 그림을 본다.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본 세상을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린다.

😊 11 💬 12

김한나(경영학과)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생각이
 자연스레 그림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신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종종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과는
 반대로 아름답게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상민님도 그림을 통해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셨으면 좋겠네요

심지범 (경영학과) 그림이 너무 이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그림 너무
 멋있는데요!? 이런 거에 소질없는 저는 그저
 감탄만 나오는 그림이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첫 그림이 눈을 사로잡네요.
 직접 그리신 그림이라는 거에 두 번 놀랐습니다.
 생각을 그린다는 표현이 아름답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아픔과 우울함은 하얀
 도화지에 두고 가시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잘
 보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그림도 결국 사람이 그리는
 것이기에 감정이 담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울한 사람이 그린 그림과 밝은 사람이
 그린 그림은 색깔부터 선, 질감의 표현까지
 세세하게 다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요. 아마 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남들이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림의 존재이니까요. 상민님 덕분에 멋진 그림도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볼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그림은 단순히 묘사가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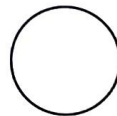
그리는 이의 당시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있죠.
 그림을 보며 화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지
 또 그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들여다
 보는 것도 좋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니까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그림 잘 그리셨는데요..?
 감정을 담은 그림은 참 묘한 느낌을 줄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기에
 그림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진 속 그림도 너무
 멋지네요 잘 읽고 잘 봤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진짜 멋진 그림이네요...!!글도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림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가는 붓의 움직임을 통하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관조하시는 학우님의 깊이애 감동하고 갑니다
 응원합니다!



2023/05/19

friday, am 9:26 | 17월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0일차 #그리다

나는 웹툰PD가 되고 싶다. 웹툰PD라는
 직업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작가를 케어하고 웹툰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웹툰 프로모션부터
 유통까지 작품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편집자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웹툰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업도 이쪽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충안을 낸 것이 웹툰PD였다. 2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 나름 다른 친구들보단 미래가
 그려지는 편이지만, 4학년이 된 요즘에는
 막막하기 그지없다. 이제야 막 떠오르는
 업계의 직업이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취업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취업준비’라는 단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요즘. 나는 매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를 해야 할 거 같고 남들에 비해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이다. 하루하루가 불안함의 연속이지만, 모든 4학년들의 고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또한 이겨낼 것이다. 4학년들 파이팅이다!

😊 10 💬 11

심지범 (경영학과) 웹툰 pd 꼭 되시길 응원하며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사빈님의 꿈을 응원해요 이 세상 모든 4학년들 화이팅

주재형(청각학과) 자신만의 꿈을 그려가는 사빈님을 응원해요. 웹툰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빈님이 웹툰PD가 된다면 언젠가 사빈님의 이름을 볼 날이 오게 되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사빈님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힘든 길이겠지만, 그래서 더욱 웹툰PD가 되셨을 때 사빈님이 위치가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때지만 매일의 꾸준한 나날이 모여 원하는 지점에도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렬히 응원하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 하나 남기고 갑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닐 것이다."

서원준 (중국학과) 파이팅입니당 열심히 해보아요 같이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취업준비를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만이 멈춰있는 거지만 사빈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빈님 글만 봐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느껴져서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불안한 하루를 보내기 보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정한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길 바라요! 사빈님의 앞날이 화창하기를 응원합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꿈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건 정말 멋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웹툰pd의 꿈을 이루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드라마로 한번 봤던 직업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사빈님도 원하시는 길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결승선에 다다를때까지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자신의 속도로 달리다보면 선을 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멋진 꿈 응원합니다



2023/05/19

friday, am 10:49 | 19일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0일차

매일 밤마다 성벽과 담벼락, 성당과 집의 벽들에 누군가 그림을 그렸다. 주민들은 처음에 행위 자체를 비판했으나 그림이 아름다워 지우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야간 순찰을 시작했고 화가는 그들을 놀리듯 사각지대에 그림을 금방 그렸다. 새로 취임한 시장이 이 사건에 대해 듣고는 크게 화색 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마을은 벽화로 유명해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마을이 유명해지자 범인은 범행을 멈춘 듯했다. 대신 사기꾼들이 나타나 자신이 그림을 그렸다고 떠들어댔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려 팔았고, 허름한 옷의 나그네도 합류했다. 나그네의 그림은 벽화와 몹시 닮았으나 아무도 사지 않았다. 한 고객이 그림을 유심히 보고 있자 나그네가 물었다. [왜 제 그림을 사지 않는 걸까요? 벽의 그림과 같은데요.]

그러자 고객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전혀 같지 않아요. 벽화가 미카엘이라면
당신의 그림은 루시퍼에 가까우니까요.]
나그네는 쓴웃음을 지으며 뒤돌아 벽에
그려진 천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같은 사람이 그린 것인데 어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명성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림을 그렸듯이 매일 밤마다 벽에서 그림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같은
범행이 일어났고, 이전의 마을은 명성을
잃어야 했다.



심지범 (경영학과) 답벼락에 그림그리는 봉사를
했던적이 이 글로 인해서 추억이 떠오르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재형(청각학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표현해주셨네요.
그림을 볼 때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교훈을 주는 이야기네요!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하면 안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용 교훈
주는 글 잘 보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충민님의 글은 마치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를 떠올리게 하네요.
뱅크시도 항상 사람이 없는 시간이나 드문 곳에
몰래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늘 사회적 풍자를
그림으로 표현하죠.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 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뱅크시가 그린 벽화
그림이 그려진 건물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리기도 했죠. 이러한 것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뱅크시는 실험 하나를 진행해요.
노숙자같은 노인이 자신의 그림을 팔도록 했죠.
아니나 다를까 복제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지 않죠. 소수의
사람들만 그림보단 노인의 모습을 보고 사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명성이 사람의
가치를 없앤다고 생이 들었어요. 보여지는
이미지만 추구하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니깐요. 충민님의 글을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져 글이 길어졌네요 ㅎㅎ 덕분에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뱅크시가 떠올랐어요.

참 가치관게 아이러니 한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뱅크시가 센트럴파크에서
자신의 그림을 팔던 유명한 일화가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같은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른
감상을 갖게 됨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글이네요 편견 속에 감상을 가두기보다는 열린
마음과 시각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9

friday, pm 12:30 | 20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0일차 #그리다

무언가를 그리거나 쓸 때는 연필, 볼펜, 물감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채워나간다.
요즘은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나, 도구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우리의 곁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듯하다.

많은 도구들 중 연필이 가장 희소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레 던지고 싶다.

나는 아직 연필을 좋아한다. 지금도 연필을
가지고 다니고 특별한 글을 쓸 때마다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리나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쁜 말 같은 거? 내 기준으로 소중한다고 느끼는 생각과 말들은 연필로 적어야 맛이 난다. 사각사각... 뽀뽀... 특유의 연필 냄새도 좋고 다양한 디자인의 연필들, 나보다 긴 삶을 산 연필. 나처럼 아직도 연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길 바라지만 나도 내가 언제까지 연필을 사용할지는 장담 못한다. 그냥 한 자루씩은 우리 곁에 남겨놔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연필의 냄새. 연필은 쉽게 번지고 지워진다. 사실 지우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선을 그었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껏 틀려도 된다는 뜻이 아닐까? 영원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 삶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다.' <매일을 헤엄치는 법> 중에서

😊 12 💬 13

주재형(청각학과) 요즘은 다 태블릿으로 필기하다보니 오리지널, 아날로그의 필기구에 대한 애정이 예전보단 식은 듯합니다. 예쁜 디자인의 볼펜이나 그런 것들을 모으는게 취미인적도 있었는데 추억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지워진다는 점에서 연필 특유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부담없이 연필과 같은 부드러운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요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저도 연필을 좋아해요. 연필 특유의 연한 회색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래 쥐고 있어도 손이 아프지 않아서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저는 태블릿을 쓰고 있지만 연필 필기감이 좋아서 연필 느낌의 펜촉을 사용하고 있어요 ㅎㅎ.. 연필 필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군요??

서원준 (중국학과) 여러가지 도구가 있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고등학생 때 연필에 푹 빠졌었어요. 샤프나 볼펜으로 느낄 수 없는

연필만이 가진 감촉과 감성이 저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필통에는 샤프 대신 연필 6자루와 수정펜 대신 소형 연필깎이가 들어있었죠. 반 애들은 대부분 연필이 금방 닳는다고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원님의 글을 읽으니 동질감이 느껴졌네요 ㅎㅎ 그리고 지원님의 글 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연필의 매력 외에도 또 다른 가치를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어릴 때 샤프를 쓰면 혼란 기억이 있어요. 샤프를 쓰면 연필만큼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부모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샤프를 쓰지만 연필만의 부드러운 느낌은 잊을 수 없네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그러고보니 연필을 안쓴지 꽤 된 것 같네요... 항상 볼펜만 쓰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태블릿으로 색채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지만 실제 종이 위에 내 손으로 종이의 감촉을 느껴가면서 그리는 것은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종이에 필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반가워요. 좋은 기기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연필로 직접 종이에 그리는 그 감촉과 기분의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학교 다닐때는 아이패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 시험공부 할때 연필을 주로 쓰는거 같아요! 어릴때 샀거나 받았던 연필들이 있어서 그냥 두긴 아까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연필은 쉽게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장점이 좋은거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연필 좋아해요 근데 필통이 더러워지고, 연필깎는 귀찮음으로 더 편한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연필의 나무 냄새와 사각거리는 소리가 참 좋죠 하지만 잘 부러지고 번져서 애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의 책 속 구절이 참 맘에 듭니다 잘 읽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맞아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그 아날로그 감성을 쫓아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마다의 장점이 있겠지만 저도
아날로그처럼, 언필 좋아합니다!! 잘 읽었어요.



2023/05/19
friday, pm 1:32 | 15월음
김시현(러시아학과)

#10일차 #그리다

한 여름날,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청년은 어느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사랑에
빠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시험해왔다.

그녀의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고,
그는 마을에서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결심을
했다. 이별을 앞둔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약속을 교환했다.

"우리가 헤어진 뒤에도 나는 항상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떠날 순간을 맞이했고,
그들의 삶속에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늘 그녀에게 끌렸다. 결국 그는 그리움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그녀를 그리는 소설을
써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녀와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했다. 그의 소설엔
그녀와의 사랑, 이별,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의 소설은 출판사에 투고되었고, 독자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들의 사랑을 함께

느꼈다.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리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는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도 그리움을 달래줄 수
없었다.



8



6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운명과
그리움을 바라보는 애절한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짧은 인생에서도 그리움의 추억이
없나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두 남녀의 가슴절절한
사랑이야기네요.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고도 그의
그리움이 희석되지 못한 점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느껴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으신 작가네요 잘 보고
갑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람의 감정을 통해 느끼는
그리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성공으로도요. 물질적이거나
결과물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감정은 다른 사람을 울릴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현님의 글을 읽으면서
작가로 성공한 주인공에게 진정한 사랑의 인연아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네요
ㅎㅎ 덕분에 사람의 그리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그리움과 사랑은 참 다를 것
같아여. 실제 또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때와 같이
사랑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움이 가득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감정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자신의 그리움을 책으로
내어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 멋지고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는 그림에도 그리움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9

friday, pm 2:40 | 16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10일차 #그리다 #그림

요번 해시태그는 그리다 인데요!

그리다 라는 뜻을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더라구요!

연필,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그와
닮게 선이나 색으로 나타낸다. 생각, 현상
따위를 말이나 글, 음악 등으로 나타낸다.
어떤 모양을 일정하게 나타내거나 어떤
표정을 짓다.

선이나 색으로 나타내는 우리 사람에게도
해당하는거 같지 않나요!?

우리 몸에는 여러 선들이 있고 각각의 색들이
있죠!

어떤 모양과 어떤 표정을 짓는것도 그리다의
뜻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그리다 라는 뜻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것처럼
그것이 그리다의 의미가 포함이 된거 같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인생의 한 장면도 그리는것일것이고! 우리
유치원때 부터 스케치북에 아무 생각없이
그렸던 그림들 초중고 등학교 때도 미술
시간에 그리던 그림들 또한 수업시간이
지루할때 교과서에 낙서를 하는것도 참
추억인거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끝으로 어제 부로 3일간의 축제가

끝났는데요... 어제 새벽 2시까지 달렸더니..

오늘 아침이 힘드네요... 그래서 점심에 학교

앞 정문 대암 감자탕집에 가서 뼈해장국을
시켜 먹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같이
소화시키고 있네요!

오늘은 도 불타는 금요일 입니다! 다같이
불금을 즐겨보아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각자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다르겠지만 열정을 갖고 임하는
모습은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청춘을 응원합니다 p.s. 근데 저도 왠지 해장국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한 착각이 드네요 ㅎㅎ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해장
잘하세요!

주재형(청각학과)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쌓으면
일송기념도서관 천장까지는 닿을 것 같네요.
그만큼 크고 작은 낙서들, 그림들이 저의 기억과
함께한 것이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범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있다는 지범님의 글에 공감이
돼요. 온전히 내 손에 쥐어진 연필을 통해 인생을
그려나간다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멋진 행동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 그림의 끝에는 어떤
작품이 완성되어있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 수
없지만 찬란한 미래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저는 또 한 번 성장하게 되네요 ㅎㅎ 지범님도
앞으로의 인생이 화창하길 응원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업이 지루하면 낙서를 하곤 해요
ㅎㅎ 역시 지루할 땐 낙서만큼 재밌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앞으로 어떤 추억들이 살면서
그려질지 궁금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생각보다 정말 많은 그림을
그려오는 것 같아여 어쩌면 매일 짓는 표정이
우리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범님! 대암 감자탕 맛있나요..?

심지범 (경영학과)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이유림(경영학과)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작품을
완성해나가고 있는건가봐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2023/05/19

friday, pm 3:08 | 16월음

서원준 (중국학과)

#10일차 #그리다

내 마음을 읽고 그리다, 저는 제 심정과 여러
활동등을 통해 정리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 전 많은
성장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

그리고 어제 축제때 어떻게 놀고 즐길까를
머릿속에 그려봤는데, 조금 벗어난 과음과
계획때문에 오늘 수업을 못갔어요..
계획을 그릴 땐 정말 철저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

다시 빨리 운동해서 정신을 차려보고 오늘의
계획을 그려봐야겠습니다 !! 오늘도
파이팅입니단 ~~~~!



9



8

주재형(청각학과) 어제 축제의 마지막이라
심심하게 마지막 밤을 보내기엔 아쉬움이 크죠.
그것 때문에 수업에 못가는 불상사(?)도 있었지만
파이팅 넘치는 원준님의 글에서 의욕이
느껴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원준님처럼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한껏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글을 직접 써보면서 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지만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삶의 배움을 또
얻어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여하길 잘했다고 느낌이 들어서 제 자신에게

칭찬을 듬뿍 해주고 싶네요! 원준님도 이 경험을
통해 지금보다 더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의 오늘 계획은
오랜만에 본가 친구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벌써
친구들 만나서 놀 모습을 그리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네요 비록 과음 때문에 수업은 못갔어도
원준님께서 즐겁게 즐겼다면 그걸로 만족해도 될
것 같아요 ㅎㅎ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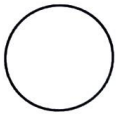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계획을 잘 그리고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마음을 읽고 그리다 좋은
말이네요:) 생각해보면 머릿속에서 항상 계획을
그리고 있었는데 원준님의 글로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열심히 달려오다 한번쯤은 계획처럼
실행하지 못 했을때 잠깐 쉬었다 다시 달려도
좋을거 같아요:) 오늘의 계획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전 마음을 일기쓰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생각도 많이하는 편이라
깊이생각한 내용을 정리하는 겸 해서 노트에
쓰고있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너무 촘촘하게 계획하면
오히려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축제에
즐거움이 없다면 팔이 없는 붕어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새로운 경험과
추억으로 가득한 대학생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내서 남은 라이팅 챌린지 기간도 지금처럼
좋은 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3/05/19

friday, pm 3:30 | 14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0일차 #그리다

아무런 흥미도 없이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자던 내 고개를 들어올렸던 건 너의 향기였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남긴 너의 흔적에 내 심장은 반응했다. 애써 무시해왔지만, 갈수록 요동치는 심장 소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다. 네 옆에만 서면 혹여나 이 소리가 들릴까 항상 긴장했다. 집 방향도 같았던 탓에 긴장에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느라 내 주머니는 점점 헐거워졌다. 그 날도 우린 어김없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고 나는 여전히 주머니를 손으로 꼭 쥐어 걸었다. 늘 나와 떨어져서 걷던 너는 작은 발로 뛰어 와 어느새 땀으로 가득 찬 내 손을 꺼냈다.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손에 살며시 포개며 나를 향해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 웃음에 보답하듯 나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 대신 너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때의 떨림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우리의 사랑에 금이 간 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다. 점차 싸우는 일이 많아지던 우린 서로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넌 눈물을 보이며 내 곁을 떠났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만 같았던 내 마음이 울부짖게 된 건 너와 헤어진 다음 날부터였다. 후회로 가득 찬 내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점점 멀어져가는 네 등만 보일 뿐이었다. 너의 눈을 볼 수 없었던 난 너의 등을 향해 외쳤다. 너와 함께한 찬란했던 그 시간들이 난 너무 그리다고. 나의 시간은 여전히 너와의 시간에 멈춰있다. 그리움에 떨리는 손은 너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뿐이다. 잡을 수 없을만큼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의 거리는 정적이 대신 가득 채웠다. 너를 잊지 못하는 난 또 다시 마음 속에 널 그려본다.



7



7

최현영(법학과) 이별은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ππ 시간이 약이라는 말!!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재형(청각학과) 좋아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너무 그리워서 나만 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경험이었죠. 그 이별을 극복하는 것이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인간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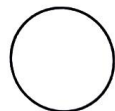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당!

김시현(러시아학과) 이별의 그리움은 참 잊고 떨쳐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사소한게 쌓여서 실망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이유림(경영학과)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좋았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며 지난 과거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유해주신 글을 보니, 가수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라는 곡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만남의 추억에는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모두 담겨지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지나간 그리움을 잊게 할 행복의 순간들이 앞으로는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05/19

friday, pm 3:50 | 15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그리다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잊었나. 잊어버린... 걸까. 간단한 선을 긋는 행위조차 할 수 없었다. 늘 해왔던 일이었는데! 신경질적으로 펜을 집어 던졌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정도라고?

그렇게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 난 고여있었다.

1.

표현의 예술. 머릿속 상상을 꺼내는 일은 늘 즐거웠다. 부모님은 칭찬을, 친구들은 부러움을 보냈다.

'나는 어쩌면, 대단한 사람일지도 몰라.'
잠깐 자만심에 빠졌던가. 꽤 괜찮은 실력이라고 생각했었다. 어쩌면 천사가 나를 축복한걸지도 모른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피카소, 그들의 그림을 보며 이까짓은 나도 할 수 있었다 생각했다. ... 그 애를 보기 전까지는.

압도감. 박력에 나는 짓밟혔다.

2.

재능의 한계란 명확했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꿈. 이정도 시련에도 굴복해버리는 내가 다시 펜을 잡는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선 하나도 긋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꿈꿀 수 있겠는가?
그린다. 무언가를 그리는 일은, 분명 즐거웠는데. 이젠 끄적했다. 어떤 것을 그려도 비교밖에 되지 않았다.
구깃, 떨리는 손이 종이를 구겼다. 그건 마치 구겨진 미래와도 같았다.

그 애가 부러웠다.
미치도록, 부러웠다.

3.

조각난 그림 앞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앞으로의 꿈을 그리는 일은 나에게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제 손으로 그리진 못하더라도



7



5

주재형(청각학과) 예술적 감각을 타고나는 것에 좌절한 한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의욕이 떨어지죠. 그에 관련한 주인공의 심리를 잘 표현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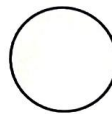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에 예술은 천재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진님의 글을 읽다보니 그 말이 조금 실감이 나네요. 모두가 다 똑같은 실력에 내가 더 뛰어나기 위해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걸 쟁취해야하는 게 예술 같아요. 그러한 고된 노력과 재능이 있기에 예술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네요.. 하지만 예진님의 인생은 그런 순간보단 화창한 날이 더 많길 응원합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예술 감각이 굿이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마지막 너무 슬퍼요.. 계속해서 뭔가 꾸준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맘처럼 잘 되지는 않겠조

이유림(경영학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재능이 너무나 큰 산 같이 느껴진 적이 있어서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2023/05/19

friday, pm 4:02 | 17읽음

최현영(법학과)

#10일차 #그리다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는 일. 나를 롤모델로 삼고 나를 동경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어제로 3일 동안의 행복한 축제가 막을 내렸다.
2시간 동안 기다려서 로꼬와 이하이를 봤다. 진짜 너무 예쁘시고 너무 멋지셨다. 수많은 사람이 로꼬로꼬로꼬 이하이이하이를 외치며

환호했다.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지!?했다.
나는 요즘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유명한 사람을 보고 듣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치열하게 달려왔을지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오로지 내 꿈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아무도 나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서 강연을 듣고 박람회
가고 하는 것들이 귀찮게만 여겨졌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쳐 보기만 해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관광 관련 특강을
듣게 되었다. 준비해 오신 내용이 진짜
신선하고 알찼다.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맛있다!!는 생각이 절로 나왔다. 강연이
순식간에 끝이 났다. 여행 가이드에 관심이
생긴 나는 내 주변 사람 중에는 없는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했다. 인터넷에 찾아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길이었다.
관광 특강이기에 여행 가이드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에 간
특강이었지만 아쉽게도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가이드와 관련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고민고민하다가 특강이 다 끝나고
따로 남아 질문을 했다. 혹시.... 여행
가이드가 되는 방법이 뭔가요?! 이 질문
하나에 온라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이 한층 가까워진 듯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주저하지 않고 도움 요청하기!
내 미래에 나는 지금은 느낄 수 있지만 내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 7 💬 7

주재형(청각학과) 어제 축제는 정말 꿈같은
공연이었죠 여행 가이드의 꿈을 그려나가는
현영님의 앞길에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느리게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게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가면 갈수록 놓치는 게
더 많아지기도 하구요. 그래서 가끔은 느리게
가거나 심지어 멈추더라도 인생의 가치들을
주워담으면서 갈 수 있다면 전 오히려 그 길이 더
단단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현영님도 저도
속도에 상관없이 느리지만 가치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봐요! 그런 현영님을 응원합니다 ㅎㅎ 글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처럼
하이팅입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감한 일이에요! 멋진 꿈을
그려나가는 현영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고민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용기가 멋집니다! 여행
가이드도 참 멋진 직업인거 같아요:) 주저하지 않는
마음도 중요한거 같아요! 현영님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실제로 인터넷의 정보와
이야기해주시는 정보에 많은 차이가 있는거에 정말
공감이 많이되요. 소통하고 궁금한 것을 더 자세히
알게되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작은 용기가 큰 결과를 만들기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회이자 권리인 것 같아요 언제나 주저 말고
많은 질문을 하길 추천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9

friday, pm 5:24 | 13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10일차 #그리다

너와의 미래를 그린다

너와의 사랑을 그린다
너와 함께하는 꿈을 그린다

행복한 나를
행복할 나를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그린다

그러다,

그려지지 않는다
검게 그린다
행복이 그을려진다

사랑했던 너를
사랑받던 나를
행복했던 우리를 나는 지금

그린다

그러다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사랑을
행복할 나를 그린다

그리고
그리고
또, 다시.

😊 7 💬 5

김시현(러시아학과) 시를 읽는데 푹푹하면서도
괜히 마음이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멋진 시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그-의 반복을 이용해서 다양한
단어들의 집합이 잘 어우러진 시네요! 좋은 시 잘
감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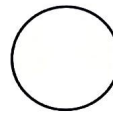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잘 보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영님의 시를 보며 인생은
그리기의 연속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행복한
모습과 가끔은 우울한 모습까지 제 도화지에 여러

감정이 담긴 그림이 그려질 생각을 하니 설렌
기분이 드는 건 뭘까요? 아마 제가 죽기 직전까지
손에서 펜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덕분에 인생의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인영님의 앞 날엔 지금보다 더 밝은
그림이 많이 그려지길 응원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정예진 (생명과학과) 만남과 이별의 반복인 인생을
그린다는 말로 표현하신게 인상 깊네요 :) 잘
읽었습니다.



2023/05/19

friday, pm 6:44 | 13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0일차#라이팅챌린지#그리다

'그리다'에는 '사물의 모양을 표현하는 뜻'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글을 쓰려고 한다.
나는 마음이 불안할 때, 괴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의 말과
모습을 생각한다. 나를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당부의 말까지 벅차고, 기쁘고,
슬프고, 떨리는 순간들을 조금이라도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순간을 그리며 머리 속으로 되새김질 한다.
그러다 사는 게 힘들 때 너무 우울할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며 버티는데 그것 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더 많다. 너무나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손을 잡고 싶다고
간절하게 생각을 하며 그 순간을 상상하곤
한다. 아주 가끔씩 꿈에 나와 머리 속에
그리던 대로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존경하는 모습들을 꿈속에서라도 보고,
느끼게 되면 몇 달 간의 버틸 힘을 건네 받는

느낌이다.

간절하게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목소리가 기억하려면 할수록 잊혀지는 것 같을 때 나는 너무 괴롭다. 머릿속에 기억은 명확하지 않아도 그 때의 감정과 따뜻함을 가지고 또 다시 오늘도 순간을 그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를, 그리다 보면 꿈에서나, 실제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소중한 순간을 그리며 살아간다.

😊 9 💬 9

서원준 (중국학과) 소중한 순간 순간 같이 잘 그려나가요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나를 생각해주시는 상대방을 상상하면 보고싶고 그리워지는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기억이 참 어렵듯하게 남아서 다시기억하려고 애써도 참 떠오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이 있었기에 아마 유정님이 버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감사합니다:) 수민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좋은 주말 되세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존경하는,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려보는 건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유정님처럼 제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기억 혹은 잊지 않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기억들은 늘 마음 속에 그리는 것 같아요. 그저 기억에만 의지하는 것보단 한 번 더 그려보는 게 추억하고 싶은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정님처럼 오늘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정님도 저도 그 그림들을 통해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좋았던 순간들을 그리면서 힘든 순간을 버티는 것 같아요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종종 느낍니다 그럴 때 갈 곳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지요 살에서 역경을 마주했을 때, 나침반의 지침이 되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학우님의 삶의 항해를 응원하겠습니다 :)



2023/05/19

friday, pm 7:26 | 12월음

이유빈(사회학과)

#10일차 #그리다

어렸을 적, 어린이집을 다닐 때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다들 한 번쯤 화가라는 꿈을 꾸어봤을 것이다. 나도였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방과 후에 미술 학원을 가고 많은 미술 대회도 나갔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교내에서 하는 미술 대회에서 상도 타고 한 때 잘나가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건 다 과거의 일이다. 커가면서 화가는 돈 못번다는 주변 어른들의 말을 듣고 꿈이 점점 삭막해져갔다. 어른들이 원하는, 바라는 꿈으로. 커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도 줄어들고 미술 수업도 점점 줄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을 향유하는 일에 점점 멀어져갔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전시회도 다니고 미술관도 다니면서 그림과 예술에 대한 흥미가 다시 생겨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어릴

적 꿈꿔 왔던 멋진 화가가 되어 나만의 그림을 그려 나갈테니까.

😊 7 💬 6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화가는 돈을 못버는 인식이 정말 많았던것 같아요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진 게 새삼 깊어 다가오는 것 같아여
김시현(러시아학과) 나만의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내용이 인상깊어요 잘 읽었습니다!! 전시회나 미술관 관람하는 거 정말 맛있는 취미가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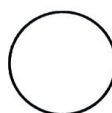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예술에 대한 열의가 돋보이는 글이네요. 누구나 화가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구요.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림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많죠. 저도 나중에 전시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릴 적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 이 순간 유빈님의 방식대로 화가가 되고자 하는 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을 뿐 내가 화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유빈님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에서 화가가 되어 인생의 그림을 누구보다 멋지게 그려나가고 싶네요 ㅎㅎ 덕분에 좋은 배움 얻어갑니다!!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어릴때 화가가 꿈이라고 하면 돈 못버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돈 때문이라는 것은 참 아쉽고도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멋진 취미네요 ㅎㅎ 잘 보고 가용!



2023/05/19

friday, pm 9:04 | 16읽음

김노연(사회학과)

#10일차 #그리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모두 애니메이터였다. 엄마는 20살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자신의 이상을 좇아 애니메이션 회사에 입사했고, 거기에서 아빠를 만났다. 아빠가 먼저 엄마에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대체 인생 첫 고백을 어떻게 그렇게 무뎉뎉하게 할 수 있었을까 싶었다며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두 분 다 서로가 첫 연애 상대였고 그대로 결혼까지 골인했다는 사실을 사실 잘 믿기 어렵다.

엄마 아빠 모두 그림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셨기에 나 역시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정확히는 '따라 그리는 재능'이 있었다. 무언가를 관찰해서, 형태와 세세한 부분들을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하여 거의 복사본처럼 따라 그리는 것.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순간 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따라 그리는 것은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그만큼 오로지 선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이 많아질 때 크로키를 하고는 한다. 어떤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여 그 순간 만큼은 잠깐 많은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그려보는 것을 더 잘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상대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을 깊게 이해하기를 좋아했던 과거는 과거로 남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아지고 기력도 없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따라 그려서 그림으로 남기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나중에 내가 건넸던 시간들을 대변해줄 것이라 믿는다.

😊 8 💬 5

주재형(청각학과) 상대의 마음을 그려본다는 말이

너무 예쁘네요. 크로키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것 참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서 탈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아시는 노연님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노연님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ㅎㅎ 저는 지금까지 저만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한 그림도 그려보려고요! 덕분에 좋은 깨달음 얻어갑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부모님께 그림그리는 재능을 물려받으셨군요 그림에 딱히 재능이 없는터라 부럽네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두 분 다 멋진 직업이시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견뎠던 시간들이 다 보상으로 올것입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9:33 | 15읽음
김유진

#10일차

저는 그림그리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기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화려한 장비나 비싼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연필과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멋진 작품을 만들 준비가 끝이랍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전문적인 예술가나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술에 능한 예술가든, 막 시작하는 초보자든, 그림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온몸으로 만끽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떠신가요? 꼭 상상력을 뽐내지 않아도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모작을 할 수도 있고 나무나 숲, 강아지, 새 등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드로잉은 우리가 신선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평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림을 그려보니 '완성'을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는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못한다고 해도 각자만의 유니크한 색감과 그림체는 어느 누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림 그리는 것에 부담을 안 느끼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8



6

주재형(청각학과) 뚱뚱한 새가 너무 귀엽네요. 동물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생명을 창조하는 것처럼 신비한 느낌이 들어요. 온몸으로 만끽해야한다는 유진님의 글에서도 공감하구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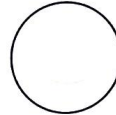
김한나(경영학과) 새가 너무 귀엽네요:) 드로잉이 주는 선물들이 많은거 같아요! 각자만의 그림체도 매력적이죠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오늘 챌린지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진님의 글을 읽으며 그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특히 그림은 완성이 반이나 그렇지 않아도 자신만의 개성으로 가치있다고 쓰신 부분이 저에겐 많이 와닿네요 ㅎㅎ 저도 잘 그려야겠다는 강박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림 그리는 걸 꺼려하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진 님 글처럼 모두가 부담없이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그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그림이 정말 멋져요 어릴적 상상했던 파랑새의 모습이 유진님이 그리신 그림과

비슷한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부담 안갖고 함 해보겠습니다당
심지범 (경영학과) 그림이 정말 너무 이쁘네요!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10:06 | 14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10일차 #그리다

잔인하다
너의 눈이

음습하다
너의 입이

잊을 수 없는 너의 얼굴을
그리고 또 그린다

나를 망쳐놓은 네가
나보다 더 아프길
나보다 더 치욕스럽길
나보다 더 무너져내리길
바라고 또 바라며 너의 지옥을 그린다



7



6

주재형(청각학과) 강한 원망과 증오가 엮보이는 글이네요 어떤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화자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한편으론 슬픈 감정이 들어요. 그의 얼굴과 지옥을 그리면서 얼마나 많은 울분을 토하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을까요... 비록 민지님이 지으신 시이긴 하지만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법한 내용이라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하면서 읽게 되었네요. 그저 상상의 인물이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더 지옥일 수도 있으니까요. 덕분에 다른 감정의 그리다를 느껴볼 수 있었네요.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시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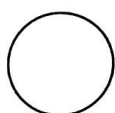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잊고 싶어도 자꾸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를 갇아먹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만두기 힘들죠ㅠㅠ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잘 읽고 갑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심지범 (경영학과)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범인의 몽타주를 보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2023/05/19

friday, pm 10:57 | 12읽음

박진옥(사회학과)

#10일차 #그리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다.

누군가의 얼굴, 함께 했던 장소, 나눴던 대화와 추억들,
때로는 그 향기까지도 기억나기도 한다.
그 상황을 그리다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기도 한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 있다는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만약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 없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게 아픈지 나는 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웃던 얼굴이 우리의 추억이 자꾸만
흐릿해진다.
계속해서 널 그리고 싶은데 그릴수가 없다.
도화지도, 붓도 그릴 준비도 다 되었는데 그릴 수가 없다.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제발 움직여, 하나라도 그려보자
그리자.그려보자 다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는게 괴롭다.

이제는 널 그릴 수 없다. 널 붙잡을 수도 없다.

누군가를 보고싶어도 볼 수 없고, 아무리
떠올려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소중한 것임을
그리지 못하는게 되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바보다.



8



4

이유림(경영학과) 흐릿해져가서 그릴 수 없을 때 참 슬픈 것 같아요 잊고 싶지 않아도 잊혀져 가니까요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막고 싶지만 그릴 수 없는 야속함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 보고 가요

심지범 (경영학과) 내가 그릴수 있다는것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죠! 글잘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11:04 | 15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10일차 #그리다

2021년 4월 18일

너와 석촌호수 앞에서 그림을 그리며
서로에게 하고 싶던 말을 그렸다.

달콤한 말들과
사랑스러운 그림

2023년 5월 12일

너와 석촌호수 앞에서 그림을 그리며

서로에게 하고 싶던 말을 그렸다.

아련한 말들과
아득한 그림

그리다 지우고 있다가 손을 떼
그러다 잊고 있다가 다시 그리워 그리고
그리고 손을 떼. 완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되겠지.



8



4

주재형(청각학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있으니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시네요. 완성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을 맞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이유림(경영학과) 오늘 그쪽을 지나와서 그런가
괜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추억이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심지범 (경영학과)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11:05 | 12월음
고다인(법학)

#10일차#그리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색칠하는걸 더
좋아한다. 미술에 큰 흥미가 있는 편도 아니라
미술시간을 그리 좋아하지않았다. 그래서
3교시동안 이어지는 초등학교 미술시간에도
2교시동안은 친구와 재밌게 떠돌고
마감시간이 다가온다는 선생님의 말에
허겁지겁 도안을 그려 물감을 색칠해 겨우
내기도했다. 그려진 도안에 색깔만 정해서
칠하는 것과 달리 새하얀 도화지에 연필로
그리기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도화지가 클수록 '도화지 크기가 너무 커서
그릴게 많아야하는데 좀 난감하다' 생각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 숙제에는 미래도시
그려오기 등등 미술숙제도 여러개 있었는데

다른 숙제에 한참 밀려 끝등으로 해결하는
숙제이기도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술같은
예체능과목보다는 다른 과목 비율이
늘어나고 그림그리기와 색칠하기는
머릿속에서 잊혀지고있었다. 최근에
다이소에 갔다가 고양이가 주제인
컬러링북이 있어 하나 사보기로 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나에게 딱인 주제라
생각이 날때마다 한 장씩 예쁘게
색칠하고있다. 완성해야할 기한도, 평가할
선생님도, 비교할 친구의 그림도 없으니
자유롭게 느껴져 오히려 재미가 붙고있다.
내일도 여유롭게 좋아하는 음료 한 잔
마시면서 색칠해야겠다.



8



5

주재형(청각학과) 어릴 때 밑그림이 되어있는
스케치북에 색칠놀이를 하는 걸 즐겨했었는데요.
마치 제가 그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성취감이 생겨났던 기억이 나게 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컬러링북이 나와 한창 유행했었는데 그때 사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열심히 칠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면 꽤나 뿌듯한 거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주말도 푹 쉬세요 !!
하이팅입니당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고양이 컬러링
북이라고 하시니 사뭇 흥미롭게 들리네요 색칠이든
회화이든, 여유로운 취미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려나가는 것이 좋은 행동이내요!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11:14 | 11월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10일차 #그리다

나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

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죽을등 살등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 하였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한 후,
중앙경찰학교라는 진정한 경찰이 되기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에 들어가 1년동안의
교육을 마친 후, 지역파출소에 의무발령받아
몇개월간의 현장실습을 해낸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잘 해내어 내가
원하는 서울의 경찰서에서 복무를 하기로
됐다. 아주 멋진 경찰 제복을 입고 가족들께
경례인사를 하며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우리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경찰이
되어 받는 월급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여자경찰이 되어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었다.

제 꿈은 경찰입니다. 내가 이미 경찰이
되었다고 상상하여 미래의 저의 모습을
그려보았는데요. 상상하면서 자세히
적어보니 경찰에 대해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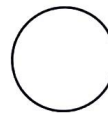
8



5

주재형(청각학과) 동금님이 그린 미래상은 희망과
열정이 가득한 경찰로서의 모습이네요. 꿈을 향해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기대되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진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상상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그려본 상상이 현실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처럼 이루어진다면 뿌듯하고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네요 ㅎㅎ 화이팅입니다!
김한나(경영학과) 행복한 미래네요:) 그리다를
이렇게 해석하시다니 멋있으세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그려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아주 뿌듯한 글이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11:14 | 12월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0일차 #그리다

어렸을 때의 나는 그림 그리는 것, 색칠하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화가, 공예가, 디자이너 등 예술적인
방향으로 장래희망을 그려나갔다.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생 입학 앞둔
무렵,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으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너무 허망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장래희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진로를 한 순간에
변경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막연히 심리상담사라는
진로를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며 해결해 혹은 개입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사회문제와 인간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 심리/정신건강 쪽에
관심있던 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희망했다. 이 진로를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취업 현황은 어떤지 등 철저한
계획을 위해 이 직업에 대해 조사했다.

사회복지학부 대학생이 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의료사회복지사'에도 관심이 생겼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50대쯤이 되면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카페를 차리는 건 어떤지
얘기해주었다. 실제 사례도 찾아보며 나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나의 행복한 미래의 모습을 위해, 현재 나의
모습을 열심히 그려본다.



8



5

주재형(청각학과) 자신의 목표를 그려보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상상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그려보는 과정은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와 꿈을
그려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계획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글을 읽고 끈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보민님이 멋지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꿈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화이팅이에요 응원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고등학생 때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고 싶었고 막연하게
노후에는 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사회복지가 아닌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경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진 않아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된 카페를 꼭 운영하시길
바랄게요

심지범 (경영학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열심히
그려보아야 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11:47 | 15읽음

김용후(법학과)

#10일차

#그리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내 기린 그림인데,
인공지능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대체 누구의
기린 그림이지?", '그린다'는 행위는 연필, 붓
따위를 이용하여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작가의 사상을
이미지로 변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그림, 소설, 시, 음악 등 예술
창작의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독립한 창작물로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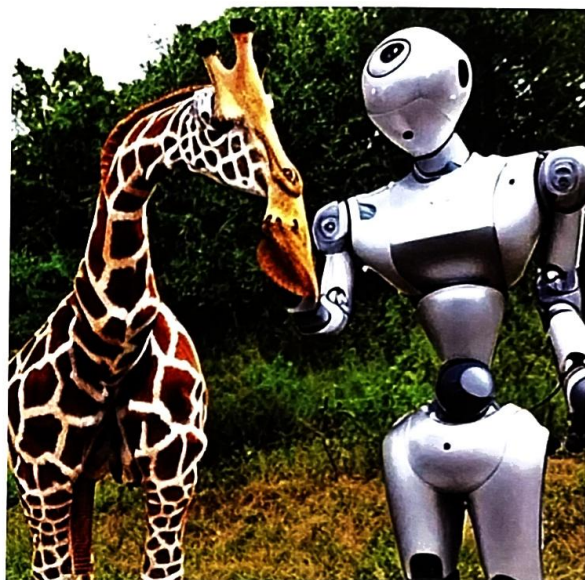
일부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은 이미 존재하는 작품들을 학습하여,
다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작가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지시를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산출해낸
결과는 작가의 창작이 된다는 주장을 편다.
현재는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은 저작물로
바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자신의 고유한 사상에 입각해서 그
의도대로 작품을 형성하였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학습을 위해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일부는 예술 작품은 수많은 다른
작품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작과 직접적 유사성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대편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영리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작을 변형하여 유사한 형태의 작품을 제작 및 유통하는 것은 원작자의 사상을 향유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한다.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 증가는 인간 예술가에게 더 창의적이며 고유한 개성을 발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래 사회의 예술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기만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술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무엇을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가'와 연관이 있다. 기계가 수초 만에 그림을 내어 놓은 이 시대에 인간의 독창성과 예술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이미지는 인공지능 서비스 Stable Diffusion을 활용하여 얻어진 '그린 그림'입니다.



9



4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정보 잘 보고 갑니당
편안한 밤 보내세용

이유림 (경영학과) 그림과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네요 항상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 (청각학과)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 활동의
증가는 예술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예술가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기린 그림이 재미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9

friday, pm 11:57 | 14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그리다 #

나는 어렸을 때부터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고,
항상 이런저런 생각, 상상들을 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잘 잠들지 못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게 정말 터널처럼
깜깜하게 보인다. 무언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이 자극되어 생각하는
모습처럼 변해간다고 한다. 이제는 남의
그림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되고 싶은 내
모습을, 내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되었나
보다.

😊 9 💬 6

서원준 (중국학과) 자신감을 가져요 할 수 있어요
잘 보고 갑니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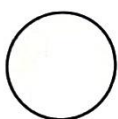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현재는 미래의 자신을 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자신의 발견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발견하려는 과정에서 변화, 그에
따른 자신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져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선율님의 그림을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비슷한 상황인거 같아요!
매우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같이 각자의 멋진
그림을 그려봅시다

심지범 (경영학과)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는것이
제일 좋은 목표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선율님의 그림을
응원합니다!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9

friday, pm 11:59 | 13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10일차

그림 그리는 것. 단순한 행위 같지만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행위 인것 같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잘 그려진 그림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 최근에 본 그림 중 가장
감명 깊었던 작품은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타락천사라는 그림이다. 유튜브를 보던 중
썸네일이 눈에 띄어 그림을 보게 되었고
깊숙히 매료되었다. 입은 가려져 있고 눈만
보이지만 그 강렬한 눈빛에 무언가 힘이

느껴졌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
들어갔을 어마어마한 노력을 떠올려 보면
그림 앞에 오랫동안 서서 감상할 수 밖에
없다. 그린다는 것은 머릿 속 이미지를 현실에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것을 그리고 싶었지만 내 손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글이라는 도구를
발견했고 글은 나에게 그림과 같은 몰입의
시간을 주었다.

나에게 그린다는 것은 시를 쓰는 것이었다.
그림 실력이 부족한 나에게 언어는 훌륭한
벗이었고 시를 써내려가면서 몰입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시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써내려가다보면 내 생각을 그려낸 글을 볼 수
있었다. 나만의 생각을 표현해낸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인 것 같다. 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는
것 또한 내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잊혀져가는 존재의 의미를 밝혀준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통해 최초의 명제를 알려주었다.
생각하는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의미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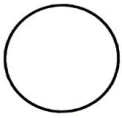
😊 9 💬 5

이유림(경영학과) 그림을 시를 쓰는 것에 비유한게
인상적인 글이네요 글자 하나 없는 그림이라도
많은 것을 표현한다는게 참 매력있죠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 공감하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예술을 통해 느끼는 본능과
감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림은 훌륭한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는
매체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인간의 의미를 충만하게 해준다
라는 말이 와 닿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가끔 가다 유튜브
쇼츠로 그림 그리는 영상을 보는데 그 때마다
감탄하곤 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0

saturday, am 12:02 | 12월음

배성준(경영학과)

#10일차 #그리다

나는 어릴때부터 종종 어른이 된 후의 내 모습은 어떨지 마음속에 그려왔다. 초등학교인 지금의 나는 마음도 여리고 성격도 소심하고 상처도 쉽게 받고 화도 잘 못 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말도 잘 못 꺼내지만 내가 좀 더 성장하면 그 모든 나의 약점들은 마법같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중학생이 되었다. 그려왔던 멋진 나 자신을 기대하던 나는 풀이 죽었다. 바뀐 나 자신은 없고 오히려 더 자신감이 사라진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일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일 뿐이었다. 그러고는 내가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때마다 '내가 좀 더 성장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거나 '다른 사람들은 나랑 다른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만 마음속에 담아왔다.

고등학생이 된 후, 그 전과 달라진 점을 발견하지 못한 나는 정말 큰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뭔가 문제가 생길때마다 '역시 나라서 그래' 라고 자기를 탓했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학교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한번은 우울감이 정말 세게 찾아올때가 있었다. 너무 우울한 나머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생각했다. 그 시기에 생각을 거듭하다 나는 이때까지 나에 대해 불평, 불만만 했지 꾸준히 노력해보거나 나에게 위로나 칭찬은 건넨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이후부터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주셨던 마음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였고 그 책에 나온대로 나의 마음 헤아려보기, 나를 재촉하지 않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같은

작은 노력을 실천하였고 매일마다 어색했지만 사람들에게 말도 좀 걸어보고 스스로 노력이라는 것을 꾸준히 해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아직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나는 나만의 노력들을 멈추지 않았다.

대학교를 들어왔다. 지금까지도 스스로 지켜온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을 실천하다보니 어릴때 그렸던 나의 큰 이상은 더 이상 잊혀져버리고 없었다. 그러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당시를 회고하며 글을 쓰다 보니 나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지금의 나는 어릴때 내가 꿈꾸는 나인지 생각해보았다. 처음부터 그린 그림이 너무 완벽하기를 원했던 탓인지 아주 큰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그 당시와 변했던 나의 모든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감정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고 말하는 것도 낯설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

처음부터 그린 그림은 완벽할 수 없다. 물통도 쏟아져서 그림이 얼룩도 지고 찌그러진 그림도 있고 색칠도 엉망진창이고 뒤흔뒤흔한 선들도 있지만 점차 지우고 다시 그리는 노력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얼룩져버렸던 그림이 새로운 얼룩들과 만나 더 멋진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선들도 반듯하고 색칠도 조화로운 예쁜 그림이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가진 그림이라고 현재의 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 9 💬 6

이유림(경영학과) 한번에 완성되는 그림은 드물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또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러다보면 완성되는게 그림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는 항상 곁에 있고 올거예요 화이팅입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많은 공감을 느끼네요.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탐구하는 여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다시 그림을 그리는 노력들이 중요한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망가진 그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려는 모습이 멋있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그대로 바라보는것을 노력해야겠습니다! 글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부모님이 추천해주셨던 책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0

saturday, am 12:12 | 36읽음
김양선

#10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무늬를 그려 보았는지요? 생각보다 그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동경하고, 그리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보고, 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잘 읽었습니다.

한 주 동안 '동사'를 키워드로 한 글을 써봤는데

어땠는지요? '동사'는 '명사'와 달리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이 한 주의 글쓰기가 우리 챌린저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쉬고,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

😊 13 💬 0



2023/05/22

monday, am 7:53 | 34읽음
김양선

#11일차 키워드 : 여름

지난주부터 부쩍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여름이네요. 곧 방학이기도 하고요. 여름은 호불호가 강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여름과 관련한 기억, 여름을 보내는 나만의 비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15 💬 0



2023/05/22

monday, am 9:35 | 19읽음
주재형(청각학과)

#11일차 #여름 #경포대해수욕장



옛날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족과 함께 경포대 해수욕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가 6~7월 사이였던 것 같은데 4일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첫 째날은 짐을 풀고 둘째 날부터 해변에 갔어요. 해변에 도착하니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반겨주듯이 감싸줬어요. 동생과 함께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니 발바닥이 부드럽게 모래에 파묻혀서 기분이 좋았어요. 파도가 쓸려 내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이야깃소리, 물장난 소리가 해수욕장에서 들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걸 보니 여행 하나는 잘 다녀왔던 것 같아요

바다에 들어가보자! 해서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시원하게 내려오는 파도가 제 발목을 덮었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차가웠지만, 그래도 적응하니 꽤 괜찮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숨씨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죠. 그런 멋진 서핑도 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빠가 저를 불렀고, 아빠와 함께 해변에 숨어있는 작은 생물들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가족 말고도 해변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위를 피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편안함을 느꼈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나누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나네요. 하지만 분명 여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음식이었을 거예요. 부모님과 동생, 저는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간 줄도 몰랐죠.

해가 서서히 지고,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멋진 석양이 펼쳐졌어요. 하늘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감을 칠한 듯 물들어지고, 그 경치는 마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진짜 비현실적이었죠. 서서히 서늘해지는 온도와 함께, 해질녘의 시간은 여유롭고 평화로움을 맛보라고 손으로 건네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여름여행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지만, 그때 그 해변의 기억은 햇살과 모래, 파도와 해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한 추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리니 저의 마음에 따뜻한 여름의 향수를 느껴요. 당시의 추억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한 여름의 소중한 기억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름은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계절이에요. 여름 휴가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런 여름의 추억들은 늘 내 마음 속에 향기롭게 남아 힘과 위로를 주는 보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어요

😊 12 💬 8

박지원(사회학과) 여름의 추억이 향기로 남았다니 정말 부러워요 :) 여름은 그 특유의 냄새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도 섞여 있으니 정말 달콤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저는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 인데요! 춘천에 살다보니 바다를 볼 일이 없는데 얼른 종강을 하여 바다를 보고 싶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이번 여름방학에 바닷가에 가고싶어지네요! 여름의 추억들로 힘과 위로를 얻으셨다니 인상깊어요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평생 남을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바다가고 싶어지네요 ㅠㅠ 사진과 글 잘 보고 갑니당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느 추억은 지금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가족과 아주 오랜만에 속초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낮엔 너무 더웠기에 밤에 바다로 갔죠. 사실 모두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기에 그저 산책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어린아이처럼 놀았던 기억이 나요. 바지 걷고 물 속에서 첨벙첨벙대며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면서 아주 신나게 놀았죠.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다들 얼굴이 너무 행복해보이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시 한 번 그 때처럼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재형님 덕분에 저의 여름의 향기를 떠올릴 수 있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여름 하면 바다가 빠질수 없는거 같아요:)

여름 휴가도 필수 요소인거 같아요! 바다를 보면서 힐링하는 것도 너무 좋은거 같아요! 재형님도 올 여름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가족과 함께 하는 여름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를 가면 정말 꿈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번 여름도 기대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am 9:49 | 16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1일차 #여름 #수박

여름 여름

친구가 얼마 전에 수박을 먹은 사진을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벌써 수박의 계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저는 여름이 정말 싫어요. 후덥지근하고 불쾌하고 벌레도 많고!.. 또 뭐가 있죠.. 그냥 이 정도인 거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한 번 여름을 좋아해 보려고 해요.

여름의 장점 첫 번째! 수박을 먹을 수 있다. 저는 수박을 정~말 좋아해요. 작년 여름에는 매일 수박주스를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했던 거 같아요. 여름이 온다는 것은 수박을 가장 맛있는 시간에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초록을거머쥔세상(우리는). 완전한 봄을 지나 초여름이 다가올 때 즈음 바깥 풍경을 바라보세요. 푸르고 초록을 거머쥔 세상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네요!

'그 애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저는요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여름의 장점은 정말 찾기 힘드네요. 저의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제가 느낀 최대 장점인 듯해요. 여름은 정말 후덥지근하고 불쾌하고 힘들지만, 여름의 맛을 즐기다 보면 이 더위도 금방 저물어 가겠죠..



10



7

주재형(청각학과) 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수박이 아닐까 싶어요. 무등산 수박이 그렇게 맛있었던데, 언젠가 한 번 먹어보려구요. 온도도, 습도도 높은 여름이지만 잘 헤쳐나가고 계신 듯 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저도 수박킬러인데요 여름이 오면 좋은것도 있지만 더워서 짜증 지수가 올라가죠...!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도 여름을 사계절 중 가장 싫어했는데 여름의 매력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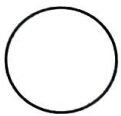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최대한 많이 여름의 맛을 즐겨야겠어요 ㅎㅎ 분명 겨울에는 여름을 또 그리워할테니까요

서원준(중국학과) 수박 맛아요! 여름하면 젤 많이 떠오르죠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지원님처럼 여름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리 옷을 얇게 입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후덥지근함이 너무 싫거든요. 심지어 샤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땀 때문에 금세 끈적이지는 몸도 너무 싫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름을 반기는 이유가 있다면 과일인 것 같아요! 제가 수박,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밥 대신 먹을 정도로 많이 좋아해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려요 ㅎㅎ 그래서 가끔은 여름이 빨리 오길 기다릴 때도 있네요! 지원님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여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여름 풍경은 정말 예쁘죠 특히 시원한 실내에서 바라볼 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ㅎㅎ 최근에 수박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더운 여름이 오면 더 맛있어지겠죠?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am 10:59 | 14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11일차 #여름

더운 날씨, 폭풍지는 날씨, 눅눅한 날씨,
습한 날씨, 뜨거운 날씨, 시원한 날씨

덥다. 짜증난다. 습하다. 눅눅하다.
폭풍 쪼다. 열이 난다. 불쾌하다.
촉촉하다. 찜뭉거린다. 냄새난다.

수박, 참외, 멜론, 포도, 샤인머스킷,
바나나,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빙수,
아이스티, 시원한물, 냉면, 불고기, 맥주

한강, 실내, 냉방, 에어컨, 제습기

바다, 파라솔, 수영장, 워터파크, 수영복,
민소매, 반팔티, 반바지, 샌들, 슬리퍼, 쪼리

파란색, 흰색, 녹색, 청록색, 검정색
회색, 빨강색, 하늘색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비가 흠뻑 내린다.
태풍이 무섭게 올라온다.
바람이 분다.
파도가 출렁거린다.

배가 요동친다.
사물이 날아간다.
물이 넘친다.
옷이 눅눅하다.
태양이 내리쬐다. 뜨겁다.

더운 날은 더워서 실내에서 놀게 만들고
모든 것을 태운다.
비오는 날은 비와서 실내에서 놀게 만들고
모든 것을 적신다.

비가 오면 그치길 바라고
해가 뜨면 비가 오길 바란다.

여름..가고 가을이 오길
가을이 오래 가길
겨울은 조금 천천히 오길
이전처럼 뚜렷한 사계절이 되길
여름 안녕?

😊 10 💬 7

주재형(청각학과) 여름과 관련된 모든 과일, 물건, 색깔 등을 시로 표현해 주셨네요. 시 중간의 여름을 떠올릴 때의 행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더욱 뚜렷해지길 바라는 의도가 잘 느껴진 시였습니다. 좋은 시 잘 감상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제 슬슬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기숙사 룸메들이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거든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여름이 다 모여있는데요? 여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용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뚜렷한 사계절이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름보다도 가을이 얼른 오길 바란다는게 너무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상민님의 글을 읽으며 여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나 많은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ㅎㅎ 저는 항상 여름하면 더움, 불쾌함, 짜증남이나 과일로는 수박, 복숭아 정도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 놀랐습니다 ㅎㅎ 덕분에 점점 다가오는 여름이 조금씩 실감나면서 여름을 싫어하는

저조차도 조금 설레게 만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모든 여름이 다 담긴 글이네요:) 사계절에 대한 상민님의 마음이 잘 느껴져요!
이유림(경영학과) 여름과 관련된 것들이 가득한 글이네요 아직 오고 있는 여름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am 11:11 | 19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1일차 #소설

창가에 걸터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키 작은 꼬마들이 해맑게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어릴 적 시절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내리쬐는 햇볕에 절로 등이 뜨거워졌다. 에어컨 없는 단칸방에 홀로 있자니 마음 한 편이 외로워졌다. 작년 여름에 비가 무지하게 내린 것이 이번 여름의 무더위를 예고했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로 물웅덩이 하나 없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자니 찻잔이 낱알이 날아간다. 푸른 잎이 무성한 초목 사이로 비행하듯 새 한 마리가 날더니 금방 창문을 비껴 솟아올랐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깥 구경이 지겨워질 때쯤이면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들어온다. 그녀는 나를 어루만지고 오늘 있던 일을 하소연한다. 인간의 삶이란 왜 지치기만 하는 걸까. 나로서 알 길이 전혀 없다. 하지만 열심히 애교를 부린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9



5

주재형(청각학과) 창가에서 키 작은 꼬마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로의 회상이 실감나셨을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본인을 고양이로 대입시키고 쓴 글이라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고양이의 시점에서 여름의 풍경을 감상한 것 같아 인상깊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고양이가 화자였군요!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am 11:32 | 14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11일차 #여름

초등학교 시절 후덥지근했던 여름방학 날, 나는 친구들과 한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딱히 놀만한 게 생각나지 않았다. 점점 지루해져 가던 차에 tv 채널만 하염없이 돌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tv하단에 공포영화 다시보기가 떠있었다. 이날 우리에게 뜬금없는 자신감이 생겼다. 모두 다 공포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했음에도 바로 영화를 틀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집 안의 불을 다 끄고, 커튼을 치고, 오싹한 분위기를 위해 에어컨 온도를 낮게 틀었다. 영화를 보는 중 난 너무 무서워 눈,귀를 다 막아 영화의 내용 중 절반 이상을 못 봤고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나보단 잘 봤던 것 같다. 결국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난 친구들의 가벼운 겁주는 장난들에 시달렸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특정 장면들이 떠오르던데 안 무서워한 그들이 신기했다.

사람들이 대체 왜 공포영화를 만들고 돈을 주고 관람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안 무섭나? 왜 자발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려고 하지?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나? 돈

낭비같은데ㅜ

공포 마니아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공포영화는 여름에 참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다.

유독 사람들은 여름에 공포영화에 끌린다.

공포영화의 상황들을 떠올려보면,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음악은 음산해지고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된다. 그럼 관객은 손에 땀이나고 긴장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 때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눈을 질끈 감거나, 그대로 굳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시원한 기분이 든다.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몸에서 자연스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여름에 특히 불쾌지수와 짜증지수가 높는데, 공포영화를 보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함, 긴장감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이때 억압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공포영화가 주는 충격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과거 트라우마가 있거나 보기 싫거나 힘들다면 안 보는 것이 좋다. 만약 괜찮다면 이번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공포영화 한 편 정도 봐보면 어떨까? 난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다

😊 10 💬 7

주재형(청각학과)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 공포영화를 봤던 경험 때문에 공포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네.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관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죠. 시현님에게 맞는 영화를 관람해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번 여름에는 어떤 공포영화가 나올 지 기대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공포영화 추천해주실거 있음 나중에 꼭 해주세요! 한번 꼭 보겠습니다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공포영화는 절대 혼자 못 봐요. 시현님처럼 시간낭비나 돈낭비같은 건 생각도 들고 웬지 모르게 소름돋는 느낌도 싫어서 웬만해서는 잘 안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좋아해서 가끔 같이 있는 날이면 영화관까지는 아니어도 무료 공포영화를 보곤 하는데 그땐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ㅎㅎ 그땐 저도 시현님처럼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가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강민지 (사회학과) 저는 공포영화보단 호러소설을 좋아하는데 유독 여름에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ㅎㅎ !!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전 공포 영화 재밌게 봐요!! 제가 무서워하는 것보다 옆에서 무서워하는 반응들 때문에 더 놀라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옛날에는 공포영화 정말 즐겨봤는데 어느순간부터 못보겠더라고요 돈주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기분이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12:48 | 12월음
서원준 (중국학과)

#11일차 #여름

나는 여름이 좋지만 전반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 열이 많고 땀이 정말 많이 나는 체질이어서 그런지 정말 여름이 힘들다! 그렇지만,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는 알바할때면 가디건을 입을 정도로 엄청 춥고 시원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버틸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아무쪼록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빠지, 워터파크, 시원한 빙수 먹으며 에어컨 밑에서 즐기는 독서 등 아직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기대 충만하게 해놓고 좋아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빙수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캠핑도 가고 싶고, 해외도 가보고 싶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기에 어서 종강이 와주시길.. 여름하면 또 종강이기에 ...!

😊 9 💬 6

주재형(청각학과) 시원한 환경에서 책 읽는 게 훌륭한 여름나기 방법 중 하나죠! 거기에 시원한 음식과 음료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네요. 상상을 했더니 수박을 먹고싶어집니다.. 좋은 글 고마워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종강이 얼른 와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여름이 오면 종강이죠! 글 잘 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추위를 많이 탐에도 불구하고 원준님처럼 여름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여름만 되면 샤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끈적임이 기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서 싫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수박이나 물놀 이와 같은 거 말이에요! 원준님의 글을 읽으니 저도 얼른 종강이 기다려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여름하면 종강이죠!! 드디어 기다리던 종강이 절 기다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더운 여름이 기다리는 사실이 절 괴롭게하네요 종강 후 원준님이 하시고 싶은 일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여름 나를 즐길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얼마 남지 않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라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1:06 | 14월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11일차 #여름 #노래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를 추천하고 싶다. 바로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라는 노래이다. 듣자마자 여름의 축제 분위기가 떠오를 것이다. 부분의 가사를 써보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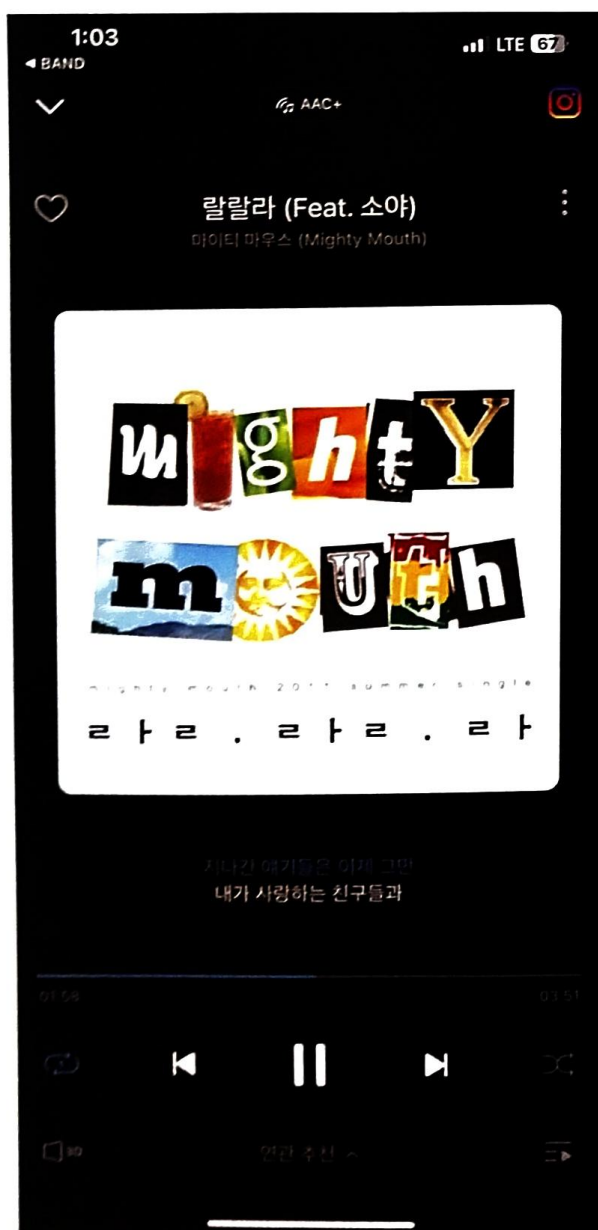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꺼야

지나간 애기들은 이제 그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음악 이 순간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날 찾지마

이러한 내용이다. 멜로디가 시원하면서도 몽글몽글 할 뿐만 아니라, 지나간 안좋은 일들은 모두 잊고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부르며 여행을 떠나자 라는 좋은 내용을 담은 가사까지 갖추었다. 이 노래를 얼마전에 알았는데 외출 할 때마다 듣는 것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일 또는 또다른 힘든 일들이 있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모든

일이 별 것이 아닌게 되는 것 같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진다. 그래서 요즘엔 밤에 기숙사 앞 벤치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들으며 쉬곤 한다. 나는 이 노래를 라이팅 챌린저들에게 추천함으로써 많은 학우분들이 잠시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 바램이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들으면 좋은,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 13 💬 11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 알바하는 곳에서 이 노래 틀어봐야겠어요 ㅎㅎ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좋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노래하면 제목 때문인지는 몰라도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랑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 생각나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시현(러시아학과) 어머 두곡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ㅠㅠ

서원준 (중국학과) 저는 비행기 좋아해요 ~~~!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서원준 (중국학과) 비행기 갖곡이죠..

심지범 (경영학과)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도 이 노래를 여름이 다가오면 자주 들어요. 이 노래를 처음 접한 건 한림예고 체육대회 실용무용과가 공연한 영상이었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신나니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한림예고 랄랄라 검색해서 맨 위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 중 하나로 레드벨벳의 파워업을 추천합니다! 이 노래는 상쾌하고 발랄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노래 가사가 여름 휴가의 기대와 사랑스러운 여름 날씨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좋은 노래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여름만 되면 무조건 듣는 노래가 있어요. (여자)아이들의 덤디덤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름이라는 계절을 저격하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 노래만이 풍기는 분위기와 음들이 여름의 더위를 날려주고 마치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해요! 동금님도 한 번 짬은 들어보시면서 올 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덕분에 좋은 노래도 추천받아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게 됐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듣자마자 여름이 떠오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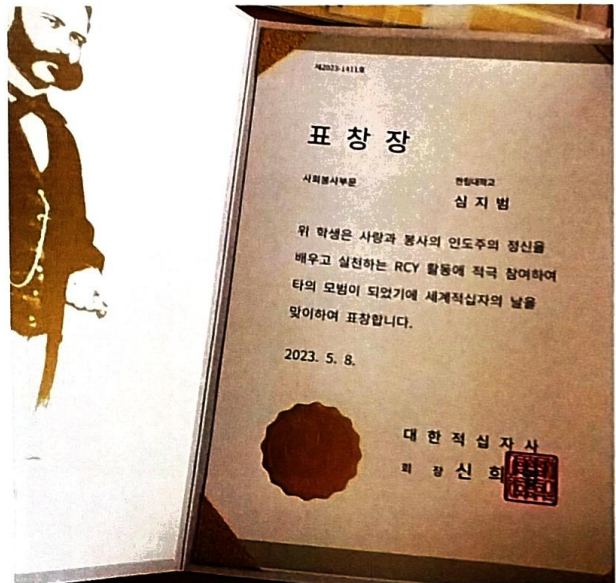
노래죠! 저는 여름에 썩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노래를 즐겨들어요 바다바람 맞으며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1:18 | 17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11일차 #여름 #더위 #제철과일 #선풍기
#바다 #워터파크
오늘의 해시태그는 여름인데요!
여름하면 생각나는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바다보다 오히려 계곡을 좋아하는데요!
계곡물에 샤워 한번 하면 무더위가 싹
가시죠~~~
그리고 또한 제철 과일인 수박이 생각이
나죠!!
저는 수박 킬러인데요!! 여름만 되면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은지!! 수박화채를 한달에
6번은 먹었던거 같아요!
또한 음 수박하면 생각나는건 초등학교때
학교를 하고 하고 대나무 돛자리 아시나요?!
집에서 누워 선풍기 바람 살랑살랑 맞으면서
수박을 하나씩 집어먹었던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름의 새벽공기 한 번 맡아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때때로 새벽에 가끔씩
일어날때 밖을 나가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그럴때 마다 그 여름새벽 공기냄새가 어쩔
나를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여름의 꽃은 워터파크이죠!
워터파크가서 신나는 놀이기구도 타고 물에
하루종일 있고 배고프면 햄버거 치류스
핫도그 등등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죠!
여름 하면 더워서 짜증 지수도 올라가고
꿈꿈하고 기분도 다운이 되죠! 그래서 실내
데이트를 많이 하고요!
이번 여름은 비만 한달 내내 온다고
하더라고요!
방학때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방콕해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요!
끝으로 오늘 학교에 한혈 버스가 오는데요!
저는 RCY 동아리 부원으로써 홍보를
해야겠네요!! 표창도 받았거든요~~ 한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힘찬 월요일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20000!



😊 14 💬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오늘 강의실
오면서 한혈 버스를 봤는데 지범님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오 멋지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감니당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상쾌함을 느끼고 계곡에서 시원함을
즐기는 것 같아요. 수박이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로
생각되고, 여름에는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인기 있는 활동이죠. 저도 방금 한혈차에서
한혈하고 왔는데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맞아요ㅜㅜ 이번여름 비 많이
온다는데 제발 조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여름은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저를 설레게 하는 건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인 것 같아요! 수박과 복숭아를 워낙
좋아해서 싫어하는 여름도 기다리게 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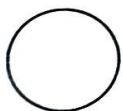
것들이죠. 그리고 저도 지범님처럼 여름의 새벽공기를 참 좋아해요. 뜨거운 여름으로 인해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마당을 나가 의자에 누워서 별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런 기분은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ㅎㅎ 덕분에 여름을 좋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여름하니 정말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워터파크도 좋네요!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려서 올 여름엔 사람들이 엄청 몰릴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그래도 한번쯤 가서 놀이기구 타고 놀고 싶어요 수박화채도 맛있죠! 전 작년에 수박빙수에 빠져서 엄청 먹었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여름에 먹는 시원한 수박 정말 맛있죠! 표창장 받은거 축하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2:43 | 17일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1일차 #여름

나에게 여름은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때의 분위기와 기분을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의 일어난 일이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이전과 같았다. 엄마와 아빠 모두 일하느라 바빴고 오빠는 친구랑 노는데 바빴다. 그래서 나도 집에 혼자 있기 보단 학원에 가서 오랫동안 친구들과 놀다가 4-5시쯤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 날도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피곤했다. 아마 여름의 뜨거운 햇살 때문에 더위를 먹어 더 그런 듯 했다. 어쨌든 그 피곤함을 이기려고 했으나 결국 눈이 감기고 말았다. 한참을 자다가 어느새 시원해진 공기에 잠에서 깨어났다. 집 안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주황색 불빛이 켜져있었다. 실눈을 뜨고서 시계를 보니 시간은 12시-1시쯤이었고 옆에는 오빠가 같이 자고 있었다. 기분좋은 시원함에 날씨가 풀렸나하고 앞을 살짝 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손에는 왕부채가 들려있었다. 우리가 혹시나 더울까 계속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던 것이었다. 평소의 나였다면 놀래켜주려고 벌떡 일어나서 애교를 떨었겠지만, 그 날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다. 새벽을 알리는 공기와 따뜻한 색의 조명, 거실에 다같이 있는 가족, 아이들이 더울까 부채질을 해주며 조용한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엄마, 아빠까지. 그때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안락함을 주었다.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존재를 비로소 느끼게 된 순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 가끔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든다. 모든 게 완벽했던 그 때. 지금도 느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더 느끼길 바란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 13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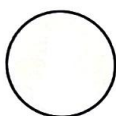
심지범(경영학과)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가족과의 소중한 여름 추억을 나누어주셔서 고마워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름 방학이라는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좋은 추억이네요 ㅎㅎ!
김한나(경영학과) 어린시절이 떠오르는 글이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글이 더 잘

읽힌거 같아요! 낮에는 못 느꼈던 가족의 온기를
저녁에 한가득 느끼셨네요 부모님의 사랑도 함께
느껴지고 화목한 시간이었을거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살랑살랑 부는 부채의 바람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있네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가족과의 훈훈했던 어린시절
여름추억에 저까지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4:46 | 11월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여름

1.

'버튼만 누르면 전기가 흐르고, 물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니.'

조상님들의 생활상을 상상해보며, 잠깐 창
밖을 응시했다. 창 밖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완전한 여름인가.
책에는 봄도, 가을도, 겨울도 적혀있었지만.
어쩐지 그 단어들이 잘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계절은 오직 여름뿐이었으니.

2.

여름.

여름은 덥다. 정말 더웠다. 나는 소매를 걷어
땀을 훔쳤다. 살인적인 더위... 그럼에도 나는
이 더위가 싫진 않았다. 싫을 수가 없지.
우리에게겐 이것밖엔 없으니까. 아무래도
괜찮았다. 이 어리숙한 감정을 가리기엔,
여름이 제일이었다.

어른들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지구를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방치했던

탓일까.

계절은 사라지고,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생태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

햇빛이 끝없이, 끝없이 바다를 비추는
이곳에서.

3.

잘 지내시나요?

서툰 마음을 담아, 바다에 편지를 흘려
보냅니다.

... 유리병에 편지를 담아 파도에게 주었다.
파도는 편지를 품에 꼭 안고, 과거로 갔다.
저 바다 속에 잠긴 도시는 과거에 어땠을까.
전기를 쉽게 쓰고, 물을 쉽게 쓰고. 무엇이든
쉽게 쓰던 그 시간은 어땠을까.
바보같은 이 편지가 도시 속 한가운데에
가라앉기를 바라며,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여름은 계속됐다.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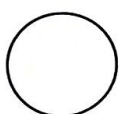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글 좋네요 잘 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금까지 읽었던 글을
여름의 존재를 나타낸다면 예진님의 글은 사라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진님 글처럼 인간의
무한한 욕심으로 지구를 낭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계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죠. 저도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라 예진님의 글을 보며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지금이라도
지구를 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고 갑니다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예진님의 글은 여름의 열정과
향수를 잘 표현하고 있네요. 전기와 물이 편리하게
이용되던 과거를 상상하면서 어른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잘 묘사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나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환경 문제는 어느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합니다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6:19 | 12월음

신유정 (심리학과)

#11일차#라이팅챌린지#여름

여름은 나에게 '건디는 시간'이다. 사계절 중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겨울잠을 자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방학이
있어서도 있지만 땀이 나고 더운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아하는 산책을 하기가 더 쾌적하기
때문이다. 여름도 방학이 있지만 왠지
여름방학은 쉬어도 편하지 않고, 일을 하면 몇
배로 힘이 빠진다. 몇 년 동안 무기력과
싸우는 나에게 지치기 쉬운 여름은 건디야
하는 시간이다.

여름은 '움츠러들었던 겨울'과 '기지개 펴는
봄'과 달리 '열심히 걷고 달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부터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방학이 끝나고 나면 더운 여름의 새 학기를
적응하고 활동을 해야 하니까 말이다.
사계절이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에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계절이 되어버렸는데 언제쯤이면
여름이 '이래서 좋은 것도 있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켤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렇게

기다리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름의 초입을 건딘다.



9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정님이 쓰신 '여름은
건디는 시간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제가
겪고 있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는 때쯤이면
수많은 팀플을 함께 함으로써 바빠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건디야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가을을 위해 여름을 지금보다 더
 즐겁게 보내려고요! 유정님도 저도 올해는 보다 더
 행복한 여름을 보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함께 건데요!! 여름을 맞이할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이 나에게 건디는
시간이라고 하셨네요. 각자의 체감과 경험에 따라
계절에 대한 느낌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죠.
겨울을 좋아하고 겨울 잠을 자는 느낌이라고 하신
것도 겨울은 여름과는 다른 쾌적한 산책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친환경 에너지로 에어컨을 평평
틀어도 돈도 적게 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름은 햇빛도 강하고 덥고 비가 오면 습하고 쉽지
않은거 같아요! 저도 여름엔 산책을 안하게 되는데
다음 학기를 또 열심히 다니려면 체력을 길러놔야
할거 같아요! 유정님도 올 여름은 힘차게 이기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겨울은 한 숨 쉬어갈
타이밍이 오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바쁘게 살아가는

계절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6:34 | 12월음
이유빈(사회학과)

#11일차 #여름

초여름 해질 무렵 그늘 아래 누워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 풀벌레가
하나 둘 씩 노래하는 소리,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한여름 계곡 옆
평상에 누워있으면 아이들이 물에서 노는
소리, 풀벌레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늦여름에는 잠자리가 하나 둘 씩 내
앞에 날아다니고 코스모스들도 하늘하늘
피어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여름이 덥고 끈적거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의 매력에 빠져있다. 그리고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초여름부터 늦여름의 변화를 느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보일 것이다.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휴가를 떠나는 이들,
토독토독 떨어지는 빗방울소리, 개구리와
풀벌레가 우는 소리들을.

😊 9 💬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사실 여름을 좋아하지
않아서 추억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빈님의 글 중 한여름의 계곡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잊고 있던 추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사촌동생이 항상 여름방학마다
놀러오는데 그때면 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거든요. 성인들처럼 격하게 놀진 않아도

물고기를 잡거나 잠수를 하는 등 둘이서도
소소하게 재밌게 놀았죠. 그때 참 재밌었는데 저도
모르게 잊으면서 살아왔네요. 유빈님 덕분에 잊고
있던 좋은 추억이 떠올랐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당

주재형(청각학과)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의
변화와 자연 소리들을 관찰하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아름다움과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겠죠. 유빈님이 말씀해주신 소리 말고도
여름에는 여러가지 소리가 있어요. 자연의 소리를
즐기며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여름은 단점이 뚜렷한
계절이지만 그만큼 장점도 뚜렷한 계절이죠 이제
막 초여름이 다가오니 유빈님 말씀처럼 초여름과
늦여름의 변화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6:56 | 15월음
김유진

#11일차

여름,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도 끼었고,
덥기도 무식하게 더운 계절이다. 개인적으로
여름은 내가 선호하는 계절은 아니다.
습하기도 엄청 습한 데다 덥기까지해서
야외에 나가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날이
수도 없이 많다. 내가 엄청 깔끔떨고 더러운걸
싫어했을때는 더운 여름날 나가기도
싫어했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덥고
땀이 나도 '아.. 덥다...' 정도로 끝을 낸다.

여름이 있어야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어야
하루살이가 부화를 하고, 여름이 있어야
수박을 먹을 수 있다. 여름의 존재를 짜증내고
부정했을 때는 짜증이 많았던 내가 여름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니 짜증이
줄고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던가. 그 말처럼 돌고도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드리고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가듯
내버려 두는 삶이 배울점이 많은 것 같다.
이번 여름이 가야 내가 좋아하는 겨울이 올
것이고 꽃이 피는 봄이 오고 개강을 해야
종강도 오듯이...

😊 9 💬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유진님처럼 여름
속에서 느끼는 그 끈적함 때문에 여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유진님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겼네요. 여름이
 지나가야 가을과 겨울이 오듯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삶을 배운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의미있는 말 같아요. 덕분에 좋은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 가네요! 우리 여름은 싫지만 이
 여름을 온 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잘 이겨내봐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심지범(경영학과) 얼른 종강이 오면 좋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빠른 종강을 원합니다 ㅎㅎ
화이팅이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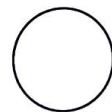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은 겨울이 있어야 하고,
일상이 움직임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계절이죠.
여름이 존재해야 다른 계절들이 의미를 갖고,
자연의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듯 이러한 여름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름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종강도
1달도 남지 않았고, 라이팅 프로젝트도 이번 주가
끝이네요. 끝까지 열심히 해봐요!

김한나(경영학과) 계절에 대한 선택권은 없지만
계절마다 할 수 있는건 다양하죠:) 긍정적으로
여름에만 할 수 있는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네요!

짜증나긴 하지만 올 여름도 잘 견뎌보고 적응해
봅시다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여름이 있어야 하는
이유들이 참 많죠 덥고 습하지만 여름이 없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름은 덥고 짜증도 잘 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지요.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23/05/22

monday, pm 7:46 | 13읽음

박진욱(사회학과)

#11일차 #여름

여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홍조가 심해 얼굴이 볼만
빨강게 익은것처럼 된다.

흔히 말하는 촌딱병이 좀 심한 편이다..
겨울에도 심하지만 여름에도 만만치 않다.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많이 움직여서 힘든 것
같은
극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학교 다닐 땐 여름에 체육하기 싫어서 홍조를
핑계로 쉬고
참여 안하기도 했다.

여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내가 빨강게 익는 것이다. 남들과 달리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남들처럼 까매지기 보다는
빨강게 익었다. 매우 따갑고 힘들었다.
햇빛에 타면 까매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보니
빨강게 상기된 얼굴과 몸이 나를 더 대비되게
만든다.

별로 잘 타지 않는 타입인데도 여름엔 어쩔 수

없이 익게 된다.

빨개진 나를 보고 놀리는 친구들도 많았다.
장난이었지만 특히 볼 빨간건.. 유독
창피했다.

내가 토마토도 아닌데 빨개져서는...



9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여름의 끈적함 때문에 이 계절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진옥님의 글처럼 얼굴이 타면 따가운 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인지 진옥님의 글을 읽으면서 어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남들에겐 말로만 들었을 땀 별 거 아닌 게 누군가에겐 큰 상처로 남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어둠 속에 갇혀있기엔 진옥님은 너무도 빛나고 가치있는 존재이니깐요. 힘들겠지만 우리 이 여름동안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봐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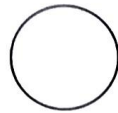
심지범(경영학과) 체육시간은 저도 마찬가지로였어요..! 너무 공감이 되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비유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당

주재형(청각학과) 더위는 여름의 가장 큰 단점이지요. 그 때문에 피부가 타기도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침을 느끼구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토마토도 아닌데 빨개져서는 이라는 구절도 인상적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여름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얼굴이 금방 빨개지는거 같아요ㄷ 썬크림이든 화장을 하든 바로 녹아내려서 다시 발라도 얼굴이 빨개져서 쉽지 않은거 같아요 저도 겨울이나 여름에 홍조가 심한편이라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차라리 빨갭게 익는 피부면 좋겠어요.. 매번 여름마다 까맣게 타버리니 근심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여름에 더위에 피부가 빨갭게 익는게 너무 공감합니다ㄷ 토마토에 비유하신 것도 인상깊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7:59 | 14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1일차 #여름

나는 여름이 너무 싫다. 습하고 덥고 벌레도 많고 싫어할 것들이 넘쳐난다. 아침에 씻고 나가도 걸어가는 길에 땀이 나는 게 싫고, 사람들의 땀 냄새와 섞인 향수 냄새도 참을 수가 없다. 곧 여름을 맞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벌써 두렵다.

나는 특히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기 때문이다. 땀도 많고 더위를 못 참는 성격이라 여름만 되면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남들은 여름에 더위를 피하러 바닷가나 계곡으로 가지만, 나는 여행 계획을 짜기도 전에 이미 더위에 짓눌려 생각이란 걸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방학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조금이라도 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에야 이렇게 더위를 피할 수 있다지만, 이제 취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환경 문제 때문에 여름이 가면 갈수록 더워진다는데 직장인들도 여름방학을 이제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소신 발언을 해본다.



10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사빈님처럼 더위를 타지 않고 오히려 추위를 타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씻어도 사리지지 않는 끈적임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름방학만을 기다리며 집에서 에어컨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ㅎㅎ 그때야 비로소
여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곧 취직할 나이인데, 그땐 여름방학이라는 게
없다는 게 슬프지만 그럼에도 전 직장 내에
여름방학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회사라는 체계가
굴러가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이를
위해 돈을 받고 일하니까요. 대신 여름휴가가
있으니 공휴일과 잘 맞춰서 쓴다면 아마 일주일은
거뜰하게 휴가를 맞이할지도 몰라요 ㅎㅎ 사빈님도
직장생활하실 때 그 때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하 저두 땀이 정말 많은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ㅠㅠ

김한나(경영학과) 격하게 공감해요,, 찻고
나왔는데 땀이 나는건 정말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 벌써 여름이 걱정이라합니다,,조금 덜
움직이는게 정말 최선인거 같아요..올 여름도 잘
견뎌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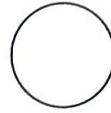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사빈님이 여름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공감해요.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내고 행복한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더위와 땀에 지치지 않도록 힘내고, 항상 네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해 줄 거예요.

이유림(경영학과) 직장인들의 여름방학 정말 꿈만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여름에는 알바 며칠도
출근하기 힘든데 직장인이 됐을 때는 어떨지
걱정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직장인에게도
여름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땀이
나는데 사람들과 부대끼는거 정말 끔찍하죠...

정예진 (생명과학과) 지금까지 계속 여름 방학이
있었기에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방학이 없으니 걱정이네요 사빈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2023/05/22

monday, pm 8:02 | 15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11일차 #여름

이방인의 배경인 여름
હે세가 사랑했던 여름
초록하면 여름
호러가 잘 어울리는 여름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여름
바다에 빠지고 싶게 만드는 여름
여행을 떠나고픈 여름

여름 하면 떠오르는 건, 너가 사랑하는 것.
너는 나의 여름이다.

😊 10 💬 6

김시현(러시아학과)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이 너가
사랑하는 것이라니 문장이 인상깊어요~! 저에게
여름이란 뭘까 생각해보니 바다, 맑은 하늘, 방학
등등이 떠오르네요 멋진 시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너는 나의 여름이라는
민지님의 시가 인상깊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 시를 통해 고백한다면 전 여름 대신
겨울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전 여름보다 겨울이 좋거든요!! 물론 여름도 그
계절만의 매력이 풍부해 설렘을 주기도 하나 전
차가운 것이 필요한 여름보단 따뜻함이 필요한
겨울을 통해 고백 받고 싶네요!!! 덕분에 저도
모르게 설레이는 시를 경험해보면서 여름의 표현도
배웠지만 겨울도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시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행복한 시네요 잘 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여름하면 떠오르는 모든게 담겨
있는 시네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여름과 어울리는 단어들이네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건, 네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너는 나의 여름이라는 구절도 여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너라는 존재가 아름답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좋은 시 잘 감상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좋아하는 이의 모든 것으로 가득찬 계절일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9:24 | 14읽음
김용후(법학과)

#11일차

#여름

1945년 8월,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여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잃었던 국권을 되찾게 된다.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조국 독립의 빛을 다시 찾게 된 이 날을 우리는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다.

일제의 패망을 통해 국권을 되찾게 됨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워낙 급변했던 탓에 해방 후 건국을 위한 완전한 민족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주권은 되찾았지만 혼란스러운 국제적 정세, 좌우 이념 대립,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이 우리를 덮쳐왔다. 또한 민족 지도자들 역시 저마다의 의견의 차이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노선 분화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만약 이때 자주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건준위를 발족하고, 치안 유지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도모하였다. 38선을 경계로 한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미군에 의해 발표되고,

남한에는 군정이 실시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 설치와 신탁통치에 대한 협의가 결정되었다. 국내에서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지만 동력을 곧 잃었고, 국내로 복귀한 김구와 이승만 역시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통합된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한반도 이북에서는 김일성을 필두로 북조선임시인민위가 조직되고, 토지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이승만은 정읍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논설을 통해 남북 공동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1,2차 미소공동위가 모두 결렬된 끝에, 한반도 문제는 결국 유엔에 이관되었다.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되어, 5.10.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를 열게 된다.

나라가 주권을 잃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기틀과 초석이 되는 일이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1945년으로부터 78년이 지난 이번 여름, 나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9



6

서원준 (중국학과) 오 뜻 깊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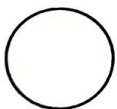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1945년 여름의 사건과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족의 단결과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유익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나라가 없다면 국민 또한 없고, 국민이 없다면 나라 또한 없죠 과거 상상할 수 없는 노력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우리나라도 지켜지길 바랍니다 의미있고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박혜운(사회학과) 생각해보니 광복절도 여름이었네요. 무더운 날에 나라를 지키고자 힘써주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글이네요:) 광복절 그 무더운 여름에 빛을 되찾아 주신 많은 분들이 떠오르고 뭉클해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여름을 단순히 계절로서만 생각하고 싫다 혹은 좋다고만 표현했는데 옹후님의 글을 읽으니 계절 속에 숨겨진 우리의 역사를 일깨워주신 것 같아 정말 좋았어요. 과거를 기록함으로써 남는 것이 역사이기에 우린 역사가 가진 기억을 잊지말고 살아야하나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런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매일 떠올리진 못해도 기억만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의 역사를 통해 알아보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05/22
monday, pm 9:26 | 12월음
최현영(법학과)

#11일자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물이 싫어졌다. 바다에 가도 파라솔에 앉아 햇빛을 피하기 급급했다. 당장은 재밌지만 놀고 난 후 정리하고 씻는 과정이 귀찮아지면서 여름은 그저 덥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계절이 되었다.
유년기의 여름은 사뭇 달랐다.

그 때의 여름에는 내 7살 단짝친구 그리고 엄마가 나온다.

우리는 거의 매일을 붙어 있었다. 하루는 우리집, 하루는 친구집.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다가 친구집 마당 수돗꼭지에 더러워진 발을 씻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작된 물총 싸움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시원한 집에 들어가 누워 있던,,

천국이 따로 없을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엄마는 여름이면, 매실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셨다.

아직도 내 친구는 매실 아이스크림 노래를 부른다.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은 몸에 좋지 않다며 아이스크림 통을 사서 매실을 얼려주시던 엄마.

주택에 사는 나는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젖히고 시원한 거실 방바닥에 얹은 이불 하나 깔고 자연바람에 더위를 식히며 엄마와 낮잠을 자고는 했다.

입이 심심하면 파프리카 샐러드를 먹었다.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던 나도 여름바람 때문이었는지 엄마 덕분이었는지 싹싹 비워 먹었다.

요즘도 가끔 그때의 여름이 떠오른다. 아무 걱정없이 엄마 옆에서 행복한 날만 가득했던 그 시절. 시간은 야속하게도 참 빠르게 지나가 어느새 나는 성인이 되었다.

지금의 여름은 걱정 반 두려움 한 스푼 혹시 모를 설렘 한 스푼이 가미된 그저 그런 계절이다.

그래도 이번 여름은 그 시절 여름까지는 못돼도 잊지 못할 추억, 잊지 못할 무언가를 이루는 알찬 여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만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 생각이다. 오늘의 나!! 수고했다!



9



5

서원준 (중국학과) 매실 엄청 좋종 !! 좋은

추억이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당

주재형(청각학과)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여름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절로 남아있어요. 여름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추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번 여름을 특별하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좋은 글 고마워요!

이유림(경영학과) 소소하지만 추억이 많은 여름이네요 돌아가고 싶은 기억일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여름에 물놀이가 빠질수 없죠 ㅎㅎ 매실아이스크림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들어 있어서 맛있을거 같아요! 여름의 낮잠도 포근하니 좋을거 같아요:) 그때의 추억으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거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린시절의 추억이 기억이 되어 잊지 못하는 건 그 날 그 순간에만 겪을 수 있는 일기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현영님처럼 별거 아닌데도 느껴지는 편안함과 고요함이 생각보다 강렬한 추억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때로 돌아가 그 분위기에 취해있고 싶기도 하네요. 비록 몸은 컸기에 그때처럼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이 한 번 더 찾아오길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9:27 | 15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11일차 #여름

여름만 되면 땀별의 무더위에 고통스럽지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오후 세시와 같이 영원할 것만 같은 나의 청춘이 지금이라고 말해주는 여름이 많지 않다.

나의 아름다운 과거는 딱 그 정도로만 아름답길 바라기에,

나의 청춘을 조금 더 천천히 보내고 싶기에.
내 청춘은 여름과 같길 바라기 때문에.
영원한 오후 세시는 없어도 영원히 오후 세시를 기억할거다.



10



5

서원준 (중국학과) 여운이 남는 시 같은 글이네요! 글 정말 잘쓰시네요 잘 보고 가요

주재형(청각학과) 여름과 청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과거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건 소중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과거의 순간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순간들이 그 정도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이 글을 읽으니 저도 여름날의 3시가 의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열정적이고 밝은 여름처럼 인영님의 청춘도 더욱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청춘이란 시간은 어쩌나 빨리 가는지... 붙잡고 싶지만 자꾸만 도망가는 시간에게미운 마음도 들지만 인영님의 시를 읽어보니 여름의 햇살이 그래도 넌 아직 청춘이잖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ㅎㅎ 오후 세시라고 정하신 기준은 모르겠으나 저도 제 여름의 시간을 정해본다면 6시로 하고 싶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밝고 사람들도 환하게 보이는 그럼에도 날씨는 조금 선선한 그 시간 대가 제 여름의 청춘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덕분에 제 여름을 시간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9:36 | 12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여름 #

나는 완전 날씨파인 사람이다. 너무 더우면 몸이 쳐지고, 우중충하면 내 기분에도 구름이

낀다. 항상 그래왔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소식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다.
7월 동안 맑은 날이 단 4일뿐이라고 한다.
그럼 7월에 기분 좋은 날이 4일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당연한 걸까?

'날씨가 내 기분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의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좀 새롭게
접근해 보려고 한다. 여름은 덥고, 습하니까
싫다고 생각하기 보다 기분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계절로 이용해 봐야겠다.



9



7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은 더운 계절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많은 즐길 거리와 새로운 경험이
숨어있죠. 날씨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고, 여름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이번 여름 비소식이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저도 날씨에 많이 좌우되는
사람이라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설마 그정도 일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예정,, 일별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을 까요..?

김한나(경영학과) 4일.....충격적이네요 ㅠ
날씨가 흐려도 선율님의 기분은 맑았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 여름도 즐겁게
보내 봅시다!!화이팅

서원준 (중국학과)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
좋은 기운으로 행복하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예전에는 선율님처럼
날씨에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가 오는 날엔 저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빛이
빛추는 날엔 밝고, 뭔가 흐린 날엔 괜히 짜증나고...
어쩌면 날씨가 인간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여기에 휘둘러서 살다보면 점차
내 감정 혹은 기분이 사라지더라고요. 내 감정을
정해주는 건 그 날의 날씨니까요. 그러니 선율님도
날씨보단 스스로가 기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장해나가길 바라요!! 제가 응원할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날씨파라는 단어가
잘딱입니다! 기분에 태도가 잠식되지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2023/05/22

monday, pm 10:10 | 11월음
고다인(법학)

#11일차#여름

여름하면 역시 떠오르는건 여름방학이고
휴가이다.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여름휴가시즌이 겹치는 7~8월은 어디로
떠나든 성수기인데, 이런 인파가 싫은 많은
사람들은 "얼리 휴가족"이 되었다고 한다.
피서철인 7~8월을 피해 덜 번잡한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한다. 나도 이 얼리 휴가족에 속하는데
장점이 정말 많다. 우선 해외로 떠나도 비행기
티켓이 저렴하고 공항에 사람이 적다.게다가
어딜가나 사람에 치일거같은 부담감도 줄어
마음이 여유로워 지기도 한다. 종강도 아직
하지않았으니 휴가까지는 아니지만 성수기가
오기 전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고싶어서
여동생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했다.

2개의 메인 어트랙션을 제외하고는 성수기가
아니라 운영을 하지않았지만 실내 파도풀과
야외 놀이기구를 즐기다보니 하루가 금방
갔다. 주말에 갔다왔음에도 놀이기구를
7번이나 탔으니 꽤나 만족스러웠다.
물놀이를 즐기며 동생과 간식도 사먹고 정말
오랜만에 신나게 주말을 보냈다. 더
어렸을때는 하루종일 물놀이를 하고도
다음날 일찍 일어나 나가 놀 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5시간정도는 자다가 겨우

일어났다. 여유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치이는
성수기가 오기전에 워터파크로 물놀이를
가는 것을 추천한다.

😊 9 💬 7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여름에는 물놀이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계곡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인님은 워터파크 좋아하시는
군요!

이유림(경영학과) 저희 가족은 오히려 휴가철이 다
 끝나고 가요! 극성수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비수기도 나름 매력있는 여행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워터파크 재미있죠! 올 해는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엄청나게 몰릴거 같아요
저도 성수기 전에 다녀오고 싶어서네요!
놀이구도 많이 타셨네요 ㅎㅎ 물놀이도 체력이
많이 필요하죠:)

주재형(청각학과) 휴가를 통해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며 물놀이를 즐겼다는 경험은 정말 소중한
기억이죠. 일상에서 벗어나 여름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는 것은 휴식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꿀팁 감사합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워터파크보다
롯데월드 파라서 워터파크에 간 적은 많이 없지만
갔었을 때 항상 사람이 많아서 타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아마 성수기 때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인님의 글을
읽으며 정말 공감 많이 됐네요. 덕분에 사람이
그나마 적은 워터파크의 시기도 알기 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그 시기에 맞춰 친구들과
놀러가야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보다 비성수기에 휴가 가는
사람들을 멀리휴가족이라고 하는군요...! 처음
알게되었어요 정말 사람많아서 복잡하고 제대로
못즐기는 것보다 조금 미리 가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것도 멋진 방법 같아요



2023/05/22
monday, pm 11:06 | 14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11일차 #여름

오늘은 꼭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해야지
다짐하던 하루였다.
점점 사그라드는 이 마음을 지닌 채로 너를
계속 만날 수는 없었다.
머릿속으로 연습도 얼마나 했던가 '연습한
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

그런 다짐을 하고 있던 중 네가 저 멀리서
보였다.
반갑게 인사하는 네가 나에게 향했다.
그러곤 나에게 무언가를 하나 건넸다.

“수국”이었다.

수국을 건네며 너는 이런 말을 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 드디어
여름이 돼서 줄 수 있게 됐어”

생각이 머리를 거칠새도 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내가 수국을 좋아했지 맞아 그랬지
여름 햇빛이 뽀뽀한 날 예쁘게 피어있던
수국을 좋아했지 내가
강한 햇빛 아래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수국을 좋아했지 내가

그래, 내가 너를 좋아하는구나 맞아 그러네
수국 때문에 덩달아 여름을 기다리는 너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여름이면 내가 좋아하는 수박주스를 사 오던
너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더위를 잘 타는 나를 위해 손부채질을 해주던
너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여름 밤하늘을 수놓던 별을 같이 봐주던 너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여름의 더위 탓일까
사그라든다 생각했던 마음에 여름의 강한
햇빛이 들어온다.

😊 9 💬 7

심지범 (경영학과) 수국을 좋아하셨군요.. 심금을 울리는 글이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어학과) 수국 오랜만이네음 ㅎㅎ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의 더위와 함께 주인공의 마음도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 흐뭇해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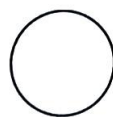
김한나(경영학과) 20살 때 더운 여름 부산 수국 축제 보러갔던 추억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수국이 진짜 이쁘더라구요! 헤어짐을 생각했다가도 꽃을 보고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글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이 인상깊네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수국이 여름에 피는 꽃이었군요!! 여름의 강한 더위처럼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듯한 내용이 인상깊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쩌면 주인공도 보살핌을 받고 싶었을 뿐 헤어짐을 원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수국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 예진님의 글처럼 누군가 저에게 그 꽃을 주며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저도 모르게 이미 풀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는 글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ㅎㅎ 또한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은 쉽게 깨질 수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따뜻해지는 글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좋아하는 꽃을 그 계절까지 기억하고 있다 선물해준게 설레다가도 받는 사람은 이별을 생각했다는게 마음아프기도 한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11:18 | 14월음
김노연(사회학과)

#11일차 #여름

여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노라면, 상반된 마음이 든다.

나는 여름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생동 넘치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내가 흘러가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서 썩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활기찬 여름을 사랑했다.

그렇게 여름을 좋아하는 마음과는 상반되게도 나는 여름에 유독 많이 힘들었었다, 정신적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폭폭 찌고, 건조한 날은 엄청 건조하지만 장마철이 되면 습기와 더위가 합쳐져 정말 맥을 못 추릴 정도였다. 아무리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하더라도 찜통같은 날씨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렇게 축축 쳐지는 날씨에 아무 것도 하기 싫어지고, 집 안에 에어컨은 없고, 그렇게 대부분의 날을 꿈쩍없이 집에서 가만히 보냈던 것 같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우울감도 더불어 찾아오더라.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여름이 밉다.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는 나로서 여름엔 산에 벌레들이 득시글거려서 그것도 싫다. 전에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동해안 한복판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서 바다는 기본적으로 싫어한다.

나는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이젠 집에 에어컨을 하나 사야겠다.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한 여름이 되면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축제도 가고, 엄마와 함께 국내여행도 가보고 싶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름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볼 거리가 많은 계절이니까.

😊 8 💬 7

김시현(러시아학과) 각 계절마다 장단점들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ㅠ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축축 처지는 날씨가 여름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에 대한 노연님의 생각과 감정을 보여준 글이네요. 여름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여름에 대해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도 보여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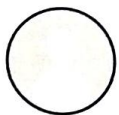
라혜민(사회학과) 모든 것이 활기차면서 동시에 축축 처지는 여름의 생동감을 잘 표현했네요! 이번 여름 즐겁고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원할게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노연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번 한 해의 여름은 어떻게 다가올까 생각해봤어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여름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왠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여름이 다가올 것만 같은 설렘이 느껴지네요. 그저 싫어했던 여름이었는데 설렘으로 다가오다니... 저에겐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ㅎㅎ 더군다나 이번 여름은 봉사뿐만 아니라 여행도 즐기는 풍족한 계절이 될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더 드는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여름을 잘 표현했네요 ㅎㅎ 잘 봤습니당

이유림(경영학과)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다는 표현에 공감해요 다양한 페스티벌이 있어 사람들의 열기도 한층 더 뜨거운 것 같고 벌레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보다 앞들이 파릇해서 그렇게 느껴져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22

monday, pm 11:59 | 10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11일차

여름은 정말 상반되는 감정을 둘다 느끼게 해준다.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하다. 여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물놀이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위이다. 더운 햇빛이 찢찢일 때 계곡에 놀러가서 친구들과 놀면 그것만한 행복이 또 없다. 여름에 거리를 걷다가 시원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만한 행복이 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더운 열기를 상상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흐르고 하루종일 온몸이 끈적한 상태로 지내야한다. 샤워를 해도 금세 다시 땀이 흐른다. 작년 여름 한 창 더울 때 코로나에 걸려 격리가 된 적이 있었다. 내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일주일을 버텨야했다. 정말 고문이 따로 없었고 창문을 열어도 밖은 더웠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여름은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군대에서 예초를 맡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풀을 깎았다. 보호장구와 예초기를 착용하면 열은 배출되지 않았고 몸에서는 땀이 계속 났다. 그런 상황에서 나무는 나에게 그늘을 주었고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그곳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할나위없이 행복했다. 여름은 자연의 존재를 들어내는 계절인 것 같다.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던 날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해준다. 기후변화를 몸소 느끼게 해주며 사람들이 깨닫게 해준다. 어쩌면 주변에 자기주장이 확고하고 공격성이 강한 친구이지만 어쩔때는 또 챙겨주는 친구 인 것 같다. 앞으로의 여름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여름은 나에게 자극을 주는 좋은 친구인 것 같다.



9



7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보고 가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유림(경영학과) 이 글을 읽으니 여름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군대에서 여름은 정말 힘드네요.. 글만 봐도 느껴집니다! 군인분들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름을 좋게 봐주시는
민재님도 멋지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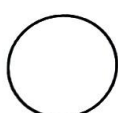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마냥 여름이 싫기만
했는데 다른 분들의 글 읽으면서 여름의 매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게 설렘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기에 저에게도 여름이라는
계절이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민재님의 글을 읽으면서 여름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가득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더 받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여름의 날씨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준다는 게
공감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여름은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고, 특히 물놀이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 이번 여름에는 레저
활동 어떠신가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여름은 정말
장단점이 뚜렷한 계절 같아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3

tuesday, am 12:07 | 17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1일차 #여름

그때만 해도 여름은 죽음의 날씨까지는
아니었습니다. 10살 남짓 무렵의 여름입니다.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를 켜고,
냉장고 바지를 입고, 냉수마찰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면 꽤나 버틸만
했습니다.

지금의 여름은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몸이
녹아 버릴 정도로 뜨겁지만요.
그 당시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물총 싸움을 하거나 돈을 모아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기도 했지요. 시끄럽게
우는 매미 소리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소리도 기억납니다. 매미가
무섭기도 하지만 호기심에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매미와 잠자리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를 잡고 통에 잡아 관찰했습니다.
지금도 매미는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잠시 집에 들어와 수박을 반으로 갈라 배를
채우고 낮잠을 늘어지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여름이 뜨거워서 죽도록 싫지만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개씩이나 먹어도 된다는 점에 여름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같은 여름이지만 그때의
추억의 여름이 그림습니다.



10



7

심지범(경영학과)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여름
행복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매미 옛날엔 채집통에 담고
다녔는데 이젠 못 잡겠어요 ㅎㅎ 물총놀이도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 애기들은 뭐하고 노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성준님 글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살 정도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에어컨은 필수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지구의 경고와도 같겠죠. 그래서인지 한편으로는
슬슬해지네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 있었던 여름의
추억들도 더 이상 겪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때가 많이
그리워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과거의 여름 추억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 때의 순수함과 자유로움을 잊지 않고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임선율(디지털미디어콘텐츠) 맞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샤워하고 나오면 그 기운으로 잠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지옥인
여름이 됐죠ㅠㅠ

제 추억도 떠오르게 만드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올여름도 잘 버텨내 봅시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당 편안한
밤 보내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여름은 아이스크림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ㅎ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3
tuesday, am 12:10 | 28읽음
김양선

#1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생각보다 덥고
습한 여름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네요.
그래도 여름휴가의 추억, 풍성한 먹거리,
방학이라는 잠깐의 휴지기로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름을 나다,
겨울을 나다라고 하죠. 한 계절을 '나다', 즉
지내고 보내다 보면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이겠죠?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의 여름,
올해는 잘 보내기 바랍니다. ♂

😊 11 💬 0



2023/05/23
tuesday, am 7:49 | 30읽음
김양선

#12일차 키워드 :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다.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말, 헤어질 때의 인사말. 평온을 비는 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안녕'이라는 말을
쓰곤 하지요. 어제나 오늘 나는 이 단어를 몇
번이나, 누구에게 썼을까요? 나의 일상은
안녕한가요? 안녕을 기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무심코 자주 쓰는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14 💬 0



2023/05/23
tuesday, am 9:25 | 19읽음
주재형(청각학과)

#12일차 #안녕 #대화의시작



안녕은 한국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이에요. 이 단어는 단순한 인사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녕"은 한자로 "安寧"이라고
쓰며, 그 의미는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요. 이것은 불안과 동요에서 벗어나서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안녕"은 상호 간의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안녕이라는
글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왜 많고 많은 단어들 중 안녕일까요? 더
긍정적인 말들이 많을 텐데요. 안녕은 평안할
안과 평안할 념이 만난 단어예요.
부자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사세요, 등등.
행복하세요와 비교해서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안녕은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죠.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안녕"은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나타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녕이란 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이며,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안녕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은 개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집중된 표현이지만 안녕은 개인의 안정과 더불어 대인 관계와 사회적인 평화를 바라는 말이에요. 안녕은 한 개인의 행복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강조하죠. 이는 개인의 행복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안녕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녕이란, 다함께 행복하자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네요.

뭐든 넘치면 독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잔잔한 물길 같은 날들을 거쳐갈 수 있도록 빌어준 게 아닐까요?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오직 상대방과 그 주변 모든 것이 안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처음보는 사람을 만나거나,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나도 가장 먼저 나가는 말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등등 대부분 안녕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평안과 안정을 빌어주는 안녕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보는 건 어떨까요?

😊 13 💬 10

서원준 (중국학과)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하네당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인문학 강의를 듣는거 같은 글이네요! 재형님의 글 덕분에 이번 12일차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안녕이란 말은 단순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마음을 지닌 단어인 것 같아요. 재형님 글처럼 평안과 안정을 기원함으로써 건네는 인사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안녕이란 말은 언어에 있어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재형님의 글을 읽고 나니 안녕이 가진 의미가 보다 더 빛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안녕에게 설레이네요. 재형님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글 잘 읽었어요 ㅎㅎ



심지범 (경영학과) 안녕의 뜻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군요!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정보가 가득한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안녕 뜻과 범위에 대해 잘 읽고 갑니다:) 안녕이란 다함께 행복하자는 의미라니 더욱 인사를 잘 하고 다녀야겠어요! 말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의 평안과 안정을 빌어주는 의미를 담아 해야겠습니다

최영서(국어국문) 평상시엔 의미도 모른 채 사용했는데, '안녕'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저도 다음부터 잔잔하게 충용의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안녕의 인사를 건네봐야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이 글을 읽고서 이후에 하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더 의미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안녕이라는 인사말에 담긴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는 의미가 참 뜻 깊은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다인(법학) 안녕이라는 말이 이렇게 깊은 의미까지 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3/05/23

tuesday, am 10:01 | 16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12일차 #안녕

효린의 안녕도 떠오르고, 조이의 안녕도 떠올리듯 안녕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하지만 내가 제일 안녕을 많이 하는 때는 3월,9월인 것 같다. 그 달에 항상 개강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오래 못봤던 학과 동기들도 자주 볼 수 있기에 반가운 마음에 안녕을 수십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처음과 끝의 연결 시작이 안녕이기에

더욱이 자주 사용한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처음 만났을 때 안녕! 헤어질때도 안녕 ...! 인 것 처럼 일상에서도 항상 만나는 단어 안녕! 정말 정겨운 단어인 것 같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많이 안녕 단어를 사용하나요?

😊 14 💬 9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그러고보니 서로 헤어질때도 안녕이라는 말을 쓰는군요.. 만날 때만 쓰는 안녕을 생각했었는데 원준님의 글을 읽고 안녕이 얼마나 범용적인 단어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주재형(청각학과) 시작과 끝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가워서, 아쉬워서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을 갖는 사람과 혹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에게 늘 인사를 전하거든요.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니까요. 원준님의 글을 읽으면서 안녕으로사용하는 때를 생각해보니 저의 인생에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동안 관계를 잘 유지해왔구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덕분에 저의 인간관계에 대해 되돌아보느라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아침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늘 매일 아침 학교에 가려고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ㅎㅎ 택시 기사님께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듯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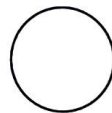
김한나(경영학과) 학교다니면서도 인사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일 하면서 안녕하세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들께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ㅎㅎ

최영서(국어국문) 저는 첫인사를 할 때만 '안녕'을 사용해서 언제 많이 사용될지 잘 몰랐는데, 정말 3월, 9월에 학생들의 '안녕' 말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겠네요! 가만보면 '안녕'이라는 단어도 의미처럼 음운이든 발음면에서도 둥글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원준님처럼 3월과 9월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동기들과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시작하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평소에 학교에서 안녕이란 말을 거의 안쓴 것 같은데 정말 개강과 종강 시기엔 반갑고 친해지고 싶은마음과 아쉬움에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고다인(법학) 저도 조이의 안녕이 떠올랐어요~공감하고 갑니다



2023/05/23

tuesday, am 10:22 | 17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2일차 #안녕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인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셨다. 직접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께 인사를 하게 했다. 경로당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들께 인사를 하고 과일 파는 주인아저씨께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는 엄마가 이해가지 않았다. 귀찮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인사를 해 와서 그럴까. 지금은 습관처럼 목례를 하고 다닌다. 엄마의 말이 세뇌가 되었는지, 어른들께 인사를 안 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 속으로 '저 싸가지...' 하면서 욕을 하곤 한다. 언젠가는 내가 화장실을 들리면서 청소부 아주머니께 가볍게 인사를 했던 적이 있다. 습관대로 했을 뿐인데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기분 좋은 웃음과 함께 인사를 돌려주셨다. 자신에게 인사를 해주는 학생은 몇 없는데

고맙다고. 이럴 때마다 학교를 청소하는데 보람을 느끼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다. 별 생각 없이 인사를 했는데 너무 과한 칭찬을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나 다른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하고 다니는 걸까 하는 부끄러움도 들었다. 잠깐의 수고스러움을 가지면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해줄 수 있고 스스로도 뿌듯한 마음이 들 텐데 말이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더욱더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닌다. '안녕하세요'는 마법 같은 문장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인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사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12



9

주재형(청각학과)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사람들에게 기분좋은 인사를 건네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유진 저도 기숙사 청소해주시는 미화원 분을 보면 항상 인사를 드려요. 작은 말이라도 많은 뜻과 힘을 담고 있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서원준 (중국학과) 첫인상이라고도 생각해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당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빈님의 글을 읽다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안녕이라는 인사 하나가 정말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사빈님의 인사성에 대해 읽으며 그동안 청소부 아주머니께들조차 인사를 건네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라도 한 마디씩 인사를 건네봐야겠어요. 덕분에 좋은 배움을 얻어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심지범 (경영학과) 저도 습관처럼 인사를 하곤 하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더 어색해서 경비아저씨 혹은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마주쳤을 때 꼭 인사를 드리고 지나갑니다! 기분 좋은 인사 한 마디에 서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인사는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최영서(국어국문) 인사가 사소하지만 그러면서도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저도 가끔 여러 상황 속에서 느낍니다

마스크를 쓴 코로나시대든, 개인주의화 되는 사회이든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인사의 힘을 깨닫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sns에서 버스기사님이 건네신 인사에 같이 인사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던 영상이 떠오르네요 아무 의미없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께는 하루 끝에 이야기할만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쑥스러울 수 있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습관을 가져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서로 기분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2023/05/23

tuesday, am 11:03 | 18읽음

김유진

#12일차

안녕-원태연

사랑해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난 그래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우린 아마

기억하지 않아도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때마다 난 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잖아

생각하면 웃고 있거나

울게 되거나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사랑해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

안녕이란 주제에 맞게 시를 한편 가져와 봤다.
원태연 시인의 안녕이란 시는 화자가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이다. 이
시를 읽고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을 받았다.
기억하지 않아도 늘 생각나는 사람이 된다는
부분, 있지도 않았던 연인이 생각나는
구절이다....

시의 제목은 안녕이지만 정작 내용에는
안녕이 없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만한데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제목인 ‘안녕’을 인사말로
건네고 시를 전개하는 발화법으로 보여졌다.
안녕이라는 말이 전하는 느낌은 확실히
남다른 것 같다. 친구들끼리 다양한 인사말,
“하이”, “잘 지냈어?”, “바이”, “들어가서
톡해.” 같은 인사말들이 있지만 안녕 같은
아련한 느낌을 주는 단어는 찾기 힘들다.

일본의 드라마, 영화, 애니를 보면
우리나라의 안녕과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さようなら.’, ‘사요나라.’라고
느꼈는데, 그 특유의 아련함과 그리움이 잘
묻어나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와 안녕이라 인사하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가끔은 가슴이 찢어질 듯 슬프기도
하다. 오는 이는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는 이는
안전히 가라고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모두가 기쁘게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11 💬 7

주재형(청각학과) 안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죠. 그 아련함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인사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할
수 있죠. 유진님의 글에 공감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진님의 글처럼 안녕이
가진 감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반가움이나 즐거움, 평안함 등을 생각했는데
유님지의 글을 통해 슬픔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녕은 첫만남에서도
사용하지만 마지막 만남에서도 헤어짐의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안녕은
이중성을 가진 단어 같네요. 유진님과 제 인생의
안녕에도 슬픔이 있겠지만 행복한 의미로 쓸 수
있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ㅎㅎ 덕분에 좋은
깨달음 얻고 거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러게요. 정말 시의
제목은 안녕인데 시에는 안녕이라는 글자가 단 한
줄도 없어서 신기하네요. 하지만 또 안녕이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
공유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안녕은 정말 많은 감정을 담아서
쓸 수 있는 단어인거 같아요 기쁨 슬픔 그리움 평안
반가움 등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유진님의 하루도
안녕하시길 바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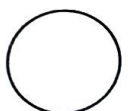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안녕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감정과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발음마저도 좋아요
잘 읽었습니다!

최영서(국어국문) '안녕'을 첫인사, 새로운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긍정이
아닌 슬픔의 감정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가져오신 시를 읽어보니 정말 연인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잘 느껴져요! 저도 감정이 동화되네요
말한마디에 여러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음을 다시
되새기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여러 감정이 들게하는 안녕은
참 맛있는 단어 같아요:)



2023/05/23

tuesday, am 11:29 | 17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2일차 #안녕

사람들은 첫 만남에도 마지막 만남에도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인사를 한다. 우리가
인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왜
굳이 '반가워'보다 '안녕'이란 말을 하게 된
걸까?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기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오늘은 내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안녕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그
안부에는 만남에 대한 반가움이 묻어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인사를 통해 반가움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소개하는 계기가
된다. 첫 인사를 통해 친밀감을 쌓게 되고
이는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때론 예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안면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보단 인사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다. 사회라는 공간 내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인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시할 수도 있다. 관심의
표현을 통해 언제든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엔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다. 그 의미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이 속엔
반가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녕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관계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다른
이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떠올린다고 한다.
자신과 안녕을 나눈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리한다. 내 삶의
끝을 예측할 순 없지만, 그 끝엔 소중한
맺음들이 다양하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챌린지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을 건네본다.

😊 10 💬 7

서원준 (중국학과) 즐겁고 행복한 인사네요 ㅎㅎ
주재형(정각학과) 반갑게 맞이하고 안전하게 떠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기쁘게 만들고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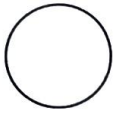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맨 처음 안녕이라는
인사는 누가 썼는지 궁금해지는 글이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인사를 통해 관심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을 시작하게 해주는 좋은 단어 같아요:)
안녕에 대해 시작과 끝을 잘 알고 갑니다! 하영님도
오늘 하루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관계의 언어라는 말이 참
인상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안녕이라는 단어로
보통 관계를 시작하고는 하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안녕은 관계의 언어라는 점이
인상깊습니다! 안녕을 통해 관계를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게 참 매력적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법학) 반가움이 가득 묻어나는 안녕은
언제나 듣기 좋은거 같아요~ 글 잘 읽고 가요



2023/05/23

tuesday, pm 12:03 | 16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12일차 #안녕

난 생각날 때마다 내 자신이 안녕한지 살핀다.
나의 다양한 모습 중에 일부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등
내 안위를 살펴본다.

과거 현실 미래
난 어디서 사는지
난 현재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생각한다.

때론 답이 없을 때도 있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아픈 만큼, 괴로운 만큼, 슬픈 만큼
지나가면 상처는 아물고 단단해진다.

벌써 글쓰기가 3일 남았다.
글쓴지 3주가 지났다는게 믿겨지지 않고
이번 3주 내가 정말 정신없이 보냈구나
하면서
되돌아본다.

글은 정신과 감정의 여과물이라 생각한다.
뇌의 화학작용이 순화되고 여과되어 거처진
느낌이 든다.

오늘은 내 안녕을 살피고
내일은 나에게 안녕이라 인사를 건내고
어제의 나에게겐 안녕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매일이 기쁨의 연속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순간이라도 기쁜 마음은
있으리라

그 면을 보고 안녕하면서 웃어주고 싶다.

여러분 3일 남았네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면서 서로 응원해요!

그리고 보는 분들이 오늘도 안녕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9



6

서원준 (중국학과) 상민님도 화이팅입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상민님도 3일 남은 챌린지기간
동안 화이팅하며 서로 응원하길 바래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도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안녕은 늘 다른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민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안녕을 건네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저의 인생은 제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네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안녕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저에게 안녕을 자주
건네보려구요. 나라는 존재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안부를 물어보고 평안함을 전해주려구요! 덕분에
좋은 배움 얻어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진짜 저도 3주가
이렇게 정신없이 후루룩 지나갔구나... 함에
놀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글은 정신과 감정의
여과물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는 과연 안녕한지 되돌아
생각해보게 됩니다:) 글쓴이님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2023/05/23

tuesday, pm 1:21 | 12월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2일차 #소설

첫 인연의 시작은 안녕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안녕, 집으로 가는 거야?]

인사 뒤에 붙는 평범한 질문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게끔 만든다. 도율은 가방끈을 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비탈에 나란히 서있던
다희는 그를 지나치며 말을 덧붙였다.

[그렇구나, 내일 보자!]

집에 돌아오고 생각해 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후회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
그녀를 보자 용기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 그런 너는?]

도율은 자연스레 그녀와 발을 맞춰 걸으며
담담히 대화했다. 그날은 후회 없이
지나갔다. 시간이 흐름에 두 사람은 여러
활동을 함께 했고, 졸업을 앞두고 되었다.

그리고 인연의 끝도 안녕이라는 말로 끝난다.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만 보일 정도로
복적복적한 졸업식장에서 도율은 열심히
다희를 찾았다. 모두 똑같은 교복이었지만
보고 싶은 사람은 단번에 식별할 수 있는
법이다. 다른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그녀에게
선불리 말을 걸 수 없었다. 어물쩍 거리는
그를 향해 그녀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도율! 졸업 축하해!]

밝은 표정에 압도되어 조용히 손을 흔들어
응했다. 어째서인지 새 출발을 하는 태도가
달랐다. 그녀는 미래에 낙관적인 반면에
도율은 모든 것이 불안했다. 고등학교라는
공통점이 사라진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안녕, 이젠 못 보겠구나.

그녀에게 제대로 된 인사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밤공기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안, 도율은
핸드폰에 띄워진 메시지를 힘없이
바라보았다. 불합격 통보였다. 지금이 몇
번째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열 번을 넘기고
나서부터 세는 것을 멈췄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니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다. 자신이 알던 사회는 이상이 된 듯
멀어지고 말았다. 힘이 나질 않아 동네
놀이터의 그네에서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들어갈 면목을 궁리하던 도중에 그의 얼굴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개를 들자 낮이 익은
여성이 편한 옷차림으로 서있었다.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서 만나는 건
의외야.]

[다희, 안녕. 많이 어른스러워졌네.]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정장 차림으로 여기엔
왜 앉아 있는 거야?]

[되게 없어서 생각이 많거든. 너는 어때?]
그녀는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율이 부러워하자 누구나
암울한 시기는 있으며 버티다 보면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놀이터
출입구에서 헤어졌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작별을 고할 수 있었다.

안녕, 이라고.



8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충민님의 안녕은 슬픔이
가득하네요. 설렘과 기쁨으로 시작한 말이었지만
결국 슬픔과 이별의 안녕으로 끝나서 그런지
마음이 울적하기도 했어요. 아마 현실에서
일어날만한 일이어서 더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하지만 충민님의 인생에선 더 행복한 안녕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충민님도 저도 슬픔보다는
기쁨의 안녕이 가득하길 바라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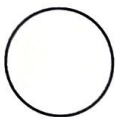


심지범(경영학과) 안녕이라는 말이 행복한 말이

될수있지만 때로는 슬픈 말이 될수 있죠!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안녕이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끝을 맺는 말이기도 하다는게 잘 드러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여운이 남네요 ㅎㅎ 잘 읽고 갑니다!



2023/05/23

tuesday, pm 2:39 | 13읽음

최현영(법학과)

#12일차 #안녕

요즘 나의 하루는 안녕한가
안녕하지 않아도 안녕하려고 노력한다.
그 이유는 누군가로 인해 내 하루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고
소중한 시간을 그저 흘려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깨가 축 쳐지는 날에도 어깨를 펴 보려고
노력하고 웃음이 지어지지 않는 날에도
예능을 보거나 시시콜콜한 농담을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안녕한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안녕한가.
사실은 여전히 안녕하지 않다.
안녕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중이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지금의 슬픔이 추억이 되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힘 빠지는
하루라도 슬픔에 잠겨 허우적거리더라도
그럴 수 있지.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지금 많이
슬픈 것 뿐!



10



9

주재형(청각학과) 서울에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멍때리기 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더
큰 행복을 위해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인사의 참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현영님의 글을 읽다보니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미래에 다가올 큰 행복을 위해 슬픔을 이겨낸다는
말이 현영님이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슬픔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런 성장이
부족한 저이기에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끼게
되네요. 현영님의 안녕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왠지
가까이에 있을 것만 같아요. 영원한 슬픔은 없듯이
현영님의 인생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기에 머지
않은 미래에 있을 행복이 다가오길 바라요!! 그리고
현영님도 저도 행복의 안녕을 한껏 만끽하자구요!!
덕분에 좋은 배움 얻어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더 큰 행복을 얻기위한 준비
과정이지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안녕하지 않아도 안녕하려고
노력하는 현영님을 응원합니다:) 지금은 안녕하지
않더라도 곧 안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잘
하고 계신거 같아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만 더 힘내 봅시다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지금 슬픈 것은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영님의 안녕을 바랍니다 잘 읽었습니다!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기쁜 일이 늘 곁에
머무르지 않듯, 슬픈 일도 언젠가 떠나간다고
하던가요.

작성자들의 현재 슬픔을 제가 전부 알 순 없지만,
모든건 시간이 해결해 줄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다짐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늘
안녕한 하루 되세요!

서원준 (중국학과) 기운 더 내보고 즐거운
마음가짐을 같이 만들어가요 화이팅입니다 !!!

김시현(러시아학과)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위해
지금 많이 슬픈 것이라는게 큰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나중의 행복을 생각하며 지금을

견디는 일은 힘들지만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2023/05/23

tuesday, pm 3:30 | 16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12일차 #안녕 #015B #졸업 #인사말
오늘 해시태그는 안녕인데요!
안녕 하면 바로 떠오르는 노래는 바로
졸업식날에 빠질 수 없는 노래가 있죠!
015B의 안녕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울컥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
하기도 하는데요!
안녕이라는 우리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계셨어요? 라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와
안부들을 묻는다는게 참으로 행복한 이야기
인거 같아요!
글쓴거를 한번씩 훑고 읽어 보면 안녕이라는
단어에 많은 추억들과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 그 단어가 더욱 빛나게 보이는거
같습니다!
요새는 예의범절이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인성논란, 행동 등등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들 그리고 교육등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서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것 같고 교육을 통해서도 예의가
갖춰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지나치게 됩니다!
그 중에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
그렇지만 내 자기 자신이 인연을 만들어
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내가 좀 내면적이다 말주변이 없다 등등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자기 자신이 정해버리면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여기 라이팅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자 분들은
제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자기의 번데기 옷을
벗어던지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과제로
바쁜시기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 한번
어떨까요?



9



6

주재형(청각학과) 제목이 안녕이라니 이번
키워드에 맞는 노래네요! 오늘은 그렇게 답지도
않은 것같아서 지범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오늘
밤에는 산책을 해보려구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범님 말대로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인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이라는 인사 한 마디임에도 사람들은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요. 한편으로는 요즘 인사하는
사람들이 적어 그런 느낌이 더 잘 드는 듯 하네요.
그런 사실에 조금 쓸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안녕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겠네요 ㅎㅎ 지범님도 오늘
하루 행복한 안녕을 보내시길 바라요!! 덕분에
예의와 안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졸업 때 빠질 수 없는 곡이죠 이
노래를 들으면 추억에 금방 잠겨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거 같아요! 수 많은 사람들 속에
라이팅 챌린지에서 지범님을 만난것도 인연이죠:)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거 같아요 지범님도 오늘
하루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015B 노래 정말 좋아해요
평소에는 심하지 않은데 졸업식 날에 들으면 정말
슬픈 노래인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열심히 산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

김시현(러시아학과) 인사를 하고 인연을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15B의 안녕 정말 명곡이죠



2023/05/23
tuesday, pm 3:58 | 11월음
박지원(사회학과)

#12일차 #안녕

오늘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키워드를 보고 '안녕'이 뭘까 생각하는 도중, 게시글 글에 '나의 일상은 안녕한가요?'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매번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를 자주 건네지만(나도 듣고 싶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아니 사실은 매일 자주 듣고 싶다.) 나 스스로에게 안부 인사를 건넸던 적이 있었나 의문이 들었다.

나의 일상은 어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가고, 밥 먹고 과제하고, 간간이 지인들과 만나고, 알바 가고 그냥 늘 그렇듯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 어떤 날에는 이리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일이 잘 안 풀린 날도 있었으며 가끔은 한없이 우울하고 공허한 날들도 참으로 많았다. 그런 날도 있는 거고 그런 기분도 있는 거다. 이걸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럴 수 있다고 그렇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그 기분에게 계속 압도 당하는 거 같아 슬프다.

간혹 어느 밤을 버티기 힘들 때가 있다. 공허한 감정과 닿는 순간, 그 감정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한다. 하지만 그것들을 막을 힘이 없기에 매일 같이 지배당하고, 결국 나의 밤은 깊어진다.

당신의 밤은 안녕한가?



9



7

주재형(청각학과) 밤이 되고 혼자서 여러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지는 때가 있죠. 저는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 밤산책을 나서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려요. 자기만의 해소방법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이전까지 안녕을 다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녕이라는 말 자체에 건네다라는 행위가 들어있어 나한테는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고 오히려 지원님 글처럼 나를 위한 안녕을 건네주는 게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게 안녕이라고 말해주려구요. 그리고 제 삶을 보다 더 평안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네요 ㅎㅎ 덕분에 저에게 안녕을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원님도 스스로에게 안녕을 기원해줌으로써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ㄹ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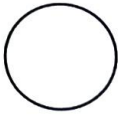
김한나(경영학과) 그런 날도 있는 거고 그런 기분도 있는 거다 라는 문장이 인상깊네요:) 저도 요즘 그렇게 기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울함과 슬픈 기분을 예전에는 부정하고 싶어 했는데 인정하고 얼른 떨치는 방법도 나쁘지 않더라구요! 어느 밤이 버티기 힘들어지면 가벼운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생각이 많아지면 밖에 나가서 걷는게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유림(경영학과)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줄 아는 부분이 지원님이 참 건강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서 부럽기도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밤이 깊어진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날 보낸 하루에 후회가 남으면 늘 새벽까지 깨어있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새벽까지 깨어있다보면 찾아오는 우울감들이 꽤 괴로운 듯 해요. 작성자분의 공허와 고통을 제가 전부 알 순 없지만, 늘 좋은 하루와 편안한 밤을 가지시길 작게나마 바라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잠드실 수 있길 바랄게요!

서원준 (중국학과) 멋있네요 ㅎㅎ 잘 읽고 가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밤은 낮보다 참 여러가지 생각들이 불쑥 떠올라 기분이 복잡미묘해지는 시간 같아요 저의 일상은 안녕한지 저에게 물어보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3
tuesday, pm 4:05 | 13읽음
김노연(사회학과)

#12일차 #안녕

안녕이라는 말은 참 마법 같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친구가 와서 안녕, 이라고 한 마디만 건네주면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말이다. 정말 신기하다. 사실 안녕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는 사회적 관계가 충족됨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 아무튼, 안녕이라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안녕이란 말을 누가 처음 건네느냐에 따라서 그 날의 기분도 어느 정도 좌우되니까. 나는 인사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다. 특히나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기 뻔뻔하고, 어색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와서야 교수님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말이다.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은 인사를 자주 하는 게 정말로 좋구나, 라는 것이다. 인사를 자주 해서 나쁠 건 없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 속 깊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였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 의식적으로 인사를 먼저 건네려고 노력해야겠다. 인사를 하는 것은 곧 누군가를 신경 써주는 것과 같으니깐.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둘 다 기분이 좋아진다면 어찌 인사를 마다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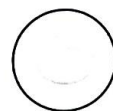
😊 9 💬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노연님 글처럼 안녕은 별 거 아닌 말인데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안녕의 가치가 빛나는 단어라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인사를 잘 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선 안녕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ㅎㅎ 덕분에 인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노연님도 안녕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묻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안녕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노연님 글처럼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울한 날 한 친구가 밝게 웃으며 인사해주면 나도 그 친구를 따라 밝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인사를 잘 한다고 해서 정말 나쁠 건 없는거 같아요:) 먼저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별거 아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저도 이제는 먼저 반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인사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죠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보려 노력중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맞아요, 사실 안녕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저도 늘 먼저 다가가거나 인사하는게 어색하기만해서 누군가 먼저 와주길 바라는 편이라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ㅎㅎ... 대학생생활이란 초종교와 같지 않아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작성자분의 다짐을 읽으며 저도 다시 생각해볼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서원준 (중국학과) 먼저하려는 마음가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먼저 인사를 건네보려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3
tuesday, pm 4:45 | 17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12일차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의 첫인사

안녕히 가세요
우리의 마지막 인사

당신은 나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관계를 맺고
싶었구나
나는 당신과 여러 탈을 겪어가며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한 거겠지

😊 9 💬 6

김시현(러시아학과) 안녕이라는 인사가 반복되면
특별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멋진 시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시작과 끝을 데코레이팅 하듯
간결하고 민지님이 전달하고 표현하고픈 의도가
담겨진 시였습니다! 좋은 시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화자의 아쉬움이 가득 느껴지는
글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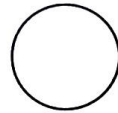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인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잘 읽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 읽었을 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몇
번 더 읽어보니 관계의 이별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공유하자면 서로가 추구하는
게 맞지 않았을 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민지님의 시처럼 한 사람은 편안한 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특별함을 원한다면
서로의 의견이 상충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겠죠. 이런 상황은 이별이라는 길을 걷게 만들고
결국 우린 서로에게 헤어짐의 안녕을 건네는 것
같네요. 안녕을 항상 긍정적인 단어로서
생각했는데 민지님의 글을 읽으면서 슬픈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조인영 심리학과 어쩌면 안녕이라는 말을 전할
때에도 타이밍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안녕을 전할 때가 운명적인 타이밍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일거예요 ><



2023/05/23
tuesday, pm 5:31 | 13월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일차 #안녕

1.
이후로는 슬퍼하지 마.
잘 지내.

... 안녕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어땠더라.
기억해 보려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다. 점점 흐려져 간다.
목소리도, 얼굴도, 다정했던 손길들도.
떠올린 기억엔 허무만이 가득했다. 허무했다.
이 모든 것들이.

후회는 오직 나를 위해 쓰여진 단어 같았다.
후회라. 단어를 잠시 곱씹었다.
아니,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2.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제 앞에는 감히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 못 할 비틀림,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직시하자마자,
밀려오는 역겨움에 잠시 숨을 참았다. 혼자
감당하기엔 괴로운 압도감이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

인간이란 나약해서,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소원을 감히 바라곤 한다. 소원을 들어주는 건
신만이 아니다. 악마도 간절함을 듣는다.

“계약하지.”

나는 악마에게 속삭였다.

3.

머릿속 무언가 끊어진 기분이었다. 강렬한 격동이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예상보다 괴롭진 않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누군가가 겪었을 아픔이기에 그저 슬프기만 하였다. 한없이.

너에게 다시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싶었다. 그때, 그 도화꽃이 감정을 타고 흘날리던 날. 내가 빌었던 소원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모든걸 이루었으니 이제 후회란 없었다.

후회란... 없을 텐데. 너와 나 사이에 한없이 흐르는 이건, 무엇일까.

😊 7 💬 5

주재형(청각학과)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읽어보았어요. 그를 잃은 주인공의 마음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대답하고픈 주인공의 후회를 잘 표현해주셨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ㅎㅎ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악마도 간절함을 듣는다는 구절이 제일 맘에 들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그동안 안녕을 인사하는 말로서 긍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진님의 글을 읽으며 안녕이란 말이 어찌나 그립고 슬프게 들리는지... 중요한 말을 건네고자 후회를 떠나 자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는 내용이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큰 게 느껴져서 더 그런 것 같네요.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글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시현(러시아학과) 후회없이 인사하고 이별했음에도 알지 못할 후회의 감정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묘하면서도 슬프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23

tuesday, pm 5:38 | 16원음
김시현(러시아학과)

#12일차 #안녕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되었을 때 참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다.

가족.친구.동료 등이 자신과의 행복했고 치열했던 여러 추억으로부터 안녕을 고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이니까. 그 말을 들은 자신에게도 피하고 싶었던 소리일 것이다. 오랜 지병을 앓다가 듣게 될 수도 있지만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듣게 될 수도 있으니 더욱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너무나 슬픈 순간이지만 후회 없는 작별의 안녕을 위해 남은 시간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한다. 자신으로 인해 종일 슬픔에 잠식되기보다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다 종종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길 바랄 테니.

우리는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워한다. 아직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과의 작별 인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따라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노후의 삶을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후회 없는 안녕을 위해, 매사에 난 최선을 다했나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하기도 하다.

나의 우유부단한 생각부터 바뀌어야겠지? 내 삶과의 안녕을 고해야 할 상황일 때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잘 안가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글을 쓰다 보니 문득 폴킴의 안녕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11 💬 6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언제 어떻게
이별하게 될 지 모르니까 늘 후회없이
살아야하는데, 삶이란 항상 예상대로만 되질 않죠.
작성자님의 글을 읽으며 저도 이별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남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자님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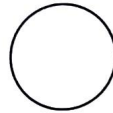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죠. 그
과정들에서 고뇌하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시현님도 수고하셨어요!~! 글
잘 읽고 갑니당

고다인(법학) 아무 미련과 후회없이 안녕을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좋은 글 잘 읽고가요

이유림(경영학과) 삶과의 이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다가도 주변 사람과 이별하면 또 가깝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할 이별이라면
후회없이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시현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안녕이라는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안녕이라는 말 한 마디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조금
두려워하면서 읽게 되었네요. 아무렇지 않게
안녕이란 말을 그동안 건네왔는데 시현님의 글을
읽고나서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시현님 글처럼 후회없는
안녕을 저도 준비해보고자 해요. 그 순간이 오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후회보단
행복한 이별의 안녕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3

tuesday, pm 6:53 | 14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2일차#라이팅챌린지#안녕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라 체육관으로 가던 중 길에서 다른 반
체육 선생님을 뵈었다. 선생님을 보고 바로
'안녕하세요.' 했는데 돌아온 답은 '어 그래'가
아닌 '너는 안녕하니?' 였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안녕'하냐고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나에게로 돌아와 안부를 묻는 것, 나의
'안녕'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다.
어떨결에 '네...', '이라고 대답한 나는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로 표현하기만 했는데
누군가 나의 '안녕'을 물어봐주니 진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안부를 묻는 인사와 '안녕하세요'는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주치면 하는 의례적인 말이기도 하다. 그런
말들에 진심을 담아 대답해주고, 더불어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인사들이
 많아지면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다. 사실
안녕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내 안위를
걱정해주면 고민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한편으로 안도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 9 💬 6

김시현(러시아학과) 누군가 저의 안위를 묻기위한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세상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나의 안녕을 물어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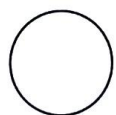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안녕하다 의 의미가 다른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벼운 인삿 말에 그 사람에 안부를 묻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되돌아보게됩니다 ㅎㅎ
잘보고 가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고등학생 때 친한 선생님들을 제외하곤 다른 선생님들과는 인사를 잘 나누지 않았어요. 전에는 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시더라구요. 처음에는 잘 못 들으셨나 싶어 조용한 분위기에 큰 소리로 인사해도 무시하고 가는 선생님이 대부분이셨어요. 그 뒤론 안면이 있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곤 그냥 못 본 척 지나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유정님의 체육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인사를 받아주신 것을 넘어 유정님의 안부를 물으며 관심을 표현했으니까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선생님이 계셨으면 어떠셨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니... 무안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꼭 인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부를 무든 인사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하기만 해도 따뜻한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05/23

tuesday, pm 6:58 | 14읽음

박진옥(사회학과)

#12일차 #안녕

안녕?

처음 안녕하고 다가왔던 너에게 들었던
“안녕”은
더할나위 없이 설렘고, 잊을 수도 없이 뇌리에
꽃히는 단어였는데

매번 만나는 나에게 건네주던 그 설레임인
“안녕”
설레임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녕하고 먼저 찾아왔던게 너다.
낯설고 불안했지만 달콤한 안녕에 난 이미
빠졌다.
만날 때마다 나누던 우리의 인사가 이렇게
행복한건지 몰랐다.

니가 건네는 인사, 그 안에 설레임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불안도 있다.

언제라도 똑같은 말을 건네며 나를 두고
가버릴까봐
설레이면서도 불안해하는 안녕이다.

똑같은 말이라서 저 불안한걸까. 안녕이라는
말이
불안하면서도 설레이는 요즘,

제발 나에게 안녕을 말하지 말아줬으면
하면서도
매일 듣고 싶은 안녕이라는 말이다.

나를 두고 가지 말아줄래, 매번 설레이는
안녕만 말해줄래.



10



6

이다빈(경영학과) 진옥님 글을 통해 안녕은 더더욱
설렘과 불안함을 동시에 포함하는, 어쩌면
모순적이기도 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불안함과 슬픔의 안녕은 듣고 싶지 않아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낯설고 불안하더라도
행복하고 설레이는 안녕이 계속되길 모두가 바랄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설렘을 느꼈던 인사가
마지막이라 느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매일 하는 인사에 다양한 감정이
복잡적으로 존재하는 건 마냥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두가지의 감정이 존재하네요
ㅎㅎ.. 잘 보고 가용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에
설렌다는 진옥님의 글에 정말 깊게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저도 고등학생 시절 제가 관심이
있었다기 보단 절 좋아해준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애가 가끔씩 저한테 안녕이라고 말해주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카톡으로도. 그 애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던 저조차도 그 한 마디에 어쩌나
설레던지! 그때 그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하지만 안녕은 늘 설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참 슬프네요.. 진옥님과 저에게 설렘의
안녕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3
tuesday, pm 7:56 | 14읽음
김용후(법학과)

#12일차

#안녕

'안녕하십니까',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대표적 인사다. '안녕'이라는 단어는 安과

寧이 합쳐진 것으로서, 편안하다는 뜻이다.
이 안부 인사를 자신에게 건네본 적이
있는가?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하루를 안녕히 보냈는가?' 눈 돌릴 틈
없이 바쁜 생활과 많은 자극 속에 우리는
하루를 '편하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안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행복에 관하여 단순하게 좋은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한다. 스스로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곧 행복이 된다.
연구들은 객관적 상황보다는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행복과 더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셀리그만, 최인철 등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과 관련하여, '순간의 기분'보다 '좋은
삶'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 한 번의 선행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지속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분을 넘어 '삶'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행복은 대체로 1) 즐거움, 2) 의미, 3)
연결의 인식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
'즐거움'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재미를
발견하는 것, '의미'는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발견하는 것, 마지막으로 '연결'은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주관적인
것이 된다. 행복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결과에
대한 초조와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그
자리에 낙천적 사고와 재미를 채워보는 것을

어떨까.

p.s. M. Seligman이 한 말로 글을 이만
마칩니다. "Life inflicts the same
setbacks and tragedies on the optimist
as on the pessimist, but the optimist
weathers them better." (삶은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에게 모두 같은
고난과 역경을 안기지만, 낙관주의자는
그것들을 더 잘 헤쳐나간다.)

😊 11 💬 7

고다인(법학)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말이
있군요~스스로 안녕한지 물어보는 태도
좋은거 같아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맞아요 행복은 주관적이기에
남을 쫓아가려하면 괜히 저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만의 안녕을
찾으려 노력해야할 것 같아요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녕이네요 유익하고 흥미롭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오늘은 안녕하게 보냈는지
스스로 물어본 것 같아요. 주관적 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행복은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아요. 타인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죠.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미 부여가 행복을 찾는 핵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즐거움, 의미, 연결과 같은
측면을 인식하고 중요시하는게 행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옹후님의 글처럼 행복과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단순해보이지만 그
속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면서도 단단해서
사람의 하루를 바꾸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걸 인생의 안녕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기쁨을 주는 안녕이 저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덕분에 행복과 안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05/23
tuesday, pm 8:18 | 18읽음
고다인(법학)

#12일차#안녕

"안녕"이라는 말은 참 흔하면서도 친근함을
주기에 가장 좋은 말이다. 아침에 등교하기전
가족들에게도, 내가 집에 없을때 잠만 자는
우리집 고양이들에게도, 길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친구들에게도 건네는 말이다.
"안녕"이라는 말을 항상 쓰지만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때는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같다.
호텔 직원, 식당 점원, 택시 기사님 등등
여행하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으며
안녕이라고 말을 건네면 이것 만큼 말 문을
트기에 효과적인 말이 없다고 느낀다.
안녕이라는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얻기도한다.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여행했을 때,
태국어로 안녕이라는 말은 여자, 남자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싸와디캅이라고만 알고있었는데 이건 남자가
사용하고 여자들은 싸와디카 라고 한다. 이
차이를 알고나서 내 친구와 나는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싸와디카라고 인사를
건내며 여행했다. 일주일동안 여행하며
태국인들의 싸와디카 억양까지도 똑같이
따라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잊어버리고 말았다. 돌아오는
겨울에 또 방콕에 놀러갈 예정인데 역시
열심히 싸와디카 인사를 건내며 돌아다닐거
같다.

+ 사진은 커다란 도마뱀이 반겨주던 방콕 룸피니 공원입니다



😊 10 💬 8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야자와 비슷한 나무와 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이국적이네요 여행도 하고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

김시현(러시아학과) 사진의 분위기가 고요해보여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는 정말 말문이 트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유림(경영학과) 사진 속 풍경이 너무 멋지네요 여행 간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는 일이지요 잘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여행을 가서 먼저 인사해주어서 아마 사람들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다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녕이라는 말은 매우 흔하면서도 친근함을 전달하는 멋진 인사말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에서부터 여행 중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안녕은 상황과 관계없이 사용하기 좋은 인사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울 때에도 인사말이 가장 먼저 배워지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사진 분위기가 좋네요 잘 보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일본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안녕에 관한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번은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왔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들과 인사를 잘 나누었거든요. 아침에 만나면 안녕이라는 안부를 전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을 외치며 이별을 고했죠. 사실 별 말 아닌데도 안녕으로 시작한 패키지 여행객들의 여행은 짧은 시간임에도 서로를 돈독하게 만들었고 여행 중간중간마다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하루를 보냈죠. 다인님의 글을 읽으며 그 때를 생각하니 안녕이라는 말 한 마디 덕분에 좋은 추억이 생겼었네요 ㅎㅎ 덕분에 추억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혜윤(사회학과)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요!!



2023/05/23

tuesday, pm 9:07 | 13월음

이유빈(사회학과)

#12일차 #안녕

인사는 서로 주고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군다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것 같다. 요즘 같은 날씨에 누가 인사를 해준다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다.

안녕이라는 말을 꾸준히 전하는 이들은 기억에 잘 남고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첫인상의 중요성 중 하나가 인사라고 생각한다. 인사를 해맑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인사에서부터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예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된다.

인사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능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인사를 해보자. 그렇다면 더 소중히 여길 것이고 하루가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과분한 말이 필요없다. "안녕!" 한마디면 하루가 정말 즐거울 것이다.

😊 8 💬 7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첫만남에 활짝 웃며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이 남죠 그 첫인상은 이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인사를 해준다는 것 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신경 써준다는게 행복한 것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맞아요! 그래서 요즘 어디가나 항상 더 적극적으로 인사 하고 다닌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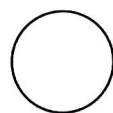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첫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인사가 중요하다는 게 공감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는데 인사의 역할은 크다고 봐요. 유빈의 긍정적인 인사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래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빈님 글처럼 기쁨의 안녕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보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가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거나 몸이 안 좋으면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주시면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행복만 남더라고요. 그 덕분에 늘 기분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젠 저도 그 인사를 먼저 건네보려구요! 유빈님 덕분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최현영(법학과) 맞아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한거라고들 하죠~ 저도 그래서 인사를 빼 먹지 않고 하려고 노력해요!! 글 잘 보고 갑니다!!



2023/05/23

tuesday, pm 10:05 | 16원을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2일차 #안녕

“안녕!”

나도 모르게 세상 해맑게 인사할 때가 있다. 보고 싶었던 사람, 반가운 사람, 친한 사람.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안녕“

혹은 미지근하게 인사할 때가 있다.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이, 어느 정도 아는 사이.

정신 없이 바쁠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

”안녕...”

되도록 힘 없는 인사는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몸이 안 좋을 때, 멘탈이 부서졌을 때, 힘이 들 때.

짧은 인사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 10 💬 11

심지범 (경영학과) 다양한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단어이죠! 글 잘 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안녕의 시작과 마무리를 다 느낄 수 있는 글이네요 안녕이란 단어는 짧지만 다양한 뜻을 담은 인사를 할 수 있는거 같아요:)

조인영 심리학과 우리 한글은 참 신기하죠 ㅎㅎ 하나의 단어에 중의적인 표현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안녕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마치 사계절을 보는 느낌,,,! 글 잘 읽고 갑니다 ㅎㅎ

박혜윤(사회학과) 안녕이라는 말 속에 여러 뜻도 담겨있지만 여러 감정도 담겨있는 것 같아요.

최현영(법학과) 맞아요 안녕이라는 짧은 말에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니,, 말에 힘이 있다는게 보민님의 글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보민님 글처럼 안녕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기쁨, 슬픔, 외로움, 무기력함, 우울함 등... 정말 여러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저는 그중에서도 기쁨을 나타내는 안녕을 더 자주 사용하고 싶어요. 제 경험 상 누군가 밝게 인사를 건네준다면 그 날 하루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 아주 해맑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민님에게도 밝은 안녕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이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일도 잘 보내시길 바라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같은 안녕인데도 느낌이 정말 다양하네요 잘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다양한 의미 담겨 있다는 표현 공감하구 갑니당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가끔은 미지근하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순간도 있죠. 이는 얼굴과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일 때, 혹은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등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이죠. 하지만 짧은 인사든, 힘이 없는 인사든 안녕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안녕 한 단어에 여러 감정표현을 할 수 있다니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2023/05/23
 tuesday, pm 10:27 | 13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12일차 #안녕

“안녕”은 평안(안)과 평안(녕)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평안을 두 번이나 묻는군요!
 두 번 반복되는 걸 보니 스스로의 안녕과 타인의 안녕,

두 명 이상에게 평안을 묻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난 평안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이 문득 나요.

사람들에게 안녕이라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낯간지러운 일이 되었을 줄은 몰랐네요.

만나서 안녕이라는 말 대신 하이(Hi), 헤어질 때 안녕이라는 말 대신 바이(Bye)를 쓰는 거 보면 말이죠.
 그렇게 깊게 생각할 일도 아닌데 안녕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웠나요?

내일부터는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이라는 말을 써야겠어요.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여기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빈적 없고 보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안녕을 바랍니다.

꼭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 11 ...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영님의 글을 읽으면서 인영님의 안녕이라는 그 한 마디에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안녕이라는 짧은 단어가 가진 힘이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인영님께 평안함의 안녕을 받았으니 저도 보답해주는 게 맞겠죠?? 저도 인영님의 평안을 기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안녕을 건네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인영님도 오늘 하루 안녕하셨길 바랍니다 잘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기분 좋아지는 글이네요 ㅎㅎ
잘보고 가용

주재형(정각학과) 안녕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평안함을 묻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안녕은 평안함이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서
서로에게 평안함을 두 배로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자주 안녕하다 보면 이제는
자연스레 나오게 되는 말이 될 겁니다 인영님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내일도 안녕하시길 바래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글쓴이님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안녕의 한자어 뜻을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두 번씩이나 평안을 묻는 만큼
편안하게 무사히 보내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 어쩌다가 지나가다
볼 수도...?있지 않을까 싶지만요!! 인영님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2023/05/23

tuesday, pm 10:37 | 14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12일차 #안녕 #ISFJ

사람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하는 말 ‘안녕’
사람과 헤어질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안녕’

나의 엠비티아이는 ISFJ이다. 사람들과 만날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재미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I인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 하지만 기숙사로 돌아올 때는 꼭 익은
시금치 처럼 돌아온다.

아침의 “안녕~!”과 저녁의 “안녕~”은 텐션이
굉장히 다르다. 하지만 난 텐션이 왔다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유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남들 앞에선 항상 기분좋은
척, 밝은 척 하지만 뒤에서는 많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분의 오락가락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침이 되어 친구들을 만나면
또다시 “안녕~~!!!”하게 된다.

그렇다. 난 애초에 남에게 내 기분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 때문에 항상 밝은 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활도 나쁘진 않은것 같다.
다만, 나 혼자 힘들 뿐_



9



10

서원준 (중국학과) 즐겁게 잘 읽고 갑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서원준 (중국학과)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꼭 익은 시금치라는 표현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이유림(경영학과)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동금님을 위한 댓글을 한 번
작성해보려고 해요. 제 경험상 밝은 척은 결국 제
자신을 망가뜨리는 길이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도
밝은 가면을 쓴 채 남들에게 제 미소를 보여주곤
했는데 집에 와서 거울로 제 모습을 바라보면 제
자신에게는 늘 무표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
자신을 보여주기보다 애써 밝으려고 하다보니
본래부터 있던 늘 웃는 저의 마음을 갇아먹게
되더라구요. 그러니 애써 밝은 척을 하는 것보다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그냥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울고 하듯이 동금님 스스로의 표현에 믿고
맡겨봐요.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님을 알게됨으로써 동금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실거예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ㅎㅎ 동금의 자연스러운 웃음을 보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와
저 정말 감동 받았어요... 방금 일정 마무리하고 또
힘든 상태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하영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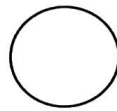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우오 저도 ISFJ인데...!
반갑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할 때는
반갑게 텐션 올리고 혼자있을 땐 침묵인게 너무
공감가네요... 밖에선 종종 내가 사회생활을 위한
연기를 하고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더
지치곤 하죠ㅠㅠ 남에겐 속을 잘 표현하지 못해도
일기같은 걸 써보며 나의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안녕이라는 인사말에도 아침과
저녁의 텐션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텐션이 왔다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금님은 항상 밝고
기분 좋게 행동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금님을 응원해요!

김한나(경영학과) 저는 기분이 좋으면 ESFJ 조금
다운이면 ISFJ가 나오더라고요:) 아침과 저녁의
텐션이 다르게 공감이 가네요 저는 기분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반응이 없는 걸로 많이들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음을 유지하시는
동금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사실 내향성이라 많이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정말정말 부럽고, "왜 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못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부러운 감정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제가 불편하고 긴장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사람을 만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항상 밝게 하려면,
정말 긴장+불편함이 일상과 함께 있을 것 같아
많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동금님의 밝게 하려는 모습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되지만,(사실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 부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편하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만
어색해하지만, 익숙해지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023/05/23

tuesday, pm 11:59 | 17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12일차

사람간의 만남에서 보통 안녕이라는
인사말로 관계가 시작된다. 서로간의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과 함께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뜻인 것도
같다. 안녕이라는 인사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안녕을 통해 서로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긴장감이
낮아지며 상대에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오래된 친구와도 안녕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만큼 이 인사는 관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다.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보면 수많은 손님들과
마주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 순간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순간들이
계속된다.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안녕하세요이지만 수많은 관계를 마주하는
사람에게 인사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 수업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수많은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수업을 매개로 만나게 된 관계지만 그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것
과 같다고도 생각하다. 수업을 듣다보면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강의해야하는
교수님을 보며 내가 알바할 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겠구나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처럼 교수님도 그랬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안녕을 먼저 건네는 행동을
하다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에
반응이 돌아오면 흐뭇해진다. 우리모두
가벼운 안녕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 12 💬 6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알바할때 인사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속으로 괜히 공해집니다..ㅠ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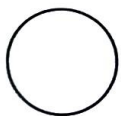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인사를 참 받고
하는 게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민재님은
오늘 안녕하셨나요??!!

서원준 (중국학과) 공감하네요 .. 잘 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맞아요 ㅏ 저도 주말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는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 있으니까
다운되기도 하지만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방 텐션이 올라간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아니까 학교에서도 수업 시작과 끝에 꼭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을 더욱 많이 주고 받는
일상을 보내야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소통과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죠.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도 하지만
마지막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24

wednesday, am 12:13 | 23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2일차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흔히 어떤사람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장 먼저 똑같은 말을
듣는다. 모두 다 같은 안녕이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느낌은 모두 다르다.
첫번째의 경우 가볍게 마주쳤을때 약간의
미소를 그리며 인사했을 사람이 떠오른다.
두번째의 경우 활발하게 걸어가다가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사람이 생각난다.

세번째의 경우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친구를 만났을때 인사하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각난다. 네번째의 경우
아는 사람이지만 친하지는 않기에
우물쭈물하다가 쭈뼛쭈뼛 인사하는 사람이
생각난다. 다섯번째의 경우 길을 가다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쳐서 수줍게 인사하는
사람이 떠오른다.

여섯번째 경우는 내성적인 사람이 친구를
만났을때 인사하는 경우가 떠오른다. 이처럼
다 같은 인사인데도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한 것 같다. 여러분들은
주로 매일 어떤 인사를 사용하시나요?

😊 13 💬 5

서원준 (중국학과) 안녕 ...? 도 은근 자주
사용하는 거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손흔들고+ "안녕"!을 가장
많이해요!

김한나(경영학과) 두번째를 많이 쓰는거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나 알바하면서 교대 할
때 친구에게 반갑게 안녕! 한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인사말은 상황과 관계, 사이
관계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황에 맞게 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저는 먼저 큰소리로 인사하는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24
wednesday, am 12:15 | 28읽음
김양선

#12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했나요? ‘안녕’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 사회적 자아로서 공적인 자리에서의 인사이기도 하죠. 주고받으면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참 노랫말로도 많이 불리기도 하네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의 안녕과 내 주변의 안녕을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기 바랄게요.

😊 14 💬 0



2023/05/24
wednesday, am 8:00 | 33읽음
김양선

#13일차 키워드 : 삽질(하다)
‘헛된 일을 하다’를 일컫는 속어. 속어이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목표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허탈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삽질’의 경험은 다음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삽질을 해보았는지요?

😊 11 💬 0



2023/05/24
wednesday, am 9:16 | 21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13일차 #삽질 #군대 #맨땅에헤딩 #헛되다
오늘의 해시태그는 삽질 인데요!
삽질이라는 단어의 뜻은 별 성과가 없이 삽으로 땅만 힘들게 파다는 데서 나온 말로,

헛된 일을 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고 하네요!

또한 삽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는 일
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죠!

삽질 하니 첫번째로 생각나는게 군대가
떠오르네요...

진지 구축을 위해 삽으로 모래와 흙을 퍼다
나르게... 생각만 해도 돌아가기 싫네요..무튼
군대에서 제일 많이 삽질을 해 본거 같고!
집에 100평의 땅이 있어서 부모님 둘이 주말
농장 비슷하게 밭을 일구시는데 저 또한
따라가서 삽질을 하곤 했습니다...비료를
뿌리고 그 비료를 골고루 퍼지게 하여 삽질을
하고... 거진 20살 이후로 삽질을 많이 한거
같네요!

그리고 별 성과 없이 헛된 일을 한적도 여러번
있는데요! 어떤 상금을 노리고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그 상금을 받기위해서 학업들을
제치고 거기에만 집중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달성되지 못하면 엄청난 망연자실을 느끼게
되는거 같아요. 달성되지 않아도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뭔가 이 프로젝트만 아니었다면 내가 학업을
더 집중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후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삽질이라는 단어,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거 같아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화시대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무언갈
일구기 위해 맨땅에 헤딩이라는 문장을 많이
썼죠.

맨땅에 헤딩이라는 행동들을 하신 위대한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거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수요일 입니다. 이제 이 라이팅
챌린지 프로젝트도 이틀이 남았네요!
여러분들은 글쓰는 능력이 조금 향상 된거
같나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의
어휘력과 글쓰는 능력이 조금이나마 향상이
된거 같아서 오늘 아침 기분이 좋네요!

또한 이제 주말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 하루는 삽질 안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14 💬 8

김시현(러시아학과) 맞아요... 다른 일들 다 제치고 한가지일에 몰두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허탈하고 씁쓸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얻는게 뭐라도 있었겠지 싶어 작은 위안이라도 얻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님도 오늘 좋은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농장을 가꾸는 것도 쉽지 않은거 같네요

프로젝트들이 성과가 없었어도 거기에 들어간 지범님의 노력과 시간이 다른 곳에서 빛낼 수 있는 경험들이 쌓인 거라고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학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중요한거 같아요! 라이팅 챌린지도 이제 2번 밖에 안 남았지만 다양한 학우분들과 여러 글들을 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거 같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범님의 글을 읽다보니 모든 것이 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재와는 달리 직접 발로 뛰면서 종이로 정보를 찾아보는 그 과거엔 어떻게 살았나 싶네요. 지금은 잘못된 정보를 찾아도 다시 찾으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데 글만 쓰는데도 막막한 심정이네요 ㅎㅎ 덕분에 현재 기술의 발전에 감사함을 느낀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삽질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는 군대였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ㅎㅎ.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굴레에서 배움과 교훈을 얻으시는 챌린저분들에게 응원을 남기고 싶어지는 글이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당장은 후회로 가득하지만 가끔 지난 그 일이 있어서 경험치가 쌓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후회만으로 남지는 않길 바랍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저와 같네요 ㅎㅎ 잘 보고 가용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지범님도,, 발 꾸리셨군요!!

진짜 정말 힘들죠ㅠㅠ

심지범 (경영학과)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말도 못합니다~ ㅎㅎ



2023/05/24

wednesday, am 9:31 | 25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13일차 #삽질(하다)

대학생이 되고나서 첫 자격증을 어떤 것을 따볼까 고민하던 중, 교양 강의에 디지털리터러시 수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의를 듣고 공인시험까지 봐볼 수 있다니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엑세스, ppt, 엑셀, 워드 총 4가지의 과목이 있었지만 이 중 엑셀과 워드를 알려주는 강의를 신청해 수강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많이였어서 처음엔 강의를 안 밀리게 듣고 여러 번 나 혼자 복습하다 보면 쉽게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중간고사 까지는 엑셀. 처음엔 순조로웠지만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니 슬슬 이해가 안가기 시작했다. 수학을 못했던 나는 점점 흥미를 잃었다. 잘 외워지지도 않아 우울해졌다.

강의영상과 교재에 있는 설명만으로는 나에게 부족하다 싶어 유튜브에 있는 다른 강의 영상도 찾아봤다. 시간이 흘러 결국 시험당일이 다가왔다. 난 재시험까지 합쳐 총 3번을 봤지만 결국엔 다 낮은 점수로 불합격이 났다. 합격한 다른 학생들이 부럽기도 했고 나에게 자책을 많이 했던 학기였다.

중간이 끝나고 시작해 기말에 봤던 워드 수업도 비슷했다. 그나마 엑셀보다는 쉬워 점수가 높긴 했지만 역시나 불합격이었다. 이정도면 컴퓨터지식은 나와 인연이 아닌걸까 싶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종강을 하자, 뒤늦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교수님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기. 물어보지도 않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왜 내가 이런 오류를 범했지? 교수님에게 물어봤으면 몇십 번을 질문해도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영상은 결국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 몇번이고 떨어졌지만 나름 얻은 교훈이 있어 위안이 된다.

이 시험 이후로 난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사실 좀 두렵다.
또 불합격일까 두렵기도 하지만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드는 응시료에도 손이 더 떨리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다시 시도할 것이다.
다음엔 더 제대로 준비해서 꼭 붙고 싶다.
삼질하지 않고!

챌린저 여러분들의 삼질은 부디
성공적이시길 바랍니다:)

😊 13 💬 7

심지범 (경영학과) 저도 자격증 시험 떨어진적이 있는데요! 더욱 열심히 하여 합격해야겠습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엑셀 함수부분이 가장 어렵조 익숙하지 않고 자주 보는 것들이 아니어서 더 생소하게 느껴지는거 같아요! 삼질을 한다고 해서 그 노력과 시간이 없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분명 차곡 차곡 지식이 쌓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격증 시험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합격 합시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실패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도전을 꺼려했죠. 더군다나 내가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도전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현님의 글 속에서 느껴지는 그 끈기가 저의 생각을 바꿨네요. 삼질을 하는 것 속에서도 뭔가 배우는 점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또 도전했을 땐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요 ㅎㅎ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해요!! 시현님도

더 이상 삼질은 안 하시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자격증 시험은 응시료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제 룸메이트도 시현님과 같은 과목을 수강했었어요.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학점까지 취득하는 과목이라 정말 좋은 과목인지는 알았지만 역시 수업은 수업이라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좌절에 쓰러지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삼질 함께 응원하며 포기하지 말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이미 한번은 해봤으니 다른 것을 할 때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3/05/24

wednesday, am 10:34 | 19원을
김유진

#13일차

나는 항상 스스로 부딪혀보고 이 일이 맞고 틀린 지를 판단하는 성격이다.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는’ 그런 아이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 말에 순종하고 하지말라는 거 안하고 하라는 거 하는 착한 아이였다.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보니 내가 직접 판단하지 않으면 직접 움직이고 생각해서 얻는 교훈, 깨달음이 없겠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 뒤로는 ‘인생 한 번뿐인데 잡히는거 다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살게 되었고 후회는 하지 않는다. 흔히 어른들 혹은 ‘꼰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어른들 말을 듣지를 않아.’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이 세상의 청년, 청소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충고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삽질하는 것은
건강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과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충고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니까.

😊 14 💬 8

김시현(러시아학과) 뭐든 부딪혀보고

실패해보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니... 크게
공감이 갑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자기 자신이 판단하에 깨달음을
얻는 법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확실한 경험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유진님 말처럼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요 마인드가
멋지네요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진님의 글을 읽으며
삽질이란 단어를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긍정의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자신을 위한 삽질은 건강한 시도라는 게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삽질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니 도전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삽질도 성공의 한
과정으로서 멋진 결과를 드러낼 수 있다고
느꼈네요. 덕분에 좋은 배움 얻어가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아무리 조언을 받는다고
한들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님의 건강한 시도를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실패에 덜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중국학과) 건강한 시도 저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직접 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일이 더 많은데(특히 블로그 같은 것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유진님 처럼 도전 해봐야 하나봅니다



2023/05/24

wednesday, am 11:13 | 17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3일차

공학 과목들을 수강하다 보면 한 문제에
굉장한 시간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빈번하다.
풀이가 종이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의
올바른 풀이를 찾기 위해선 수없이 시도하고
검토해야 한다. 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도 답을 구하지 못하면 삽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느낀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이 당장은 다급함을 부른다고 한들
후일에는 더욱 기억에 남는다. 시련과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삽질을
하면 자신이 흠만 퍼낼지 황금까지
찾아낼지는 각자의 몫이라.

😊 13 💬 7

김시현(러시아학과) 시련과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삽질을 하며 살고있지 않나 싶어요
잘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일상처럼 푸근하네요 !! 잘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문제를 풀기위해 끝까지
노력해보는 끈기도 중요하거 같아요! 설령 그게
삽질이라는 결과를 안겨줘도 다른 곳에서 쓰일
날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충민님의 마지막 글이 정말 인상 깊네요. 삽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부정적인 느낌도 들어서 삽질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저 휴만 퍼낼지 아님 그 속에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지는 제 선택에 달렸다는 충민님의 충고에 제 생각이 많이 달라진 시간이었어요! 그 충고 덕에 제 삶에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제 관심사와 전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 대단하게 느껴져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삽질이란 과정은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과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삽질을 한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공학과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으셨을지 상상이 안가네여



2023/05/24
wednesday, pm 12:12 | 21읽음
주재형(청각학과)

#13일차 #삽질(하다)

삽질했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일에 몰두하였으나 그 결과가 허투로 돌아가는 말을 말하죠. 다른 말로는 헛된 일, 실수이기도 할 거예요. 실수를 저지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테죠. 성경에서부터 나오기를, 아담과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실수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이를 계기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했다고 나와요. 이후로도 인류 역사상 중요한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유혹에 의한

감정적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삽질이란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람을 떠올려볼까요? 한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을까요? 직접적이지 않은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접적인 실수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져야할 마음가짐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삽질을 한 경험이 있어요.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범위를 공부해서 알아차렸을 때 나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묘목을 심는데 이 장소가 아니라 저 장소에 심었어야 했던 경우도 있구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공부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한 경우처럼 역시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무언가가 있어야 성장하나 봅니다.

라이팅 프로젝트에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 챌린저 분들 모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귀한 경험으로 느끼시길 바라요. 헛된 경험을 멋진 교훈으로 승화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15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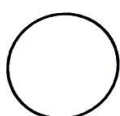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글쓴이님에게도 이번 활동이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길 바라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경험을 교훈으로! 글 잘 읽었습니다 :)
김한나(경영학과)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 좋은 글이네요 저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하는 입장에 가까워서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저를 탓한 적이

대부분인거 같아요 글을 읽고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크고 작은 실수들이 모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거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재형님의 글 중 실수를 통해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이 많이 돼요. 사람들은 흔히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고의다라는 말처럼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실수도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늘 고쳐나가요. 재형님 덕분에 실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멋진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건 헛된 경험이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헛된 경험이나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뭐든 해보고 나면,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더 잘 할 수 있는 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2023/05/24

wednesday, pm 12:54 | 24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3일차 #삽질(하다)

우리는 오늘도 땅을 판다. 사방에 흙과 숙소말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뜨거운 태양 빛을 받으며 파고 또 판다. 지름 3m정도 되는 원형모양에 깊이는 3m정도의 땅만 파면 오늘의 일과는 끝이다. 짧은 휴식시간에 마시는 게 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온 몸은 젖어있다. 힘든 건 고사하고 그저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삽을 든다. 우린 언제쯤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

이곳의 별명은 빛나는 황야이다. 말 그대로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흙만 있는 곳이다. 근데 왜 빛나냐고? 글썄... 나도 잘은 모르지만 보안관들에게서 가끔 들리는 말로는 여기 땅 주인이 보물을 찾고 있거나 뭐라나... 아주 오래 전 여긴 바다였는데 그 때 한 해적선이 침몰되어 여기에 보물을 흘리고 갔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은 여기 땅 밑에 보물이 묻혀있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그 사실이 맞다면 우린 보물을 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건 많이 오래된 것 같다. 사실 여기선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보기에 날짜나 시간의 개념이 없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더라?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딱 두가지는 기억한다. 첫째, 며칠을 굶었던 배를 움켜잡고 빵을 훔쳐먹다 걸린 것. 둘째, 큰 버스를 타고 온 것. 딱 이 두가지만 기억난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왔다. 이곳에 처음 온 날 별다른 설명없이 삽을 받고 정확한 규격의 땅을 파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 덕분에 빛나는 황야는 점점 구멍의 황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고급진 검은색의 차량이 이곳을 왔다. 낯선 이의 방문에 우린 모두 삽을 내려놓고 쳐다보았다.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옷을 갖춰입은 한 남성이 내린다. 그러자 보안관들이 급하게 뛰어가더니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한다. 우린 그 사람이 땅 주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나 며칠 머물다 갈거야. 숙소나 준비해.” 그 말 한 마디에 보안관들이 지금껏 보지못한 큰 숙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랜만에 보는 물건들이 하나 둘 들어가기 시작했다. 쇼파, 냉장고, 티비 등등... 멍 때리며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알아챈 보안관이 째려본다. 우린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삽을 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까 잠잠하던 주인이 갑자기 숙소를 나와 화를 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 4년이라고, 4년!”
 찢찢매는 보안관들을 보며 우린 코웃음을 친다. 그때 주인의 숙소 문 틈으로 한 빛이 보인다. 티비다. 흘린듯이 쳐다보는 날 보며 옆에서 땅을 파던 애가 나한테 다가온다.
 “야, 저거 티비지? 와...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게.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럼 우리 일과 끝나면 틈으로 몰래 볼래?”
 그 말에 난 조금 당황했다. 그래도 되나? 하지만 일상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날 밤, 난 두 명만 가는 줄 알았는데 땅을 파는 모든 애들이 티비를 보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들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주인의 숙소로 간다. 옆드린 체 약간 벌어진 틈 사이로 우린 티비를 보기 시작했다. 티비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범죄부터 전쟁 얘기까지... 지루한 것의 연속이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잡는 내용이 나왔다. 바로 빛나는 황야, 우리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곳에 대한 내용이었다. 거의 졸 듯이 보고 있던 주인도 그 내용에 눈을 번쩍 떴다. 그 뉴스가 끝난 후 우린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곤 서로를 쳐다보면서 씨익 웃었다.

다음 날 주인은 보안관들에게 화를 내며 소리치고 있었다. 계속 굶신거리던 보안관들은 주인의 한 마디에 숙소와 주변을 정리했다. 우린 어떻게 되는거지 하던 찰나에 처음에 타고 왔던 버스가 보였다. 우리 모두 그 버스에 몸을 실었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창 밖을 보며 이게 진짜가 싶은 생각에 볼을 꼬집었다. 아팠다. 진짜구나... 마른 흙에서 풀들로 변해가는 풍경을 보며 어제의 뉴스를 떠올린다.

‘소식입니다. 마른 땅에 해적선의 보물이 묻혀있다하여 일명 빛나는 황야로 불리던 곳이 알고보니 과거에 바다가 아닌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물이 없다는 소식에 많은 탐험가들이 나선 결과 알고보니 한 자선단체 앞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자선단체 사장은 모든 보물을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빛나는 황야는 빛이 아닌 그저 흙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발견한 것을 보니 보물도 진정한 빛을 따라가나봅니다. 그럼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삽질하다를 생각하며 써 본 소설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8 💬 10

심지범 (경영학과) 와우 엄청나게 긴 소설을 쓰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정말 잘하시는데요? 잘보류가요!

김시현(러시아학과)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멋진 소설 감사합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마지막 문단이 중요한 교훈을 주네요. 흥미로운 소설 감사합니다
 항상 글을 정성 들여서 쓰시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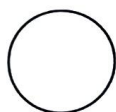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렇게나 긴 소설이라니!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보물을 쫓는 한 남성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랫동안 땅을 파게 했지만 알고보니 거기에 보물이 없고, 다른 곳에서 발견되면서 자선단체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이 정말 알찬 소설이네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결국 보물만을 쫓던 남자가 삽질을 하게 되고 삽질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겐 새로운 삶이 생겼네요!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새롭게 와닿는 소설 같습니다 소재가 신선해요 흥미롭게 읽고 가요!

이유림(경영학과) 좋은 곳에 쓰여 진정한 보물이 되었네요 멋진 소설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갖고 일을 계속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인 소설이에요 뉴스 소식을 통해 이전에 땅을 파고 있던 곳이 실제로는 보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부분은 읽는 사람들로 해서 의도치 않은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소설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요렇게나 긴 글이라니,, 쓰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2023/05/24

wednesday, pm 1:04 | 19읽음

김노연(사회학과)

#13일차 #삽질(하다)

비관적인 말이지만, 내가 인생에서 노력한 일들은 대부분 삽질로 보여질 것이다.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너무 과했던지라 부담감을 느낀 친구가 나에게서 서서히 멀어진 일, 또는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매일 한강을 5km씩 뛰었지만 다시 우울감에 잠식된 일과 같이 나름대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무언가를 했지만 결과는 그닥 좋지 않거나 제자리였다. 그래, 이것은 삽질로 보여질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 핵심은 과정에 있다.

나는 삽질을 삽질로 보지 않는다. 삽질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삽질을 한 당시에는 맞을지 몰라도, 지나고 난 뒤에는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나는 삽질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인생에 실패는 없고 오로지 경험만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다. 설령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어쩌면 삽질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에게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그만큼 나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내가 성장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라고. 또 그만큼 인생에서 얻어가는 게 많은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결과가 나쁘면 일단 기분이 나빠지고 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 하지만 천천히 변화해나갈 것이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 노력만큼은 삽질이 아닐 것이라는 거다. 조금이라도 변화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니까.



16



8

서원준 (중국학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화이팅!

김한나(경영학과) 결과가 좋지 않아 남들이 삽질이라고 생각해도 자신만을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한것들이라 헛되지 않았을거라 생각해요:) 노연님 말처럼 실패가 있더라도 교훈 감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변화하려는 모습이 멋져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삽질했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하고 변화했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삽질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노연님 글처럼 인생의 실패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 좌절을 배우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남으로써 성공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니까요. 그래서 실패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오히려 축하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실패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노연님도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교훈으로 인식하고 성공의 맛을 보시길 바라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한 번 도전해봤기 때문에 다음은 더 쉬울 수도 있답니다 삽질이 아닌 지반 다지기를 했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도 앞 부분 못지 않게

중요하구요. 조금해하지 않고 천천히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조금씩은 성장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어요..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아마 조금은 변하고 있겠죠



2023/05/24

wednesday, pm 2:15 | 18원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13일차 #삼질(하다)

눈을 감자 삼을 든 엄마가 보였다.
엄마가 나를 땅에 묻는 중이었다. 어디까지
묻혔나
아, 어깨찜인가

어렸을 때 공포영화를 보고 난 밤 혼자
잠들기에 무서웠던 날
엄마 옆으로 갔었다. 그러곤 엄마에게
“엄마, 엄마,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엄마가 먼저 죽으면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내 질문에 엄마는 웃으면서 그럴 일 없다면서
얼른 자라며 내 등을 토닥였다.
엄마 말대로 그럴 일은 없었다. 엄마가 나를
묻어 주고 있으므로

공포영화에서 삼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걸 본 적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삼질”로 죽는다니
내가 “삼질”로 인해 죽을 줄 알았다면
”삼질”좀 하고 살걸
인생에서 너무 정답만 찾은 것 같다.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그 사람한테 고백이라도 해볼걸'

'그 면접 봐보기라도 할걸'
'내가 갖고 싶던 거 고민하지 말고 살걸'
'먹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먹을걸'

아, 이게 인생의 주마등인가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삼질이 생각났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대로 죽기엔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
억울함의 감정을 넘어 분통한 생각이 들 때쯤
눈을 떴다. 텅빈 집의 색이 바랜 천장만이
보일 뿐이었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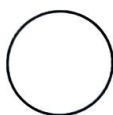


6

서원준 (중국학과) 동화같은 느낌으로 잘 봤어요!
김한나(경영학과)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한
삼질이 담긴 글이네요! 마지막에 다시 눈을
뜸으로서 새롭게 많은 것을 시도할 거 같은
결말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엄마가 자식을 묻기 시작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진님의 글은 뭐가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네요. 무언가에
대한 망설임은 결국 후회로 남고 그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들요. 저도 망설이면서 해보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이 챌린지를 시작으로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안
했을 경우 후회했을 것 같네요 ㅎㅎ 앞으로도 그런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려구요 ㅎㅎ 좋은 가르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기이하고 이상한 그리고 묘한
소설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어머니의 행동의 의도가 쉽사리
잡히지 않지만, 공포영화와 연결을 지은 내용을
보니 뭔가 섬뜩하면서도 무서운 내용을 상상하게
만드는 소설이네요.. 좋은 소설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뭔가 넘나 섬뜩한데요..
나를 묻는다니... 무서운 소설의 한장면 같아여



2023/05/24

wednesday, pm 2:49 | 21원음
신유정 (심리학과)

#13일차 #라이팅챌린지

'샵질하다' 내가 하는 행동 중 반은 샅질하는 것인 것 같다. 아니 실제로 그렇다. "왜 사서 고생하냐". 아니면 "굳이 왜 그렇게 해?" 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도, 내 자신한테서도 자주 듣는다.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모르고 열심히 샅질할 때도 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인지 항상 피곤하고 조금은 우울해있다. 한참을 생각해보다가 '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했을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내가 멍청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하고 털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다음 단계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살면서 '샵질' 안하고 그냥 수월하게 항상 좋은 방법만 하고 살고 싶기도 한다. 확실해 보이는 것, 조금 더 쉬운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항상 나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지나간 것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계속 시도하거나 그만둔 것에 미련을 갖는다. '샵질' 을 통해 내가 얻은 끈기가 잘못된 것을 참는 미련함이 아닌 힘든 세상 곳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는 마음의 근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15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유정님처럼 가끔은 샅질 안하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욕심이고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구요. 마음 속으로는 성공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결국 변화가 없다는 것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샅질은 인생에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샅질을 통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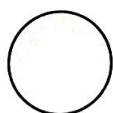
김한나(경영학과)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서 고생도 해보고 굳이 그렇게도 해보고 다 해봐야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 봤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거지만 해봤으니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요 ㅎㅎ 샅질들이 정말 허탈하게만 끝나지 않고 마음의 근육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유림(경영학과)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라니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힘든일이 있을 때 생각하면 피식 웃게 될 것 같은 문장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당 !!

주재형(청각학과) 삶에서의 노력과 실패는 때로는 샅질로 비취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성장은 사람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노력과 시도가 헛수고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죠.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면서도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그 끈기가 정말 가치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05/24

wednesday, pm 5:17 | 20원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13일차 #샵질(하다)

샵질하다가 왜 부정적인 단어인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 깨달았다.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순간
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그게 자신에게 유의미할지 모르겠지만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공감도
못하고
인지도 못한다. 그냥 막연히 상상할 뿐이다.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
완전 동일시하긴 어렵다.

감정만 그럴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태어난 이후
부딪혀서 안다.
못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해봐야 안다.
우리는 어떨 때 좋아하는지, 행복한지
경험해봐야 안다.

인생은 짧아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고
그 경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삽질이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라
생각한다.
부딪히고 깨지고 아물고 해봐야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다.

지식으로 깨지든, 환경 또는 경험적으로
깨지든
삽질도 해봐야 나중에 안다.
삽질했구나

당시에 알았다면 더 현명한 선택을 했겠지만
해보지 않고선 삽질인지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답답했고 참 인간이란 존재가
안타깝게 느꼈지만
(왜냐하면 독버섯도 누군가 먹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지. 태어날
때부터 독버섯을 알아가지고 안 먹는게
아니다. 즉, 우리는 여태까지 현생한 인류의
희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인류에겐 하나의 데이터일 것이라
생각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느꼈기에
받아들이고 수긍한다.

난 오늘도 삽질을 한 것일 수 있고
또 삽질을 하다보면 깨닫는 것도 있으리라
믿는다.

혹시 아나 내가 여태까지 삽질해서 나중에
기름이 나올지 물이 나올지
책과 콩나무처럼 거대한 콩나물이 자랄지
내 미래를 위해 삽질 또는 움직인다.

😊 14 💬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랜만에 듣는 책과
콩나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상민님 글처럼
삽질하다라는 건 부정보단 긍정에 더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삽질한 이후 나타난 실패라는
결과를 보고 안 좋은 단어라고 인식하지만 그
과정에만 초점을 두면 과정 속에서 일어난 배움을
얻을 수 있죠. 즉, 삽질은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도 같은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민재 (경제학과) 깊은 사고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게 하는 주제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당!
김노연(사회학과) 생각이 많아지네요... 인생은
유한하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 그 경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한 번 사는
이 인생, 해보고 싶은 것은 되도록 전부 경험해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삽질은 우리의 한계와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삽질이라는 행동을 통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시행착오라는 삽질의 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책과 콩나물의 이야기처럼 자랄 콩나물의 크기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상민님의 이야기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랄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경험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끊임없이 부딪혀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뭔가 조금 해본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알고보면 사람이 커가는데 바탕이 되어주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 어딘가 갔던 기억은 안나지만, 그게 지금의 나의 좋아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 처럼 말이에요



2023/05/24

wednesday, pm 6:54 | 17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13일차 #삽질(하다)

헛수고 했던 일.

나는 직접 겪어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괜한 걱정을 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항상 나의 엄마께서는 헛수고라고 해도 도전해 보라고 말을 하신다. 시작도 안 해보고 헛수고인지 아닌지 너가 어떻게 아냐며 다그치신다. 나도 노력하고 싶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다. 한 번 걱정을 하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혼자 큰 걱정을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을 끝내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 크게 달라졌다. 대학교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나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것 같다. 굉장히 쿨하고 도전적인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 나또한 어떤 일에 도전하고, 참여하는것이 점차 두렵지가

않았다. 현재는 그 친구들처럼 뭐든지 부딪혀 보고, 도전해 보는 타입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그누구보다도 대학생활을 재밌고 알차게 보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 11 💬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대학생활에 대한 동금님의 자부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밌게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알차게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시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동금님의 성실함이 글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동금님의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ㅎㅎ 좋은 배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ㅎㅎ



서원준 (중국학과) 응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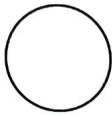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대학 생활에서 재미와 알찬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동금님의 변화가 글에서 느껴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이라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하지만 도전하기 전까지 했던 고민이 무색하게 시작하면 별거 아닌것들이 많더라구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뭐든 부딪혀 보시는 동금님이 대단한것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새로운 환경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았다니 너무 좋네요!

헛수고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이 더 편한거 같아요



2023/05/24

wednesday, pm 7:02 | 21원을
최현영(법학과)

#13일차 #삼질(하다)

"삼질하다"

삼질의 기억 중 가장 최악의 기분이 들었던 건
작년 2학기 때였다.

나는 나름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공결 신청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출퇴도 해 본 적 없는 자칭 모범생
아닌 모범생이었다.

멀티가 안 되는 나는 작년 연애, 공부, 동아리
활동, 알바까지 하면서 정신없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한 1주일 전에 과제를
냈던 나는 기한이 1분 남기고서야 겨우겨우
냈고 잠도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해서 병원을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아슬아슬한 시간들이 계속되었다. 당장은
행복한데 미래의 나는 너무 불안한 상태였다.
시험이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연애 초창기라서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전화기를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공부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나니
공부 시간이 너무 따분하기만 했다.
그렇게 겨우겨우 집중을 해서 시험 당일이
되었다.

강의실에 들어갔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게
웬 걸

내가 전혀 공부하지 않은 부분들로만
시험지에 빠곡했다.

집중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학점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밤을 꼴딱 새워서 시험장으로
향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은 범위가
시험지에 있으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볼펜 움직이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때의 삼질이 나에게 가장 최악의
기억으로, 기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실패, 실수한 경험이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새겨놓는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

나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
쫓려고 애쓰다가 결국 다 놓치고 말았다.
그때의 실수로 내가 내린 처방은..
우선순위를 정하자!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것! 그것부터 끝내자!이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오늘도
파이팅!!



11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나를 얻기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건 세상의 이치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를
포기하는 것도 전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수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현영님의 글에
공감이 되네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뒤에 오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더라구요. 현영님의 모든 일이
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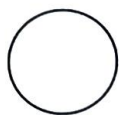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요 !!!

김노연(사회학과) 저도 현영님까지는 아니지만
과제며 프로젝트며 시험이며 인간관계며 정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많아지면
하나하나에 들이는 공이 덜해지죠... 저도 그것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학점을 2학점정도 줄여볼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가요!!

주재형(청각학과) 어떤 형태로든 삼질을 겪고
실패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현영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앞으로의 열정적인 도전을 응원해요!
내일 모레까지 파이팅하며 성장하시길 바라요!

이유림(경영학과) 모든 것을 잘하고 싶지만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영님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화이팅!!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23/05/24

wednesday, pm 7:18 | 17화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차 #삽질

삽질

1.

"선장님, 여깁니다요 여기!"

"얼른요! 지도에 쓰여진 표식이 여긴 것 같습니다!"

부산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니 벌써? 뭘 이렇게 빨리 찾았어! 기쁜 마음과는 다르게 핀잔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무심코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억지로 내리며, 부하들을 향해 빠른 걸음-그닥 멋지진 않지만-으로 다가갔다. 아무리 그래도 선장의 위엄은 지켜야지.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는 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화나는 생각, 화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잘 참아졌다. 지금 나, 꽤 험악해 보이려나.

하지만 좀 대놓고 기뻐해도 어떨까! 우리에게도 이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려는 순간인데.

그동안 고기 하나, 과일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해왔던 싸움들을 돌이켜봤다. 힘이 없어 비겁하게 싸웠던 그 나날들이란. 권모술수와 계략이란 몸이 안되는 놈들이나 하는거다.

우리에게겐 몸이 없었고, 그래서 악당이 됐다. 엄청나게 치졸한 싸움이었던 뜻이다.

2.

퍽, 퍽.

땅을 파는 소리가 마치 교황곡처럼 들렸다. 박자를 맞춘 삽질 소리는 웅장한 북의 울림이었고, 부하들의 볼멘 소리는 지저귀고 같은 플루트의 선율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모든 것을 두고왔다고.

온 세상을 가졌던 그의 모든 것이란... 아마도 그 어떤 금은재화를 합쳐도 이것보다 가치가 있진 않을테다. 미지의 비밀일까? 아니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것도 아니면?

나는 갇은 기대를 가지고, 부하들에게 땅을 파라고 시켰다. 이 섬을 무너뜨릴 기세로 파라!

부하들은 내 말대로, 무너뜨릴 것처럼 팠지만, 실제로 몇번 삽질 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걸렸다.

덜그럭.

"선장님, 바로 이겁니다."

크기를 보아하니, 그의 모든 것이란 아무래도 미지의 비밀인듯 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담기엔 너무 작군. 아쉬웠지만 괜찮았다. 정보란 가치에 따라 애기 머리만한 다이아몬드 같은 값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자를 열었다. 매캐한 흙냄새... 폴폴 날리는 흙을 가볍게 털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건, 남루한. ... 아주 남루한 편지 한 장이었다.



10



5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내용이에요 ㅎㅎ 잘 보고

가용

주재형(청각학과) 해적들의 김치국을 마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웃게 되었네요. 해적들의 모습이 귀여우면서 마지막에서 보여진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져요. 좋은 소설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제가 해적이었다면 너무 허무했을 것 같아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뭔가 해적들의 기대에 부푼 얼굴과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아 재밌게 읽었어요!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구요 ㅎㅎ 책 스펀두같은 성격이었으면 진짜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적으로 된 소설을 읽어서 즐거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잘 읽었습니다 ,, 마지막에 뭔가 허무한 느낌일 것 같아요..



2023/05/24
wednesday, pm 7:45 | 16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13일차 #삽질

삽질하면 군생활 밖에 안떠오른다 매일이 삽질하는 날이었다. 거의 일과의 대부분 일병일 땀 무조건 삽질 먼저였다. 힘들었다. 짜증났다. 내가 왜 이려고 있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가족의 면회와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난 든든하게 삽질을 정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었고 결국 우리 텃밭에서 항상 난 삽질 담당이 되고 말았다. 이거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ㅎ

삽질의 장단점을 얻을 수 있었던 군대 .. 다신 보지 말자 ^^!



9



6

주재형(청각학과) 삽질을 해보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땀별에 하는 삽질이 겨울에 하는 제설작업보다 힘든 건 역시 뜨끈하면서도 찝찝한 환경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심지범(경영학과) ㅋㅋㅋㅋ군대 다시 가기 싫네요...내일 예비군인데..ㅎ 글 잘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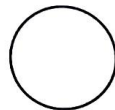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군대 이야기에 삽질은 항상 빠지지 않는것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군대를 가보지 않았기에 삽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원준님의 글만 읽어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와요. 읽기만 해도 정말 싫어지네요... 그런 군생활을 버틴 원준님과 그리고 모든 남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군대는 추억보단 그냥 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 되어 훌훌 날아가버렸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군대에서의 삽질 경험이 유용하게 쓰이셨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군대와 빠지지 않는 연관된 단어같아요



2023/05/24
wednesday, pm 7:52 | 17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3일차 #삽질

타임캡슐은 삽질이다. 어린 시절 추억과 낭만을 깨부수는 말일지도 모른다. 타임캡슐은 왜 삽질일까. 과거로 돌아가 보자.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선생님이 땅을 판다. 소중한 무언가를 짊어 졌다고 함께 캡슐에 담는다. 먼 훗날 다시 열어 볼 생각을 하면서 설레한다. 다음날, 친구에게 “너는 뭐 넣었어?”라며 호기심을 담아 묻는다. 일주일 후, 타임캡슐을 여는 날을 상상하며 까마득히

남은 미래를 내다본다. 한 달 뒤.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타임캡슐을 묻었던
때만큼의 설렘은 없다. 일 년 뒤. 타임캡슐을
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10년.
타임캡슐을 열어볼 시간이 됐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 봐도 타임캡슐에 무엇을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당시만 해도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인데 어렴풋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사실 타임캡슐에 무엇을
넣었는지 떠올리기 전에 타임캡슐을 열어볼
시간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 글을 읽는 대다수는 이미 타임캡슐을
열어봐야 했다. 그래서 열어보았는가?
열어보았다면 무엇이 담겨있었는가.
열어보지 않았다면 왜 열어보지 않았나.
삼질해서 소중한 것을 묻었지만 결국 그
행위는 진짜 삼질이 되었다.

😊 10 💬 8

서원준 (중국학과) 여운이 깊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당!

박진옥(사회학과) 타임캡슐 어렸을 때 묻었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삼질일 수 있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되게 어렸을 때 타임캡슐을
묻었던 기억이 이 글을 보고서야 다시 생각났네요.
아마 그 타임캡슐이... 202X년에 열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날짜가 잘 기억이 안나서 애석하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타임캡슐이 과거의 추억과
소중한 순간을 보존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삼질의 의미를 진짜 땅을 파서
타임캡슐을 묻는 행위를 연상하도록 해석하셨네요.
우리의 기억과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어떤 경고의 형태로
표현해주셨구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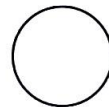
최현영(법학과) 저도 생각해 보면 설렘과 희망을
가득 담아 캡슐을 묻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기에 그저 삼질한 것에
불과했을지라도 후회는 없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묻기는 했는데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저는 글과는 반대로 그때
즐거웠으니 삼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타임캡슐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듣기만
했을 뿐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빈님의
글을 읽다보니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겨서
친구들하고 한 번쯤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ㅎㅎ
아마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옛날에 타임캡슐을 묻은
적은 많은데 실제로 꺼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2023/05/24

wednesday, pm 8:09 | 16읽음
박진옥(사회학과)

#13일차 #삼질(하다)

삼질, 헛된 일을 하다.

왜 이 헛된일을 꾸을 수 없이 계속 하게될까?

경제학 용어 중에 '매몰비용 효과'라고 있다.
어떤 것에 투자한 돈, 시간, 노력 등의 비용
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매몰비용'이다.

인간은 어떤 것에 한번 매몰비용이 생기면, 그
'어떤 것'에
문제가 있더라도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도박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큼에도 계속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노력, 감정 등을 쏟았다면,
매몰비용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수 있다.

매몰비용을 포기하는게 손실만은 아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한 판단한 부분을
인정하고 투자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잊는 것이 최선이다.

앞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손실을 가져올 일이라면, 잘못된 아픈
사랑이라면
과감하게 매몰비용을 포기할 줄 아아야 한다.

대부분은 사랑에 있어서, 내 감정, 시간, 노력,
관계 등 많이 쏟은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아님을 알고도
삽질하는 경우가 많다.

삽질 그만두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과감히 삽질을
그만두고 매몰비용을 포기했을 때, 더 나은
사랑이 될 것이다.

더 나은 사랑을 위해 하는 삽질이길.

😊 10 💬 6

김노연(사회학과) 매몰비용을 포기한다...
지금까지 투자하고 마음을 쓴 게 아까워서 계속
잡고 있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숙고하게되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진옥님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것 같은 글이네요. 우리는 종종

매몰비용이라는 것에 얽매어 헛된 일을 지속하기도
하죠. 더 나은 사랑을 위해 하는 삽질이라는 표현이
의도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 같아 인상적이에요.
진옥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결단력을
응원해요!

서원준 (중국학과) 잘보고 갑니당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때
빠르게 손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투자한
것들이 아깝고 아쉽겠지만 시간은 흐르고 다른
기회가 계속 지나가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삽질은 겉으로 봤을 땐 쉬워
보이는 데 그 속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개미굴처럼 여기저기 길이 나있기도
하구요. 특히 깊게 파야하는 삽질 특성 상 잘못된
길을 판다면 되돌리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저도
좋은 삽질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 끝엔 행복이
있겠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 아마 더 성장하시지
않았을 까 생각을 합니다.



2023/05/24

wednesday, pm 8:11 | 13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3일차 #삽질

밤이 되면 이상하게 과거 일들이 생각난다.
'나 그날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오늘 실수한 일은 없었나, 나 작년에 왜
그랬지?'
이상한 나는, 밤만 되면 이불킥을 한다.

이런 나를 보고 '이미 지난 일인데 왜
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들도 나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도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처럼,
과거를 떠올리며 흥분할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매일 밤 허공에다가 발삼질을 하는 것이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뿐, 이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9



6

주재형(청각학과) 후회를 통해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했었는지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후회라는 삼질을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불킥이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아질지도...

심지범(경영학과) 저도 밤마다 과거 생각들을 잠깐 하곤 하는데요! 그럴때마다 그냥 자는거 같아요! 생각하지 않게! ㅎㅎ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고민이 많은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ㅠㅠ 잘보고 갑니당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밤에 누워 자기전에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삼질이라는 단어에 발을 붙임으류소 발삼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신 지원님의 글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발길질만 생각했을 뿐 발삼질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뭔가 발삼질이 발길질보다 더 느리고 창피한 일처럼 느껴지네요 ㅎㅎ 저도 가끔 발삼질을 하는 데 오늘은 꼭 참아보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두 실수하면 계속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 같아요..



2023/05/24

wednesday, pm 8:26 | 12월음
이유빈(사회학과)

#13일차 #삼질

세상 살면서 아쉬운 삼질은 있다고 해도 후회하는 삼질은 없다. 모두 성공 하기 위해 원하는걸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분야를 판다.

근데 헛된일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한다. 그들은 내가 삼질했다고 해서 잃은 것만 존재하는 줄 알 것이다. 삼질했다쳐도 삼질을 위해서 배웠던 것이 존재하고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삼질을 해서 그 순간에는 후회할지라도 나중에는 미래를 위한 큰 양분이 될 것이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10번, 100번 삼질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얻는 것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9



6

주재형(청각학과) 내가 원하는 분야를 삼으로 판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주위에서 걱정의 의도로 그걸 그만하는 것이 어떨것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삼질을 하는 것이 가치적으로 높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얻는것은 분명이 있기를!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이유림(경영학과) 최근에 유행한 밈이 있죠 우리는 좇대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구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빈님 말처럼 삼질을 결과적으로만 보면 후회가 가득한 실패가 되겠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후회보단 감사함을 생각하고 좋은 배움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삼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실패로 끝나지만 그 실패를 통해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삽질을 두려워하기 보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생각하려고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뭐든 해봐서 나쁠 것
없죠,, 어쨌든 도전하고 성장하는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2023/05/24

wednesday, pm 9:10 | 20월음
강민지 (사회학과)

#13일차 #삽질(하다)

「이런 쟀장 쟀장 쟀장!!!!!!」 유리는 아침
땃바람부터 고함을 내질렀다. 쌍둥이 동생인
유재는 기겁을 하며 말했다. 「왜 저래
진짜」 유리는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니 어제 말이야」

유리의 역사 발표 조는 그가 짝사랑하는
제이와 제이의 친구 희수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되었다. 유리는 기분이 걸잡을 수 없이
좋아졌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자기
자신을 진정시켰다. 물론,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

제이와 희수는 공부에 큰 뜻이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유리는 달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유리가 조장을
도맡았고, 그래도 참여는 하는 아이들을
북돋아 가며 어떻게든 완성을 시키려 했다.
보고서 쓰는 것과 발표가 유리 담당이었고,
ppt와 자료수집은 제이의 일이었기에 유리는
ppt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달라 했다.
유리는 제이가 너무나도 좋았기에 무한정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할 뿐이었다.

발표 하루 전, 방과 후에 제이에게서 메일이

왔다. ppt였다. 유리는 웃음을 머금고 클릭을
했다.

아 그 웃음이 멈춘 건 불과 3초 후였다.
그래, 이상한 보노보노가 들어가 있고
형형색색들이 정신없이 유리의 컴퓨터
화면에서 빠져나왔다. 유리는 고민했다.
제이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다시 ppt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제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제이야, 나 유리야. 다름이 아니라...」

제이는 당황하며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다며 내일 아침까지 보내준다고 했다.
유리는 흔쾌히 알겠다고 통화를 끝냈다.
다음날, 즉 오늘 아침에 확인한 ppt에는
급하게 만들었는지 내용이 군데군데
빠져있었고, 색은 어제보다야 나왔지만
정말이지.....이상했다. 이게 사건의
전말이었다.

「염병 이걸 정말 아니야-----!!!!!! 진짜
이게 삽질이지 뭐냐 안 그래??????」

하....진짜.....」

유재는 ppt를 보고 깔깔거리며 말했다.

「아니 개도 진짜 깐다.」

유리는 가까스로 ppt를 고쳐 성공적으로
발표를 끝냈다.

본인의 ppt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유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얘기하고 있는 제이를 보고 유리는 마음이
짜게 식어버렸고, 본인이 제이를 좋아했던
시간마저 이렇게 정의 내렸다.

「삽질, 쟀장맛을 삽질이었다.」



11



9

조은지(철학) 좋아했던 사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최악이죠. 조별과제의 잔혹함도
옛보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글의 표현에서 인물들의 대사에
출납표를 사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더욱
이야기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 웃긴 글이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보고 가농 !!

이유림(경영학과) 마냥 웃기만 하면서 읽을 수가
없는 웃픈 글입니다ㅠㅎㅎ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면 없던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잘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즈음 과제가
많을 시기라 왠지 모르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개그 소재에 활용되곤 있지만
보노보노와 ppt의 조합은 귀여움과 절묘함을 사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민지님이 표현하신 삽질은
왠지 모르게 귀여운 감정이 드는 삽질이네요 ㅎㅎ
좋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삽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처음 생각해보는 것이라 그런지
귀엽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몰입하면서 읽게 되다 보니 이야기 이후의 유리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 잘 읽고
갑니다!ㅋㅋㅋㅋ 영병,, 넘나 찰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소설 같지만 어째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4

wednesday, pm 9:44 | 17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13일차 #삽질

비록 제가 사랑과 관련된 글을 몇 편
적었지만,
사랑이야말로 삽질이 아닐까요?

남는 건 사진 뿐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
그것조차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진도 따지고 보면... 그것을 버리면
소멸되는 거니까,

사랑했던 기억도 사라지고 그것을
증명해주던 사진도 사라지고...
정말 남는 게 없군요!

헤어지고 감정이 추스려 질 즈음에,
'내가 그 애를 정말 좋아했나?'라는 의문은
'내가 정말 사랑을 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더군요.

결국 '삽질'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가짐 덕분에
누군가와 인연을 시작하고 마음을 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누군가가 내게 진심을 보인다면
삽질한 그 곳에 앞이 피어나길 바랄 뿐이죠.

어쩌면 여태 삽질한 이유는,
앞이 자라 하나의 꽃을 맺기 위함이
아닐까요?



😊 10 💬 7

심지범 (경영학과) 꽃이 이쁘네여!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예쁜 꽃 사진 덕분에 글의 내용이 더욱 기억에 깊게 자리잡았어요. 사랑도 남는 게 없어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마음도 공감해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사랑했다는 확신이 들 누군가를 만나길 응원합니다 꽃사진이 예쁘네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 감동입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쩌면 삼질을 할 줄을 알면서도 내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틔우는 민들레와도 같은 긍정적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네요 응원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영님이 쓰신 앞이 자라 하나의 꽃을 맺기 위해 삼질을 한다라는 글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하나의 꽃을 맺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동안 하나만을 바라보고 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져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랑이나 인연을 만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인영님의 글을 보며 그런 사랑을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꽃 사진이 정말 예쁘네요!



2023/05/24

wednesday, pm 10:19 | 12월음

김용후(법학과)

#13일차

#삼질

삼질, 팡, 도루묵, 물거품, 헛수고.... 모두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성과가 없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들이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하고, 거기에 들었던 노력도 '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연 정말 그런가.

이와 관련하여 "회남자"에 등장하는 塞翁之馬 고사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새옹지마는 문자 그대로는 '변방 늙은이의 말'이다. "변방의 점을 잘 보는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말이 갑자기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노인을 위로하였지만 노인은 무슨 복이 될지 어찌 알겠냐고 했다. 몇 달 뒤 집을 나갔던 그의 말은 오랑캐 땅의 준마를 데리고 돌아 돌아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축하했지만 노인은 무슨 화가 될지 어찌 알겠냐고 했다.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노인의 아들은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혹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냐고 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랑캐가 변방을 침입해 오자 장정들은 무기를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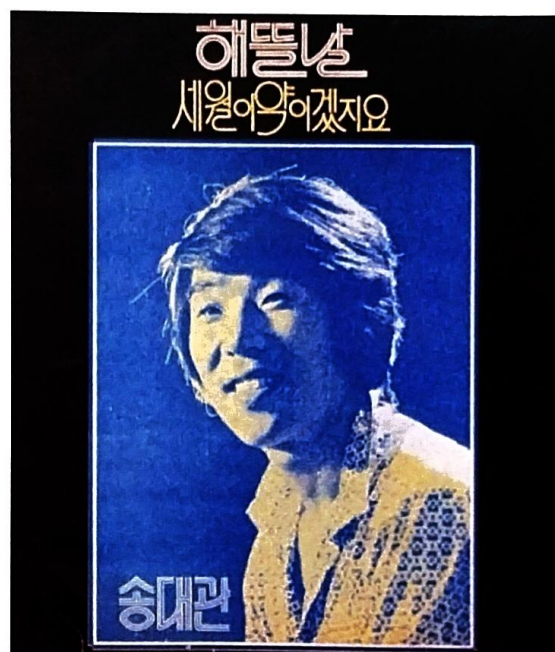
싸움터에 출병해야만 했다. 변방 인근 사람들은 전쟁에서 열에 아홉은 죽었지만,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된 탓에 징집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새옹지마의 고사처럼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행운과 불운을 좇아 일희일비하지만,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다. 당장은 비극이라고 여길지라도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희극이었음을 깨닫기도 한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낙담할 것도 없다는 것이 새옹지마의 교훈이다.

'성공'과 '실패'라는 협소한 이분법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겼던 일에서 하나라도 배워가는 것이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삶의 여정은 실패를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용기'에서 시작됨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P. S. 맑은 때도, 흐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맑은 날이 오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송대관의 <해뜰날>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 7 💬 7

심지범 (경영학과) 마음대로 안되는게 인생이죠!! 새로운 노래 알려주셔서 감사하구요!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 (청각학과) 인생사 새옹지마 앞길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삼질이라는 말도 결국 결과론적인 말이 아닐까 싶네요.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개척하고 운명 또한 같은 류가 아닐까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 (경영학과) 맞아요 삶은 긴 여정인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노래 감격하며 잘 듣겠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항상 성공도 좋지만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용기'가 중요하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 (영어영문학과) 용후님이 쓰신 어려움에도 묵묵히 나아가는 용기라는 글이 저에게 감동을 주네요. 저는 가끔 그저 나아가는 것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용후님의 글을 읽으니 그 나아가는 순간조차도 용기라고 표현해주셔서 현재 저의 걸음에 자신감이 붙었네요 ㅎㅎ 좋은 배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우와.. 진짜 표지만 봐도 무척이나 오래된 노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노래를 아셨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3/05/24
wednesday, pm 11:35 | 12월음
고다인(법학)

#13일차#삽질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삽질하는 순간이야 자주 마주치곤 하는데 후회스럽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돌아보면 별 것도 아니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중학교때 참가했던 가이드북 만들기 대회였다. 대회참가에 전혀 흥미가 없던 나는 친구들 손에 이끌려 억지로 한 팀이 되어 대회 준비를 하게 되었다. 가이드북을 왜 귀찮게 만들어야하나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라 어쩔지 나도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모여 각자 조사해 온 자료들을 공유하며 어떤 사진을 넣을지 등등 모든 내용을 구상했다. 은근히 순위권에 들거라는 기대를 하고있었는데 다른 팀들도 아주 열심히였는지 장려상도 못받고 떨어지고 말았다.

실망이 커서 며칠동안은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 짜증이 나기도했다. 완전히 삽질이었다면서 그냥 대회 준비할 시간에 다른 일이나 할 걸 후회도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도 의미있게 느껴지고 대회를 준비했던 경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꼭 순위권에 들고 보상을 받아야 쏟은 시간과 노력이 의미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일이니 말이다.



9



7

심지범 (경영학과) 경험을 한것도 중요하다! 이 말인것이죠?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인님 글처럼 삽질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과정이죠! 그리고 삽질을 하면서 기울었던 나의 노력도 빛나는 가치니까요. 그 삽질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다음에 삽질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단 자신감을 갖고 시작할 것 같아요 ㅎㅎ 다인님의 글에 공감이 많이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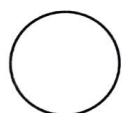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저한테도 많은 경험 중에 삽질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나 대회에 참가할 때는 흥미나 의욕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참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경험과 노력이 별 것도 아니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경험을 사고팔순 없으니 정말 좋죠 잘보고 갑니당 !!

이유림(경영학과) 입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친구들과의 추억이 남았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열심히 준비했는데 순위권에 못 들면 너무 속상하죠 그래도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으로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 다행이네요:) 삽질이라 해도 시간을 써서 노력한게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쓰이는 곳이 생기는거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인님이 만드신 가이드북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지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4

wednesday, pm 11:59 | 13원음
이민재 (경제학과)

#13일차

삽질을 하는 이유는 땅을 파기 위함이다. 땅을 파기 전에는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라는 말이 있는 땅 속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환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태계를 이뤄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무궁무진하며 다채로운 광경을 보여준다. 내가 삽질을 한다는 것은 내 속의 흙으로 덮혀있는 나의 모습들을 세상과 마주하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곳에 나의 어떤 모습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모습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마주한 순간 내가 살아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 속에 삽질하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특징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연예인분들이다. 특히 아이돌들이 그렇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땅이 파여진 모습을 보고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땅을 파고 그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있었다면 그러한 비극은 막지 않았을까 싶다. 최근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많아져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살아오면서 그들의 내면을 파 볼 삽을 뺏겨 버린 이들이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내 내면을 파보는 것 같다. 작가와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겉으로는 작가가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읽는동안 내 속에서는

나를 파보는 느낌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길 바란다.



11



5

서원준 (중국학과) 정은 글 잘보고 갑니다 !!0

심지범 (경영학과) 내면을 한 번 들여다

봐야겠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면 신체적으로도

나타나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민재님의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파보고

이해하며,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민재님의 글에 공감하며, 자기탐구와

마음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민재님의 내면을 판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해지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4

wednesday, pm 11:59 | 16원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차 #삽질

나는 삽질을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무언갈 두고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적인 삶질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내 배웠던 기술, 기능사 자격증들을 써먹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돌아보면 다 삽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써먹지 않을 공부에 시간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 근데 이 삽질을 통해 조금씩 나를 알게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봐야 알 수 있고, 삽질을 좀 멋있게 표현해 보자면 '시행착오'인 것 같다.



10



6

심지범(경영학과) 시행착오! 라는 멋진 말이 있었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시행착오가 하나의 또 다른 기회죠 잘보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삽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시행착오라는 표현이 더 좋네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열심히 배웠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것들, 그런 이유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에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선율님이 말씀해주셨듯 그 과정을 시행착오로 여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마지막 문장 인상 깊네요:) 직접해봐야 알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알 수 있는거 같아요! 열심히 시행착오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삽질의 다른 말은 시행착오!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5

thursday, am 12:13 | 32읽음
김양선

#1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자주 삽질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삽질의 경험을 긍정하고 한걸음 앞으로 디딘는 계기로 삼는 친구들이 많아 다행이네요. 쓸데없는 삽질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인생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지요? 결과만 아니라 과정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 14 💬 0



2023/05/25

thursday, am 7:55 | 32읽음
김양선

#14일차 키워드 : 반짝반짝

‘반짝반짝’하니 뒤이어서 ‘작은 별’이 떠오르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때문이겠지요? 그저께 밤에 초승달 옆에서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 금성을 본 친구는 없는지요?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나 사람, 청소를 한 후 주위가 반짝반짝 빛날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반짝반짝을 쓸 수 있습니다.

😊 15 💬 0



2023/05/25

thursday, am 7:58 | 18읽음
서원준(중국학과)

#14일차 #반짝반짝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학교가는 날이다. 너무 빛나 눈부셔 가긴 싫지만, 그래도 학생이기에 난 참고 학교를 빛나게 다녀보려고 한다. 빛나는 학우들과 더불어 빛나는 교수님, 반짝반짝 새싹 같은 나의 학업 열정과 동기애 덕분에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우리 학교에는 정말 빛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닌 것 같다. 아름답게 펼쳐진 넓은 운동장부터 다양한 조합과 쉼 공간이 있는 씨엘씨까지!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새건물 도서관 4층 씨스퀘어까지! 아름다운 학교의 정과 사랑을 난 다시 한번 느끼고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아무쪼록 내일까지 빛나는 챌린지의 질주가 막을 내리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 14 💬 8

주재형(청각학과) 빛나는 챌린지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멋지네요!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훌륭한 성취를 이루는 길이에요. 계속 성장하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지금 강의실에 앉아 수업이 시작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너무 힘든 목요일이지만 다 같이 힘내보아요,, 아자아자!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원준님의 글을 읽으며 저희 학교를 떠올려봤는데 제 마음 속에도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지 못한 곳에서도 우리 학교는 빛나고 있겠죠. 그 빛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언젠가 이 학교를 떠나겠지만 그때 학교의 빛남을 묻히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그리고 지금까지 챌린지를 위해 빛나는 길을 달려오신 원준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엄청 화창한 날씨네요:) 햇빛이 진짜 반짝이는거 같아요! 대면수업을 하면서 학교가 빛을 되찾은 느낌이 들어요 본부에서 사경관으로 가는 미니 정원도 이쁘지 않나요?! 원준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다빈(경영학과) 너무 빛나 눈부셔 가기는 싫은 학교.. 웃으면서 공감아 갑니다ㅠㅠ 빛나는 장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원준님 글처럼 학교라는 공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반짝반짝한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여름의 한림대학교 풍경은 참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하루밖에 안남아서,, 너무 실감이 안나는 것 같아요

고다인(법학) 반짝반짝 빛나게 챌린지를 마무리 할 수 있을거 같아요!



2023/05/25

thursday, am 9:13 | 24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14일차 #반짝반짝 #작은별 #우리는모두별 #금성

오늘의 해시태그는 반짝반짝인데요!
어제 초승달과 같은 선상에 있는 금성을 혹시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걸을 때마다 하늘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제 초승달과 금성이 같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사진도 찍었구요!

반짝반짝 빛나는것은 별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댓글로 적어주세요!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뒤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바로 후광이라고 하죠!

사람이 더 멋져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반짝반짝 모래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 반짝 거리고 바다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거리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지금 반짝 반짝 거린답니다!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내 인생 마저 안 반짝반짝 거리는건 아니랍니다!

조그마하게 가슴속에서 피어 나올라고 하고 있답니다!

반짝 반짝 또 어떻게 반짝 거릴까요!
진주목걸이? 다이아반지? 루비? 오늘의 해시태그가 글을 쓰는데 흥미를 주네요!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주에서 볼때는 반짝 반짝 거리겠죠?

끝으로 오늘 예비군이 있는 날인데요..

날씨가 무지 덥네요! 그래도 안전하게 다녀 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지금 홍천 예비군 훈련장에 가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 16 💬 10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오늘 예비군인데! 운 좋으면 얼굴 뵈 수도 있겠어요. 화요일에 달 옆 반짝이는 별이 있었는데 금성일 줄은 몰랐죠. 좋은 글 감사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아침에 나올 때 군복입은 사람들이 많던데 예비군 때문이었군요! 덕분에 화이팅 하시길 바라요

서원준 (중국학과) 어우 화이팅입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사람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치가 눈부시게 빛날 때 사람은 더 멋있어 보이고 존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범님도 지금도 빛나는 인생을 더 빛내기 위해 가치있는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범님도 저도 지금보다 더 빛나길 응원할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도 금성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고싶었는데 사진으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ㅎㅎ 예비군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얘기는 들었는데 어제인지 몰랐네요 ㅎㅎ 지범님 사진 덕분에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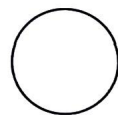
구경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반짝 반짝 거린다는 문장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화창한 날씨인데 예비군 하러 가시는 군요 날이 진짜 더운데 몸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늘 지범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다빈(경영학과) 반짝이는 별이나 달을 볼 때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쉽게도 초승달과 금성이 같이 있는 걸 보지 못했지만ㅠ.. 지범님의 글을 통해 볼 수 있었네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유림(경영학과) 어제 달 옆에 있던 것이 금성이었군요! 평소와 달리 반짝이는 별이 보이길래 뭔가했는데 ㅎㅎ 잘 읽었습니다 예비군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두 달 옆에 반짝이는 별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금성이었군요! 초승달이라서 더 낭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고다인(법학) 어릴땐 하늘을 항상 보고 걸었는데 요즘은 바쁘게 목적지로 향하느라 잊어버리고 살았네요~좋은 글 잘 읽었어요



2023/05/25

thursday, am 11:33 | 19원을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4일차 #반짝반짝

우리 집은 도시와 조금 떨어져 있어 밤이 되면 칠흑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그 어둠이 온 세상에 깔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여름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 빛에 나는 마치 홀린 듯이 의자에 앉아 가만히 쳐다본다.

별이란 건 참 신기한 것 같다. 늘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 힘든 건 없는지... 겉으로는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서로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보면 불안했던 내 마음은 어느새 평안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다.

별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여름이 되면 가끔씩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 자고 가는 날이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는 것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처음에는 깔깔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어느새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가 오간다. 요즘 힘든 것들이나 미래의
불확실성, 가족관계 등등... 대화를
나누다보면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수고했다, 괜찮다와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 별들의 공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간다.
그래서 난 별이 좋다. 아무 말 없이 날
바라보기만 하지만 그 속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너무 좋다. 별들을 통해 나도 몰랐던
나의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인 것 같다. 지구를
통해 보는 우리가 빛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우주 속에선 자신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희생하는 것. 난 그 희생에
오늘도 감사하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 12 💬 10

서원준 (중국학과) 힘을 주는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당 !!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는 하영님의
글이나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항상 보면
댓글도 진정성 있고 길어도 길고 정성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댓글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도
있답니다 ㅎㅎ 글 잘 읽고 갑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반짝
반짝 빛나는거 같습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별을 소재로 한 멋진 글이네요
별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존재인것 같으면서도
빛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동적인 존재인듯 해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여름이 되면 더욱 별이 정말 잘
보이겠어요! 누워서 별 구경하고 싶어지네요 ㅎㅎ
별을 통해서 위로 받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좋은 점이 많은거 같아요!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별이 하영님도 빛나게 만들어 주는거 같네요 별의
희생에 저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영님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이유림(경영학과) 반짝이는 별 아래서는 속 깊이
숨겨뒀던 이야기도 술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별을 보고 있을 때면, 서로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매개체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밤에 반짝거리는 별을 보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쳐다보면서 힘을 주는
느낌도 들고! 우리가 빛난다는 존재임을 알게하기
위해 별은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게 참 멋진
표현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별이 보이는 집이라니 너무
낭만적일 것 같아요. 어쩌면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부럽기
까지 합니다. ㅎㅎ 놀러가시는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고다인(법학) 별이 주는 따뜻한 위로가 참
좋은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12:09 | 14일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4일차

반짝반짝 빛나는 만물은 관심을 받기
마련이다. 인간은 당연하게도 고대부터 수은,
황금, 보석 등에 이끌렸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흘렸는지 알 것이다.
동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까마귀가 있다.
그들은 가끔 반짝이는 귀금속을 훔치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행복한 왕자>
속에선 제비가 보석을 물고 다닌다. 아마도

반짝인다는 것은 특별하고 갖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듯하다.

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매혹하는 황금은
세계사에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첫째는
대항해와 개척을 유발했고, 둘째는 황금을
가진 원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살해됐다는
사실이다. 이것에서 우린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반짝이는 것은 손에 쥐면 이성의
빛을 잃고, 쟁취하지 않는 한 영원히
아름답다.

😊 11 💬 8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보고 가요 !!
심지범 (경영학과)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보석을 좋아하는 까마귀처럼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동물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충민님 글처럼 반짝거리는
것들은 우리 눈에 특별한 존재처럼 보여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그 빛을 통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충민님
글처럼 이를 소유하는 것보단 눈으로 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걸 쟁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국 피로써
끝나니까요. 그래서 전시관에서도 눈으로만 보라는
글이 있는 게 아닐까요?? 덕분에 반짝임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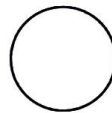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도 생각나는 글이네요 우리는 간혹 너무 큰
욕심으로 반짝이는 것을 잃기도 하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동화책이나 매체를 봐도
반짝이는 것은 유독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쥐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구절이 정말 인상 깊습니당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반짝이는 만물은 동물, 사람 할
거 없이 많은 관심과 소유욕을 불러 일으키는거
같아요 황금이 대항해와 개척을 유발하고 황금을
가진 원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살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충민님 말처럼 반짝이는 것을 손에
쥐면 이성의 빛을 잃는다는 표현이 맞는거 같아요
영원히 반짝일 수 있길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반짝이는 것은 참
눈에 확 띄는 것 같고, 특별함이 느껴지죠, 선을 잘
지키는 것, 소유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05/25

thursday, pm 12:22 | 15월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14일차 #반짝반짝

벌써 내일이면 인증글 쓰기도 끝나네요.
꾸준히 달려온 3주의 여정의 끝이 보이네요.

반짝반짝이라는 단어를 보며
우리의 3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키워드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도
경험도, 가치관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이곳에 담긴 모든 글이 고유한 색으로
감정으로 상상력으로 진심으로 다해진
하나의 별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방대한 우주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반짝거리는 별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1학기도, 챌린지도 거의 끝나가지만
이곳에 담긴 반짝이는 별들은 자신의 마음,
의지, 바램, 소망을 간직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이 공간의 다양한 찬란한 반짝임을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몇몇 글은 접근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고
뇌리를 반짝이며 지나갔네요.

여기 계신 분들의 반짝이는 미래를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그대의 삶이 반짝일 수 있기를
힘든 순간에도 반짝이는 빛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원하는 반짝거림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2 💬 10

심지범 (경영학과) 반짝이는 우리 글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라이팅 챌린지가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니... 상민님도 마지막 남은 내일까지
잘 준비하시고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서원준 (중국학과)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ㅎㅎ 잘조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기에 분명 싫증이 날 때도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벌써 끝이 다가오고 있고 제가 온 길을
돌아보니 열심히 한 것 같아 뿌듯하네요 ㅎㅎ 저도
상민님의 글을 보면서 인상깊었던 순간도 있었고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던 시간이었기에 소중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모르게 웃고 갑니다 ㅎㅎ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봐요!! 글 잘 읽었어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약간 참여하시는

분들과 내적친밀감이 생겼는데 벌써 끝나가네요
ㅠㅠ 상민님도 반짝거림을 가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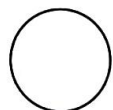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벌써 내일이면 끝난다는게
시원섭섭하네요 상민님의 반짝일 시간도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3주간의 반짝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반짝이는 상민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방대한 우주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반짝거림은 별처럼 이곳을
표현하신게 너무 인상깊네요:) 많은 학우분들의
고유한 색들이 반짝 반짝 빛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뇌리를 반짝이는 반짝의 뜻도
있었네요! 좋은 말들 용기를 얻고 가요 상민님도
반짝이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 다들 함께
올려주셔서 이번에 3주도 끝까지 마무리 했던 것
같아요 !!

김시현(러시아학과) 벌써 다 끝나간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글쓴이님의 삶도 반짝거리길
응원합니다!



2023/05/25

thursday, pm 12:45 | 14원을
배성준(경영학과)

#14일차 #반짝반짝

저는 침대에 누웠을 때 쉽게 바로 잠에 들지
못합니다.

있는 힘껏 두 눈을 감아도 어두컴컴한
눈안에 반짝반짝 작은 우주가 그려질뿐
잠은 더 멀리로 도망가고 맙니다.

눈을 감고 있다보면 문득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반짝반짝 떠오릅니다.

"아 그때, 정말 재밌었지"

"아 창피해,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말 좀 더 걸어볼걸..."

친해지고 싶었는데"

"과제 하느라 힘들어죽는줄 알았네"

"오늘 기숙사 가는 길에 마주친 그분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도 지나가버렸네... 방학도 얼마

안남았는데"

"근데 기말고사 공부는 언제 하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해볼 수 있었는데"

생각들이 은하처럼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꼬리의 끝에 다다를

적이면 이불안에 온몸을 쏙 집어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일이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겠지"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은 순간, 밝은 햇살이

느껴지고 새들의 지저귀음이 들려옵니다.

😊 12 💬 8

서원준 (중국학과)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ㅎ

잘보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성준님처럼 잠에 들기

직전에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이 드는지... 늘 그것

때문에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해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늦게 잠에 들곤 하죠. 항상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준님이 작은 우주라고

표현해주시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ㅎㅎ 그래도

가끔은 생각을 내려놓고 얼른 잠드는 게 좋겠죠??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러일들이

반짝이라는 말 그 자체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잡생각이 너무 많은

탓일까요? 하지만 하루를 끝내는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하는 건 좋은 듯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자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라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생각의 꼬리를

물다보면 어느새 아침이 와있는 것까지도요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하루를 마무리 하는 장소가

침대이기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하루를 보냈기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게 아닐까도 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잠들기 전 하루 하루 반짝이던

순간을 다 담은 글이네요:) 성준님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밝게 빛나는

일상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은 순간 잠에 들고 밝은 햇살이 느껴지고

새들의 지저귀음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글이 정말 공감이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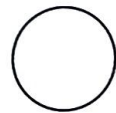
갑니다! 유독 자기 전에 하루동안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잘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시험기간 너무

안남아서,, 시간이 정말 빨리지나간 것 같아요



2023/05/25

thursday, pm 1:47 | 16원음

김노연(사회학과)

#14일차 #반짝반짝

나는 반짝거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태양은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렵고 눈이 아프며, 반짝거리는

사람은 어떤지 눈이 가면서도 부담스럽다.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겠지. 나 자신은 그 사람과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밤하늘에 새겨져 있는 별들의

반짝거림은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그 까만 하늘 사이사이로 점

찍혀있듯 콧코 박혀있는 은은한 빛들을 보면

내 존재가 하염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은연

중에 깨닫게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행성

말고도 다른 행성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짧은 인간의

생을 어떻게든 살아내겠다고 이 작은 행성

내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그저 나는 이 광활한 우주 내에서

먼지도 못 되는 존재인데도.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이 지구, 대한민국,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니까.
최대한 이 짧은 생을 즐기다 가야겠다.

😊 13 💬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반짝거림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욕심으로 변질되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노연님 스스로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는 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짝거림을 단순히
물건에만 빔대지 말고 노연님 자신에게 빔댄으로서
그 의미의 가치를 깨닫고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ㅎㅎ 인생은 길고도 짧지만 그
순간들이 모두 빛나길 바랄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든
것은 너무 반짝이는 사람을 볼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별들의 반짝거림 역시 자연현상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에 나름대로 이유를 붙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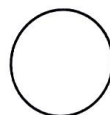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우주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참 제가 하찮게 느껴지면서도 부담이 덜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하나의 빛이 모여
큰 반짝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연님의 자신에게 안보일뿐 반짝이고 있을거예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 울적하면서 인상
깊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태양 빛은 점점 밝아지는거
같아요 ㅎㅎ 너무 반짝여서 잘 못 보겠어요 저도
종종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작은 존재라는걸 느낄때가
있어요:) 그래도 노연님 말처럼 인간의 삶은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저희도 어딘가에서 분명 반짝
반짝 빛나는 존재로 보일거라 믿어요 이 짧은 생에

챌린지를 하면서 노연님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좋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별들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소중한
삶에서 별 처럼 밝게 빛날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2023/05/25

thursday, pm 2:04 | 21원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4일차 #반짝반짝

우리 엄마는 158cm의 아담한 체구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 똥콩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 받았고
여군이라는 꿈도 포기했다. 크고 싶어 매일
줄넘기도 해봤지만 매일 먹을 걸 오빠와
남동생에게 뺏겨 안 크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어른이 되어서도 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커 보이고 싶어서 12cm의 높은
하이힐을 매일 신고 다녔다. 여성의류
매장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선택한 것도 있었다. 하루 9시간
정도를 높은 하이힐을 신고 서 있었다. 너무
힘들 거 같아 불편하지 않나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는 당연히 아프고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하이힐을 신지 않으면
팔아야하는 옷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뿐더러 키가 작으니 손님들이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20년 정도를 하이힐을 신고
일을 하니 발은 유명한 체육 선수들의 발처럼
망가져있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항상
이해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신발을 신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 때는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다. 나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12시가 다
되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몰아치는
바람과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 때문에 어떻게

집까지 가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우산을 쓴 사람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아는 사람인가
싶어 눈을 찡그리며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엄마였다. 엄마는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우산을 들고 힘겹게 날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 높은 하이힐을 신고 말이다. 나는 너무
반가우면서도 뭉클했다.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딸 걱정해 비를 뚫고 왔다. 높은
하이힐 때문에 발이 터질 듯 아플 텐데도
말이다. 빗물 때문인지 내 눈에 차오르는 눈물
때문인지 툭툭 부은 발에 신겨진 하이힐이
반짝거렸다.

😊 13 💬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빈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네요... 엄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이 한 몸 희생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 저는
그게 사빈님 어머니의 하이힐에서 느껴졌네요.
비록 콤플렉스로 인해 신게 된 하이힐이지만
그리고 벗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지만 자식을 위해
벗는 시간보다 데릴러 가는 시간이 항상
우선순위인 것. 그거야말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를 꼭 안아드려야겠어요. 사빈님도 오늘만큼은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만져주면서 수고했다고
전해보세요 ㅎㅎ 아마 그 한 마디조차 기뻐서
웃음꽃을 활짝 피실테니까요! 감동적인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어머니가 하이힐을 신고 일을
하는 것도 힘드실텐데 그 힘든 하이힐을 계속 신고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아픔을 계속 참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엄마의 사랑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 같습니다 발이 많이 불편하고
아프실텐데 긴 기간 동안 하이힐을 신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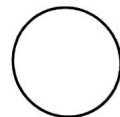
일하신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많은 생각이 드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다 화이팅이에요 !!

김한나(경영학과) 12cm 하이힐 대단하신걸요...!
한시간만 신어도 발이 아프실텐데 9시간이나
신으셨다니 노력이 멋지세요 사빈님을 위해서 옷도
못 갈아입으시고 높은 굽을 신고 데릴러
오셨다는게 사빈님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네요! 뭉클한 반짝임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사빈님이 힘듦을 다 감수할
만큼 반짝 반짝 빛이 나는 존재이기에 한걸음에
오셨을거 같아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모님만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글에서 학우님을 아끼는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것을 애써 여기는 학우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네요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비를 뚫고 오신
부모님의 마음과 사빈님의 그 울컥한 마음이 정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을 하게 되던,아니면
여러이유로 신게 된 그 하이힐이 아마 어머니께는
많이 힘든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3/05/25

thursday, pm 3:22 | 16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4일차#라이팅챌린지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을 보면 '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다. 어릴 때 하트모양도 좋아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별모양을 좋아했다. 그래서
내방 천장에 밤하늘을 만들기로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이다. 야광 별 스티커를
사와서 천장과 침대 위 벽에도 골고루 붙였다.
흔히 잠이 오지 않을 때 양을 세라고 하지만
나는 내 방에 반짝반짝 빛나며 수놓아져 있는
별을 세며 잠에 들었다. 지금은 새로 도배를
해서 볼 수 없어졌지만 아직도 내게 그리운
추억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안에서 그것도 제일 편한 내 방에서

편하게 누워 별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반짝반짝'오래도록 빛나던 '내 방의 별'
지금은 없지만 내 가슴속에서 아직도 빛나고
있으니 언젠가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면
아기방에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만들어주고 싶다. 별과 달 그리고 행성까지
고요하고 째깍한 밤이기에 더 빛나던 별은
평온함을 주고 숙면을 취하게 해 줄 것이다.

끝으로 음악을 추천해보면 내가
제일좋아하는 피아노 곡으로. 정명훈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모차르트-작은별
변주곡'이다.
<https://youtu.be/dks3S6unewE>



[더콘서트] 정명훈 연주모음
www.youtube.com

😊 11 💬 7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키워드를 듣고 반짝반짝
작은별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시절
살았던 집의 천장은 야광별들이 가득했죠. 다시금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부모님이 천장에 야광별을
붙여주셨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유정님처럼 초등학교
때 천장과 전등, 벽지에 야광 별 스티커를 마구
붙여놓도 밤이 되면 늘 구경했던 게 기억이 나요.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야광도 점점 사라지며 빛을
잃어갔지만 밤에만 볼 수 없을 뿐 낮에는 태양 빛을
받으며 반짝 빛나던 별을 보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별을 보다보면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스르르 잠이 든 적도 많았네요 ㅎㅎ 덕분에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서원준 (중국학과) 이따 실 때 한번 봐야겠어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어릴 때 친구네 가면 붙어
있는걸 보고 부러웠었는데 야광별 스티커
추억이네요:) 언젠가 아기방에도 만들어
주고싶다는 말이 인상 깊어요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을 꼭 미래에 아기에게도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반짝 반짝 빛나는 별이 주는
평온함과 안정감이 좋은거 같아요 작은 별 변주곡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어두운게 무서워서 야광 스티커를 열심히 붙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나중에 자녀분 방을
꾸며준다고 하시니 하늘에 있는 별이 집에도
생기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두 이거 한창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밝고 경쾌해서 진짜 즐거운 것 같아요



2023/05/25
thursday, pm 4:02 | 16views
정예진 (생명과학과)

#14일차 #반짝반짝

몇 년 전, 에버랜드에서 우연히 반딧불이
체험을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

그냥 지나가다가 직원분이 권유해서
들어가게 된거다.

처음엔 흔한 곤충 체험처럼 반딧불이가 어떤
곤충인지에 대해
박물관처럼 설명이 되어있었다.
'뭐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서 구경을 하면서
지나갔다.

마지막 공간에 도착했을 때 그 공간은 그냥
숲처럼 꾸며놓은
공간이었다. 뭐지? 생각하던 중 직원분이
눈을 감고 휴대폰은
꺼내지 말아 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눈을 감자 불이 꺼지는 걸 알 수
있었고 눈을 뜨라는

직원분의 신호에 맞춰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딧불이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별이 가득한 우주 한가운데
내가 서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서 오늘
키워드를 보자마자
그때의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정말 황홀할 만한
장면이다.

😊 12 💬 8

이유림(경영학과) 정말 멋진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나마 우주를 경험할 수 있으셨을 것
같네요 저도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에버랜드 그런 공간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직원의 권유로 우연히 들어간
그곳에 그토록 밝은 빛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직원 덕분에 예진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저는 반딧불이는 늘 영상으로만
접했기에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인지
예진님의 글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경험에 보고
싶은 추억이 생겼네요 ㅎㅎ 제 버킷리스트에
저장해야겠어요!! 덕분에 몰랐던 것을 알고 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반딧불이라 너무 예쁜 곤충이죠.
생각해보니 빛을 뿜는 곤충 중에서는 거의
반딧불이 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오늘의 키워드
반짝반짝이 아주 잘 어울리는 글이에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당
ㅎㅎ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는 아직 반딧불이 실제로
봐본 적이 없는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반딧불이들이 그려내는 풍경을 상상해보니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자연의 반짝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반딧불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ㅎㅎ 못
본지 꽤나 오래 된거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뿜어내는 반딧불들이 너무 예뻐올거
같아요:) 직원분의 권유로 우연히 체험하면서
평생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오셨네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 불빛과
소리가 주는 신비감과 생동감이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산림욕 같은 것들도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언제나 그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우와,, 진짜 반딧불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생물이 빛을 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환상적인 느낌일 것
같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4:03 | 17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14일차 #반짝반짝

깜깜했던 시야가 점점 밝아진다. 지구의 빛은
벌써 일어났나 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난 오늘도 나의 쳇바퀴를 굴릴 준비를
한다. 다들 뭐 이리 바쁜지 바깥세상의 우렁찬
기압이 내 고막을 때린다. 걸으려는 잔잔해
보이는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오늘도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친다. 이 파도는
알게모르게 나의 쳇바퀴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한다. 모두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지구의
빛이 잠에 들기 시작할 때, 난 생각에 잠긴다.
앞만 보고 살아가다보니 나의 쳇바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건가?
나도 모르게 쳇바퀴엔 하나둘씩 먼지가
쌓이고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쳇바퀴가 점점
멈추고 나는 파도에 잠식당했다.

하루 이틀....이 흘러 일년이 지났다. 내가
멈춰있으면 바깥세상도 멈춰있을 줄
알았는데 야속하게도 내일은 또 오고 세상은

바빠 움직인다. 나의 가장 큰 기둥이 나에게 조금은 늦게 굴러가도 괜찮다는 인사를 건넨다. 한참을 울다 다시 챗바퀴를 굴려보자는 미약한 다짐들을 세워본다. 마음의 방을 열어놓어져 있는 감정들을 조용히 모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그려본다. 불필요한 방을 버려본다. 때론 과감하게 조심스럽게. 마음의 짐이 없어지기 시작하니 챗바퀴의 먼지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챗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한다. 새롭게 정돈된 챗바퀴를 구경해본다. 파도에서 벗어나 희망과 가능성이 보인다. 정돈의 마법으로 마음이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난 고집스럽게 흘러가던 내일 앞에 반짝반짝하게 살거라 약속한다.

😊 14 ... 7

배성준(경영학과) 혁 표현력이 정말 깊으시네요! 저도 살다보면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대로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ㅎㅎ 천천히 해도 된다고 자신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면 자신이 희망하는 반짝이는 미래에 서게 될 수 있을거예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예쁜 동화책 한 편을 읽은 느낌이에요 나는 멈출지라도 세상은 움직인다는 것에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글에서 나와있듯이 정돈하고 걸어가게 되겠죠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정착학과) 반짝반짝 빛나는 글이네요! 일상의 힘든 시간과 어려움을 겪으며도 계속해서 챗바퀴를 돌리고 힘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가셔서 내일에 대한 반짝반짝한 약속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정말 아름다워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끔은 마음을 정돈하는 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의미가 완전히 잊어버리기 보단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느낌이랄까...? 과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버림으로써 잊어버리는 시현님과 다르게 제 정리 방식은 앞서 말한 것과 같아요. 정리 방식은 다를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아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시현님의 앞 길은 반짝반짝하기 바라요! 제가 응원할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나의 가장 큰 기둥이 나에게 조금은 늦게 굴러가도 괜찮다는 인사를 건넨다는 문장이 몽클하네요 뭔가 저도 위로 받은거 같아요:) 미약한 다짐일지라도 그러한 다짐들이 모여 정말 희망의 빛을 만들 수 있는거 같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단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반짝이는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앞으로의 반짝 반짝 빛을 만들어 나가는 삶이 기대가 되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챗바퀴 같은 삶이 저는 정말 저는 소중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일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인 하루가 항상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쩌면 너무 지루하고,, 암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생각마다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3/05/25

thursday, pm 5:55 | 23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14일차 #반짝반짝

반짝거리며 살고 있는 나
반짝거리며 죽어 있는 너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으면 해

파릇한 나무를 봐야 해
아리따운 꽃을 봐야 해
시원한 계곡을 봐야 해
청명한 하늘을 봐야 해

반짝이는 모든 것들을 담고 또 담아

내가 그 무엇보다 반짝인 다음
순리 속으로 날아갈게

*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빛을 받아 날개가
반짝거리는 벌레가 창문에 달라붙어있었고,
같은 종류로 보이는 벌레는 바닥에
죽어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 16 💬 9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민지님은 오늘 아침에 보신
벌레를 보고 나서 이런 시를 쓰셨지만 그 벌레들이
사람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있진 않아도 심리적으로 심장 뛰고 있지 않는
사람과 늘 활기차게 뛰는 사람. 저는 후자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민지님의 시처럼 해야만 하는
무언가를 찾으면서 삶의 의지를 찾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반짝이는 저의 삶을 상상하며 또
나아가는 것 같네요. 민지님의 시를 보면서
복잡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 같네요 ㅎㅎ 민지님도 후자인 사람으로서
인생의 빛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글 잘
읽었어요!!



조은지(철학) 일상에서 포착한 모습을 시에 잘
녹여내셨네요! 첫행부터 인상적이에요.
생각해보면 생과 사의 간극이 그리 멀지는 않죠.
멋진 시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민지님이 말하는 순리 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은 열정과 꿈을 향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모습을 지닌
민지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며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을거예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짧은 찰나의 순간을 반짝하며
살고 있는 '나'가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으면 한다는게 인상 깊네요:) 아직은 보고
싶은게 세상에 많기 때문에 생명력을 더욱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반짝이는 모든 것들을
가득 담아 그중에서도 가장 반짝이고 순리 속으로
간다니 멋지네요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첫 문단이 굉장히 여운이 남는
시네요 잘 읽었습니다!

조인영(심리학과) 어떻게 벌레를 보고 이런
인상적인 글을 쓰셨는지...! 대단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벌레에서 영감을
얻었다니,,,,! 예술가 기질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어머, 반짝이는 벌레라니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저두 오늘 길가면서 개미가
밟혀 죽은 것도 보고, 살아서 열심이 일하는 모습도
봤는데,, (열심히 밟지 않으려고 매일 바닥을 보는
편이거든요) 이런 글이라니

서원준(중국학과) 정말 잘 쓰시는데요? 잘보고
깊게 빠져들니다



2023/05/25
thursday, pm 7:35 | 15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4일차 #반짝반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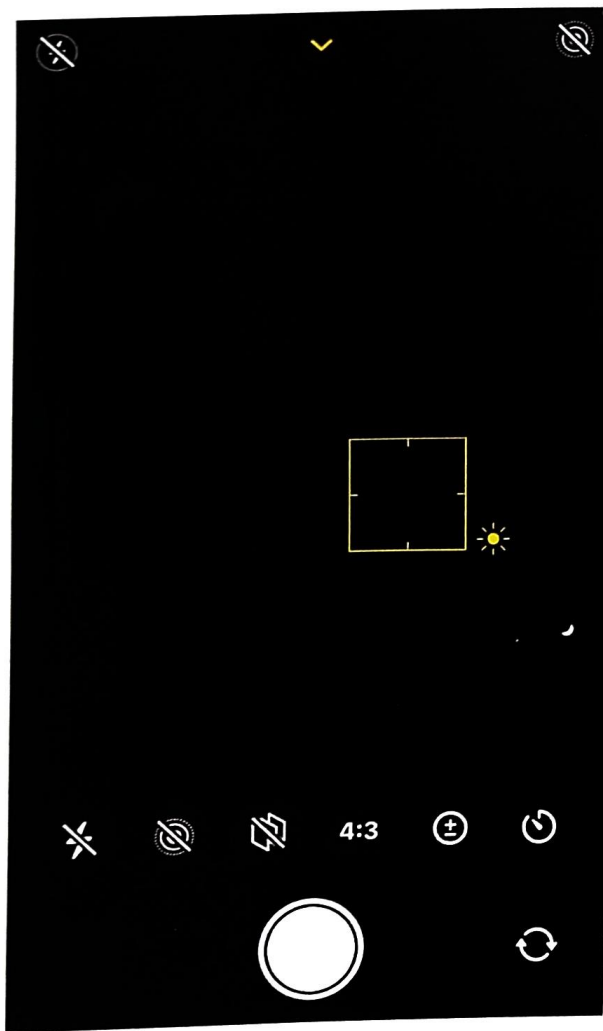
_반짝반짝

작년 즈음에 오랜 소꿉친구의 공연을 보러
갔었다. 레미제라블 공연이었고 친구는
에포닌 역을 맡았다.

평소에도 노래 부르는 모습을 많이 봤었고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무대에서 친구를 보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면서 신기했다. 친구는
아련하고 슬픈 역할이었지만, 이상하게
친구의 눈빛은 행복해 보였고 빛이 났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물음의 답을 친구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물음을 던지면
나는 이제 그 친구가 떠오른다.

나는 아직도 친구의 반짝임을 잊을 수 없고 그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자신만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다.



내일 비가 내릴지 몰라요.
조용히, 비와 잘 어울리는 노래를 남기고
갈게요.

Oasis_Talk Tonight

반짝반짝
2023.5.23.

😊 11 💬 9

주재형(청각학과)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도 엿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죽은 눈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 처럼 말이에요. 그 친구의 눈처럼 반짝이는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지원님을 응원할게요!

이유림(경영학과) 자신이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하면 별처럼 눈이 빛나는 것 같아요 더 멋있어보이기도 하죠 멋진 친구분이 있으시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눈을 볼 때면 저도 큰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기에 이런 반짝임을 보이는 것일까 생각도 하구요. 지원님도 지원님만의 빛으로 반짝거릴거예요!

조은지(철학) 개인적으로 레미제라블에서 에포닌이 가장 소화하기 힘들고 매력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친구에게서 반짝임을 찾고 그를 기억하는 지원님도 분명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짝이고 계실거예요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친구의 반짝임을 알아봐주는 지원님이 있으니 친구가 정말 든든하겠어요. 그런 가치를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건 정말 특별한 거니까요. 하지만 전 지원님 자체로도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챌린지를 통해 꾸준히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지원님의 모습이 제 눈에는 그 친구보다 더 빛나는 별처럼 느껴지네요 ㅎㅎ 오늘 하루는 지원님 스스로에게 오늘도 빛나느라 수고했다고 내일도 빛나보자고 외쳐주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 친구는 참 좋겠어요. 곁에 있는 친구가 본인을 너무 자랑스러워해줘서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은 정말 반짝이는거 같아요 아주 맑고 초롱초롱하게 진짜 좋아하는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거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글 잘보고 가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참 누군가를 반짝이라고 보는 게 멋진 것 같아요.



2023/05/25
thursday, pm 8:17 | 19원음
이유빈(사회학과)

#14일차 #반짝반짝

반짝반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생각나는게 딱 있을 것이다. 별! 다들 별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본다면
별 말고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봄에는 꽃에 비춘 햇살이 반짝이고 여름에는
작렬하는 햇빛에 반사된 강과 호수, 바다의
수면이 반짝이는 윤슬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논밭에 고개를 숙인 벼들에게서 반짝임을,
겨울에는 눈이 쌓인 언덕에서 반짝임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계절 속 반짝임 말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반짝임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눈빛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할 때, 자신이 좋아하거나 예쁜 무언가를 볼
때 두 눈이 별보다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반짝이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멀리서 빛나는 것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할 때의 눈빛을 한
번 바라봐 보자. 별보다, 햇살에 반사된
계절의 무언가보다 더 반짝 빛날테니까.

😊 12 💬 10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사람의 눈빛도 반짝 반짝
빛나죠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열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의 눈빛은 감히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반짝임이죠!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빈님 글처럼 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초롱초롱한 눈이
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 그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가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저는 유빈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챌린지를 위해 글을 쓰는 데 열중하는 유빈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실 것 같아요 ㅎㅎ
그것만으로도 유빈님은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최현영(법학과) 반짝임이 별이 아닌 정말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이유빈님을 글을 통해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빛!! 맞아요,,
저는 어떤 것에 눈이 반짝이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글 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유빈님 덕분에 별
외에도 봄에는 햇살이, 여름에는 햇빛에 반사된
강과 호수가, 가을에는 벼, 겨울에는 눈이 쌓인
언덕에서 반짝임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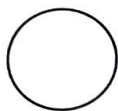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연과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진정으로 반짝이는 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라는 것을 유빈님의 글을 읽고 느껴지네요.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짝이는
순간을 찾아내고, 눈빛으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한나(경영학과) 4계절에 반짝이는 순간들이
담겨 있는 글이네요:) 반짝 반짝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다양하게 있는거 같아요 유빈님 말처럼
사람의 눈빛도 별보다 밝게 빛나는거 같아요
멀리서 빛나는 것을 찾기 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할 때의 눈빛을 바라봐 보자는 문장이
인상 깊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주변에 행복은 가까이 있다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꽃에 햇빛이
반사된 것도, (오늘 학교에 노란 꽃을 봤어요 넘
예쁘더라구요) 강과 호수의 빛도 정말 예쁘죠!



2023/05/25

thursday, pm 8:46 | 17월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4일차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 애가 빛나는 순간.

1.

노력이라. 좋은 단어다.

무엇이든 이를 수 있어 보이고.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고. 참 희망차다.

하지만 나같은 애들은 일찍이 알고 있다.
세상엔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살다보면
노력으로 안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타고난 재능. 타고난 부. 타고나는
여러가지들.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

쓰디 쓴 패배감을 맛본 사람들은 어느정도
체념하며 살아간다. 이정도가 딱 맞다고
생각하며. 각자 주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게
인생이라 말한다.

물론 나도 저런 사람들 중 하나다. 희망은
품을 수록 잔인해지니까. 적당한 타협 속
인생은... 뭐. 나쁘진 않았다. 다들 이렇게
사는거잖아? 포기는 쉬웠다.

아니, 아니지. 이걸 포기가 아니라 분수를
알게 된 것 뿐이라. 자신을 위로 하며 나는
펜을 꺾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선같은 건
긋지 않겠다 맹세했는데.

그랬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표정을 구기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규칙적인 발소리. 안봐도 뻔했지만
괜한 불쾌감이 사라지질 않았다.
무심코 트집이라도 잡아 핀잔을 줘야겠다는
나쁜 마음가짐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열고 운동장을
노려봤다.

드르륵,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응한 걸까.
그 애가 뒤를 돌아봤다.

바보같은 웃음. 그리고 바보같은 인사. 나를
향한 그 바보같은 것들을 보며, 할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다.

2.

편하잖아, 관두면.

언젠가 그 애랑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너는 왜 포기하지 않는거야? 나는
포기했는데.
누가봐도 무리였다. 이런 학교에서
전국재패라니. 가능할리가 없다. 차라리 일찍
관두고 공부나 하면, 너 같은 애들은 금방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텐데. 속내를 삼키고
있었던 차 그 애가 입을 열었다.

그야 편한만큼, 후회할 거 같아서...

우승 못 할까봐 걱정돼? 내가 누군데 걱정을
해. 씩 웃는 그 애를 보며 나는 무슨 말을
했더라. 바보같이 웃지 말라고 했었나....

호루라기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선수들은 마지막 한바퀴를 남기고 있었다. 그
애와 라이벌 사이는 꽤 많이 좁혀져 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바심에 식은땀이
흘렀다.

단 0.1초의 차이로 성패가 갈리는게
스포츠다. 손 끝하나, 숨 한번이 희비를
교차시킨다. 이미 내 심장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뛰고 있었다.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닌데도. 어쩐지 나는 그
애와 나를 겹쳐본다.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고 보여줄거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온 마음을 담아 외쳤다. 힘내,
라고!
자신도 모르게 나온 큰 소리에 놀라기도 전,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그 애는...

반짝반짝.

그 애가 빛나는 순간이.
너무 눈이 부셔서, 잠깐 눈을 감았다.

😊 12 💬 7

조은지(철학) 글을 읽으며 좋아하는 스포츠 애니
캐릭터들이 떠올랐어요. ㅎㅎ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스포츠의 매력이지요! 잘 읽고 가요. 멋진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지범 (경영학과) 얼마나 반짝거리면 눈이 부셔
눈을 감았을까요! ㅎㅎ 글 잘 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번호로 문단을 나누는 것
같아서 신선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노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알고나서 포기를 택한다면 그것은 노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의지가
 꺾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승부욕이 불타올라
 재능을 노력으로 뛰어 넘으려고 하죠. 그만큼
 노력이 가진 힘은 굉장해요. 그 예시로는 쇼트트랙
 선수 박윤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운동신경은 전혀
 없어요 그를 보며 재능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그를
 보면 정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미치도록 노력해봐요. 그리고 기다려요. 곧 나에게
 다가올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예진님의 글을 통해서 주인공의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노력과 포기, 희망과 후회 등 인생의
다양한 감정과 고민을 담은 예진님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포기는 쉽지만 후회는 오래가죠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귀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ㅎㅎ 잘 봤습니당 ㅎㅎ



2023/05/25

thursday, pm 9:11 | 15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14일차 #반짝반짝

매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_

행복하고 싶은것은 인간의 본능 인 것 같다.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싶고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일을 누릴 수
있다는것. 하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위해서는 그에따른 노력이 뒤따른다.
이름을 날리는 슈퍼스타들도 앞에서는
빛나지만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와 땀이 숨겨져 있을것이다.

또한 빛이나는 물건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존재한다. 즉, 현재
삶에서 일이 안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어딘가에는 빛이 있으니까 그런것 이다.
어둠이 있어야지만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
하늘도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는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지금이
어둡다면 좌절 하지말고, '앞으로 내가 더
빛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 했으면
좋겠다.

😊 11 💬 9

심지범 (경영학과) 앞으로 내가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존재하고, 빛도 그림자가 있어야 존재하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의미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최현영(법학과) 어둠이 있어야 빛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 인상 깊었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그림자와 빛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항상 밝은 순간만 있을 수는 없다는 동금님의 글에 공감이 돼요. 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성장하고 빛 속에서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이를 극복해냄으로써 성장하게 되고 결국 빛 속으로 나와 그 성장을 바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동금님도 저도 어둠을 두려워하기 보단 맞서 싸울 준비를 해봐요! 그리곤 내 앞에 놓여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한 번 잡아보자구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우리는 모두 삶의 어둠과 밝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죠.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스스로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동금님의 글에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밝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빛에 가린 그림자가 있죠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열심히 저도 응원하며 같이 함께 해요!!

김한나(경영학과) 빛과 그림자는 동전의 앞, 뒤 같은 존재 같아요 현재 삶에서 일이 안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어딘가에는 빛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이 인상깊네요:) 꼭 그런거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고 빛나려고 그런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항상 좋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림자가 있어야 좋은 것도 좋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은 잘 버텨내면 좋은 날도 오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05/25

thursday, pm 9:18 | 16읽음
김용후(법학과)

#1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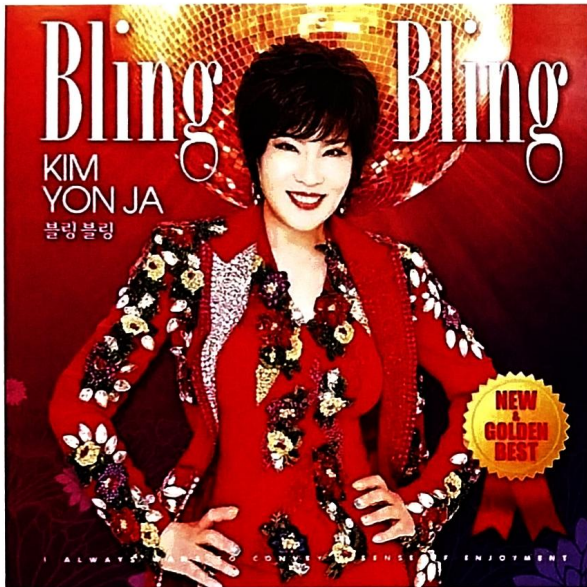
#반짝반짝

"거울아 어서 말을해 내가젤 예쁘다고 //
내가젤 매력있다고 // 혹시나 해보지만
역시나 기대만큼 // 원한말을 들을 수 없어",
"이 세상사가 다 그래 간절히 원할때는
더디고 // 마음을 비우니까 어느새 눈처럼
녹아들잖아", "오늘은 party party 한번
뿐인 인생 // 나를 더 사랑하며 살거야 // 더
많이많이 행복하고 싶어 // 이렇게 하루하루
블링블링 오 예!", 내가 좋아하는 김연자의
<블링블링>이라는 곡의 한 부분이다.

시원한 목소리, 관록이 엿보이는 무대매너,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의상 등 이 곡의
매력요소는 많다. 하지만 나는 '한 번뿐인
인생, 나를 더 사랑하며 살자'는 곡의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든다. 살다보면
세상사가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욕심은 한편에 내려놓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나날들이 정말
'블링블링'해지지 않을까. '블링블링'(bling-
bling)은 보석이나 귀금속이 반짝반짝 빛을
내는 화려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보자는
곡의 테마를 잘 드러내고 있다.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주위의 시선이나 기대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기준들에
스스로를 묶어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라야, 다른 존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블링블링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행복한 곳을 만드는 출발점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사랑임을 잊지 말자.



😊 10 💬 9

조은지(철학) 김연자 가수 곡은 '아모르 파티'밖에 모르는데 '블링블링'도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기보단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기 보단 본인이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야 할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자극 받아요. 감사합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올해 제 목표는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기였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블링블링이라는 곡도 꼭 들어봐야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최현영(법학과) 맞아요,, 자기도 사랑할 수 있을때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법,, 그걸 알면서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용후님 글처럼 나를 사랑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건 같아요. 아직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물론 삶의 고통에 시달리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시도를 멀리하기 위해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후님도 저도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즐겁게 살아보자구요!
블링블링하게 말이죠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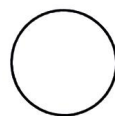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용후님이 쓴 글에서 많은 공감이 느껴지네요. 제가 자기 사랑을 갖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더 밝고 빛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일까지 파이팅이에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아직 제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생생하게 기억날 것 같아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글과 노래 잘 읽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ㅎ 눈에 너무 띄는 사진이네요!! 나를 알고,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지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은 자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9:58 | 14읽음
최현영(법학과)

#14일차 #반짝반짝

그날은 역사상 가장 많은 별뿔별이 떨어진다고 뉴스며 기사며 별뿔별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지루하기만 했던 하루에, 흥미진진한 소식에 내 눈이 반짝였다. 친구들과 별뿔별이 떨어지는 저녁시간에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다.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옥상에 돛자리를 펴고 누워 별뿔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응답하라1988에 나오는 쌍문동처럼 내가 사는 동네는 이웃

주민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다.

이웃집에 사는 이모 삼촌 아이들 너 나 할 것 없이 다 나와 별똥별을 보러 옥상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두 명 누울까 말까 했던 돗자리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더니 두 다리 쪽 뻗고 누워도 될 만큼 많아졌다. 그렇게 다 같이 옥상에 누워 별똥별이 떨어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누구는 더 잘 보겠다며 천체망원경을 가져오기도 했고 사진기를 챙겨 오기도 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흑여라도 눈 깜빡였다가 놓칠까 봐 하늘과 눈싸움하듯 뚫어져라 쳐다봤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을 빌어준다는 그 당시의 순수함으로 소원을 빌기 위해 별똥별이 떨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반짝 진짜 빠른 속도로 살짝 나타났다가 놀랄 틈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빛나게 반짝이고 사라졌다. 너무 빨리 사라져서 소원을 빌 틈도 없었지만...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본 건 고작 1초...라는 생각에 허무함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가 또 언제 이런 구경을 하겠나!!!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면 시간 낭비라며 고작 별똥별 때문에 몇 시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시간을 어디에 쓸지 계획을 세워서 하루를 산다. 흑여라도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일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반성한다. 이 주제를 통해 그때의 나를 떠올리니 새삼 그때가 그림다. 별똥별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시간을 낭비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하루하루에 걱정이 없던 그 시간들이... 그런 순수함은 많이 사라졌을지 몰라도... 열정만은 누구보다 충만하기에!!! 한 번 사는 인생 별똥별처럼 반짝이게 빛나는 사람이 사람이 되고 싶다.

😊 9 💬 7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빛의 속도로

사라진 야속한 별똥별이로군요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순수함이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열정이라면 어느새 소원에 닿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현영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순간의 순수함과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제 마음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가끔은 그때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그리워질 때도 있죠.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아직 별똥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예전에 별똥별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서 그게 별똥별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보는 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알고보니가 별똥별이 행성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라고 들어요. 그 순간이 인간에게도 보인다는 게 참 신비한 것 같네요 ㅎㅎ 다음 번엔 더 확실한 별똥별을 봤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정은 글 잘보고 가용

김한나(경영학과) 별똥별 어릴땐 너무 신기했었는데 점점 잊고 살고 있었네요 현영님의 글로 오랜만에 별똥별을 떠올려 본거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별똥별처럼 반짝이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멋있습니다 꼭 반짝 반짝 빛날 겁니다! 지금도 말이죠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별똥별을 보셨군요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10:21 | 16원음
주재형(철학학과)

#14일차 #반짝반짝 #탄생석 #쥬얼리

오늘 키워드는 반짝반짝이에요. 어릴 때
짱구를 많이 봐서 그런지 짱아가 반짝이는
보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글은 탄생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탄생석과 그 유래

탄생석은 사람이 태어난 날이나 달 또는
그것이 해당하는 황도 12궁을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한국에서는 탄생석을 보석
장신구의 중심석으로 사용하죠.

탄생석의 역사

탄생석은 성서에서 유래했어요. 가장
초창기의 역사가들 중 일부는 구약 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론의 흉패에 붙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과 황도 12궁 간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죠.

8~9세기에 기독교도들은 탄생석을 초석으로
여기고 각기의 보석에 각 사도의 이름과 그
보석이 표상하는 덕성을 새겨넣었어요. 당시
12가지 보석을 모두 갖추어 두고 매월 한
가지씩 착용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도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현재의 탄생석 리스트는 1912년 “미국
보석업자협회(JA)”에서 독창적으로 창안한
아이디어예요. 당시에는 그 리스트가
탄생석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보석들을 판매하기 그런 것이었죠.
이건 오늘날의 탄생석이 역사상 원래의
탄생석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의 탄생석은,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 결혼이나 약혼 예물 장신구로
선택하면서 탄생석이 현대적 보석류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고 있어요.
자신의 탄생석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8월생이라 연두빛의 페리도트인데요. 이번
글로 자기 탄생석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월별 탄생석과 그 의미 목록



• 1월 - 석류석(가넷)

홍색의 석류석은 전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나
단 하나의 달에만 연관지어진 유일한
탄생석이에요

가넷은 친선, 행복, 결단력을 의미하고 또한
가정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건강을
가져다주는 것으로도 믿어진다고 하네요

• 2월 - 자수정

역사적으로 이 탄생석은 부와 존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자주색의 자수정은 황도 12궁 가운데

물고기자리와 연결되어 있어 창의성과 열정, 화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 3월 -아쿠아마린

3월의 탄생석에는 아쿠아 마린이 있어요

이름부터 아주 멋진데요. 바다 색깔과 같은 아쿠아마린은 그 패턴으로 멋진 펜던트를 만드는데 쓰여요. 아쿠아마린의 색깔은 순결, 특히 영혼의 순결을 상징해요. 그리고 탄생석으로써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졌다고도 하네요.

• 4월 -다이아몬드

4월은 가장 진귀하고 어쩌면 가장 멋진 탄생석 가운데 하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자연히 형성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저 유명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문구 덕분에 다이아몬드는 흔히 영원성과 연결돼요.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탄생석 반지나 탄생석 펜던트와 같은 보석 장신구류에 있어서 그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이죠

• 5월 -에메랄드

에메랄드 탄생석은 사랑을 상징하며 따라서 내재적으로 다산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흔히 이 탄생석이 조화와 영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 6월 - 진주

6월의 탄생석은 진주예요

탄생석 진주는 신뢰, 성실, 겸손, 순결을 상징합니다. 고대 역사상 그리스에서는 진주가 존귀의 상징이었어요

• 7월 -루비

많은 사람들이 루비를 보석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루비가 모든 탄생석들 가운데 가장 색깔이 짙은 보석이기

때문이에요

루비는 사랑, 행운, 평화를 상징하고 나아가 부를 상징하기도 하죠

• 8월 -페리도트

페리도트는 연녹색의 보석으로서 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이 보석은 흔히 금과 결합하여 탄생석 귀걸이, 탄생석 펜던트, 탄생석 반지 등을 만드는데 쓰이며 부부의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졌어요

• 9월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선명한 진청색의 보석으로서 대대로 성실을 상징해 왔고, 사람들은 이 탄생석이 지혜를 나타내고 독물 중독을 막아 준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 10월 -오팔

오팔은 빛의 입사각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주 아름다운 탄생석이에요. 옛날에는 오팔이 시력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고 오팔을 지닌 사람의 신실성과 독실함을 표상해 준다고 여겨졌어요

• 11월 - 토파즈(황옥)

토파즈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건강이라고 해요. 다른 보석들도 건강을 포함하지만 토파즈가 가장 독보적이에요. 건강의 영광을 토파즈가 얻어가네요

• 12월 - 터키석과 탄자나이트

12월에는 터키석이 있어요. 멋진 청록색의 터키석은 행운과 보호, 성공을 상징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탄생석을 알아보았는데요. 챌린저 여러분의 탄생석은 어떤 것인가요? 2일차의

키워드가 꽃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니
탄생화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게 아쉽네요. 탄생석은 월별이지만,
탄생화는 일별이라는 점! 자신의 생일에 맞게
탄생화가 있으니 검색해보시면 좋겠네요!
내일이 마지막 챌린지니 모두 힘내서 끝까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8 💬 8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탄생 별자리만
알았지 탄생석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5월이라 에메랄드로 나오는데 사진의 영롱한
옥색이 참 마음에 드네요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탄생석을 알고는 있었지만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의 탄생석은 진주네요!!
ㅎㅎ 사실 전 예전에 친구들이랑 탄생석과
관련해서 우정 팔찌를 맞춘 적이 있어서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탄생석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저의 탄생석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었네요 ㅎㅎ 신기하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저는 페리도트인데요!
주형님이랑 저는 똑같네요! ㅎㅎ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신기하네요 잘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탄생석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네요:) 창의성과 열정, 화합을 증진시키는
자수정이 저의 탄생석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3주간 글 쓰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다인(법학) 제 탄생석이 페리도트인걸 처음
알았네요~재밌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10:50 | 15월음
조인영 심리학과

#14일차 #반짝반짝
2년 전,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조금 큰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혼자 고시원 생활을 하다보니 정말 외롭고
고독해서
인생의 바닥까지 친 느낌이 들었다.
그 잿빛으로 가득 찬 원내에서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웃으며 반기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기운이
나더라.
학원에서 별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에게는 꼭 인사를
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내고 있다.

여전히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친구다.
그 당시에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거닐고
있었는데,
길을 잃을 뻔했던 나에게 하나의 별, 등잔,
전구, 반딧불이가 되어주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렇게 글을 써보니까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해봐야지.

😊 10 💬 6

주재형(청각학과) 그 친구가 인영님의 어두운
터널을 밝게 비춰주는 별, 등잔, 전구, 반딧불이가
되어주었다는 비유가 감동적이네요.. 그 친구와의
인연이 인영님이 길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힘들때 옆에 있어준 친구에게는
평생 잘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잘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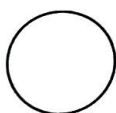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영님의 글을 읽으며 친구란 존재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항상 내 옆에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연락해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대화하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제 인생이 빛을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받기만 하면 안되겠죠!! 인영님도 저도 항상 고마운 친구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주도록 해봐요 ㅎㅎ 그 친구를 아주 밝게 빛내주자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서원준 (중국학과)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을 잘 들은 거 같아요 ㅎㅎ 잘봤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친구의 존재는 대단한거 같아요:) 혼자 고시원 생활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어두운 터널의 반짝 반짝 빛이 되어준 소중한 친구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혼자 고시원 생활이라니 .. 저는 외로워서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 인영님 주변에 반딧불이 같은 친구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11:02 | 13월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4일차 #반짝반짝

어두운 밤이 되면 꼭 하늘을 쳐다본다.
밤하늘과 그 속에서 반짝이는 달과 별을 좋아한다.

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항상 하늘을 쳐다본다.
달이나 별이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달이나 별 사진을 촬영해서 내게 보내주는 사람들의 마음.

낮에 내리쬐는 해도 아름답고,
밤에 반짝이는 달과 별도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답고.

😊 11 💬 7

주재형(청각학과) 하늘을 쳐다보며 달과 별을 좋아하는 마음이 보민님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밤의 달과 별도 아름다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시각적으로 예쁘게 반짝이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운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이라는 시가 떠오른 글이네요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보민님처럼 가끔 삶이 지칠 때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수많은 별들과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낮엔 하늘을 보면서 구름들에게 안부를 전하죠. 자연이란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자연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모든 세상이 반짝거렸으면 좋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여운있게 ㅏ 잘
봔습니다놓르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밤에 하늘 보는 것을 저도 좋아해서 별들을 찾아 보고 달을 사진찍는 것을 좋아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보름달이 뜨거나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으면 가족 단톡방에 보내요.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함께이고 싶어서요 ㅎ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11:13 | 14월을
고다인(법학)

#14일차#반짝반짝

밤하늘을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게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부르는 불꽃놀이가
떠올랐다. 화려한 색상과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때문에 축제,
스포츠경기, 기념일 등등 다양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도 불꽃놀이를
좋아하지만 동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다. 굉음과 섬광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겐 즐거움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의 입장에선 큰 고통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청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갑작스레 들리는 폭팔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놀라 도망가려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할수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보호자들이
불꽃놀이를 같이 구경하겠다면 데려간
강아지들이 폭음을 듣고 도망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불꽃놀이에 놀란 반려토끼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사도 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불꽃놀이가 이런
결과를 내다니 그저 즐거워하며 바라보던
경험을 반성하게되었다. 불꽃놀이를 계속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니 대안을
찾아보자면 야생동물들의 이동시기나 번식기
동안은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불꽃놀이대신
드론쇼나 레이저쇼를 이용할수도 있다.
드론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동물들을
위협할수도 있지만 큰 소음을 유발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한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살아가는 지구인만큼 사람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동물과 환경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 10 💬 8

주재형(청각학과) 우리 모두 지구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라,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환경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불꽃놀이나 다른 행사를 즐기면서도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유익한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불꽃놀이 멀리서 보면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인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쁜 건 한순간이니 많은 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인님의 글을 보면서
떠올린 게 불꽃놀이는 인간의 쾌락을 위한 잠깐의
즐거움일 뿐 그로 인해 남는 피해는 영원하다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불꽃소리로 인해
다른 생명체가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불꽃놀이로
인해 발생한 재들이 하늘을 떠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그 위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정말 충격인 것 같네요.
어쩌면 지나치게 반짝거림을 바라보는 건
위험하다는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사진이 멋지네요! 동물과 환경
둘다 중요한 요소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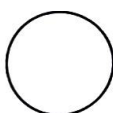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사진이 정말 이쁘네요? 잘보고
갑니당

김한나(경영학과) 불꽃놀이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지만 가까이에 있으면 소리와 잔재들이
장난아닌거 같아요 청각이 예민한 동물들이
불꽃놀이로 이러한 피해를 겪게 되는지 몰랐는데

다인님 글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동물과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사진이 예쁜데,, 그에
반해서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밝은 별 대신해서 저 쪽쪽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치 대체제를 찾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불꽃놀이에
놀라서 사망했다니... 속상한 기사네요 다인님
말대로 불꽃놀이보다는 드론쇼, 레이저쇼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05/25
thursday, pm 11:52 | 9월음
이민재 (경제학과)

#14일차

반짝반짝 굉장히 밝은 느낌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다. 반짝반짝 빛나다에서 절반만
떼어내서 반짝빛나다라고 하면 잠깐 밝게
빛났다는 뜻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반짝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반짝 거리는 것들은
많지만 그 빛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빛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야한다. 태양도 빛을 내려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입자들이 충돌하며 빛을 내뿜는다.
글을 쓰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인것 같다.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하며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며 그 충돌은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빛이 나면 좋겠지만 그
순간 빛은 사라진다. 오랫동안에 걸쳐 빛을
내는 이들을 보면 우리 은하 밖 별들과 비슷한
것 같다. 그 별들은 결국 사라지더라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고
사라져간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경이롭고 그 어떤 광경보다 격렬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 주변에도 빛나는 순간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해볼 수 있다.
그들의 아름다운 빛을 언젠가 내 눈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신을 빛낸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내 속에서 뜨거운 느낌이 들며
주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수억광년
떨어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달려온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비록 앞은 캄캄하지만 머나먼 어딘가의 나를
기다릴 무언가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모습
말이다. 내가 스타트업에 끌리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어코 리스크를
받아드리겠다는 그 마음. 두려움이 생기지만
마음 한켠에 미뤄두는 용기 그 용기를 나는
높게 평가한다. 축제 기간 중 창업 설명회에
참석했었다. 창업센터장님이셨는데 강원도
지역창업을 설명해주시면서 그 용기를
느꼈고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 강원도
창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그 강연은 내 마음에 불을 짚혔고
나도 한 번 시도해보려한다



8



5

심지범 (경영학과)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그런 순간을 통해 영감과 용기를
얻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순간은
지나치기 쉽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보고가용
이유림(경영학과) 힘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반짝거림에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민재님 글을 보니까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 강연 꼭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5

thursday, pm 11:57 | 10월음
김유진

#14일차

반짝반짝한 것. 보석, 천체, 전구, 연예인...
반짝반짝한 것을 생각하니 저번주에 봤던
아이돌들이 생각난다. 유튜브, TV 등 여러
미디어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들은 정말 반짝였다.
자신들이 잘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름답게 꾸미고 무대에 오른뒤 재능을
뽐내는 행위가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반짝한 빛이 있다면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유튜브에 Cold
play라는 밴드에 viva la vida라는 노래의
콘서트 영상 댓글 중에 '이리도 많은 팬들
앞에서 이리도 큰 무대에 서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연예인은 저 무대를 내려가면
허탈함과 공허함이 덮칠 것 같다.'는 댓글을
봤다. 그 댓글을 읽고 난 한 번도 저런 무대에
서보진 못했지만 연예인들의 공허함을
어느정도 상상할수 있었다.

나는 내가 아끼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었다. 그 이를 위로해주지 못했고 안아주지
못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상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듯하다. 많은
이들이 그의 기일과 생일에 그를 기억하지만
사실 아직도 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의
노래를 듣고 그가 오래 진행했던 라디오를
듣고 영상을 보면 아직도 그와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공기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도움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 7 💬 5

심지범 (경영학과) 다른 한사람을 떠나 보내지
않기 위해 저도 노력해야 할꺼 같습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잘보고 가요 !!

주재형(청각학과) 마음가짐과 노력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유진님의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아끼는 사람을 보내는건 마음
아픈일이죠 잘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내 주변 힘든 사람이
힘든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보다 무력하게
느껴지는 건 없더라구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26

friday, am 12:18 | 27월음
김양선

#1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보석을,
그리고 사람들을 보거나 만나왔음을 새삼
느꼈네요. 인공적으로 빛을 내는 것들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글을 꾸준히
올리고 학우들의 글에 소중한 댓글을 다는
여러분 한명한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이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빛을 내며 지냈을 우리 챌린저들
수고했어요.

😊 15 💬 1

주재형(청각학과) 내일이 벌써 마지막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2023/05/26

friday, am 7:51 | 30원음
김양선

#15일차 키워드 : 마침표

오늘은 드디어 3주간의 매일 글쓰기를
'마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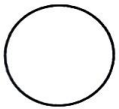
날입니다. 문장의 끝에 쓰는 마침표, 하지만
어떤 일이나 관계를 끝맺을 때도 쓰곤 하는
마침표. 마침표를 잘 찍어야 다음 문장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침'과 '마침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14



0



2023/05/26

friday, am 9:09 | 21원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15일차 #마침표

마침표는 새로운 시작이다.

무엇인가에 '마침표'를 찍으면
한 문장이 끝났다. 또는 일정, 여정, 학기가
끝난 것에
초점을 두지만 나는 그 다음에 올 내용 또는
경험을
설렘없이 만들었고 맞이했다.

휴학하는 기간 일을 했다.
일을 하다가 끝날 때에 다다를 때마다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찾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부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쉬는 것은 전무했다.

어느 순간 마침표의 감정을 또는 심을 느끼기
보단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1학기가 1달도 남지 않았을 땐
여름방학엔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바로 이어서 할 일을 만들었다.

나에게 마침표는 또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작점을 알리는 표식처럼 느껴진다.

이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이 잠시 그 순간을
느꼈으면 한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뿌듯함, 스스로에게 응원,
토닥임,
칭찬을 충분히 느끼고 넘어갔으면 한다.

그 잠시의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 감정을,
경험을 정리하고
충분히 쉬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마침표를
찍기 위한
힘을 스스로가 키우기 위해.

여러분은 마침표를 찍고 충분히 감정을,
경험을 정리하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3주차 저희 해냈습니다!!
앞으로의 마침표 이후를 응원할게요!!
감사해요



14



13

심지범 (경영학과) 마침표는 또 다른 시작인것을
두려워 말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마침표를 찍고
쉽없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여행을
한다거나 문화 생활을 즐긴다거나! 머리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상민님의 마침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서원준 (중국어학과) 수고했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마침표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작점이라는 게 참 공감합니다!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잠시 마침표를 찍는 과정을 돌아보는 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재정비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마침표는 쉼표와 다를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정말 멋진 글이네요! 마침표를 통해 한 장의 문장이 끝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감정과 경험을 담아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유를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15일동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까야 해냈네요 저희가 !!! 3주동안 애쓰셨어요 :)

김상민 생명과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우리 해냈어요!!! 지은님 축하드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3주라는 시간이 마냥 길게만 느껴져서 처음에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끈기가 없는 편은 아니지만 이 챌린지를 시작한 시기가 하필 팀플이 가장 몰려있을 때라 제 자신이 중간에 포기할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벌써 끝이라고 하니 그동안의 제가 기특하면서도 아쉽네요 ㅎㅎ 상민님의 글처럼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함으로 우리 지금 보다 더 나아가봐요 ㅎㅎ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마지막 날의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3주간의 라이팅 챌린지도 마침을 찍게 되었네요 상민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마침표를 찍고 상민님이랑 비슷하게 계속 할 일들이 있었던거 같아요 쉼을 느끼기 보다 다음 일들을 맞이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일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 글을 통해 되돌아 보게 되네요 라이팅 챌린지 3주차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상민님의 마침표 이후에 새로운 일들을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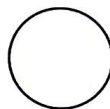
배성준(경영학과) 마침표가 끝나고 다음 시작을 바로 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어떨때는 잠깐의 쉼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주지요!

3주동안 글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나에게 마침표는 또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작점을 알리는 표식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 정말 공감 되네요. 끊임 없이 다음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민님 말대로 나 자신이 마침표를 무사히 찍었다는 것에 더 격려하는 자세가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2023/05/26

friday, am 9:23 | 19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5일차 #마침표

4학년에 처음 신청해본 북클럽과 라이팅 챌린지. 신청할 때만해도 매일 어떻게 글을 쓰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특히 나는 게으름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시간만 날리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결국 마침표를 이 글로 찍게 되었다.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꿔보자면,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침 9시에 주제를 읽고 소재가 생각날 때까지 고민에 빠졌고 글을 쓰는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해야 할 것이 있어도 미뤄두고 글부터 썼다. 3주차가 다 되어 갈 땐 아쉽다는 생각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은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을까. 글을

쓰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도망쳐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주는 것 같다.
라이팅 챌린지의 마침표는 내게 많은
느낌표를 주었다.



12



13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경험과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였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김상민 생명과학과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꾼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고 가요!

심지범 (경영학과) 꾸준히 하는것이 중요하죠! 글
잘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참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 함께 글을 올려주는 것도, 의견을
나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즐겁게 같이
참여해서 좋았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3주가 참 빨리 흐른 것 같은데
바쁜 삶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게
느껴집니다:) 많은 느낌표를 주었더니 멋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3주동안의 챌린지가 사빈님께
긍정적인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되어
다행입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사빈님도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여정을 이어가길 바라요.
사빈님의 미래에도 많은 마침표와 느낌표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매일 사빈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사빈님처럼 처음에는
막연함 때문에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글을 쓸수록 제 자신이 점점 성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글쓰기 실력을
넘어서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챌린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었네요 ㅎㅎ
챌린지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많다는 것!!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니 사빈님도 지금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랄게요 ㅎㅎ 3주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다빈(경영학과) 매일 글을 쓰면 쓸 수록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마침표를 찍길 기원합니다
고생많으셨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마지막 학년에 참여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매일 매일 글을 쓰는게 안쓰다 시작할려니
쉽지 않았지만 많은 학우님들의 글을 읽다 보니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거 같아요! 저도 수업 보다
소재를 생각해서 글쓰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둔 3주
였습니다 라이팅 챌린지 마침표가 주는 감정들이
소중하네요 ㅎㅎ 사빈님도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성준(경영학과) 혁 저도 3주동안 매일 글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완주하셨다니 완전
축하드려요!!

김노연(사회학과) 저도 글을 쓸 때 온전히 제
자신으로 있는 느낌을 받아서 좋은 것 같아요.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05/26

friday, am 9:36 | 17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15일차 #마침표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챌린지 대장정의 막을
내릴 때가 왔다. 작년부터 이어서 해온 터라
편하고 익숙하고 글도 읽고, 거리낌 없이
댓글도 달고! 인사도 자주 하고 정말
다양하게 챌린지가 변화를 일으켰다. 사실
중간에 축제도 있고, 과제도 워낙에 많은 터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컸는데, 의미없는
고민이었다.

뭔가 후련하다. 못할 줄 알았던 완주도 하고,
이제 다음주부터는 정말 시험공부를
해야하고, 다양한 글솜씨를 이젠 볼 수 없고
...!

그래도 곧 종강이 다가오니 어서 마음 다시
잡고 공부에 집중해야겠다. 우리의 마침표는
지금이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챌린지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얻었기에 난 당당히 마침표를
시작으로 생각하며 더 노력해야겠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시험 잘보시고
, 파이팅이에요

😊 13 💬 11

김상민 생명과학과 원준님도 화이팅입니다!!!

3주동안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심지범 (경영학과) 시험 잘 보시길 바라며 우리
다시 만나길 바라며 글 잘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원준님도 정말 꾸준히
쓰시느냐 수고 많으셨어요!! 약간의 내적인
친밀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찌이리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인지,, 다가오는 시험이 정말
서러울 뿐이네요 :)

김시현(러시아학과) 챌린지에 마침표를 찍으니
종강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네요
시험기간 화이팅입니다!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번 챌린지에 이어 2번째로
같이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3주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챌린지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 도달했죠 우리
모두가요. 작년부터 이어온 챌린지로 인해 편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글을 읽었지만 그 과정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듯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침표의 또 다른 말은
새로운 시작 같아요! 3주동안 애쓰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원준님처럼 저도 이
챌린지를 통해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많이 쓰고
열정적으로 할 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제가 글만
썼다면 그런 느낌은 커녕 중간에 포기했겠지만

원준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 것 같네요 ㅎㅎ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만 원준님의 앞 날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이다빈(경영학과) 막막하기만 했던 첫째날과는
달리,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가니 술술 나의
생각들을 적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정말 실 없는 고민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완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3주전을 생각하면 원준님 말처럼 의미없는
고민이었네요:) 많은 학우분들과 하나의 키워드로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4학년에 참여 하는거라 미리 알았을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하네요 라이팅
챌린지는 마침표를 찍지만 새로운 시작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당당히 찍은 마침표를
스타트로 앞으로도 쪽쪽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화이팅하세요



김노연(사회학과) 시험 파이팅, 과제도 파이팅!!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원준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



2023/05/26

friday, am 10:00 | 23원음

심지범 (경영학과)

#15일차 #마침표 #끝 #새로운시작 #.
 오늘 라이팅 챌린지 마지막 해시태그는
 마침표 .인데요!
 5월 8일 부터 시작된 라이팅 챌린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러 갔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울컥 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챌린지를 빠짐없이 참여하고
 학우 여러분과 댓글로 소통하고 또한 나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는 이 3주 프로젝트가 뜻 깊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요번 년도 편입생으로 들어온 학생인데,
 그래서 더 많은걸 하고 싶었고 더 많은걸
 배우고 싶었다.
 한림대 BECOME 사이트가 나의 진로와
 능력들을 키우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된거
 같다. 3월부터 쉬지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거라면 빠짐없이 참여했다.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이었고 남은 2년의
 시간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도 하다. 이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서.
 오늘 글이 다소 진지한 글인거 같다.
 마지막이라서 그런거 일 수도 있는거 같다!
 우리 밴드 79명의 학우 분들이 라이팅
 챌린지를 참여 함으로써 많은걸 얻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이것을 추진하고 만드신 **김양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고 싶다.
 다음 학기에도 진행이 된다면 꼭 참여 할
 예정이다!
 마침표는 또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설레게만 한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나의 도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설레이게만 하는거 같다.
 생이 있다면 사가 있는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고

시작이 있다면 끝이라는것이 세상의
 이치인거 같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것에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하며 두려워 하지 않을라면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준비된 자만이 두려움을 배척 할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

끝으로 오늘이 라이팅 챌린지 마지막 날이니
 속상하기도 하도 때론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인연이 다시 된다면 다음
 라이팅 챌린지에서 만나 뵈 수 있도록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네요.

이만 글을 마치고 이제 남은 기간동안 기말
 시험 잘 준비 하시길 바라며, 라이팅 챌린지
 3주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21

김수민(언어병리학과) 3주간 함께 정말 꾸준히
 글도 쓰시고 댓글 남기시는 거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깐요! 이렇게 꾸준히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것을 항상 시도하시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분명히 성장해 나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감사합니다!

김상민 생명과학과 편입생활 응원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김상민 생명과학과 편입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도 이 챌린지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또하나의 단단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김시현(러시아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ㅎㅎ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앞으로 있을 학교 생활도 항상
 지범님의 글처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이유림(경영학과) 같은
학과로써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번 봐요~~

주재형(청각학과) 라이팅 챌린지 3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날이 와버렸네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어요. 이 챌린지를
통해 참여하고 학우들과 소통하며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지범님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주재형(청각학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정말 멋있습니다 그동안 글
잘봤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서원준 (중국학과) 원준님
글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남은 2년의 대학생활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3주동안
애쓰셨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지범님처럼 이
챌린지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글쓰는 모임이 아니라 글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서로를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지범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챌린지를 통해
전보다 더 성장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이
챌린지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쉬ვი만 하네요
ㅎㅎ 하지만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시작해요. 저희의 인연은 여기에서
끝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지범님의 길로 다시
시작함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길 응원할게요 ㅎㅎ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빈(경영학과) 3주 동안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시간 참 빠른거 같아요! 벌써
3주가 지나고 라이팅 챌린지 마침표를 기말고사가

더욱 가까워 진것을 느끼네요.. ㅎㅎ 지범님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범님의 글을 읽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세요 도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들로 대학생활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편입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심지범 (경영학과) 김소은(미디어스쿨)
감사합니다



2023/05/26

friday, am 10:37 | 20원음

김시현(러시아학과)

#15일차 #마침표

마침표라는 키워드를 보니 이번 챌린지의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것이 실감 난다. 시간이
평상시엔 참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꼈는데
챌린지 기간동안은 빨리 갔다. 처음에 이
챌린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다. 복수 전공 수업에서의
글 쓰는 과제도 어려워 겨우 제출하고 글을
자주 써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잘 쓸
자신이 없었는데 참가자들도 많으니 더욱
막막했다. 다른 챌린저 분들이 쓴 글을 보고
다양한 글 쓰는 법을 배우고, 무조건 잘
써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동기부여와 완주를
목표로 참여했다.

챌린지가 시작된 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의 여러 경험과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써볼까 생각하는 시간이 깊어지는 것도 나에겐 큰 의미가 있었다. 글을 썼을 때 다른 챌린저 분들이 공감의 반응이나 댓글을 달아주면 행복하고 감사했다. 긍정적인 댓글들을 읽으며 더 힘이 났던 것 같다. 가끔은 댓글에 잘 읽었다고 써져있지만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서 쓴소리를 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의 위력은 꽤 컸다. 다른 분들의 글에 댓글 많이 달고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날들도 많았어서 미안하고 아쉬웠다.

이 챌린지엔 시상이 있지만 누가 받아도 다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혹시나 비록 상을 못받더라도 우리가 이 챌린지를 완주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나 생각의 어딘가에 알게모르게 상을 줬을 것이다.

다음에 이 챌린지가 열린다면 한번 더 참여해보고싶다.

이렇게 나의 첫번째 라이팅 챌린지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 마침표는 다음 나의 목표의 마침표를 찍는데 도움이 되어 하나의 인생이라는 선을 만들 것 이다.

챌린저 여러분들의 챌린지 마침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12 💬 12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시현님! 항상 멋지게 댓글 달아주시고 따뜻한 글을 쓰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사랑과 그리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남아요. 저도 사실 글을 잘 못써서,, "꾸준히 완주를 하자" 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가 글이 뒤죽박죽이기도 합니다..) 3주란 시간이 참 처음에는

길어보였는데 이제 와 보니 엄청..? 은 아니지만 ,, 짧게 느껴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챌린지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완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챌린지 완주를 축하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라면 즐겁게 할 수 있죠

심지범(경영학과) 여기 모든 사람이 박수받아 마땅하죠!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같은 단어를 보고도 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기에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시현님의 챌린지 마침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시현님의 글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글이었어요. 챌린지 완주에 축하드립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챌린지 완주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음 학기에 또 챌린지가 진행된다면 시현님의 글이 꼭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3주동안 애쓰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시현님처럼 하나의 키워드를 텅해서도 정말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직접 글을 씀으로써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시현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고 위로를 받았네요 ㅎㅎ 비록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지만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니 앞으로 펼쳐질 시현님의 시작이 잘 되길 응원할게요 ㅎㅎ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다빈(경영학과) 눈 깜빡한 사이에 챌린지의 마지막 날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챌린지를 통해 글 쓰는 것에 대한 막막함도 덜을 수 있었구요 시현님도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참가자가 많아서 저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ㅎㅎ 그런데 다른 학우분들의 글을 읽다 보니 너무 재미있고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쓰게 된거 같네요! 시현님의 댓글도 너무 감사했어요:) 시상은 정말 누가 받아도 다 잘하신거 같아요! 완주한거 자체가 멋진거 같아요 첫번째 라이팅 챌린지의 마침표를 찍으신거 축하드려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종강까지 화이팅 해봐요!!



박혜윤(사회학과) 글을 읽으니 챌린지 완주 자체로 스스로에게 상을 받은 기분이 들어요 수고많으셨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상을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 챌린지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지요!! 시현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05/26

friday, am 10:57 | 19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5일차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는 특별한 종족인 호빗이 등장한다. 그들 중 하나인 프로도는 회색의 마법사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여정에 휘말리고 만다. 작중에서 호빗은 주인공을 말할 정도로 특별하진 않고 힘이 세지도 않다. 그러나 술한 영웅들 사이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나는 그의 여정이 끝나면 호빗들이 영토나 커다란 보물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았다.

이제 우리도 라이팅 챌린지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글이라고 한들 독자가 없으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챌린지가 끝나면 다시 씩씩한 집필이 시작되겠지만 매번 제 글을 읽고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빗들처럼 여정을 마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소한 선행과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갑니다.

우리에게겐 즐길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많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 걱정 마라, 늘 비어있는 마지막 페이지는 당신을 기다린다.

😊 13 💬 10

김시현(러시아학과)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독자가 없다면 힘이 없다는 게 크게 와닿아요 읽어주는 사람이 많던 적던 누군가 읽어줬기에 힘을 내며 챌린지를 완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멋진 이야기들을 그려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같이 달려온 학우들 덕에 제 글이 가치있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좋네요 잘 읽었습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충민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하고 싶은 일과 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바라요.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비어있으며, 충민님이 쓰는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문구 여운 남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지막 문단을 읽으니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ㅎㅎ 3주간 애쓰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충민님의 인생에도 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모여 가치있는 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챌린지가 그 책 속의 한 챕터로서 자리잡았으면 좋겠네요 ㅎㅎ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충민님의 길이 늘 빛나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름답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이다빈(경영학과) 혼자자 아니러 같이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살아요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하나의 이야기가 또다시 막을 내렸네요.
끝은 즉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3주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ㅎㅎ

김한나(경영학과)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았다는 문장이 인상깊네요!)
저희도 라이팅 챌린지를 끝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또는 치열하게 지내겠죠 충민님의 글들
3주동안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너무
좋네요! 저희는 한창 즐기고 하고 싶은게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이니깐요 ㅎㅎ 충민님도 멋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늘 비어있는 마지막 페이지 소중하게
채워나가보겠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나는 그의 여정이 끝나면
호빗들이 영토나 커다란 보물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았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해야할 일을 하며 사는 건 어쩌면 가장 멋진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커다란 보물 아닐까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05/26

friday, am 11:05 | 17읽음
김용후(법학과)

#15일차

#마침표

"내가 심은 꽃씨가 / 처음으로 꽃을 피우던
날의 / 그 고운 설레임으로 // 며칠을 앓고 난
후 / 창문을 열고 /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의 /
그 눈부신 감동으로 // 비온 뒤의 햇빛 속에 /
나무들이 들려주는 / 그 깨끗한 목소리로 //
별 것 아닌 일로 / 마음이空空 열어 붙었던 /

친구와 오랜만에 화해한 후의 / 그 티없는
웃음으로 // 나는 항상 /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 못 견디게 힘든 때에도 /
다시 기뻐하고 / 다시 시작하여 / 끝내는
꽃씨를 담은 마침표 찍힌 / 한통의 아름다운
편지로 / 매일을 살고 싶다" -이해인,
<꽃씨를 담은 마침표처럼>

꽃씨는 때가 되면 그 속에 지닌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존재이다.
<꽃씨를 담은 마침표처럼>은 꽃씨가 꽃을
피웠을 때의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긍정의 자세가 잘 드러난
시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아픔, 비, 다툼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하지만
시의 화자는 시련 속에서도 푸른 하늘과 햇빛,
맑은 소리와 티없는 웃음을 발견하고,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자 한다. 긍정적 자세
속에서 삶의 매일은 한통의 아름다운 편지가
된다. 편지에 찍힌 마침표는 꽃을 피워낼
희망을 지닌 꽃씨와 닮아 있다. 삶의 매일은
마침표로 마무리 되지만, 그 안에 내일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작가 이해인 수녀는 2008년 대장암 진단을
받은 이래 병마와 맞서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투병 중에 우울감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아팠던 경험담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모습에서 시에서 드러나는 긍정과 사랑의
자세를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3주간의 도전을 마치며, 그 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된다. 글을 쓰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
3주간의 도전은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을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꽃씨'와도 같은 경험을 얻어 간다.
정말 좋은 글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고, 부족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학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3주간의 도전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 본다.

😊 13 💬 7

이유림(경영학과) 여운이 남는 시네요 3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다양하고 유익한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글도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용후님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용후님의 미래의 여정에서도 성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해요. 챌린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영감을 받았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용후님 밴드 프로필 사진이 인상깊어서 그런지 매일 밴드에 글 쓸 때마다 용후님 글이 올라왔나 찾아보곤 했어요 ㅎㅎ 3주동안 애쓰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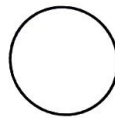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용후님의 글 중 매일은 마침표로 마무리 되나 그 속에는 내일의 희망이 차있다는 것에 공감이 가네요.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챌린지동안 용후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며 글쓰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많이 어렵네요 ㅎㅎ 그럼에도 앞으로 펼쳐질 용후님의 새로운 시작이 용후님을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고 밝게 빛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이다빈(경영학과) 삶의 매일은 마침표로 마무리 되지만, 그 안에 내일의 희망을 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희망을 가지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긍정의 마음이 가득한 시 잘 읽었습니다! 용후님 말처럼 사람은 매일의 마침표로 마무리 되지만 그 안에 내일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라는 문장이 인상 깊네요:) 아픔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작가님이 대단하세요!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서 3주동안 아주 값진 시간을 보냈거

같아요 용후님의 글들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2023/05/26

friday, pm 12:18 | 22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5일차 #마침표

길고도 짧았던 3주간의 챌린지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마음을 가진 게 엇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끝이라는 말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3주라는 시간동안 오늘까지 포함해 1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면서 내가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서 삶의 다양한 가치를 접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의 해결책을 찾거나 위로도 받았다.

챌린지를 진행했던 이 3주가 나에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 아무것도 없던 내 대학생활에 한 줄기의 빛처럼 날 비춰주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나에게 큰 박수를 통해 칭찬해주고 싶다. 이 프로젝트를 눈여겨 봐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끝까지 성실히 임해줘서 고맙다고. 아마 나를 포함한 모두가 챌린지를 통해 본인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거다.

이젠 더 앞으로 나갈 차례다.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를 계기로 스스로의
가치와 성공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모두가 성공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으면 좋겠다. 교수님을
포함한 챌린지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다.

😊 14 💬 11

심지범 (경영학과) 우리 인생은 찬란할것입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학우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을 보며 많은 이해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도전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하영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정성이 담긴 댓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하영님 글
인상깊게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서원준 (중국학과) 하영님도 수고많으셨어요 !!!

김시현(러시아학과) 항상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챌린지를
통해 성장한 기분이 들어요

이다빈(경영학과) 3주동안 글을 썼던 키워드들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영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3주동안 꾸준히 완주하신거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걸 얻고 가는거 같아요
챌린지를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더 나아갈 일만
남았네요 하영님의 글을 잘 읽고 항상 달아주는
댓글들도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소통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아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성공의 마침표를 찍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이 3주간의 챌린지는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죠. 대학생활에 작은

활력이 되었고, 저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15개의 키워드라고 하니까 꽤
많게 느껴지네요 정말 하나의 단어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3주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성공의 마침표... 성공의 시작도
아직 저는 멀게만 느껴지네요!! 저희 모두
마침표까지 달려가기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3:15 | 22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5일차 #마침표

마침표의 사전적 정의는 문장 부호의
하나이고 ‘.’의 이름이다. 문장을
끝마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나는 삶의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지만.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아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도
생각한다. 사람들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해도 죽지 않은 이상 인생의
마침표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도전하고
시도하면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 Writing Challenge 3주도 오늘이
마지막일수도 있지만 다음 기회가 있는한
오늘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Writing Challenge 3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마침표는 쉼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다시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마침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1 💬 11

심지범 (경영학과) 다시 시작 될수 있다는점!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마침표는 쉼표라는
유빈님의 표현이 정말 예쁘네요 ㅎㅎ 저도
유빈님처럼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 챌린지를 통해서 단순히
글쓰기를 넘어 인생의 가르침과 위로울 얻을 수
있었기에 보내긴 아쉽지만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보자구요 ㅎㅎ 유빈님이 맞이할 그
시작이 무엇보다 빛나는 길이 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이다빈(경영학과) 마침표는 마무리를 의미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과 잠시 휴식을 줄 수
있는 쉼표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니까요.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마침표를 찍는 건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라는 부분이 공감합니다!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앞으로도 기회있으면
잊지말고 꼭 신청해요 파이팅입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2학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침표는 다시 시작의 지점이
될 것이겠죠! 자신을 다시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마침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요.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정말 죽지 않는 이상 인생의
마침표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유빈님
말처럼 다시 도전하고 시도하면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되는 것처럼요! 3주동안 챌린지 완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빈님의 새로운
시작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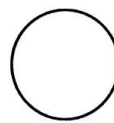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3주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며 이정표가 되는 마침표 이야기

인상적이네요 라이팅 챌린지는 하나의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우님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김노연(사회학과) 마침표가 아닌 쉼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믿음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또 쉼표가 되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또 다른 글에서 만나기를
바라요:) 3주간 수고하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3:37 | 18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5일차#라이팅챌린지#마침표

3주, 15번의 키워드와 글, 2023년.5월의
마지막 금요일의 마침표는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찍을 수 있다. 다이어리에 그려둔
'라이팅 챌린지' 15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표
마지막에 그리고 달력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때가 생각난다.
5월 5일 어린이날 비가 추적추적 오던 오후
5시 처음 도전하는 비교과활동과 잘
사용하지 않는 네이버밴드로 글을 올리는
방법까지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하는걱정도
함께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첫째 날
키워드 '최초' 부터 마지막 날 키워드인
'마침표'까지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온전하게 처음과 끝의 마침표를 성실하고
만족하며 찍은 것 같아 뿌듯하다.

과제 말고 순수한 글쓰기를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 나지 않고, 평소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기보다 쓸 때마다 쥐어 짜서 쓴다는
느낌이 더 가깝게 들어서 고민 많이 하며
썼다. 그러나 '내가 쓴 글' 을 읽어보니 나름
잘 쓴 것 같아 자신감이 조금 올라가기도
했다. 늘어나는 좋아요와 정성어린 댓글을 볼
때도 뿌듯하고 '라이팅 챌린지'를 같이
도전하는 분들의 열정적인 참여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하고 싶고 무기력으로 마음속으로만 발버둥치며 괴로워 하던 나의 활력소가 되어준 도전이 소중한 3주였다. 앞으로도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을 하자고 다짐하며 마침표를 찍고 싶다.

😊 12 💬 9

심지범 (경영학과)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이 아주 중요한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유정님처럼 3주라는 기간이 참 소중한거 같아요. 글쓰기의 역량을 기르고자 시작했던 챌린지가 어느새 저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게 되었고 가끔은 위로도 받게 되었네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해주신 유정님과 다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네요 ㅎㅎ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유정님의 길이 아름답게 빛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의 미래도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3주동안 하영님도 수고많으셨어요.



이다빈(경영학과) 3주동안 간략한 글이라도 계속 해서 써가니 뿌듯하더라고요. 함께 달려온 학우들이 있었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나고 마지막 키워드를 작성 하는 날이네요:) 저도 다이어리에 체크하면서 꾸준히 쓰려고 노력했어요! 다이어리 채우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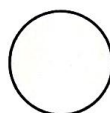
마음에도 더 열심히 쓴 거 같네요 가장 온전하게 처음과 끝의 마침표를 성실하고 만족하면서 찍으셨다니 축하드려요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했어요! 챌린지가 유정님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줬네요:) 앞으로 새로 시작할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상승하고, 다른 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받으며 더욱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셨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김노연(사회학과) 간략하지만 꾸준히 글을 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그동안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유정님에게는 아마 이 챌린지의 마침이 글을 쓰는 새로운 시작일 것 같아요. 저도 저번학기에 해보고 조금씩 아침 일기를 쓰기시작했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정님의 새로운 글쓰기를 응원드립니다:)



2023/05/26

friday, pm 4:10 | 20원음

김노연(사회학과)

#15일차 #마침표

마침표. 3주 동안 15번 반복된 매일의 글쓰기. 내가 이 챌린지를 시작한 이유는 물론 상금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애정이 있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니까. 또한 매일 글을 쓰면 글쓰기 실력이 조금이라고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긴

15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느는 게 더 이상할지도 모른다.)

15번 글쓰기를 하면서 버겁거나 힘든 점은 없었다. 주말에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었던 것이 내가 이 챌린지에 전부 출석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아쉬운 점은, 할 일이 많아서 처음 2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가끔씩 내가 쓴 글의 위 아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한 키워드를 가지고도 각기 다른 생각이 나오니, 흥미롭기도 했다.

만약 내년이나 다음 학기에 이 챌린지가 열린다면, 다시 한 번 신청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 미래의 나는, 미래의 챌린지에서 어떤 글을 쓰게 될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구요. 하하.

또한 매일 아침 8시에 키워드를 올려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양선 교수님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17



12

심지범 (경영학과) 우리 다시 한번 만나길
기원하며!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3주동안 글쓰기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진 않았겠지만 노연님도 저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꾸준히 달려온 것만으로도 이미
스스로가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인지 벌써 끝이라는 게 아쉽네요 ㅎㅎ
하지만 마침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펼쳐질 노연님의
길이 아름답게 빛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이다빈(경영학과) 주말을 제외하고 3주동안 글을
쓰는 것이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버거운 것도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키워드와 그 키워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고 글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시켜준 것
같아요. 노연님도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주말 제외하고 글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공감되요

15일이 다 지났다는것도 실감이 안나고요

3주 동안 수고 하셨어요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3주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어요
같이 달릴수있어 좋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배성준(경영학과) 저도 매일마다 글쓰러 왔는데
올리신 글은 거의 다 읽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댓글을 못 남긴게 아쉽네요 ㅎㅎ

만약 담에 또 챌린지가 열린다면 재밌는 글 많이
써보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글 올리신 노연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그동안 수고많으셨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주말까지 진행했다면
버거웠을거 같은데 노연님 말처럼 평일에 15번
글쓰기를 한 것이 완주까지 가능하게 해준거
같아요:) 요번 챌린지의 마침표를 시작으로 다음에
더욱 성장된 모습으로 글을 쓰고 계시길 노연님이
그려지네요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미래의 챌린지에 다시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기대하는 모습이 멋있어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마음 또한 글에서 잘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수고 하셨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 노연님의 글을 또 읽고 싶네요 :) 3주동안 애
쓰셨습니다 :)

김시현(러시아학과) 주말에는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 평일마다 열심히 글쓰기를 할수있던 힘을 얻게 했다는게 공감갑니다! 3주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챌린지에서 또 만나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또 적절한 휴식이 기대감을 갖게 한것같아요 .. 어쨌면 다음주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3/05/26

friday, pm 4:25 | 21views
김유진

#15일차

문장에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문자의 끝인 마침표가 있는 법이죠. 이것은 문장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시작이 있듯이 마침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과 졸업, 연인과의 사랑의 시작과 끝, 우정에서의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인생이라는 양장본에는 다양한 문장이 쓰여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아쉽고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지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침표들이 모여서 다음 문단을 만들고 그 문단들이 모여서 한 챕터를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마무리만 한다면 자기자신이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울진 몰라도 다른 사람 혹은 나중에 일단 완성했던 무언가를 보면 아름다워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붓으로 칠한 캔버스, 키보드로 작성한 짧은 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 같은 것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문장들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이 챕터를 다시 펼쳐봤을 때 만족할 삶을 살고 싶습니다.



14



10

심지범 (경영학과) 만족란 삶을 살수있도록 본연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진님의 인생이라는 책에 이 챌린지가 소중한 추억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3주란 시간이 이렇게나 금방 갈 줄 몰랐는데 벌써 끝이라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침표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찬란하게 펼쳐질 유진님의 길이 빛나는 순간으로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ㅎㅎ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다빈(경영학과) 어쨌면 책 만큼 마침표를 많이 찍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마침표를 찍고 있으니까요. 유진님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거예요 ㅎㅎ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우리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멋진 시작과 끝을 그리며 살고 있네요 잘읽었습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오늘 완주까지 편안하게 도착했네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빌게요!!

김한나(경영학과) 유진님 3주동안 라이팅 챌린지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장에 시작과 끝처럼 챌린지도 이렇게 끝맺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삶에는 정말 많은 시작과 끝이 있는거 같아요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제 삶을 사랑하고 문단들이 모인 챕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3주동안 진행한 챌린지도 제 인생의 챕터에 소중한게 자리 잡은거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재형(청각학과) 인생은 여러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만족스럽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아쉽게 마무리 짓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3주동안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

김노연(사회학과) "아쉽고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지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침표들이 모여서 다음 문단을 만들고 그 문단들이 모여서 한 챕터를 기록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인상 깊네요!!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지은, 미결로 보일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일종의 완결이고, 그런 마침표가 모여서 문단을 만들고 한 인생 전체가 될테니까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좀 더 마무리를 하는 것 에 목표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05/26
friday, pm 5:37 | 21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15일차 #마침표

마침표는 있으면서, 왜 시작표는 없는걸까?

마치는 건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왜 시작을 알리는표시는 없는걸까.

우리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우리의 첫 만남은 언제였을까,

너무나도 아스라이 스며들었기에
우리는 언제 시작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겠지.

마칠 땐 마치 실로 가위를 자르듯
뚝-
하고 끝나버리는데,

시작은 정말 조용하고 잔잔하게 일어나니까.

😊 14 💬 10

이유림(경영학과) 시작표라는 생각은 정말 신박하네용!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시작은 조용하고 잔잔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까지 여운 남게 잘보고 가요! 잘 읽었습니다당

주재형(청각학과) 시작은 종종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지만, 마침표가 있어서인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시작표와 마침표, 사랑의 시작과 끝에 대한 공통점이네요:) 시작은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마침은 끝남을 증명하듯이 오는거 같아요!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영님의 글을 3주동안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정말 마침표는 단칼에 잘라내는 듯 하는데 시작은 서서히 물드는 느낌이 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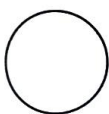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인연의 시작은 조용하고 잔잔한데 끝은 딱 끝나버린다는 표현이 인상깊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왠지 연인들의 이별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끝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시작의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종결 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장의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표가 없는 이유는 마침표가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닌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즉, 마침표가 시작표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인영님이 쓰신 조용하고 잔잔한 시작이라는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늘 시작은 시골벽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무 망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니까요 ㅎㅎ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그리고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2023/05/26

friday, pm 5:52 | 16월음
배성준(경영학과)

#15일차 #마침표

누군가는 마침표를 문장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한다. 마침표에 다다르는 길은 험난하고
고달프지만 마침표 너머에 가면 환한 공백이
나를 반겨주니까. 동시에 마침표는 문장의
시작이다. 마침표의 끝에는 문장이 오고 그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가 자리잡고 다시
문장이 시작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처음에는 가볍게 열심히 한 발짝씩
단어를 내딛었지만 글을 쓰다 보면 글감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사색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쉬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문장의 끝까지 가는 도중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고난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문장을 나아가는 도중에 길은
여러가지다. 글을 쓰는 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무한가지 갈래의 길이 나뉘지고 그 끝이
꼭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궁금증에 대한
물음표나 창의적 영감에 대한 느낌표일 수도
있다.
모두가 마침표 끝까지 도착했을지는 몰라도
마침표에 내딛기 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다. 마침표 끝에
도착했거나 비록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문장을 쓰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은 경험에 남아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글에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이다.
"마침표"

이 마침표를 기점으로 라이팅 챌린지를
열심히 도전한 사람들을 축하하는 바이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않고 또 다른 문장에서 새로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싶다.



13



10

심지범(경영학과) 새로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당!!!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또 다른 마침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그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영감을 받았습니당!!
3주 동안 챌린지 참여하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챌린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달려온 모두가 멋진거 같아요:) 3주동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되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던거 같아요 성준님도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침표를 기준으로 더욱
새롭고 다양한 앞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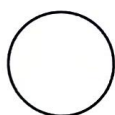
김노연(사회학과) "글을 쓰는 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무한가지 갈래의 길이 나뉘지고 그 끝이 꼭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궁금증에 대한 물음표나
창의적 영감에 대한 느낌표일 수도 있다." 그 끝이
꼭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궁금증에 대한
물음표일 수도 있다는 말이 인상깊네요. 저도
실제로 챌린지를 해오면서 글의 끝이 마침표보다는

물음표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마침을 하지만 어쩌면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글을 시작하는 시작점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는 저번학기에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또 다른
형태의 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유정(심리학과) 3주간의 열심히 한 도전을
마무리 짓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성준님 글처럼 마침표는
끝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새 벌써 오늘 마침표를 찍게 되었네요 ㅎㅎ
성준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지만 동시에 시작될 성준님의
앞 날이 빛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종착역은 출발역과 같다는
노래가사가 떠오르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5:56 | 20원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5일차 #마침표

이것은 최초이자 최후가 될 나의 원고. 내
오랜 집념과 원망의 산물은, 그러니까.
꽃과 선물. 그리고 라면 한 박스로
이루어져있었다.

-

좋아. 물가가 많이 올랐군. 라면 한 박스가 이

가격이라니. 꽃을 살 땐 괜찮았는데, 라면을
사는 돈은 아까웠다. 작가란 존재는 얼마나
감성적인가. 집 안을 장식하는 꽃이 밥보다 더
중요했다. 원고료로 이 이상 살 수 없단
사실이 약간 허무했지만... 뭐, 괜찮나. 물건을
살 수록 마음 속 응어리가 풀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 하지만 이대로라면 시집은 살 수 없겠는
걸. 비어버린 지갑을 보며 잠깐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난 이 순간을 위해 여태까지
국가에 헌신 한거니까. 헌신한 세금의
위대함을 느끼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
도서관에 갔다.
이곳은 책들의 요람. 한권 한권이 모두의
지대한 돌봄을 받는다. 도서관 안내판 옆에
걸려 있는 책들은 모두 필독서들이었다.
누구에게나 읽혀 마땅한 책들. 무심코 눈길이
갔다.

언젠가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모두가
반할 이야기를 쓸 수 있겠지. 온 세상 사람이
내 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꿈을
꾸어보았다. ...이거 좀 좋은데.
하지만 이미 최후의 원고를 써냈기에, 그저
머릿속에만 그려 본 상상이었다. 괜찮다.
이정도로.

여름이 가고 있었다. 나의 여름은 시집 한
권과, 꽃과 선물과 라면 한박스. 그 여름에게
작게 인사했다.

안녕. 수도 없이 삽질했던 시간들. 그
순간들도 이제와 돌이켜보니 전부 추억이
되었다. 후회란 없으니, 이 도전은 이후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리라. 마음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침표를 찍으니까
후련했다.

나는 선물을 들고 그 애에게 갔다. 이 마음을
빨리 전하고 싶었다.

-

이번 3주간의 챌린지를 통해 총 15편의 초단편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약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씩 녹인 소설을 적었는데... 즐거운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도전이 끝나는게 아쉬울 정도로요.

마지막엔 모든 키워드를 모은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글을 추억하는 의미도 되고, 3주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는 의미도 될 듯 하여...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저의 글을 쓰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경험에 깊이 공감하고. 또 저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란 언제해도 참 재밌는 듯해요.

이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다들 좋은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3 💬 11

심지범 (경영학과) 와우 우리가 쓴 글들이 다 담겨져 있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마침표! 앞으로 계속 일어날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최보경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예진님도 좋은 마침표 찍길 바랄게요 남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장지은 (언론방송융합전공) 헉 모든 키워드를 담은 글을 작성하시다니...! 필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3주동안 애쓰셨습니다

주재형 (청각학과) 예진님이 좋은 마침표를 찍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가길 바라요. 모든 키워드를 모은 하나의 글이 인상적이네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시현 (러시아학과) 글쓴이님 덕분에 멋진 단편소설들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의 경험은 좋은 밑거름이 되어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거라 믿고싶어요! 3주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김노연 (사회학과) 지금까지 15개의 키워드를 모아 멋진 단편 소설을 완성하셨습니다! 새삼스럽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김한나 (경영학과) 모든 키워드를 담은 글이네요!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ㅎㅎ 챌린지가 끝나서 시원섭섭하네요 3주 동안의 추억들 잊지 못할 거 같아요,,! 예진님의 글을 3주 동안 읽을 수 있고 댓글 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챌린지 활동은 마침표지만 예진님의 앞으로의 시작들을 응원할게요



김수민 (언어병리학과) 진다 소설로 쓰시기 무척 어려우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꾸준히 말이에여 ..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 (영어영문학과) 예진님의 글을 보며 마침표를 찍으면서 느끼는 후련함이라는 게 이 챌린지를 통해 경험한 것 같네요 ㅎㅎ 처음엔 걱정으로만 가득했던 챌린지가 어느새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후련한 기분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3주동안 예진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서 제 인생이 많이 성장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ㅎㅎ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예진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이유림 (경영학과) 덕분에 저는 3주동안 멋진 15편의 소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3주동안 고생많으셨고 남은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023/05/26

friday, pm 6:18 | 26원음
박지원(사회학과)

#15일차 #마침표

_오늘의 지침을 마침. 잘가,

딸랑, "어서오세요."

"저 주문한 거 찾으러 왔는데.."

"아, 여기다가.. 성함이랑 전화번호 한 번만 적어주시겠어요?"

"네, ... 여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지금 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쳤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돈도 없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혹은 싫은지), 또 인간관계는 왜 이리 귀찮은 건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지쳤다.

광고에서 그러기를, '여보, 아버님택에 마침표 놔드려야겠어요...'
마침표? 그게 뭔데? 요즘 우리 세상에서 인기 많은 제품 중 하나이다. 어느 누구든지, 나이·성별 무관하게 나의 인생에서 마침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마침표 하나를 장만하고, 쓱 사라지다가 다시 쓱 나타나더니 전보다 자유로워 보였다고 한다. 눈빛이 자유로워졌다니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니 뭐, 그냥 건강해졌다고 한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에게 유혹 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내가! 마침! 내 발로 가게까지 방문하다니..

"고객님-오래 기다리셨죠. 주문하신 마침표 하나 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심은 누구나, 언제든지 느낄 수 있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손에 쥔 물건을 확인하였다.

'이 세상에서 마침을 내리기보단, 심을 내리세요.'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어쩌면 나의 이 지침도 마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제대로 사용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다, 마침표는 심표였다. 나의 기분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심표,

,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13 💬 9

심지범 (경영학과) 마침표는 심표 였다니! ㅎㅎ 저도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그동안 수고많으셨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3주동안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달린 우리에게 심이라는 마침표를 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재형(청각학과) 3주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과 고민을 나누어 주셨죠. 너무 수고하셨고, 좋은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마침표를 구매 할 수 있다는 소재가 신선하네요:) 마침을 내리기 보다 심을 내리라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지원님도 3주동안 챌린지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챌린지는 마침표를 찍고 심표가 기다리고 있는거 같아요!

이제 챌린저님들의 글과 댓글을 못 본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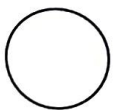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쉽게 마침표를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쉽게 할 수 없는 심이기에 더 가치있어보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마침표가 심표를 의미한다고 쓰신 지원님의 글을 보며 또 다른 시각을 배우게 되었네요. 마침표는 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잘 마무리한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ㅎㅎ 지원님도 3주동안 열심히 달려온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니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ㅎㅎ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지원님의 시작도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마침표는 어쩌면 다음으로 나아가기위한 심표일지도 모르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7:19 | 20원음
박진옥(사회학과)

#15일차 #마침표

무엇을 끝맺을 때에 마침표를 쓴다.

우리 모두에게 마침표같은 사람이 있다.
내 자신이 될 수도, 애인이 될 수도,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마침표가 마침내 잘 찍힐 수 있기를,

너의 마침표가 내가 되길,
우리의 이야기를 잘 마치게 해주세요.



11



1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끝을 어떻게 내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주동안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너의 마침표가 내가 되길'이라는 문장이 인상 깊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잘 마치게 해주시길 빌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우리 각각의 이야기들은 잘 마쳐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최근에 이별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린 어쩌면 시작보다는 이별을 더 잘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보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의 이야기를 잘 마치게 해달라는 마음에 동감하고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이야기를 잘 마치게 해주는 마침표가 되길 바라며, 진옥님의 이야기에 공감해요. 진옥님의 마침표가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바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에게 마침표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마침표만 찍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찍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3주 동안 라이팅 챌린지 완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옥님 챌린지는 마침표이나 앞으로 새롭게 시작 될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잘 마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진옥님이 3주라는 시간동안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이미 충분히 마침표를 잘 찍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진옥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ㅎㅎ 저는 마침표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마침표를 잘 찍으신
지수님 앞에 펼쳐진 새로운 시작이 찬란하게
빛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내가
되고 싶다는 것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마지막이 저이길
바랄것 같아요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글
잘읽었습니다당
최현영(법학과)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기를,, 저도
끝맺음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모든
마침표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박진욱님
3주동안 라이팅 챌린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8:12 | 24원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15일차 #마침표

1일차 글쓰기 키워드인 ‘최초’에 대해서 쓴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다.
9일차 글쓰기를 실수로 못 올려서 완주
인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려서
이번 라이팅 챌린지의 마침표를 함께
하려한다. 라이팅 챌린지를 하며 다양한
학우들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읽고 공유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다.
항상 첫걸음이 어려운 법, 3일차 때 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밴드에 나의 글을
쓴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 되었었는데, 점차
편해지고 오히려 나의 생각을 더욱 진실되게
적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른 학우들의 글을 보며 많은 점을 배우기도

하였다. 즉, 얻는것이 수없이 많았던 챌린지
였다. 완주는 못했지만 댓글로 감사 공감했던
학우분들, 글쓰기의 배움등등 나 자신에
있어서 얻는게 더 많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 라이팅 챌린지도 다시한번
참여하여 꼭 완주를 하고 싶다.

😊 13 💬 20

김시현(러시아학과)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쓴이님의 챌린지 완주를 응원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시현(러시아학과)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중간에 하루를 미쳐 신경쓰지
못했음에도 계속해서 달려온 동금님이야 말로
진정한 라이팅 프로젝트의 참된 챌린저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완주가 아닌지...! 3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주재형(청각학과) 말을
어쩔 그리 예쁘게 해주시나요 ㅠㅠ 재형님도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3주간의 기간
동안 저도 학우님의 글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열정을 갖고 임하시는 모습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은 경험들을
발판삼아 원하시는 것들을 꼭 이뤄가시리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용후(법학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김노연(사회학과)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밴드에 내 글을 적는 게 부담되었지만 점차 진솔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익명성을 보장 받지
못한 상태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죠.
저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노연(사회학과)
그초그초 ㅠㅠ 노연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3주라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거 같아서 아쉽네요 동금님의 글을 그동안
잘 읽었습니다:) 하루 놓치긴 했어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오신 동금님은 완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챌린지를 통해서
얻은게 정말 많은거 같아요 시작할 때는 걱정이

앞섰다면 마침표를 찍을 때는 동금님 말처럼
편안하게 진실되게 마무리 하는거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 라이팅 챌린지에서는 꼭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한나(경영학과)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되고 진지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ㅎㅎ 한나님도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누군가에게 생각을
드러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써가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기도
하고,, 물론 글쓰기 실력이 늘진 않았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같이하는 경험이 무척이나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에
진짜 다른 분 말대로.. 진정한 완주가 아닐까
싶어요. 챌린지가 잘 마무리 되어서 다행이에요 :)
동금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해요 ㅠㅠ 수민님도
3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신거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심지범 (경영학과)
감사해요 ㅠ 3주동안 지범님 글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걱정 가득한 마음을 가진게 엇그제같은데 벌써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니... 시간이 너무 빠르면서도
저도 모르게 동금님과 다른 분들과 친밀감이 생겨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ㅎㅎ 이번 챌린지를 통해
모두가 성장했을 것이라 믿어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되지만 앞으로 펼쳐질
동금님의인생이 아름답게 빛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세상에... 눈물 내려 하네요...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ㅠㅠ 하영님도
3주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시작이 어렵지 그 이후는
생각보다 괜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서원준 (중국학과) 그공안 수고많으셨어요
좋은글 마무리까지 잘보고 갑니당

최현영(법학과) 저도 처음이 어려웠지 그 후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커졌던 것 같아요!! 3주동안
라이팅 챌린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진실된 글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3주동안 애쓰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9:15 | 16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15일차 #마침표

나는 글을 쓸 때도, 무언가 일을 할 때에도
마침표를 찍는 것을 좋아한다.

글을 쓸 때에는 ‘마침표’가 주는
여운과 단호함을 좋아하고
일을 할 때에는 ‘마침표’가 주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좋아한다.

마침표라는 건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
같다.

점 하나의 기호에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여운을 느끼고
단호함을 느끼고

시원섭섭함을 느끼고
다시 시작할 거라는 희망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울컥함을 느낀다.

점 하나의 기호에 참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모두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댓글로 좋은 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이제 좀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3주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느끼네요.
뜻깊은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다음에 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반가울 거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 11 💬 8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많은 감정들을 선사하죠!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이번 라이팅 챌린지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내적 성장을 경험한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글을 쓰는 모두의 노력과 훌륭한 글들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신유정 (심리학과) 3주 동안의 라이팅챌린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려니까 시원섭섭하네요. 남은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기말고사 대박나세요. 화이팅!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처음에 이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벌써 그 걱정은 옛그제 일이 되었고 마침표를 찍게 되었네요. 예진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챌린지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 펼쳐질 예진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는 마침표에 시원섭섭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대부분 느꼈던거 같은데 예진님의 글을 읽고 마침표에 대한 성취감 뿌듯함 여운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의미들도 많았네요:) 예진님도 3주동안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시간이 빨리 간거 같아요 ㅎㅎ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면 좋겠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마침표는 여운을 주기도 하고 단호함을 주기도 하죠 많은 감정을 담은 기호인 것 같습니다 3주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뵈요 잘 봤습니당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음 학기에 또 다시 뵈었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3주동안 애쓰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9:39 | 19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15일차 #마침표

서글프지 않다
아쉽지 않다
할 만큼 했다

이젠, 모든 걸 뒤로하고
충분히 즐긴 뒤
새롭게 시작하자

마치 소설의 첫 문장처럼 멋있게
그리고 마지막 문장처럼 후일이 기대되게

그렇게 숨 쉬는 동안 수많은 시작점과
마침표를 찍어보자

*지난 3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멋있고 유익한
글들을 볼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시험 잘 끝내셔서
행복한 종강 맞으시길 바라요

😊 12 💬 7

주재형(청각학과)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민지님도 기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 다가오는 시험 잘
치루시길 바라며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챌린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 데 벌써마침표를 찍게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이 챌린지를
통해서 민지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며 제 인생이 한층 더 성장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우리는 여기서 인연의 끝을 맞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민지님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3주 동안 수고
많았어요 ㅎㅎ



김한나(경영학과) 민지님도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작점들과 마침표를 열심히 찍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충분히 즐긴 뒤라는 문장이 인상
깊네요! 제 삶을 충분히 즐겨야겠습니다 3주동안
챌린지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주동안
민지님의 글들 잘 읽었어요:) 시험 잘 보시고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이유림(경영학과) 1학기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3주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까지 감동적인 글
감사합니당 잘보고 갑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늦었지만 3주동안
애쓰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10:11 | 16원음
고다인(법학)

#15일차#마침표

나는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에 마침표를 찍을수
있게 되었다. 첫날 최초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는 업로드하는 순간까지 꽤 고민했다. 내
글이 별로이면 어쩌나하는 우려를 했었지만
점점 다양한 키워드를 받고, 글을 쓰고, 또
많은 학우들의 댓글도 받으며 뿌듯함이
커져갔다. 아침에 올라온 새로운 키워드를
받고선 키워드에 관련된 나의 추억과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내려 노력했다. 라이팅
챌린지가 나를 압박하기 보다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추억까지도 꺼내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게다가 하나의 키워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구나하며 감탄했던 순간도
여러번 있었다. 창의력이 부족해 소설을
써보거나 하지는 않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글을 주로 썼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구 하나 나를 점수 매기며
평가하지 않았던 챌린지기에 더 흥미로웠다.
나의 1차 라이팅 챌린지에는 마침표를
찍지만 또 다른 2차 라이팅 챌린지를
기대하고있다.

3주간 열심히 같이 달리신 라이팅
챌린저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11 💬 11

주재형(정각학과)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극복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받은 키워드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걱정이 있었지만, 점차 다양한 키워드를 받고 글을 쓰고 댓글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챌린지의 가장 큰 성취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3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안타까웠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압박감이 없어진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이번 챌린지가 처음엔 압박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좋은 계기였다는게 크게 공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글을 썼다는 거에 큰 의미가 담겨있죠:) 3주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다인님 처럼 글쓰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소감을 나눔으로써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다인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 봄으로써 그 가치에 대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비록 우리는 여기서 인연을 마치지만 앞으로 펼쳐질 다인님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빛나길 응원할게요!! 3주 동안 수고 많았어요 ㅎㅎ



김한나(경영학과)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니 좋은 소식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키워드 부터 확인하는 3주를 보내면서 많은 챌린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ㅎㅎ 다인님 말처럼 라이팅 챌린지가 많은 기억들을 되살려 준거 같아요! 챌린지를 한 것도 소중한 추억으로 마침표를 내리네요 3주동안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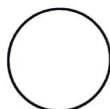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공감과 댓글이 챌린지를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에 공감해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마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진과 함께 생동감 있는 글을 올려주셨던게 기억에 나네요 학우님 글 읽고서 저도 추억과 감상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 간의 꾸준함과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당 ~~~~!

신유정 (심리학과) 다인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머리속으로만 하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최현영(법학과) 맞아요!! 누군가를 점수 매기기 위한 챌린지가 아닌 격려하고 공감하는 챌린지여서 저 또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인님~~ 3주동안 라이팅 챌린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인님의 앞날에도 행복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라이팅챌린지를 통해 과거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ㅎㅎ 늦었지만 3주동안 애쓰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11:41 | 15읽음
최현영(법학과)

#15일차 #마침표

3주 동안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writing challenge 3주 프로젝트가 끝이 났다.

스마트폰만 붙들고 인스타그램 카톡에만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나는 어느 순간 긴 글을 읽는게 어려워졌고 독서를 멀리하며 살다보니깐 말을 하다가도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잦아졌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키워드를 받았을 때는, 글을 시작하는
것조차 막막해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내가 과연 3주동안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시작조차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내일은 어떤 키워드가
올라올까 기대되기 시작했다.

한 주 동안의 글쓰기 활동이 끝나고 올라오는
교수님의 격려가 내가 되게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어 내심 뿌듯했다.

덕분에 매주 글 쓰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말을 하다가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혔던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데 a4 1장도
겨우 채울까 말까 했던 내가!! 이제는 글
쓰는게 어렵지도 않고 흐름도 매끄러워졌다.
내게 이 챌린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내 글을 보며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었다는
글을 내가 또 언제 받아보겠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온 이들에게 정 아닌 정이 쌓여
내일부터 조용할 알림소리가 내심 서운할 것
같다. 말만으로도 누군가를 울리고 웃길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같은 키워드에도 각자만의 색깔로
재창조하는 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글과
함께 올려주는 사진들도 키워드를 멋진 시로
재해석한 분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Writing challenge는 마침표를 찍지만
제게도 그렇듯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11 💬 8

서원준 (중국학과)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이에요!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 그동안 진짜 글

잘읽었습니다! 항상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는
현영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학우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저도 쓴다는 것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쓰는데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학우님 글 보면서 저
자신의 추억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나날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현영님처럼 처음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휩싸여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벌써 마침표를 찍게 된
것에 많이 아쉽네요 ㅎㅎ 저는 현영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배움과 그 속에 담긴
가치 그리고 위로까지 받은 순간들이 있네요. 이
챌린지를 끝으로 우리의 만남도 더 이상 없겠지만
이제부터 펼쳐질 현영님의 새로운 시작이 인생을
빛내는 길이 될 수 있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좋은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죠.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어느새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고 남게 될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처음엔 참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나아졌기에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3주동안의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다행입니다
고생많으셨고 남은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김한나(경영학과) 3주동안 다른 SNS들 보다
밴드에 들어와서 글을 쓰고 댓글을 적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거 같아요! 그 시간들이 재미있었고
소중한 기억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현영님도 3주동안 라이팅 챌린지
완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이팅 챌린지가
 끝나고 밴드가 조용해지면 엄청 허전할거 같네요ㅜ

얼굴은 본적이 없지만 그동안 내적친밀감이 많이 쌓였던거 같아요! 이름도 익숙해지니까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네요 저도 현영님의 다가올 시작들을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얼굴 한 명 본 적이 없지만 다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행진한 모습이 나중에도 잊지 못 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3주동안 애쓰셨습니다



2023/05/26
friday, pm 11:58 | 13원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5일차 #마침표 #.

‘끝’, ‘마침표’. 마지막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참 단순하다.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어도 이 작은 점 하나면 끝이 나고, 힘든 순간들도 마무리가 된다.

이번 글쓰기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직하고, 글로 표현하면서 몰랐던 마음을 알아가는 점이 좋았다. 챌린지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글쓰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새로운 시작과 꼭 함께할 것이다.



10



8

심지범 (경영학과) 새로운 시작과 꼭 함께 하시길 바라며!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좋은 깨달음을 얻으셨길 바라요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선율님도,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했을 것이 분명하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새로운 깨달음과 추억이네요 잘보고 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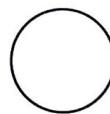
김한나(경영학과) 3주 동안 라이팅 챌린지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선율님의 글을 못 본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뿌듯한 마침인거 같아요!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과 경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선율님처럼 이번 챌린지가 정말 뜻 깊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치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위로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이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ㅎㅎ 챌린지는 끝났지만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선율님의 인생에는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간 우리의 관계는 어땠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작은 점 하나면 끝난다는 사실이 조금 허무하기도 하지만! 선율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2023/05/26
friday, pm 11:59 | 12원음
이민재 (경제학과)

#15일차

마침표를 찍을때면 슬프다. 학창 시절, 학년이 올라갈때마다 이제 그만큼의 행복을 못느낀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곤 했다. 그 생각도 잠시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언제나 슬픈 일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잊게 할만큼의 행복한 날들도 많았다. 마지막은 언제나 아팠지만 그것은 새로운 만남을 주었다. 이

글쓰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과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이토록 다양한 글을 많이 볼 수 있는 경험도 다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타인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진다.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길을 제시해준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글을 읽는 작업은 생각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던 나에게 긍정적인 글로 새 길을 열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주저리주리저리 쓴 글에도 정성을 담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정하고 싶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댓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노력 덕에 글쓰기 프로젝트가 한층 성숙해졌다. 비록 이 글쓰기는 여기서 문을 닫지만 우리는 새로운 문앞에 서있다. 지금까지의 글쓰기에 마침표를 찍고 새 글을 써나가면 된다. 비록 그 글들이 서투르고 불품없을지라도 3주동안 지지해주신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 볼 계획이다. 3주동안 감사했습니다.

😊 10 💬 8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다양한 생각이 있어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민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사람마다 생각 행동 가치관 등등이 다 다르죠! 그 점에 있어서 신기 한거 같아요!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그동안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이에요!!

이유림(경영학과) 돌이켜 보면 그때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텐데 미래의 내가 지금의 자신을 보고 좋을 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현재를 더 아끼기로 했습니다 3주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생각의 확장!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서 많이 확장 시키고 가는거 같아요 3주동안 챌린지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챌린지는 마침표지만 새로운 문 앞에 시작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했어요



주재형(청각학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의 민재님의 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민재님의 글은 전혀 불품없거나 서투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재님의 빠른 성장이 느껴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가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배우고 위로도 얻을 수 있었네요 ㅎㅎ 챌린지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될 민재님의 인생에는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인간관계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한 명이 떠나가면 다시 다른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더라구요. 3주동안 애쓰셨어요!

우리끼리, Band!



2023/05/26

friday, pm 11:59 | 23원음

주재형(청각학과)

#15일차 #마침표 #수고하셨습니다

5월 8일부터 시작된 라이팅 챌린지 프로젝트, 3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은 난생 처음인 것 같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별게 없었다. 내가 글을 못쓰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난 후에는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최초의 달착륙, 대나무 꽃, 달러구트
꿈백화점,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붉는 이유,
일송기념도서관, 마라톤, 인터랙티브 무비,
치킨게임, 눈꽃 바람이라는 시, 인생을
그린다는 것, 경포대 해수욕장, 안녕의 의미,
내가 해본 삽질의 경험, 탄생석까지. 내가
지금까지 써온 글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글을
써본 것 같다.

정보글도 써보고, 내 경험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에세이도 써봤다. 챌린저 분들의 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읽어보고 내 의견을
남기는 일은 정말 보람찬 일이었다. 60여명
이상의 챌린저 분들의 글들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것이 실감나게 느껴졌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존재하는 법.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키워드 '마침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을 나아가며 삶을 쓰고 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닫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곳을 표시하는 것만 같다. 마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순간들을
연결하는 고리처럼.

마침표는 문장의 끝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결심과 결정,

변화와 성장의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침표를 찍어야만 한다. 그 마침표는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음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뼈아픈 마무리와 이별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따른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알고 있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헤어지기도 하고,
이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나은
인연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마침표는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줄테니까.

그리고 가끔은 마침표가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다. 아름다운 순간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마침표 없이도 계속해서
흘러간다. 마치 끝이 없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줄 것이다.

이제, 라이팅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마침표는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작일 뿐이다.
용기를 내자.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End? And!

비록 챌린지는 END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앞길은 계속되는 AND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챌린저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11 💬 9

서원준 (중국학과) 아름다운 순간 정말 열정이
가득했던 저희 모습이 보이네요 ㅎㅎ 잘보고
감니당

이민재 (경제학과)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응원하겠습니다 ^^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 주재형님 항상 제가
댓글달때 보이시던 학우분이었죠! 글 잘읽고 가고
다음 학기에도 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림 (경영학과) 적으신 글들을 나열해주신
부분에서 다 기억이 나는 것이 신기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것도 잘 보았어요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김수민 (언어병리학과) 끝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도 성장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겠죠..! 아마 마침표를 찍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게 아닐 꺼 생각을 해요 열심히
답글도 달아주시고 글 쓰시느냐 3 주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써주신 글들을 읽고 덕분에
유익한 몰랐던 상식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깊네요ㅠ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마지막까지 인생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글을 작성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려요 ㅎㅎ 항상 재형님의 글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네요!!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ㅎㅎ 비록
챌린지와 함께 우리의 인연도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럼으로써 맞이할 재형님의 새로운 시작에는
지금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김한나(경영학과) 아름다운 순간들이 마침표
없이도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문장이
감동적이네요 3주동안 챌린지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챌린저분들 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로운 챕터를 향해
용기를 내서 나아가겠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지막 글이네요!
늘 정성스러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다음 학기에 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http://band.bollogbook.com>

내 밴드의 게시판과 사진첩의 글과 사진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더보기 메뉴 > 밴드북 만들기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